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외국어(영어), 재량 활동,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교 육 과 학 기 술 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목 차

- 외국어(영어) -

| | |
|------------------------------------|----|
| I.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3 |
| II.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 5 |
| 1. 교수요목의 시기(1946~1954) | 5 |
| 2.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 6 |
| 3.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 6 |
| 4.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1) | 6 |
| 5.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1987) | 7 |
| 6.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 8 |
| 7.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 8 |
| 8.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 | 9 |
| 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2007~) | 9 |
| III.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11 |
| 1. 성 격 | 11 |
| 2. 목 표 | 11 |
| 3. 내 용 | 12 |
| 4. 교수·학습 방법 | 17 |
| 5. 평 가 | 17 |
| IV. 영어과 교육과정 해설 | 18 |
| 1. 성 격 | 18 |
| 2. 목 표 | 19 |
| 3. 내 용 | 22 |
| 4. 교수·학습 방법 | 64 |
| 5. 평 가 | 76 |

| | |
|--------------------------|----|
| V. 영어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 85 |
| 참고 문헌 | 88 |

- 재량 활동 -

| | |
|-------------------------------|-----|
| I. 재량 활동 개정의 배경 | 97 |
| II. 재량 활동의 의의와 내용 | 99 |
| 1. 재량 활동의 의의 | 99 |
| 2. 재량 활동의 내용 | 100 |
| III.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 102 |
| 1.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지침 | 102 |
| 2.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 104 |
| IV.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방안 예시 | 119 |
| 1. 교과 재량 활동 | 120 |
| 2. 창의적 재량 활동 | 127 |
| 3.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사례 | 133 |
| V. 재량 활동의 평가 | 140 |
| 1. 재량 활동 평가의 기본 방향 | 140 |
| 2. 학생 평가 | 141 |
| 3.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 | 143 |
| 참고 문헌 | 147 |

- 안 문 -

| | |
|------------------------------|-----|
| I. 한문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151 |
| II. 한문 과목 교육과정의 변천 | 152 |
| 1. 체 제 | 152 |
| 2. 목 표 | 152 |
| 3. 내용 및 내용 체계 | 153 |
| 4. 제재 선정의 기준 | 153 |
| 5.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 154 |
| III. 한문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155 |
| IV. 한문 과목 교육과정 해설 | 157 |
| 1. 성 격 | 157 |
| 2. 목 표 | 160 |
| 3. 내 용 | 161 |
| 4. 교수·학습 방법 | 210 |
| 5. 평 가 | 215 |
| V. 한문 과목 신·구 교육과정 비교 | 222 |
| 참고 문헌 | 224 |

- 정 보 -

| | |
|----------------------------|-----|
| I. 정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227 |
| II. 정보 과목 교육과정의 변천 | 228 |
| 1. 제3차 교육과정 | 228 |
| 2. 제4차 교육과정 | 229 |

| | |
|-------------------------------------|------------|
| 3. 제5차 교육과정 | 230 |
| 4. 제6차 교육과정 | 231 |
| 5. 제7차 교육과정 | 232 |
| 6.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234 |
| III. 정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236 |
| IV. 정보 과목 교육과정 해설 | 238 |
| 1. 성 격 | 238 |
| 2. 목 표 | 239 |
| 3. 내 용 | 243 |
| 4. 교수·학습 방법 | 265 |
| 5. 평 가 | 271 |
| V. 정보 과목 신·구 교육과정 비교 | 273 |
| 참고 문헌 | 276 |
| <부록> 외국의 정보 교육 | 277 |

- 완 경 -

| | |
|--|------------|
| I. 환경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283 |
| 1. 환경 과목의 재 정의와 추구하는 인간상의 명료화 | 284 |
| 2. 최근 환경 교육의 변화 반영 | 284 |
| 3. 중·고등학교 간의 연계성 및 차별성 확보 | 285 |
| 4. 기존 교육과정에서의 쟁점 반영 | 286 |
| 5. 통합 교과로서의 환경 과목과 타 교과의 환경 교육 특징 보완 | 286 |
| II. 환경 과목 교육과정의 변천 | 287 |
| 1. 국제 수준에서의 환경 교육 발달 | 287 |
| 2. 우리나라에서의 환경 교육 발달 | 288 |

| | |
|-------------------------------------|-----|
| III. 환경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290 |
| 1. ‘환경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이해 보완 | 290 |
| 2.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 강화 | 290 |
| 3. 체험을 통한 환경 감수성의 함양 강조 | 291 |
| 4.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 보완 | 291 |
| 5. 학생들의 일상적 경험 세계와의 연계 강조 | 292 |
| 6. 환경 교육의 지역적 접근 방법 강화 | 292 |
| 7. 환경 과목의 실천 지향적 특성 강조 | 293 |
| IV. 환경 과목 교육과정 해설 | 294 |
| 1. 성 격 | 294 |
| 2. 목 표 | 296 |
| 3. 환경 과목의 내용 | 298 |
| 4. 교수·학습 방법 | 323 |
| 5. 평 가 | 330 |
| V. 환경 과목 신·구 교육과정 비교 | 333 |
| 참고 문헌 | 335 |

- 생활 외국어 -

| | |
|--|-----|
| I. 생활 외국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339 |
| II. 생활 외국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340 |
| 1.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 | 340 |
| 2. 문화 교육의 중시 | 340 |
| 3.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활동의 강조 | 341 |
| 4. 내용 선택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조 | 341 |
| III. 생활 외국어 과목의 성격과 특징 | 342 |

| | |
|--|------------|
| 1. 성격 설정의 기본 방향 | 342 |
| 2. 생활 외국어의 성격과 특징 | 342 |
| IV. 생활 외국어 과목의 목표 | 346 |
| 1. 언어 기능 | 346 |
| 2. 문 화 | 350 |
| 3. 태 도 | 351 |
| V. 생활 외국어 과목의 내용 | 353 |
| 1. 내용 체계 | 353 |
| 2. 교과별 내용 | 353 |
| VI. 생활 외국어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 427 |
| 1. 일반 지침 | 427 |
| 2. 언어 기능 | 429 |
| 3. 문 화 | 432 |
| VII. 생활 외국어 과목의 평가 | 433 |
| 1. 평가 지침 | 433 |
| 2. 평가 방법 | 434 |
| VIII. 생활 외국어 과목 신·구 교육과정 비교 | 437 |
| 참고 문헌 | 438 |

외국어(영어)

정 양 순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진 경 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 진 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 경 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 미 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문 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혜 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 기 화 (경 인 교 육 대 학 교)
이 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전 지 현 (이 화 여 자 대 학 교)
박 성 희 (오 금 고 등 학 교)

- I.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II.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 III.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IV. 영어과 교육과정 해설
- V. 영어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I.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시행 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어교육 이론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바람직한 영어과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에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이하부터는 ‘2006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으로 명시함)되었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에 적합한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 모색 및 학습 내용 적정화의 도모 등이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2006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및 중점으로는 첫째,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과 함께, 현장 적용에 무리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였다. 둘째, 교육 현장과 밀착된 수준별 수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차원에서 현장 적용이 어려웠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내용을 삭제하였다. 아울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도록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인 성취 기준에 있어서 심화과정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학생이 알아야 할 기본 학습 내용만 제시하였다. 또한 수준별 수업의 운영 지침으로서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운영 방법, 교재, 평가 등 중요한 요소를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시하였다. 셋째, 학습 요소 간 연계성 및 위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취 기준의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수준을 조정하고 네 기능 간의 연계와 학년 간의 연계성을 조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 이래 축적된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현장 적용 실태 분석 결과와 쟁점 사항에 대한 교육과정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에 있어서 영어 교육 관련 환경, 영어의 필요성,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언급하고, 수준별 학습에 관한 내용을 학교나 교실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진술하였다.

또한 중등 영어의 성취 기준을 학년 단위로 통합하고 그 위계를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취 기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화·기본과정으로 구분된 내용을 통합 조정하였다. 한편, 표현 기능(말하기, 쓰기) 성취 기준을 우리나라 영어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이해 기능(듣기, 읽기)보다 하향 조정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수준별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명료화하고 정보 통신 기술(ICT) 활용 방안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계획에서 활용까지를 ‘평가 지침’으로 제시하고 또한 평가를 통한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 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문화를 ‘소재’ 항목에 통합하여 교과서 집필 시, 문화가 포함된 소재를 참고하여 교과서 내용을 집필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소재’ 항목에 문화 관련 항목을 포함시켰다.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에서 담화 특성, 의사소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기능 분류를 조정하고, 누락된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예시문의 제시 방식을 보완하였다. 이원적 담화값(binary discourse values)을 고려하여 대화에서 인접쌍(adjacency pairs)이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어휘에서는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을 명료하게 개선하고, 기본 어휘 목록은 광범위한 자료를 참고하고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 어휘 선정의 타당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문서 체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각과 공통 체제였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소재’,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 ‘기본 어휘 관련 지침 및 어휘 목록’,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의 순서 배열과 선정에 대한 기준은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을 참조하였고,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영어과 교육 이론에 근거한 모형을 바탕으로 제7차 교육과정과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문서 체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단계’를 삭제하고 ‘학년’ 용어를 사용하였다(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둘째, 교육 목표 제시 방식을 변경하여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도착점 교육 목표만 제시하던 것을, 총괄 목표 아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목표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시하였다. 셋째, 교수·학습 방법에서 수준별 수업 항목을 신설하여 수준별 학급 편성 방법, 교재,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넷째, 평가 부분에서 ‘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되었던 항목을 ‘가. 평가 지침’과 ‘나.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II.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여 확정·고시한 의도적이고 문서화된 계획이다. 학생에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학생들에게 함양시키기 위해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 계획, 학습 지도, 평가 등에 대한 지침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다.

교육 목표 및 내용은 교육 철학, 국가·사회의 시대적 요구, 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 단계와 교과목의 학문적 특성에 기초하여 조직되며, 운영 계획, 학습 지도, 평가 등의 지침도 교과 특성에 맞는 교수법 이론의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영어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제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복합적 인간 중심 교육과정 등으로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영어과 교육과정은 내용 교과가 아닌 기능 교과로서의 특성도 크기 때문에 영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하는 언어 기능 배양이라는 인지적 목표와, 외국 문화 이해 증진을 통한 우리 스스로의 발전 도모라는 언어 외적 목표로서의 정의적 목표를 교과 목표로 설정한 것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영어과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영어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나 표현 상의 차이, 혹은 강조하는 바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교육과정기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요목의 시기(1946~1954)

광복을 맞아 중등 보통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통합된 교육과정이 미처 마련되지 못했으므로, 과도기적 임시방편으로 각 교과목별 분과주의에 입각한 교과 활동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영어과 교수요목은 I) 교수 요지, II) 교수 방침, III) 교수 사항, IV) 교수상 주의로 구성되며, 영어의 기초 능력 배양을 위한 최소한의 교과 내용과 지도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시간 배당은 주당 5시간씩 연간 약 30주로 계산하여 학년별로 약 150시간이며, 번역, 문법, 작문, 회화, 발음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국 음표 문자의 학습, 음독(chorus reading)의 권장과 한영사전을 사용할 것을 장려한 것 등이 특기할 사항이며, 발음 지도는 다니엘 존스(Daniel Jones)의 ‘발음 사전(The Pronouncing Dictionary)’을 표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교수 요목기의 영어과 학습 활동의 영향으로 축어적 번역에 의한 문법 수업의 전통이 생겨난 것으로 이해된다.

2.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1954.4.20.)이 공포되면서 교과 분과주의가 지양되고 통합 원리에 의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틀이 잡혔다. 이에 따라 생활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일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교과 활동의 목표와 내용이 세분화되었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수업 시수를 연 105~175시간으로 정하고, 교수 요목기의 불완전한 교과 내용과 지도 방법을 상세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교과 내용의 상세화 라기보다는 영어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장황한 진술에 그친 감이 있고, 잡다한 영어 교수법 이론의 개진으로 인하여 이론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상호 모순점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교과 목표를 교양 가치와 실용 가치의 동시 추구에 두고 있으면서도 (1) 영어와 국어의 상이점 이해, (2) 문물제도의 상이점 체득, (3) 인류 상호 존중 의식의 고취, (4) 기초 영어 이해력·발표력 신장으로 설정하여 언어 기능적 목표보다 정의적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한 듯한 진술 방법상의 미숙을 드러내고 있고, 의사소통 능력보다 영어에 관한 지식 습득이 되풀이되면서 강조되고 있다.

표준 영어로 미국 영어를 택한다고 최초로 언급한 것이 특기할 점이며, 어휘 통제를 시도하여 중학교 1학년 400 낱말 내외, 2학년 500 낱말 내외, 3학년 600 낱말 내외를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3.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4·19 혁명, 5·16 군사 정변이라는 시대적 격변기를 맞아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여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자주적이고 능률적인 새 인간상 정립을 위하여 합리적 사고가 강조되고 생산성, 유용성이 높이 평가되는 시기였다.

영어과 교육과정은 간결한 표현과 논리적 체계를 특징으로 하며 I) 목표, II) 지도 내용, III)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조직되었다. 목표는 2개 항의 기능적 목표와 1개 항의 정의적 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 내용은 1) 듣기와 말하기, 2) 읽기, 3) 쓰기의 형태를 갖추었다.

특히, 읽기에서 신어의 수를 1학년 300~400(350) 낱말, 2학년 350~450(400) 낱말, 3학년 400~600(500) 낱말, 계 1,050~1,450(1,250) 낱말로 정하고,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각 교과 목표의 종합적 달성에 역점을 두고 듣기와 말하기의 구두 훈련을 중시하였다.

4.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1)

교과의 핵심적인 지식 체계를 구조화하고 탐구 학습을 강조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인 제3차

교육과정기에서, 영어과 교육과정은 가) 교과 목표(일반 목표와 학년 목표로 구분), 나) 내용(언어 기능과 언어 재료로 구분), 다)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재료에 문형·문법 사항 란을 신설하여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룰 문형의 표시, 성분의 구조, 문장의 종류, 어형 변화 등 상세한 문법적 기술을 첨부하고, 학년별 사용 어휘 수는 1학년 300~350 낱말, 2학년 350~400 낱말, 3학년 400~450 낱말이며, 제시되는 단일 문장의 길이를 1학년 10 낱말, 2학년 15 낱말, 3학년 20 낱말 이내로 제한한 것이 특기할 일이다.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문법 설명 위주의 교수법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제시된 문형, 문법상의 제약 조건 때문에 학교 수업을 문법 설명 위주로 일관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5.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1987)

복합적인 인간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제화·개방화의 국정 지표에 맞추어 영어과 교육과정을 ‘살아 있는 생활 영어 구사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초 능력을 신장시키되, 대화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을 강조하였다.

주당 시간 배당은 중학교 1학년 4시간, 2, 3학년 3~5시간으로, 종래의 2, 3학년 2~5시간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였다. 교과 목표와 학년 목표에서는 종래의 언어 기능적 목표와 언어의 외적 목표를 그대로 수용하되 언어 기능 배양이라는 인지적 목표를 외국 문화 이해 증진이라는 정의적 목표보다 우위에 두었으며, 특히 대화 능력 배양을 중시하고 있다.

지도 어휘 목표량은 1학년 300 낱말 내외, 2학년 350 낱말 내외, 3학년 400 낱말 내외로 축소 조정하여 학습 부담을 가급적 경감하였으며, 학년별 문형·문법 사항을 학습 내용에서 분리하여 별표로 제시하고 필수 지도 조건에서 참고 사항으로 완화하여 문법 설명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대화 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종래의 영·미어의 구별, 문장 내의 사용 어휘 수 제한, 발음 기호 사용 등의 여러 가지 제약 요소를 제거하여 지도 교사의 창의성과 융통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살아 있는 생활 영어와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인쇄된 발음 기호를 통한 발음 지도보다 영·미인의 정확한 청각 자료에 의한 발음 지도를 강조하고,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익혀 발음할 수 있는 음철법(phonics)의 지도를 권장하고 있다.

교과 지도의 효과가 평가 방법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데에 유의하여 평가상의 유의점을 신설하여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고루 평가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6.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제5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1) 건강한 사람, (2) 자주적인 사람, (3) 창조적인 사람, (4) 도덕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영어 교과목의 목표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외국 문화를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에 두고 있다. 영어 교과목의 특징을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과 외국 문화를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두 가지 기능을 대등하게 두지 않고 전자를 후자에 종속되는 관계로 설정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체계는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및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당 시간 배당은 1학년 4시간, 2학년 3~5시간, 3학년 3~5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 내에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 어휘 목표량은 1학년 300 낱말 내외, 2학년 350 낱말 내외, 3학년 400 낱말 내외이며, 교수요목은 문법 중심 교수요목에 기초하고 있다.

각 학년별 내용은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분하였으며, 1학년에서는 구두 언어를 중시하고 차차 문자 언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7.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1) 건강한 사람, (2) 자주적인 사람, (3) 창의적인 사람, (4) 도덕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영어 교과목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과 외국 문화를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 교육과정의 체계는 성격,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로 되어 있으며, 제5차 교육과정과의 큰 차이점은 '성격'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주간 시간 배당은 각 학년 공히 4시간씩이며, 지도해야 할 기본 어휘 수는 1학년 300 낱말 내외, 2학년 350 낱말 내외, 3학년 400 낱말 내외로 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한 문장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은 한 문장에 10 낱말 이내, 2학년은 15 낱말 이내, 3학년은 20 낱말 이내로 정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법 중심 교수요목에서 탈피하여 개념·기능 교수요목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개념과 기능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언어 기능을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누지 않고 이해 기능(듣기, 읽기)과 표현 기능(말하기, 쓰기)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해 기능을 학습한 다음에 표현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가에서 평가 목표를 설정한 것이 제5차 교육과정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8.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영어교육,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영어교육, 활동과 과업 중심의 영어교육,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영어교육, 국가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영어교육이 특징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 초등학교 3학년~6학년까지 적용되며 같은 학년 학생들의 진로를 똑같이 유지하되, 학습 속도가 빠른 학생은 심화 학습을, 느린 학생은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며 각 단계의 말에 평가를 받아서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는 학생만 다음 단계로 진급하도록 한다.
-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 고등학교 2학년~3학년에 적용되며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의 수준과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또한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개념·기능 중심 교수요목과 문법 중심 교수요목을 적절히 절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스런 상황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소재를 다양화했다.

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2007~)¹⁾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전면 개정이 아닌 수시 개정으로 처음 제시되는 교육과정으로 지식 정보화, 다매체·다문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개인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도입 및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시행의 문제점 개선이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배경이다. 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구현을 위하여 현실 적합성을 제고한 수준별 수업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선택 과목 간 수준별 차별화로 학습자의 진로와 특성(능력, 적성, 소질)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 및 교육 내용 설계를 강조하였다. 둘째, 학습 내용의 연

1) 2007년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고시(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2007.2.28)되었으나,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은 2006년에 개정 고시(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호-75호, 2006.8.29)됨

계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 급 및 학년 간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선택 과목 간에 진로별 특성을 반영한 계열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및 ‘문화’ 관련 교육 내용을 구체화 및 강화하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관련 내용을 개선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자 언어 도입 시기를 초등 4학년에서 3학년 2학기로 조정하고 초등 문자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재조정하되 문자 언어 수준은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중등 영어의 경우 성취 기준을 학년 단위로 통합하고 그 내용의 위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성취 기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화·기본과정으로 구분된 내용을 통합하였으며, 표현 기능(말하기, 쓰기) 성취 기준을 우리나라 영어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해서는 수준별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명료화하고 활동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정보 통신 기술(ICT) 활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가에 있어서는 초·중등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 지침’과 더불어 초·중등학교급으로 구분된 ‘평가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Ⅲ.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1. 성격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임을 천명하고,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인으로서 질 높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교육부, 1997).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영어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영어를 국제어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영어교육의 목표도 원어민(native speaker)이 아니라 문화 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영어가 국제적인 의사소통으로 가장 유용한 언어이며 다양한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유대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학교에서의 영어 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대신 수준별 수업의 운영 원칙이 제시되었다. 즉,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되, 학교 사정을 감안하여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동일 학급 내에서의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수준별 학습 활동, 과정의 예시 등을 진술하였다.

2. 목표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해당 교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교과 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제시한 것으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발달의 여러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 총괄 목표는 교과 교육을 통하여 10단계를 이수하였을 때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최소 필수 수준의 성취 능력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영어과 목표가 학교 급별 구분이 아니라 총합적으로 10단계로 제시된 것과 관련하여, 초·중등학교 교사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괄 목표와 학교 급별 목표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즉, 교과 총괄 목표 아래 초등 목표와 중등 목표를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영어 교과 총괄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로 설정하였다. 그 하위 목표로 ‘평생학습자로서 영어에 대한 지

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얻는 바탕을 마련하고,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며,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를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영어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며, 중등학교 영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초·중등의 학교 급별로 하위 항목을 두어 초·중등 각각의 학교 급에서의 기준 설정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3. 내 용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 제시 지침을 준용하여 ‘내용’을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인 ‘학년별 성취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기사항 중 하나는 초등학교에서 문자 언어 도입 시기를 1학기 앞당긴 것이다.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음성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보다 1년 늦게 도입되었다.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 및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인 찬반 논의가 있어 왔다. 즉,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여건상 문자 언어의 강조로 인한 영어교육의 폐해를 방지했으며, 문자 언어를 강요하지 않고도 의사소통 위주의 영어교육 가능성을 실현했다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주장뿐 아니라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문자 언어의 부자연스러운 지연이 영어 학습의 효율성을 낮추기 때문에 문자 언어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그 반대의 주장도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다.

이처럼 문자 언어 도입과 관련한 많은 논란 속에서, 문자 언어가 조기 도입될 경우, 학생들의 영어 학습 부담과 음성 언어 교육의 상대적 위축, 영어 사교육의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결국에는 더 큰 비중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자 언어학습의 지연에 따른 영어 학습상의 비효율적 측면을 반영하되, 현실적인 측면, 즉,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영어 교과는 제7차와 동일한 수업 시수 체제로 운영됨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문자 언어 도입 시기와 최종 목표를 수정, 보완하였다. 즉, 문자 언어의 도입 시기를 4학년에서 한 학기 앞당겨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되, 다만 음성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소극적인 도입으로 한정하였다.

가. 소 재

제7차 교육과정에서 부각된 ‘문화’ 요소가 실제 교과서나 교수·학습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요소를 보다 강화하였다. 타 문화권 사람들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과 그에 관련된 생활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영어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시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문화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문화 교육과 언어 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소재 항목에 문화를 통합·제시함으로써 교과서를 집필할 때 각 단원의 언어활동에 자연스럽게 문화가 소재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서를 집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소재 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문화에 관련된 항목을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생활양식으로 분리하여 소재 항목에 포함시켰는데, 우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의 경우,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소재 항목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언어 재료 중 문화 항목으로 제시된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문화’는 너무나 광범위하여 실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된 생활양식과 언어문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범위를 좁혀 목적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화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문화와 영어교육이 분리되어서 마치 영어교육에 문화 요소가 부가적으로 얹혀 있는 것 같이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학습 목표가 교과서에 분명히 제시되도록 하고, 학습자의 연령에 맞는 문화적 내용과 학습 활동이 교과서 및 교수·학습 활동에 제시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방안이다.

셋째, 세계 각국과 교류가 많은 최근의 상황에 맞추어 영어권 문화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이 타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에 관한 내용을 영어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로 확대하였다. 즉,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문화적 차이에서 더 나아가 타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그 범위를 넓혀 수정하였다.

나.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의사소통 기능을 기반으로 구성하고, 문법 항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언어 형식을 병행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기능 분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분류와 예시문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

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의사소통 기능 분류로 유목화하기 어려운 기능을 같이 묶은 것,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에 필수적인 기능이 누락된 것 등이다.

또한 예시문의 제시 방법에서도 몇몇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예시문이 문장 형태로 제시되어 예시문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고, 둘째, 의사소통 기능별 예시문의 제시 방법에 있어서 담화 규칙이나 통사적 복잡도가 크게 고려되지 않았고, 셋째, 제시된 예시문이 어떤 근거에 의해 대표성을 갖는지 그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기능을 재분류하고,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제시 방식을 수정·보완하여 교과서 집필과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한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기능을 그 특성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분류 중, 교과서 분석이나 연구 결과에 의해 문제가 되었던 기능들을 재분류하고, 그 하위 기능을 의사소통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배치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등 학생의 의사소통 활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추가하였다.

둘째, 의사소통 예시문을 객관적인 언어 자료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다. 제6,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은 그 선정 근거가 모호하여 교과서 집필자나 현장 교사, 전문가 등이 특정 예시문이 혼동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예시문의 선정이 보다 객관적인 언어 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의 예시문을 BNC(British National Corpu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즉, 대상 예시문을 청소년 연령, 표준 구어·문어 등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활용 빈도가 높은 것을 위주로 수정하고, 잘못된 예시문은 삭제하였으며, 새로 추가된 의사소통 기능의 예시문은 같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셋째, 의사소통 예시문의 제시 방식을 수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이 기능에 따라 제시된 문장 수, 난이도, 담화 관계 등의 측면에서 일관성이 없었는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능별로 활용 빈도가 높은 예시문을 중심으로 제시하되, 각 기능별로 예시문의 수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예시문 중 일부를 비완성형으로 제시하여 교과서 집필과 활용에 융통성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시문의 제시 방법에 있어서, 담화 규칙을 적용하여 조응 관계에 있는 기능을 병렬 제시하였으며 예시문의 통사적 복잡도를 고려하였다.

다. 기본 어휘 관련 지침과 어휘 목록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휘 관련 지침 및 기본 어휘 목록에서 드러난 첫 번째 문제점은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기본 어휘 목록은 이전 교육과정을 근거로 다소 임의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기본 어휘 목록 또한 제6차 교육과

정에서 제시된 어휘 목록 중에서 충분한 연구 없이 단지 어휘 수를 줄여 재정리한 것이므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어휘 목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중등학교 어휘 목록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며 그 선정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년별 및 단계별 사용 어휘 수 제한과 관련해서도 일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분량이나 난이도 측면에서 불합리한 편차를 없애기 위해 학년별 및 단계별 사용 어휘 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특정 교과서가 담고 있는 어휘가 그 앞뒤 학년이나 단계를 위한 교과서나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분량이나 난이도 면에서 지나치게 편차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 수 통제로 교과서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어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기본 어휘 목록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어휘 목록 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휘 선정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어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 어휘 목록을 기본 어휘의 준거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어휘 선정에 사용된 자료는 ① Nation의 MFWL(Most Frequent Word List) 1과 2를 참고한 표제어(headword) ② Nation의 AWL(Academic Word List) 표제어(headword) ③ 어휘 자료 BE(Basic English)와 GSL(General Service List), ANC(American National Corpus), BNC(British National Corpus), BC(Brown Corpus)를 사용한 어휘 ④ 제7차 교육과정 어휘 목록 ⑤ 초등학교 권장 어휘 등이다.

둘째, 학교 급별로 학습할 어휘 수의 선정 기준을 명료화하고 어휘 수를 소폭 증가하였다. 어휘 수 통제로 인해 교과서 집필 및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급 별 어휘 수를 약간 늘렸으며, 학교 급 간 어휘 수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였다.

라.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은 교수·학습의 목표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어 교과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과 특성을 명시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영어과 성취 기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knowledge)과 기능(skills)을 담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문제점으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의 학생 수준에 비해 성취 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고, 성취 기준을 학년, 학기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학교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이며, 학교 급, 학년 간 성취 기준의 구분이 모호하고,

성취 기준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명료하지 못한 점 등이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다.

첫째, 성취 기준의 구체성, 명료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이 제6차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성취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제6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60 여개이던 성취 기준을 제7차에서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330 여개로 대폭 늘림으로써, 성취 기준의 상세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취 기준의 구체성과 명료성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성취 기준의 진술문에 사용된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점도 지적되었다. 이런 점을 개선하여 수정,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성취 기준에 상황(situations)과 화제(topics)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 활동의 예’를 제시하여 성취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성취 기준 관련 표현을 전반적으로 가다듬어 구체성이 부족하고 명확하지 못한 성취 기준을 명료화하였다.

둘째, 성취 기준의 단계를 학교 실정에 맞추어 재설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등 영어의 성취 기준에 있어서 1개 학년을 1단계로 하고 다시 각 단계를 학기로 구분하여 2개의 하위 단계(a, b)로 설정하고, 기본과 심화 과정의 성취 기준을 분리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어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기별로 성취 기준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또 성취 기준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이원화한 결과 현장에서 혼동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별(a, b)로 구성된 성취 기준을 통합하여 중복되는 항목을 정리하고 간소화하여 위계를 재조정하였다. 또한 기본, 심화 등으로 이원화된 성취 기준 중, 심화 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기본 과정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성취 기준의 언어 기능 간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기 때문에 영어 학습 상황에서 표현 기능의 수준이 이해 기능의 수준 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형편이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제된 교실환경에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영어를 교실 밖에서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고, 진정성 있는 영어를 사용(authentic language use)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등학교에서 듣기와 말하기의 표현 기능 성취 기준을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 맞도록 이해 기능 관련 성취 기준(듣기, 읽기)보다 그 수준을 다소 낮게 조정하였다. 또한,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 성취 기준의 종적, 횡적 위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학년별, 기능별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4.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첫째, 단계형 및 심화·보충형 수준별 체제가 학교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둘째, 교수·학습 활동으로 제시된 내용이 개괄적 안내에 불과하여 현장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되지 못했으며, 셋째, 교사를 위한 교수 지원이 부족하며, 또한 정보 통신 기술(ICT) 활용 교육에 대한 안내 부족 등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상세 해설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5. 평 가

제7차 교육과정의 ‘평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평가의 기본 방향이나 방법 등이 모호해서, 현장의 교사나 교과서 집필자, 평가 관련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즉, 전반적인 평가의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 평가의 시행 등과 같은 측면에서 유용한 안내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 기간 동안, 수행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학교 현장에서도 평가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수행 평가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매우 적었다. 특히 영어 과목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수행 능력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관련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 교사들이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채점 등 운영 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수정되었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의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의한 평가 방법의 구분을 없애고, ‘평가 지침’과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 지침’에는 평가의 기본 방향과 평가 내용,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평가 관련자나 영어 교과 담당자들이 초·중·고등학교 영어 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을 숙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의 목적에 따른 평가 유형, 평가 계획 및 활용 등과 같은 ‘평가 지침’을 제시하고, 더불어 ‘평가상의 유의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급으로 분리하여, 학교 급에 맞는 평가 방법과 이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 관련 서술들을 교육과 평가의 관계 및 본질에 비추어,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였다.

IV. 영어과 교육과정 해설

1. 성 격

영어는 이제 영어권만의 언어가 아니라 지구어(global language)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탈 국가적, 탈 민족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영어교육 정책 방향이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이 되도록 할 것인지, 또는 세계어로서의 영어교육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목표 언어가 국제어·지구어라고 할 경우 영어는 국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영어를 지칭할 것이다. 여기서의 영어교육 목표는 원어민(native speaker)의 수준이 아니라 문화 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의 수준이다. 다문화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원어민의 개념이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지구상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80%는 영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자신의 모국어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의 영어교육 목표는 단순히 타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수용하여 각 문화의 이면에 있는 공통적인 인간성을 발견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문화 간 화자’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 언어로서 ‘영어’를 세계어로서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영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2006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를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영어라고 명확하게 정의할 경우 교과서 집필 및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정의하기 보다는 문화를 다룰 때 영미 문화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를 골고루 다룬다는 점을 첨가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모색하였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성격’ 부분에 ‘영어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임을 명시하고,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인으로서 질 높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좀 더 상술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가 간에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빈번하고 지식과 자본의 이동도 나날이 증가하여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 가는 추세에 따라 국제적인 협력과 경쟁도 더욱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의 이해 뿐 아니라 이들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영어 사용 환경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영어는 국제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가장 유용한 언어이고, 특히 다양한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 유대를 맺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어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나라의 초·중등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 것이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개인의 생활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유대, 국제 간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학교 영어교육의 성격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하여, 학생들이 일상 영어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국제 사회와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며, 나아가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켜 국력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적 바탕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학교의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영어 학습을 통해 형성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키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유창성과 정확성이 신장되도록 학습 경험과 활동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업 지도에 있어서는 언어 습득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 중심의 영어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영어 교과에 있어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 외에 영어 교과를 통해서 인성 교육에도 힘쓰고, 더 나아가서 세계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세계인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영어교육을 통해 외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목적도 있지만,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수업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에서 외국 문화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수업 중에도 외국 문화에 대한 학습을 의사소통 활동과 동일한 차원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아름다운 심성을 길러 주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학습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중학교 영어’의 성격은 장차 영어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생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2. 목 표

2006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아 해당 교과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발달은 제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도록 한다.
- 교과 목표는 하나의 총괄적 목표와 구체적 하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교과 총괄 목표는 해당 교과 교육을 통하여 10학년에서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최소 필수 수

준의 성취 능력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학교 급, 학년, 내용 영역 등에 따라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해당 교과와 특성에 알맞게 진술하도록 한다.
- 다양한 범위의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이 학습 후 드러내 보여야 할 성취 능력 중심으로 교과 목표를 진술한다.

개정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총괄 목표 아래 초등 목표와 중등 목표를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교과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가. 평생 학습자로서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얻는 바탕을 마련한다.

나.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다.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총괄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이라 함은 구두 의사소통 능력과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통틀어서 말한다. 보통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구두 의사소통 능력으로 제한하여 생각하기 쉬우나 글을 읽고 정보를 입수하고 글을 통해 정보를 전하는 것도 의사소통 능력이다. 의사소통 능력 배양 외에 또 하나의 목표는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여 이를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등학교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로 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가 너무 높다는 현장 교사들과 학계의 지적을 고려하여 설정한 중등학교 영어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중등학교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다.

나.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다. 영어로 된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다.

라. 영어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영어로 소개한다.

학년별로 성취해야 구체적인 목표는 목표에서 진술하지 않고 ‘내용’ 속에 ‘성취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목표 체계는 총괄 목표 → 구체적인 목표 → 학년별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설정된 총괄 목표, 중학교의 목표, 하위 목표들 간에는 연계성이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하위 목표는 총괄 목표와 종적 연계성을 이루고 있고, 아울러 하위 목표들 간에도 횡적 연계성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는 하위 목표와 ‘영어로 된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다.’는 하위 목표 간에 관련성이 유지되고 있다.

Richards(1989)는 목표 외국어가 사회에서 어떤 비중, 어떤 위치로 교수되느냐 하는 결정은 언어 정책의 문제이며, 그러한 정책들이 대상 외국어의 목적을 결정짓는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영어교육의 목적은 첫째, 외국 문화의 수용, 둘째, 고등 교육의 바탕, 셋째, 과학적·기술적 향상, 넷째, 국제 상업, 무역, 의사소통으로 종합된다.

중학교 영어의 목표들은 외국어 교육의 목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로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인데, 이 목표들은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의 내용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외국어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나 중국의 경우에도 영어의 기본 구사 능력 내지 기본 구사에 필요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²⁾ 우리나라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 영어를 배우므로, 다언어 공동체인 미국의 상황과는 언어 환경이 다르지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게 한다는 실용적 목적과, 언어 교육을 통한 문화 교육으로 개인적 소양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다는 교양적 목적은 미국의 경우와 그 목적에 있어서 다를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목적을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라는 두 개의 큰 틀로 설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 큰 틀은 제6차 교육과정 이래 개정되어 온 우리나라 영어교육과정의 일관된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2) 일본 문부 과학성이 2002년 7월 2일에 발표한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일본인”을 위한 전략 구상(Developing a strategic plan to cultivate “Japanese with English abilities”)에서 중학교 졸업 단계에서는 인사와 응답 정도의 평이한 회화(같은 정도의 읽기, 쓰기 능력)를 갖추는 것(영점3급 정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 언어 기본 지식, 기본 기능 영어 구사 기초 능력 2) 지적 능력 개발 3) 문화 차이 이해 4) 건전한 인격 형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영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매개로 하여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문화에 편중되지 않은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내 용

가. 내용 체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언어 기능, 의사소통 활동, 언어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 기능에서는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의 분류 및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의사소통 활동은 음성 언어 활동과 문자 언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재료는 소재,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로 구성되어 있다.

(1) 언어 기능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네 기능을 점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네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언어 기능 \ 언어 구분 | 음성 언어 | 문자 언어 |
|---------------|-------|-------|
| 이해 기능 | 듣 기 | 읽 기 |
| 표현 기능 | 말하기 | 쓰 기 |

개정 교육과정의 언어 기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구분은 네 기능이 서로 배타적인 영역임을 나타내거나 학습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언어 기능 분류에 따른 것으로 편의상 구분되어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기능간의 관계는 매개(medium) 언어에 따라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또는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네 기능은 서로 연관이 있으며 한 기능의 향상은 나머지 세 기능의 촉진을 의미하고 한 기능은 다른 기능으로 전이된다.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간의 구분을 나타내는 점선은 이와 같은 기능 간의 상호 연관성을 나타내며 또한 기능 간의 통합적 교수·학습 및 사용을 의미한다.

(2) 의사소통 활동

- 의사소통 활동은 음성 언어 활동과 문자 언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의사소통 활동 | 내 용 |
|----------|---|
| 음성 언어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언어활동을 위해서는 [별표 2]의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에 제시된 항목 참고 •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중 학년별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 |
| 문자 언어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 언어활동을 위해서는 [별표 2]에 제시된 항목과 함께 [별표 4]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에 제시된 항목 참고 |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활동은 듣기와 말하기를 포함하는 음성 언어 활동과 읽기와 쓰기를 포함하는 문자 언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적 지식, 기계적 연습, 암기를 통해 길러지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활동 즉, 주어진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길러진다. 주어진 상황에서 학습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표현은 주어진 상황에서 각각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어가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 적절한 표현이 제시되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의 [별표 2]에는 음성 및 문자 언어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기능과 그 기능을 위한 예시문이 제시되어 있다. 의사소통 기능은 크게 친교 활동, 사실적 정보 교환, 지적 태도 표현, 감정 표현, 도덕적인 태도 표현, 지시와 권고, 상상하기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시는 개정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영어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의사소통 기능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표현은 별도로 표시하여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나 이를 중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좀 더 진정성이 있는 표현을 제시하고자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표현 예시문을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과 함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활동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별표 4]에 제시하고 있다. 의사소통 활동이란 음성 및 문자 언어 활동을 포함하므로 [별표 4]에 제시된 언어 형식은 읽거나 쓰기와 같은 문자 언어 활동뿐만 아니라 듣거나 말하기 같은 음성 언어 활동에도 모두 활용될 수 있다. 이 때, 제시된 언어 형식이 모든 표현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언어 형식 이외의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형식은 문법 용어를 쓰는 대신 초점이 부각되도록 문장 내 굵은 글자체로 표기되어 제시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제, 부정문, 의문문, 조동사 등 총 36개의 언어 형식 항목이 제시된다. 제시된 문장은 각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예시문이므로 문맥에 따라 다양한 문장이 구성될 수 있다.

(3) 언어 재료

- 자연스러운 언어 활동을 위하여 아래의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를 참고한다.

| 영역 | 내용 |
|-----------|---|
| 소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의 ‘소재’를 참조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 • 학생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주제, 상황, 과업 등을 고려한 내용 • 성취 기준 달성에 적합한 내용 • 상호 작용에 적합한 내용 • 영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 |
| 언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에서는 음성 언어 중심으로 하고,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 •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과 실제적인 의사소통 활동에 도움이 되는 언어 •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언어 • 인지적인 수준을 고려한 언어 • 소리와 문자의 관계, 소리와 의미의 식별, 말의 연결, 말의 속도에 따른 음운 변화, 상황에 따른 음운 변화 및 자연스러운 발화 등에 도움이 되는 언어 |
| 어휘 | <p>각 학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는 다음과 같다.</p> <p>3학년: 110낱말 이내 4학년: 120낱말 이내 5학년: 130낱말 이내 6학년: 140낱말 이내 (누계: 500낱말 이내) 7학년: 170낱말 이내 8학년: 280낱말 이내 9학년: 390낱말 이내 10학년: 450낱말 이내 (누계: 1,290낱말 이내) (총계: 1,790낱말 이내)</p> |
| 단일 문장의 길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4학년: 7낱말 이내 • 5, 6학년: 9낱말 이내 <p>(단, and, but, 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

(가) 소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 학생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의사소통 능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내용, 상호 작용에 적합한 내용,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을 [별표 1]에 제시하여 소재 선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소재의 경우 학년별 소재 선정 방향이 별도로 제시되지는 않으며 교재에 사용되는 소재는 [별표 1]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요소를 소재에 통합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언어 활동에 문화 요소가 좀 더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과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문화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문화에 관한 내용을 영어권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로 확대하도록 한다. 즉, 영어를 국제어로서 또는 글로벌 언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or Global Language)로 설정하여 상호 문화 간 이해와 의사소통을 강조하도록 권장한다. 이와 같이 다양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소재와 연결하여 학습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언어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학교 언어 사용의 방향을 보면 학습자의 자연스런 영어 습득을 돕기 위해서 의사소통 활동에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진정성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의사소통 목적과 진정성 이외에 학습자의 수준이 고려된 언어를 제시해야 한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배타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학습자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어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를 제한하고 있으며 각 학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와 학교 급별 누계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 낱말 이내’는 각 학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를 의미한다. ‘~ 낱말 이내’이므로 제시된 숫자는 최대치로 사용할 가능한 어휘 수이다. 7~10학년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의 누계는 1,290낱말이며, 초등의 누계 500낱말과 합치면 총 1,790낱말이 된다. [별표 3]에서는 어휘 사용에 관한 지침과 기본 어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라) 단일 문장의 길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단일 문장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다. 3~4학년은 7낱말 이내, 5~6학년은 9낱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문장의 길이를 산정하는 데 있어, and, but, or와 같은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의 경우, 문장의 이해와 표현의 어려움이 낱말 수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외로 하고 있다.

(4) [별표] 설명

내용 체계와 관련하여 영어과 교육과정의 부록에 제시된 각 [별표]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별표 1] 소재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되,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탐구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다.

1. 개인생활에 관한 내용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8.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내용
9. 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0. 다양한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11.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2. 공중도덕, 예절,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13.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4.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5. 예술, 문학 등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근로, 진로 문제 등 개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7.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8.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19. 애국심, 통일 및 안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소재는 의사소통 기능, 언어 형식, 어휘 등과 연계되어 교재 집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재는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 학생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의사소통 능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내용, 상호 작용에 적합한 내용,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요소를 소재에 통합하여 제시하여 교재를 집필할 때 각 단원의 언어 활동에 자연스럽게 문화가 포함된 소재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 내용을 세분화하여 실제 영어 수업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영어권 국가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교류가 많은 최근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타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에 대한 내용을 영어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로 확대하였다. 즉, 다양한 여러 다른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그 범위를 넓혀 제시하였다.

(나) [별표 2]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³⁾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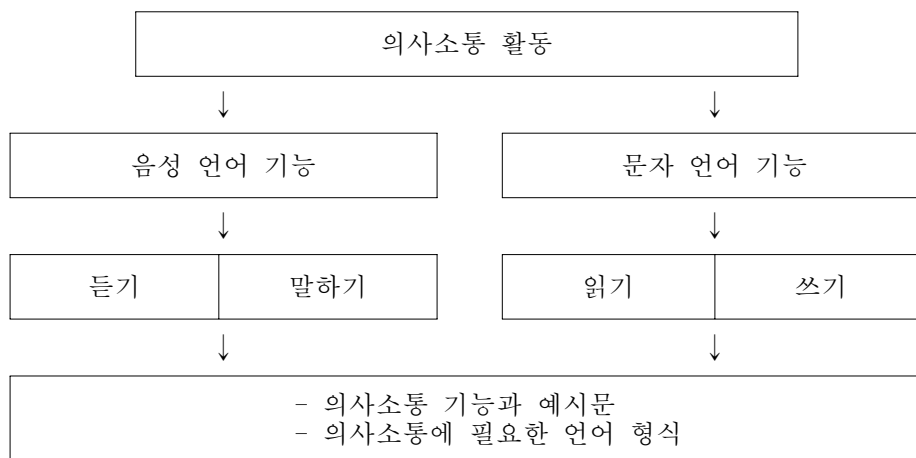
<표 IV-1>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의 개정 내용

1. 의사소통 기능 재분류 및 수정·보완
 -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을 성격을 고려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기능을 재배치하고, 하위 기능을 수정·보완하였다.
 - 의사소통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였다.
2. 의사소통 기능의 영역별 명칭 통일
 - 의사소통 기능 분류 중, 대·중·소 영역의 명칭을 통일하였다.
3.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수정·보완 및 제시 방식 수정
 - 의사소통 기능별 예시문을 BNC(British National Corpus)를 통해 분석하여, 활용 빈도에 의거하여 선정하여 예시문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 기능별로 특징적인 예시문을 중심으로 예시문의 수를 조정하였다.
 - 일부 예시문을 비완성형으로 제시, 교과서 집필과 활용에 융통성을 갖도록 하였다.
 - 예시문의 제시 방법에 있어서, 담화 규칙을 적용하여 조응 관계에 있는 기능을 병렬 제시하였다.
 - 예시문의 통사적 복잡도를 고려하였다.

3) '[별표 2]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목록은 동 해설서에서 생략

1) 의사소통 활동의 구성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활동을 듣기와 말하기를 포함하는 음성 언어 활동과 읽기와 쓰기를 포함하는 문자 언어 활동으로 구분하여 음성 언어 활동을 위해서는 [별표 2]에 수록된 ‘의사소통기능과 예시문’을 참고하고, 문자 언어 활동을 위해서는 [별표 2] 항목과 [별표 4]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류 방식이 가져오는 개념상의 혼동을 막기 위해 의사소통 내용 체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즉, 의사소통 활동의 분류 체계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언어 형식을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 공통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IV-1] 개정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활동의 구성

2) 의사소통 기능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의사소통 기능을 기반으로 구성하고, 문법 항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언어 형식을 병렬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분류와 예시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의사소통 활동에서 유목화하기 어려운 기능을 같이 묶거나,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에 필수적인 기능이 누락된 것 등이다. 또 예시문의 제시 방법에서 일부 오류가 드러났다. 첫째, 예시문이 문장 형태로 제시되어 그 의미를 제한하고 있으며 둘째, 기능별 예시문의 제시에 있어서 담화 규칙이나 통사적 복잡도가 크게 고려되지 않았고, 셋째, 제시된 예시문이 어떤 근거에 의해 대표성을 갖는지 그 선정 기준이 모호한 점 등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기능을 재분류하고,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의 제시 방식 및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교과서 집필과 교수·학습에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기능을 재분류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분류 중, 교과서 분석이나 연구 결과에 의해 문제가 된 기능을 재분류하고, 의사소통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위 기능을 수정, 추가, 재배치하였다. 또한 초·중등학생의 의사소통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였다.

둘째, 의사소통 예시문을 재선정하였다.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선정 근거가 모호하여 그동안 교과서 집필자나 현장 교사, 전문가 등에서 특정 예시문에 대한 혼동과 이견이 있어 왔다. 그 주된 이유는 예시문의 선정이 객관적인 언어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BNC(British National Corpu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제시된 예시문을 청소년 연령, 표준 구어·문어 등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활용 빈도가 높은 것을 위주로 재선정하는 한편, 사용 빈도가 낮거나 잘못된 예시문은 삭제했으며, 해당 기능을 익히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을 추가하였다.

셋째, 의사소통 예시문의 제시 방식을 수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이 기능에 따라 제시된 문장 수, 난이도, 담화 관계 등의 측면에서 일관성이 없었던 바, 개정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첫째, 기능별로 활용 빈도가 높은 예시문 위주로 제시하되, 예시문의 수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둘째, 일부 예시문을 비완성형으로 제시하여 교과서 집필과 활용에 융통성을 갖도록 하였다. 셋째, 예시문의 제시 방법에 있어서, 담화 규칙을 적용하여 조응 관계에 있는 기능을 병렬 제시하였다. 넷째, 예시문의 통사적 복잡도를 어느 정도 고려하였다.

이를 각 영역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영역의 조정

① 문제 해결 기능의 삭제, 상상적 기능의 추가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 해결 기능은 그 의미가 모호하며 하위 항목들 간의 연관성도 적다. 특히, 하위 항목으로 제시한 기능인 원인과 결과, 길 안내, 물건 사기, 음식 주문 등의 기능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situation specific), 구체적인 과제와 관련된(task specific) 기능으로서, 특정 과업이나 상황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다. 또 하위 기능으로 제시된 항목들은 문제 해결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이해 점검, 되묻기 기능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친교 활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전화하기/받기는 여러 기능이 복합된 기능으로서 특정한 의사소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능이다. 즉, 전화

하기 기능에는 인사, 감정 표현, 정보 묻기와 답변, 의견 말하기 등 다른 여러 기능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하위 기능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표 IV-2>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의 주요 개정 내용

- ‘되묻기’, ‘이해 점검’, ‘전화하기’ → ‘친교 활동’으로 이동
- ‘원인과 결과’ → ‘지적 태도 표현’으로 이동
- ‘물건 사기’ → ‘사실적 정보 교환’으로 이동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없었던 상상적 기능을 대영역으로 추가하였다. 이 기능은 특성상 다른 영역과 통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위 기능으로 ‘상상하여 이야기 꾸미기’ 및 ‘상상하여 말하기’를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중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능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저자, 교사 및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던 기능이다.

② 설득과 권고 → 지시와 권고로 교체

설득과 권고에 해당하는 기능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의도하여 그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유럽 평의회에서 초급 언어 능력으로 제시한 입문 수준(Threshold-level)에서는 그것의 하위 항목으로 제안, 요청, 권유, 충고, 경고 및 지시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제7차 교육과정에는 ‘설득과 권고’ 기능의 하위 영역으로 설득, 요청, 충고, 경고의 네 기능만 포함되어 있고, ‘지시/금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시/금지’ 항목은 의사소통 기능 특성상 ‘getting things done’의 성격으로서, 요구하기, 거부하기, 설득하기, 요청하기, 경고하기 등과 함께 분류되는 것이 기능 간 관련성도 더 크며, 이와 관련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분류와도 좀 더 유사성을 갖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이러한 분류 체제를 갖게 된 원인은 대영역의 명칭이 설득과 권고로 명명되어 있기 때문인데, ‘지시’ 기능은 설득과 권고의 하위 영역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첫째, ‘설득과 권고’ 항목의 대영역 명칭을 ‘지시와 권고’ 기능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하위 기능의 특성으로 볼 때 ‘지시 기능’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위 항목으로 제시된 것 외에 지적 태도 표현 기능에 속한 ‘지시, 금지’ 항목을 본 기능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③ 사실적 정보 교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실적 정보 교환의 하위 기능으로 제시된 ‘습관’, ‘경험’ 항목은 의사소통

기능 항목이라기보다는 소재 혹은 특정 상황과 관련된 기능이다. 따라서 습관, 경험 항목을 삭제하고 ‘보고하기(reporting)’ 기능을 첨가하여 이 두 내용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나) 대영역의 하위 기능 수정·보완

초·중등학생의 영어 학습 과정이나 의사소통 활동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중에 자신이나 상대방이 말한 표현이 맞는지 묻고 확인하거나, 의사소통 활동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기 등의 기능은 기초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기능이다. 따라서, ‘이해 점검하기’와 ‘되묻기’ 기능을 ‘친교 활동’ 기능에 첨가하였다.

3)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의 제시 방식

가) 의사소통 기능의 영역별 명칭 조정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별로 다르게 명명되어 있던 의사소통 기능의 명칭을 전체적으로 통일하였다. 즉, 제7차 교육과정에서 대영역은 ‘친교 활동’, ‘사실적 정보 활동’ 등으로, 중영역은 ‘인사’, ‘소개’로, 소영역은 ‘자기 소개하기’, ‘소개에 답하기’와 같이 명명되어 있던 것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영역과 소영역을 전체적으로 ‘~하기’로 통일하여 표시하였다.

나) 예시문 제시 방법의 변화

① 담화규칙을 고려한 예시문의 제시

첫째, 인접쌍(adjacency pairs) 및 담화 대응 규칙을 고려하였다. 인접쌍은 담화 분석에서 담화의 기본을 이루는 구조 단위로서 질문-대답, 인사-인사, 요구-수용 및 거절과 같이 상호 의무적으로 연결되어 의미상 한 쌍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화 구성의 기본을 이루며 외국어 학습자가 대화 조직의 유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제시 방식은 이원적 담화값(binary discourse values)을 고려하여 조응 관계에 있는 의사소통 기능을 병렬 제시함으로써 담화 양식을 학습하는데 유용하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원하기’, ‘허락하기’의 경우, 그에 대한 응답 기능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상대방이 기원했을 때, 적절한 표현으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영어 학습을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질문-대답, 인사-인사, 요구-수용/거절, 제의/초대-수용/거절과 같이 학생들이 대화 조직의 유형을 익히도록 하였다.

둘째, 의사소통 기능의 구분이 필요한 예시문은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대화의 시작과 끝은 다른 의사소통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능으로 처리하여 예시문으로 제시하였던 것을 새롭게 분리, 제시하였다.

셋째, 통사적 복잡도의 고려가 있었다. 통사적 복잡도는 글의 내용, 일관성, 어휘의 양과 더불어 언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문장 길이와 통사 유형이다. 이 중에서 문장의 이해에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휘와 문장 길이를 고려하여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정도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② 예시문의 제시 방식, 제시 량, 표시 방식

첫째, 예시문의 제시 방식에 있어서 의사소통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일부 문장만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 안에 예시 단어(구)를 제시하여 상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제시된 예시문 중, 대화 상황에서 담화 양식을 고려해야 할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는 관련된 표현과 함께 제시하되, 그 경계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사실적 정보 교환’ 기능에 해당하는 수정하기의 경우 그 예시문으로 ‘I’m afraid you are wrong.’으로 제시되었다. 이 경우에 ‘I’m afraid’는 대화상황에 적합한 표현 방법(화행)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런 부분을 ()로 표시하여 담화 양식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셋째, 기능별로 예시문의 수를 적절히 제공하였다. 제7차에서 의사소통 기능에 따라 유사한 예시문이 여러 개 제시되거나 예시문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던 것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정·보완하였다. 유사 예시문은 삭제하고, 예시문이 한 두개인 기능은 예시문을 추가하여 교과서 집필 및 지도 시 활용도를 높였다.

③ 기타 : 학교급 별 예시문의 수정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중 학교 급별 수준에 맞추어 재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Go straight.’ 기능은 ‘Turn right, Turn left.’ 기능과 함께 사용되어야 할 의사소통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급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다) [별표 3] 기본 어휘 관련 지침과 어휘 목록

1) 기본 어휘 관련 지침

[별표 3]에서는 새로운 어휘수 제한과 함께 어휘 사용에 관한 지침 및 학습하기를 권장하는 기본 어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별표 3]에 제시된 어휘 관련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각 학년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새로운 어휘 수는 다음과 같다.

3학년: 110 낱말 이내
 4학년: 120 낱말 이내
 5학년: 130 낱말 이내
 6학년: 140 낱말 이내
 (누계: 500 낱말 이내)
 7학년: 170 낱말 이내
 8학년: 280 낱말 이내
 9학년: 390 낱말 이내
 10학년: 450 낱말 이내
 (누계: 1,290 낱말 이내)
 (총계: 1,790 낱말 이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언어 학습을 위해 학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를 제한하고 있다. 각 학년 별로 ‘권장하는 새로운 어휘 수’는 각 학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를 의미한다. 즉, 이전 학년에서 사용한 어휘를 제외하고 새롭게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어휘 수를 의미한다. ‘~ 낱말 이내’이므로 제시된 숫자는 교과용 도서 집필의 경우 최대 사용 가능한 어휘 수이다. 3~6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낱말 수의 누계는 500 낱말 이내이다.

2. 3~6학년에서는 500 낱말 이내에서 학습할 것을 권장하며,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된 초등 권장 어휘 중에서 375 낱말 이상을 학습할 것을 권장한다. 7~10학년에서는 각 학년 별로 제시된 범위 내에서 학습할 것을 권장하며,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된 낱말 중에서 75% 이상을 학습할 것을 권장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생의 영어 습득 및 의사소통 활동을 돕기 위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며 영어 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초등학교 권장 어휘로 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본 어휘 목록에 ‘*’로 제시되는 어휘가 초등학교 권장 어휘이다. 초등 권장 어휘는 반드시 초등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재 집필시, 3~6학년의 경우 각 학년별로 제시된 낱말 수 이내에서 새로운 어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신출 낱말의 75% 이상을 기본 어휘 목록에서 사용해야 한다. 각 학년별로 권장된 새로운 어휘 수에서 기본 어휘 목록에서 사용해야 하는 낱말 수를 제외하면 목록 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낱말 수가 산정된다.

3. 기본 어휘 목록에는 대표형만 제시하고, 대표형은 다음과 같이 굴절어 및 파생어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빈도수가 높고 학습에 필요한 일부 파생어는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한다.

write(writes, wrote, written, writing)
 be(am, are, is, was, were, been, being)
 book(books), foot(feet)
 tall(taller, tallest)
 good(better, best)
 they(their, them, theirs, themselves)
 teach(teacher)
 soft(softly, softness)
 happy(unhappy)
 realize(realization)
 emotion(emotional)
 invest(investment)
 mental(mentality)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된 낱말의 대표형(headword)의 변이형(굴절어와 파생어 포함)은 다음 세 부 지침에 따라 신출 어휘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일부 변이형은 초등학교 현장의 요구와 학습의 중요도에 따라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되었다(예, interesting).

가) 동사 변이형

write(writes, wrote, written, writing)
 be(am, are, is, was, were, been, being)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된 동사의 대표형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s 또는 -es형태가 포함된다. 규칙과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포함되며 진행형과 분사 -ing형태도 포함된다.

나) 명사 복수 변이형

book(books), foot(feet), puppy(puppies)

명사의 규칙 복수형 및 불규칙 복수형은 기본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 형용사/부사 비교급과 최상급

tall(taller, tallest), good(better, best), little(less, least)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은 기본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 인칭대명사의 변이형

they(their, them, theirs, themselves), he(his, him, his, himself)

인칭대명사는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재귀대명사가 포함된다.

마) 행위자 변이형

teach(teacher), act(actor, actress), tour(tourist)

행위자를 나타내는 -er, -or(-ess), -ist가 포함된다.

바) 접두사/ 접미사 변이형

soft(softly, softness), fortunate(fortunately), kind(kindness)
 happy(unhappy), able(unable)
 realize(realization), congratulate(congratulation)
 emotion(emotional), environment(environmental)
 invest(investment), achieve(achievement)
 mental(mentality), equal(equality)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된 낱말에 접미사 -ly, -ness, -tion, -al, -ment, -ity와 접두사 un-형태가 포함된다.

4. 동일어의 의미 변화 및 문법 기능상 차이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낱말로 간주한다.

back [adv, n, v]
 bat [n, v]
 change [n, v]
 close [adj, adv, v]
 flat [adj, n]
 head [n, v]
 kind [adj, n]
 present [n, v]

두 어휘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문법 기능이나 의미가 다른 경우, 두 개의 낱말로 간주

하지 않고 한 개의 낱말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kind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 1) He was very kind.

예 2)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예 1)에서 kind는 형용사로서 ‘친절한’이란 의미로 사용되며, 예 2)에서 kind는 명사로서 ‘종류’란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경우, 한 낱말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인명, 지명, 국가명 등 고유 명사와 달과 요일, 기수, 서수, 단위, 로마자화 된 우리말 단어는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과 성(예, Tom, Su-mi, Mike, Smith, Lee, Kim 등), 장소(예, London, Seoul, Washington 등), 나라 명(예, Greece, Italy, Japan, Korea 등)과 같은 각종 고유명사와 12개의 월(예, January, March 등), 요일(예, Monday, Saturday 등), 기수와 서수(예, one-first, two-second 등), 단위(cent, dollar, centimeter-cm, kilogram-kg 등), 로마자로 제시된 우리말(예, Gimbap 등)이 사용된 경우 신출 어휘로 간주되지 않는다.

6.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아래의 낱말들은 외래어로서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다. 아래 낱말 외에 3~6학년과 7~10학년에서 각각 40 낱말 이내의 외래어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apartment, badminton, banana, bowling, bus, butter, cake, card, cheese, chocolate, coffee, coke, computer, cream, cup, film, fork, guitar, hamburger, hotel, ink, Internet, juice, lemon, marathon, orange, pen, pizza, plastic, program(BE programme), quiz, radio, robot, rocket, salad, sandwich, sausage, shirt, skate, spaghetti, tape, taxi, television/TV, tennis, tire(BE tyre), tomato, truck, video, violin, website (50개)

지침에서 제시된 50개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신출어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시된 50개의 외래어 외에 7~10학년에서 40개의 외래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다. 7~10학년에서 40 낱말 이내이므로 한 학년에서 10개 낱말 이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 국어 대사전(1999)’을 근거로 하여, <경>, <동> 등 전문 용어로 표시된 외래어를 제외한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다.

7.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한 어휘는 모두 2,315개이며, 어휘 앞에 ‘*’표시한 어휘는 736개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빈도, 분포 범위, 소재, 의사소통 기능, 언어 형식, 학습 중요도 및 교수·학습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학생들이 학습할 2,315개의 낱말을 선정하여 기본 어휘로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에서 학습하기를 권장하는 어휘 736개를 선정하여 초등 권장 어휘로 제시하고 있다.

8. 기본 어휘 목록에서 BE는 British English의 줄임말로 영국 영어를 의미한다.

같은 의미를 갖는 낱말 중에서 미국 영어(American English)와 영국 영어(British English) 간에 철자 차이가 있을 때 동일한 낱말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analyze-analyse, color-colour, center-centre, inquiry-enquiry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기본 어휘 목록

기본 어휘 목록은 동 해설서에서 생략하였으므로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I)을 참고하기 바란다.

(라) [별표 4]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⁴⁾

언어 형식은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에서 언어 형식의 필요성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 보완된 부분이다. 즉,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유창성을 강조한 이면에는 정확성에 대한 배려 또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교육의 목표로 유창성과 정확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 형식 양쪽을 모두 추구해야 하지만 과거의 영어교육에서처럼 언어 형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우려하여 ‘참고 자료’의 성격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권장되지는 않는다.

제7차 교육과정은 앞서 기술한 대로,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 형식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언어 형식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없던 부분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을 최초로 도입하였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 의사소통 중심의 문법을 귀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항목과 ‘현행(제6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문법과 난이도 구분의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므로 이론적으로 보다 합당한 의사소통 기능과 구조를 제시하면 문법 용어를 학생들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에 한정하여 영어 학습을 한 결과, 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채로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언어 형식은 이러한 배경 하에 탄생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EFL 환경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신설된

4) [별표 4]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 목록은 동 해설서에서 생략

부분이다. 즉, 충분한 언어 입력에 노출된 ESL 환경일 경우, 의사소통을 통해서 유창성과 함께 언어 형식을 체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는 불충분한 언어 입력 량으로 인해 유창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언어 형식은 이러한 배경 하에 신설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에 제시된 형식을 우선으로 하되,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언어 형식이 필요한 표현을 다 포괄하는 것에는 또한 한계가 있다.

언어 형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별표 2]’ 외에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별표 4]’을 참고한다. 이때, 주어진 언어 형식이 영어의 모든 표현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주어진 언어 형식 이외의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사소통 기능을 참조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언어 형식 항목은 총 36개로서, 시제, 진행형, 완료형, 부정문, 의문문, 조동사, 부정사, 사역 동사, 동명사, 수동태, 단·복수 대명사, 유도 부사, 비인칭 주어, 비교급, 최상급, 동등 비교, 의문형용사, 부사, 접속사, 등위 접속사, 관계 대명사, 명사절, 화법, 분사 구문, 가정법, 도치 구문, 강조 구문, 생략, 동격, 한정 표현, 부가 의문문, 가주어·가목적어, 문장 형식 등이다. 제시된 언어 형식은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시된 문장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귀납적으로 해당 언어 형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성취 기준

중학교 1학년

● 듣기

(가) 어조나 억양으로 화자의 느낌이나 정서를 파악한다.

듣기에서 강세, 리듬, 억양은 화자의 말이나 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말이나 대화에는 화자의 감정, 태도, 반응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억양에 따라 어조가 달라지고 어조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화자의 말이나 대화에 내포되어 있는 느낌이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어조나 억양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학습 활동으로는 대화를 통하여 드러나는 화자들의 어조나 억양을 통해 놀람이나 흥분, 기쁨, 슬픔 등의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거나 심정 묻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요지를 파악한다.

요지는 말이나 대화에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main idea), 즉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요지에는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표현 또한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 요지가 구체적인(specific) 것이라면 주제는 다소 넓은(general)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중심 단어 찾거나 화자의 의견이 나타난 문장을 찾는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이 성취 기준은 초등학교 5학년 듣기 (가) ‘지나간 일에 대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로, 6학년 (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와 연결되면서 그 두 성취기준보다 다소 상향된 성취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 있는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된 일상생활에 관련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시제를 파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미 한 활동(과거)이나 앞으로 할 일(미래)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시제와 관련하여 묻고 답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 했던 일과 다음 주말에 할 일이 포함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이미 한 활동(과거)이나 앞으로 할 일(미래)을 파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라)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적인’을 내용을 이해하는 이 성취 기준은 ‘대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성취 기준과 이해의 범위가 차별화된 것이다. 즉, 이 두 성취 기준의 차이는 말이나 대화를 들을 때 ‘세부 내용 파악(microcomprehension)’ 혹은 ‘대강의 내용 파악(macrocomprehension)’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전자는 세부적인 사항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듣기(selective listening) 활동이며, 후자는 전체적인 대의를 파악하는 듣기(extensive listening) 활동을 말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 생일 파티 계획 등을 듣고 파티 시간, 장소 등을 묻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묘사하고 있는 인물이나 상황을 그림에서 고르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마)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사건의 순서를 이해한다.

초등학교 6학년 듣기 (다)항인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안다.’와 연계되면서 그보다 상향된 성취 기준이다. 이 성취 기준에서 학습자가 말이나 대화를 듣고 사건의 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 간의 연결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순서가 뒤섞인 그림이나 문장을 순서에 맞도록 배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바)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상황 및 화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듣기 활동은 단순히 화자가 발화한 소리를 청자가 일방적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청자는 대화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화자 간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말이나 대화에서 화자 간의 관계(교사와 학생, 의사와 환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등)를 안다면 대화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말이나 대화가 어떤 상황(공항, 식당, 극장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안다면 그 담화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 활동으로는 의사와 환자 간에 증상 묻고 답하기, 식당에서의 음식 주문하기, 부모와 자녀의 대화 등을 듣고 화자 간의 관계 혹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상황을 파악하는 활동으로는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나 응답 고르기 등을 할 수 있다.

(사)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Task’는 ‘과업’ 혹은 ‘과제’라고도 불리며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 언어(target language)를 사용하여 실생활과 관련 있는 친숙하고 다양한 과업 수행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활동을 말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말이나 대화를 듣고, 지시에 따라 동작을 실행하기, 또는 사물의 위치를 설명하는 말을 듣고 사물 그려 넣기, 방향을 지시하는 표현을 듣고 지시에 따라 해 보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말하기

(가)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하여 간단히 묘사한다.

‘주변의 사물과 사람’은 자기 주변 관련(immediate personal relevance) 소재, 즉, 매우 친숙한 대상을 의미한다. 이런 대상에 대하여 ‘묘사한다’는 것은 가장 쉽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가족, 친구의 생김새, 옷차림, 성격이라든지, 자신이 사는 집, 학교, 교실 등의 친숙한 대상에 관하여 간단하게 묘사하는 활동 등이 있다.

(나) 쉽고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교환은 말하기의 본질 중 하나이며 외국어 학습에서 기본적이고 유용한 활동이다. 이 활동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상품 구입하기, 길 묻기, 교통수단 이용 등

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보를 교환하는 효과적인 학습활동으로 ‘정보차 메우기(information gap)’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말한다.

이 성취 기준은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말한다.(초등학교 5학년)’ →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말한다.’(초등학교 6학년)와 연계되는 성취 기준이다. 세 가지 성취 기준이 공통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말이나 대화를 듣고 나서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말하는 것이다. 학습 활동으로는 취미 활동이나 주말 계획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말하거나, 안내 방송을 듣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말하기라던가, 전화 응답기에 남겨진 메시지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야기하게 하는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라) 일상생활에 관한 사건을 순서대로 말한다.

이 성취 기준은 ‘그림이나 만화의 내용을 순서대로 이야기한다.’(초등학교 6학년)와 연계되면서 소재가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말하는 문장 간에 논리적 순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적어도 몇 개의 연속된 문장으로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그림이나 만화를 보고 이야기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이해하여 순서대로 말하거나 자신에게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순서대로 말하도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마)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원인과 결과를 말한다.

글을 읽고 말하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성취 기준이다. 읽은 글에서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관계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해 읽고 무엇 때문에(원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결과)를 파악하여 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인과 관계의 예로는 추위에 노출되어 감기에 걸렸든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정도를 예로 들 수 있다.

(바) 자신의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한다.

이 성취 기준은 ‘지나간 일에 관하여 간단히 말한다.’(초등학교 5학년) → ‘앞으로 할 일에 관해 간단하게 대화한다.’(초등학교 6학년)와 연계되면서 점차 수준이 높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이나 계획’은 학습자에게 친숙하고 구체적인 기본 소재로서, ‘지나간 일’을 자신의 경

힘과 연결하여 말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 활동으로 는 지난 주말이나 방학에 경험했던 여행에 관한 이야기나, 다음 주 혹은 다가올 방학에 할 일 등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말하도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읽기

(가) 모르는 낱말이나 어구를 사전에서 찾아 의미를 이해한다.

‘사전 찾기’를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가 모르는 낱말이나 어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예문을 접할 수 있어 영어 학습자에게 매우 필요한 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성취 기준이다. 사전 찾기의 효용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사전에 제시된 예문이 어휘 학습에 효과가 있고 또 새로운 단어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모르는 낱말이나 어구를 스스로 사전에서 찾아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전 찾는 법, 사전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 문맥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법 등을 익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한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읽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활동으로, 여기서 ‘주제 및 요지’는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주제 및 요지에서는 글쓴이의 의견이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하며, 표현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 한편 주제와 요지는 비슷한 개념으로 서로 중복 되는 부분이 많으며 주제는 요지를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 요지는 주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중심 단어 찾기, 또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이 나타난 문장 찾기 등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기, 글의 주제에 적합한 속담 고르기, 글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 고르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표가 포함된 글을 읽고 이해한다.

영어로 된 읽기 자료는 다양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문자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조 자료로서 그림이나 도표가 문자 언어의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도표란 학습자가 생활에서 자주 접하여 친숙한 내용의 도표를 말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친숙한 내용의 도표인 교통 관련 시간표, 수업 시간표, 학습 계획표, 식당 메뉴, 일기 예보, TV 프로그램 편성표 등이 포함된 글을 읽고 내용에 관해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라) 개인생활을 소개하는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개인 생활을 소개하는 글’이란 편지나 이메일 등을 말한다. 편지나 이메일은 일정한 양식이 있어서 이런 서식에 대한 이해는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외국인 친구에게서 온 편지나 전자메일(e-mail) 형태로 된 글, 개인 블로그(blog)에 실린 글을 읽고 내용에 관하여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마)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글을 읽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성취 기준은 읽은 글에서 학습자가 찾기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 읽을 수 있다. 골라 읽기(scanning)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의 파악에 중점을 두는 읽기 방법이다. 학습 활동으로는 골라 읽기(scanning)를 통해 ‘who, what, when, where, how, why’ 등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고 이에 답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짝 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이 효과적이다.

(바)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

이 성취 기준은 글을 읽고 그 글에서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사이에 원인·결과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나 어구를 찾으면 그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어나 어구의 도움으로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o’, ‘because’ 등의 어구로 구성된 문장을 읽고 원인과 결과를 분류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사) 짧은 글을 읽고 낱말이나 어구의 의미를 문맥으로 추측한다.

읽기란 사실상 추측 게임이다. 학습자가 외국어로 쓰인 글을 읽을 경우, 사실상 그 글에 있는 모든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학습자가 외국어 텍스트를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이나 어구를 만날 때 전후 문맥의 도움으로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읽기는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글쓴이가 의도한 메시지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학습 활동으로는 문장의 전후 주변의 단어나 실마리가 되는 어구의 도움을 받아 문맥 속에서 낱말이나 어구의 의미를 추측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아) 짧은 글을 읽고 글의 순서를 파악한다.

여기서 ‘글의 순서’란 가장 기초적인 수준으로 글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의 순서를 말한다. 글의 순서를 알기 위해서는 글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이는 곧 문장들 간의 시간적·논리적 연결 관계를 이해함을 의미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순서가 뒤섞인 문장을 문장 간의 시간적·논리적 연결 관계를 이해하여 바르게 배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순서가 뒤섞인 문장을 연결어를 활용하여 바르게 배열하기, 간단한 제품 만드는 순서를 읽고 말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쓰기

(가) 학습한 문장을 듣고 받아쓴다.

받아쓰기(dictation)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올바른 철자법(orthography)을 배우게 하기 위해 문자, 단어, 문장 등을 받아쓰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쓰기부터, 짧은 문단을 두세 번 읽어 주고 학습자가 자신의 기억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들은 문단을 다시 쓰도록 하는 쓰기 방법(dicto-comp)이 있다. 영어로 받아쓰기는 듣기·쓰기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또한,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노력의 경제성으로 인해 사용하기에 아주 간편하고 유용하며 전반적인 언어 능력 측정 도구가 될 수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학습한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오디오 자료를 이용하거나 교사가 직접 문장이나 문단을 읽어 주고 받아쓰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자신이나 가족 등에 관한 사실적인 질문에 답을 쓴다.

자신이나 가족은 자기 주변과 관련된 가까운 대표적 소재이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친구, 학교, 친숙한 대상 등으로 소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자신이나 가족에 관한 사실적인 질문에 답을 쓰는 것은 가장 쉬운 수준의 쓰기 활동으로 쓰기의 방법으로는 단어, 문장쓰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자신이나 가족 등에 관하여 사실적 정보를 묻는 간단한 질문의 답을 쓰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실적 질문으로는 ‘What does your father do?’, ‘What is your hobby?’, ‘How old is your sister?’, ‘What is your favorite sport?’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 알파벳 필기체 대소문자를 쓴다.

영어의 철자 체계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서로 다른 모양이고, 또한 인쇄체와 필기체가 상당히 다른 모습이어서 알파벳의 네 가지 모양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은 초보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영어 학습자들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인쇄체 대문자와 소문자를 배우고, 중학교 1학년에서 필기체 대·소문자를 배우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글자를 쓴다는 것이 반드시 손으로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필기체보다는 인쇄체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영어를 손으로 쓸 때에는 필기체로 써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실제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철자들이나 단어들을 연결하여 써 보게 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필기체로 연습하여 영문 서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등 필기체를 익히는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찾아 수행하는 것도 필기체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앞의 철자 끝과 뒤의 철자 시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유의하여 필기체 대소문자를 연습하게 하는 것이 필기체를 숙달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라) 낱말이나 어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한다.

이 성취 기준은 통제 작문(controlled writing)의 일종으로 읽기·쓰기가 통합된 활동이면서, 쓰기에서 흔히 활용되는 활동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는 문맥 속에서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여 빈칸에 적절한 낱말이나 어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문장 완성은 또 다른 종류의 빈칸 메우기(cloze) 활동으로 확대되어 활용될 수 있다. 빈칸이 있는 문장을 주고 문맥에 맞게 빈칸을 채우게 하거나, <보기>에 예를 제시하고 선택하여 쓰게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cloze test’가 있다. 팝송을 들려주고 가사의 빈칸을 채우도록 하는 활동은 듣기 활동과 연계된 문장 완성 활동의 좋은 예가 된다.

(마) 예시문을 참고하여 실물이나 그림에 대하여 간단히 쓴다.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는 외국어 학습에 자주 활용되는 데,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며 외국어 교수·학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취 기준은 초등학교 5학년 쓰기 (나)항 ‘실물이나 그림에 해당하는 낱말을 쓴다.’ → 6학년 쓰기 (나)항 ‘예시문을 참고하여 실물이나 그림을 한 문장으로 묘사하여 쓴다.’와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그림에 대한 묘사가 ‘낱말’ → ‘한 문장’ → ‘복수 문장’으로 그 수준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듣기, 말하기, 쓰기의 세 가지 언어 기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교실 안 풍경, 버스나 지하철 안의 사람들 묘사, 그림 속 인물 묘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동일한 그림을 몇 군데만 약간 다르게 해 놓고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 쓰게 하는 것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이다.

(바) 철자법 및 어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이 성취 기준은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읽고 철자, 구두점, 어법에 맞도록 정확하게 고쳐 쓰는 활동이다. 외국어를 배울 때 언어 학습의 단계에 따라 유창성과 정확성의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언어의 정확성은 유창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쓰기 활동은 상대적으로 정확성에 비중을 두는 활동으로 쓰기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듣기, 말하기, 읽기에서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로 하여금 철자, 구두점, 대소문자, 어법 등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쓰도록 하는 것은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교사가 직접 교정해 주는 대신에 짝이나 소집단 활동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상호 점검하게 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학교 2학년

● 듣기

(가)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다.

이 성취 기준은 중학교 1학년 듣기 (바)항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상황 및 화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보다 한 단계 높게 설정되었다.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소재가 ‘일상생활’ → ‘친숙한 일반적 주제’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말이나 대화에 제시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강세, 억양, 소리의 크기 등의 차이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말이나 대화를 듣고 대화가 일어난 장소 등을 파악하게 하거나, 들은 말이나 대화에 가장 어울리는 그림 고르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

말이나 대화를 듣고 그것에 대한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하는 것은 듣기에서 중요한 활동이다. 주제·요지는 비슷한 개념으로 서로 중복 되는 부분이 많으며 주제는 요지를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요지는 주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지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main idea)으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가 담겨 있고 표현에서도 주제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들은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파악하게 하는 활동으로서, 말이나 대화를 들려주고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그림이나 문장에서 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친숙한 주제(컴퓨터 게임, TV 시청, 교복 착용, 남녀공학 등)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묻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말이나 대화에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화자의 억양 및 강세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말이나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상호 작용을 원활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말이나 대화에서 상대방의 억양, 강세, 감정, 태도 등을 고려하여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칭찬, 격려, 충고, 비난, 경고, 환불, 교환, 구입, 항의 등)나 상대방에게 할 조언, 전화를 건 목적 등을 고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라)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1학년) →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2학년)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여기서 소재의 범주가 ‘일상생활’ → ‘친숙한 일반적 주제’ 관련 소재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말이나 대화를 들을 때 ‘who, what, when, where, how, why’와 같은 필요한 세부 정보 파악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적 듣기(selective listening) 활동과 관련이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들려주는 말이나 대화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으로서 운동 경기 혹은 영화 상영 및 공연 정보에 관한 세부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TV 프로그램 안내, 박물관 개방 시간, 전시회 내용, 입장료 등에 관한 안내, 초대장 등의 정보에서 틀린 정보 찾아내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마)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맥락으로 상황을 추측한다.

이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터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대화의 장소, 화자 간의 관계, 목적 등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을 추론하는 것은 듣기의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인데, 상황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억양, 강세, 말이나 대화의 형태, 상황, 내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듣기 자료를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말고 문맥 또는 들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상황을 추론하게 하는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학습 활동의 예로는 대화가 끝난 후 할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바)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

이 성취 기준은 듣기·말하기 기능을 통합한 성취 기준으로서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

고 그 관계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말이나 대화를 듣고 원인·결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 내용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어(discourse markers), 단어, 어구 등 세부적 정보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어떤 사건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무엇이 그 사건을 초래했는지(원인),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결과)를 파악하여 그 관계를 정리하여 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듣기 자료를 듣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두 개의 그림을 연결하거나 증상과 원인, 증상과 치료법을 연결하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사)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파악한다.

1학년 듣기 (가)항과 관련이 있는 성취 기준으로 듣기에서 강세, 리듬, 억양은 화자의 감정, 태도, 반응 등을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나 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듣기 자료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넓게는 그 자료에 대한 주요 내용 파악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좁게는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는 특정한 표현을 이해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들려주는 말이나 대화에서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을 고르도록 하고 화자의 태도나 심정 혹은 심경 변화를 파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아)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1학년) →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2학년)로 연결하여 설정되었다.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는 듣기 자료에서 소재의 범주가 ‘친숙한 일상적 주제’ → ‘일반적 주제’로 확장되었다. 학습 활동으로는 듣기 자료를 듣고, 지시에 따라 도표 만들기, 그림 그리기, 지도에 표시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 언어적 수준, 과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당히 도전적인 과업을 제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간단한 동작을 지시대로 듣고 따라 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말하기

(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간단히 묘사한다.

이 성취 기준은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하여 간단히 묘사한다.’(1학년) →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간단히 묘사한다.’(2학년)로 연결되면서 관련된 소재의 범주가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활동은 학습자 자신이 학습하고 싶은 내

용을 선택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학습 활동으로, 능동적인 말하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학습자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선택하게 하고 그 인물에 대하여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한다. 위인, 유명인, 학습자 주변의 존경하는 인물(선생님, 부모님, 친구 등)에 관해 그들의 특징, 그들을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이유 등을 간단히 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물, 그림, 표 등의 자료를 간단히 설명한다.

이 성취 기준은 비교적 쉬운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의 도표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실제로 그림이나 도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각 자료로서 영어 교수·학습에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영어 말하기 능력이 초보자 수준이므로 복잡하지 않은 그림이나 도표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이러한 활동은 말하기 교수·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 교실 안에 있는 실물 등을 간단히 묘사하거나, 수업 시간표, 연도별·지역별로 강수량을 나타낸 그래프, 약품이나 음식의 성분을 나타내는 표 등을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주당 여가 시간 활용, 용돈 사용 실태, 학급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 등에 관한 그래프를 보고 간단히 설명하는 활동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다)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그 내용에 관해 묻고 답한다.

말이나 대화를 듣고 그 내용에 관해 묻고 답하는 형식과 관련된 이 성취 기준은 말하기 연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성취 기준이다.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들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하다. 학습 활동으로는 운동, 취미, 오락, 여행, 환경, 직업 소개 등과 같이 학습자에게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들려주고 제시된 정보나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들은 내용에 관한 질문 만들어 보기, 질문에 답하기 등의 활동도 할 수 있다.

(라) 간단한 일의 절차나 방법을 묻고 답한다.

간단한 일의 절차나 방법을 묻고 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시간과 일의 순서를 나타내는 연결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교사는 절차나 방법에 관련된 연결사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숙지시킨 다음 짝이나 소집단별로 과업을 골라 그들로 하여금 과업 수행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서로 묻고 답하게 한다.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방법, 좋아하는 운동하기 등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

여 짝 활동이나 소집단별로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떤 장소에 가는 방법, 간단한 장난감 조립하기, 녹음기 사용 방법, 종이 모자 만드는 법 등에 관하여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마)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자신의 경험과 연관시켜 말한다.

이 성취 기준은 듣기·말하기의 통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말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의미 있는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런 활동은 단순히 경험만을 말하는 1학년 말하기 (바)항 ‘자신의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한다.’와는 달리, 새로운 상황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는 성취 기준이다.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대화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므로 듣기·말하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운동, 취미, 오락, 교우 관계 등과 같이 학습자의 생활과 관련이 있으면서 흥미를 끌만한 화제를 들려주고 학습자의 과거의 경험과 연결하여 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실수담, 여행에서 겪었던 일,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있었던 일화 등을 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바)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글을 읽고 차이점을 말한다.

읽기·말하기를 연결한 통합 성취 기준으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글에 나타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우선 이해해야 한다.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차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차이점을 찾아 말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일정한 주제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드러난 글을 읽고 각각의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들을 찾아 두 입장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애완동물 기르기의 찬성과 반대, 교복 착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컴퓨터 게임에 관한 찬성과 반대 등 서로 다른 두 입장을 나타내는 글을 읽고 두 입장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하도록 할 수 있다.

● 읽기

(가) 그림이나 도표가 포함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한다.

이 성취 기준은 1학년 듣기 (다)항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표가 포함된 글을 읽고 이해한다.’에서

소재의 범주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 주제로 확장된 것이다. 일반적인 주제에 관련된 그림이나 도표가 포함된 글은 학습자가 흔히 볼 수 있는 실용문으로 실생활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다. Silberstein(1994)은 그림이나 도표 등을 포함하고 있는 비산문(nonprose) 읽기 자료는 ① 학습자의 선행적 지식(previous knowledge)을 활성화하고, ② 읽기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 하향식·상향식 정보 처리 과정 연습에 도움이 되며, ③ 그림·도표와 함께 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읽기 지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그림이나 도표의 예로는 날씨나 인구를 나타내는 그래프, 상품의 안내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가 어떻게 본문의 설명을 보충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하거나, 그림이나 도표만을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할 수 있다. 중학생의 주당 여가 시간 활용, 용돈 사용 실태, 연중 영화 관람 편수 등을 나타낸 그래프나 도표가 포함된 글을 읽고, 읽은 내용에 관해 말하거나 묻고 답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지시문을 읽고 절차와 방법을 이해한다.

지시문을 읽고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는 성취 기준은 글에 나타난 일의 시간적·논리적인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는 지시문에는 보통 일의 시간적·논리적 순서를 나타내는 연결어를 포함하고 있어 학습자로 하여금 해당 연결어에 대한 쓰임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물품의 사용 설명서, 혹은 장난감이나 생활용품의 간단한 조립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지시문에 나타난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쓰기와 연결하는 활동으로는 지시문의 연결어 부분을 지우고 내용에 맞게 적절한 연결어를 채워 넣게 하는 활동 등이 있다.

(다)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1학년) →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2학년)와 연결되며,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소재의 범주가 ‘일상생활’ → ‘친숙한 일반적 주제’ 관련 소재로 확장되어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글에서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읽기의 핵심적 활동이다. 여기서 ‘주제 및 요지’는 필자가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주제 및 요지에는 글쓴이의 의견이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하며, 표현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 한편 주제와 요지는 비슷한 개념으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주제는 요지를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요지는 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읽기 자료를 읽고, 중심 단어 찾기 또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이 나타난 문장을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라)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한다.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 글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읽기 텍스트는 독자로 하여금 글자 그대로(literal)의 의미와 함축(implied)된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즉, 독자는 숨어 있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에 따르면, 읽기 텍스트 자체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독자가 그의 지식, 감정, 경험, 문화를 그 텍스트에 가져올 때 비로소 의미가 형성된다고 한다(Brown, 2001). 다시 말하면, 읽기는 단순히 문장을 이해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고 스스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인지적 상호 작용 과정인 것이다.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훑어 읽기(skimming)를 적용하여 문제, 어조, 단락 구성법 등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전체적인 문맥이나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주어진 글을 쓴 목적,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마)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1학년)와 연결된다. 즉, 소재가 ‘일상생활’ → ‘친숙한 일반적 주제’ 관련으로 그 범주가 확장되어 설정된 것으로, 그 성취 기준이 1학년 해당 성취 기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학습활동으로는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 읽는 골라 읽기(scanning)를 통해 ‘who, what, when, where, how, why’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내용과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기는 세부 사항 파악 활동의 좋은 예이다.

(바) 간단한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다.

이 성취 기준은 추론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이다. 주어진 글을 읽고 그것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글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글의 응집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추론 능력이 필수적이다. 학습 활동으로는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들 간의 연결이나 인과 관계 등을 끌어내어 문맥을 통한 추론을 하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이해하여 그 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사)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글을 읽고 비교, 대조한다.

이 성취 기준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글을 읽고, 두 가지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비교·대조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문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는 담화 표지어(discourse markers)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담화 표지어는 세부 사항을 이해하기 보다는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글을 읽고 비교·대조표를 활용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정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나와 친구의 취미 활동이나 성격을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정리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쓰기

(가) 쉬운 문장으로 일기를 쓴다.

수업에서 글쓰기의 상당 부분은 독자를 위한 글쓰기가 아닌 자신을 위한 글쓰기(self-writing)이다. 이 성취 기준은 평상시 쉬운 영어로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게 하려는 취지에서 설정된 기준이다. 일기 쓰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 뿐 아니라 흥미 있고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해 쉬운 문장으로 글을 쓰는 기회를 제공하고, 꾸준히 일기 쓰기를 함으로써 영어로 쓰는 것에 친숙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영어 일기 쓰기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정확성을 강요하면 문장력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초점을 두어 비교적 자유롭게 써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 활동으로는 하루 일과, 자신의 생각이나 특별한 인상을 남긴 일 같은 사실에 기초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기를 쓰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날짜, 요일, 날씨 등을 기록하여 일기문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하도록 한다.

(나) 자신이나 가족 등을 소개하는 간단한 글을 쓴다.

이 성취 기준은 자신의 주변과 관련 있는 친숙한 소재를 활용하여 영어로 간단한 글을 쓰는 것이다. 영어 글쓰기에서 문장 하나하나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장들을 서로 엮어서 문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는 쓰기 초기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기능을 강조하여 의미의 전달에 초점을 두고 점차 정확성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한다. 1학년이 자신이나 가족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답을 써 보는 활동인 것과 비교해 볼 때 2학년에서는 자신이나 가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적 정보를 담아 이들을 소개하는 짧은 글을 써 보도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에게 구두 언어와 마찬가지로 쓰기의 의사소통 기능을 강조하여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 소개, 가족 공동의 주말 활동 소개, 가족 구성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특징적인 점을 쓰도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주어진 낱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이 성취 기준은 주어진 어휘들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어진 어휘들의

시제나 형태를 적절히 바꾸거나 서로 조합하여 어법과 내용에 맞도록 적절한 문장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몇 개의 어휘나 시제의 형태를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하거나 조합하여 어법과 내용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문장에 필요한 어휘를 모두 제시하고 순서를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라) 간단한 이야기를 읽고 주인공이나 시제 등을 바꾸어서 다시 쓴다.

이 성취 기준과 같이 간단한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의 주인공이나 시제 등을 바꾸어서 다시 쓰는 것은 통제 작문(controlled writing)에 해당한다. 통제 작문은 매우 제한된 쓰기로 지시된 대로 단어나 문장을 바꾸어 쓰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런 활동은 학습자에게 단조로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 활동으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예시로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이용하여 주인공이나 시제, 장소 등을 자유롭게 바꾸어서 글을 재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마) 간단한 대화문을 읽고 주어진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쓴다.

이 성취 기준은 대화 쓰기(dialogue writing)의 일종인데 간단한 대화문을 읽고 주어진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쓰게 하는 활동으로서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활동이다.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우선 대화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응답을 읽고 어떤 질문이 그 대답을 끌어냈는지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에게 대화 전체를 읽게 한 후 대답만 제시하고 질문을 쓰게 하거나, 불완전한 대화문을 완성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바) 가정, 학교, 취미 생활 등을 소개하는 간단한 편지를 쓴다.

편지나 이메일은 일정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성취 기준에서는 편지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편지 쓰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점차 정확성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펜팔(pen pal)이나 키팔(key pal)에게 자신의 가정, 학교, 취미 생활 등을 소개하는 간단한 글을 편지글의 형태로 직접 써 보도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 전자메일(e-mail)을 활용할 수도 있다.

(사) 오류가 있는 짧은 글을 철자법 및 어법에 맞게 고쳐 쓴다.

주어진 글을 읽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고쳐 쓰는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오류 수정의 주체는 학습 환경에 따라 학생 자신, 학급 동료, 교사 등이 될 수 있다. 교사가 직접 오류를 고쳐 줄 수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학습자가 문법적 오류를 스스로 고치도록 하거나 동료끼리 서로의 글을 고쳐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 활동으로는 철자법 및 어법상의 오류가 있는 짧은 글을 제시하고 철자법 및 어법에 알맞게 오류를 수정하게 한 후 학습자 스스로 점검하게 하거나 짝 활동으로 서로의 글을 점검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어진 글에서 틀린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도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 듣기

(가)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상황 및 화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1학년) →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다.’(2학년)와 연결되면서 ‘일상생활’ → ‘친숙한 일반적 주제’ → ‘일반적 주제’로 소재의 범주가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상황’은 넓게는 말이나 대화가 일어나는 실제적 혹은 가상적 상황들을 모두 의미하며, 좁게는 말이나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 참여자, 목적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말이나 대화에 제시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강세, 억양, 소리의 크기 등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듣기 자료를 듣고 대화가 일어난 장소와 대화자를 보기로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거나, 쓰기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대화를 듣고 어떤 직업인지 듣고 고르기, 상황에 적절한 대화나 문장 고르기, 적절한 응답 고르기, 충고하기, 제안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요지를 파악한다.’(1학년) →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2학년)와 연결되면서 그것의 성취 기준이 점차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주제나 요지는 말이나 대화에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main idea), 즉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주제나 요지에는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한다. 한편 요지는 주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요지를 더 압축하여 나타낸 것이 주제가 되며, 요지는 표현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학습 활동으로는 들려주는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파악하여 보기에 제시된 주제나 요지를 선택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간단한 뉴스를 듣고

신문 머리기사 고르기, 화자의 주장 고르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1학년) →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2학년)와 연결되면서 그것의 성취 기준이 점차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말이나 대화를 들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필요한 세부 정보 파악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적 듣기(selective listening) 활동을 의미한다. 즉, 이 성취 기준은 ‘대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성취 기준과 이해의 범위가 차별화된 것이다. 학습 활동으로는 듣기 자료를 듣고 ‘who, what, when, where, how, why’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을 파악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내용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라)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의 일부를 듣고 맥락으로 상황을 추측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의 일부만 듣고 문맥을 통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전체가 아닌 일부의 말이나 대화의 듣기를 통해서 전체 상황 예측이 가능하려면 단서의 암시가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몇 개의 암시만 들어있다 하더라도 전체 상황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듣기 자료의 일부만을 들려주고 문맥을 통하여 상황을 추측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음에 이어질 내용 고르기, 이어질 화자의 응답이나 행동 예측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마)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2학년)와 연결되면서 그 수준이 이전의 것보다 다소 높게 설정되었다.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는 ‘친숙한 일반적 주제’ → ‘일반적 주제’로 소재의 범주가 확장되었다. 말이나 대화를 듣고 원인·결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청자가 배워야 할 기본적인 중요한 능력이다. 왜냐하면 원인·결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대화의 주요 내용을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관계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어(discourse markers), 단어, 어구 등 세부적 정보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듣기 자료를 듣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을 서로 연결하기, 인과 관계로 관련이 있는 문장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증상과 원인, 증상-치료법 연결하기 활동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바)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파악한다.

이 성취 기준은 ‘어조나 억양으로 화자의 느낌이나 정서를 파악한다.’(1학년) →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파악한다.’(2학년)와 연결되면서 그 성취 기준의 수준이 점차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듣기 자료에 대한 주요 내용 파악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화자들의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는 특정한 표현을 이해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듣기 자료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고르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화자의 태도나 심정, 심경 변화를 파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사)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그 결말을 추측한다.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다. 결말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사고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들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하여 통합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각 문장들의 함축된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들은 내용의 결말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결말을 추측해 보게 한 후, 보기에 제시한 문장 중에서 결말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아) 비교적 긴 지시나 설명을 듣고 절차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1학년) →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2학년)와 연결되면서 그 성취 기준의 수준이 점차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는 ‘일상생활’ → ‘친숙한 일반적 주제’ → ‘비교적 긴 지시나 설명’으로 단계적으로 소재의 범주가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3학년의 해당 성취 기준에 ‘일반적 주제’라는 소재 범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는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에서 지시나 설명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많은 것처럼 과거에 듣기는 단순히 소리를 식별하고,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수동적인 기능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듣기 활동은 듣고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비교적 긴 지시나 설명을 들려 준 후 과업을 수행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 언어적 수준, 과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당히 도전적인 과업을 제공한다. 듣기 자료를 듣고 지시에 따라 도형 그리기, 교실이나 방안 풍경 묘사를 듣고 사물 배치도 그리기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말하기

(가)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요지를 말한다.

말이나 대화를 듣고 요지 말하기는 말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 중 하나이다. 요지는 말이나 대화에서 화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main idea), 즉,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요지에는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하며 표현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한편, 요지는 주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서로 중복 되는 부분이 많지만 주제는 요지를 더 압축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주제가 다소 넓은(general) 개념이라면, 요지는 구체적(specific)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문맥이나 자신의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중심 단어를 찾거나 글쓴이의 생각, 의견이 나타난 문장을 찾아 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일반적 주제에 관한 간단한 도표나 그림을 설명한다.

이 성취 기준은 2학년 (나)항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물, 그림, 표 등의 자료를 간단히 설명한다.’와 연결되면서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림이나 도표의 소재가 ‘일상생활’ → ‘일반적 주제’로 되면서 소재의 범주가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이나 도표는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시각 자료로서 학습자의 말하기 연습에 효과적인 자료이다. 예를 들어, 간단한 도표나 그림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활동을 학습 활동으로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연도별 기온 변화 통계표, 장래 희망 직업 통계표 등의 그래프를 보고 설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일상 용품의 사용법과 같은 간단한 내용을 순서에 맞게 설명한다.

이 성취 기준은 2학년 말하기 (라)항 ‘간단한 일의 절차나 방법을 묻고 답한다.’(2학년)와 연결된 성취 기준이다. 이 성취 기준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용품 사용법을 순서에 맞게 설명하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다. 이는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real-life communication)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일상 용품을 용이하게 교수·학습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 영어 말하기 연습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카메라, 세탁기, 전화기, MP3, 복사기 등과 같은 생활 용품 사용법을 순서에 맞게 설명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라) 학습한 대화문을 활용하여 역할극을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이미 학습한 대화문을 활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역할극·역할놀이(role-play)를 통해서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집단 활동 중 하나이다. 영어 수업에서는 역할극·역할놀이가 실제로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역할극은 학습자의 수준이나 교수·학습 환경에 따라 단순한 역할 바꾸기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배경 바꾸기나 상황 바꾸기 등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학습한 대화문을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역할극으로 꾸며 모듈별로 발표하게 한다. 이때 단계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에 맞게 내용을 약간 바꿀 수도 있으며, 간단한 소품을 준비하게 하여 역할극을 진행하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마) 친숙한 이야기에 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성취 기준이다. 일상생활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에 관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수준에 맞게 말할 수 있으면 된다. 학습자가 본 영화나 알고 있는 이야기에 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바) 짧은 이야기를 듣고 결말을 완성하여 말한다.

짧은 이야기를 들은 다음 결말을 완성하여 말하는 이 성취 기준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3학년 듣기 (사)항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그 결말을 추측한다.’와 연결되며, 차이점이라면 주어진 이야기를 듣고 결말을 추측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인 수준의 결말이 아닌 끝말을 이어가는 정도의 수준도 포함하며, 학생의 수준에 따라 결말을 짧게 말하게 할 수도 있고 더 길게 말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결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결말을 추측하여 말하게 하거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부분을 들려준 후 학습자들로 하여금 차례로 이야기를 이어서 결말을 완성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사) 친숙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이미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타당한 이유를 들어가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성취 기준이다. 친숙한 주제라 할지라도 어떤 주제의 글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점을 말하는 것은 제시된 다른 의견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쉽지는 않다. 따라서 이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수준이라기보다는 글을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이

미 그 주제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활동으로는 TV 시청, 인터넷 사용, 컴퓨터 게임, 애완동물 기르기 등과 같은 친숙한 주제의 글을 읽게 한 후, 학습자가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아) 상호 작용을 통하여 쉽고 간단한 과업을 수행한다.

화자 간에 상호 작용을 통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말하기의 기본 활동 중 하나이다. 화자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사소통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화자 간에 상호 작용을 통해 목표 언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활동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과업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행하기에 적절한 복잡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실생활과 관련 있는 박물관 찾아가기, 물건 구입하기, 전화 걸기, 호텔 체크인하기, 음식 주문하기 등의 친숙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과업을 상호 작용을 통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읽기

(가)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2학년)와 연결되어 있다.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는 읽기 자료에서 소재의 범주가 ‘친숙한 일반적 주제’ → ‘일반적 주제’로 확장되어 위계화 되었다. 글을 읽고 ‘세부적인’을 내용을 이해하는 성취 기준은 ‘대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성취 기준과 이해의 범위가 차별화된 성취 기준이다. 이 두 성취 기준의 차이는, 글을 읽을 때 ‘세부 내용 파악(microcomprehension)’ 혹은 ‘대강의 내용 파악(macrocomprehension)’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와 관련이 있다. 전자를 세부적인 사항 골라 읽기(scanning)라고 한다면, 후자는 전체적인 대의를 파악하는 훑어 읽기(skimming)라고 할 수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읽기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 읽는 골라 읽기(scanning)를 통해 ‘who, what, when, where, how, why’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내용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광고문을 읽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실용문의 한 종류로서 영어로 쓴 광고문은 실제적인(authentic) 영어를 배우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읽기 자료이다. 광고문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상품의 특징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짤막한 형

식으로 표현을 압축해 놓은 글로서 글의 형식과 표현 방법이 다른 장르의 글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광고자의 의견을 구분하여, 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영어로 된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활용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게 한다. 예를 들어 상품의 용도, 장점, 가격 등을 파악했는지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한다.’(2학년)와 연결되면서 소재의 범주가 ‘친숙한 일반적 주제’ → ‘일반적 주제’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훑어 읽기(skimming)를 적용하여 문체, 어조, 단락 구성법 등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게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글을 쓴 목적(물품 구입, 항의, 환불, 교환, 충고, 격려, 칭찬)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라)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

글을 읽고 원인·결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가 배워야 할 기본적인 중요한 읽기 기술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원인·결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에 대한 전개 방법을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어(discourse markers), 단어, 어구 등 세부적 정보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글의 내용에 대한 전개 방법이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어, 단어, 어구 등을 활용하여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이해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연결어(so, because, therefore 등)를 주의 깊게 읽으며,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마)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의 분위기를 파악한다.

글의 분위기는 희망, 절망, 암울, 염세, 진취, 소극, 온화, 평화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주어진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 어조, 태도를 나타내는 단서를 찾으려면 글의 분위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글의 분위기는 글쓴이의 어조, 태도, 심정 등과 관련이 있어 학습자가 글에 나타난 필자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는 것이 글의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주어진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 어조, 태도 등을 나타내는 단서를 찾아 글의 분위기를 파악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바)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다.

이 성취 기준은 ‘간단한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다.’(2학년)와 연결되면서, 관련된 소재

의 범주가 확장되었다. 학습 활동으로는 글의 사실적 이해와 함께 함축적 의미도 이해하여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소집단 활동이나 짝 활동을 활용하면 학습자가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사)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결론을 예측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성취 기준이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글의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글의 주제 및 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주어진 읽기 자료 속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서를 찾아 전체적인 내용을 추론하고, 그 추론을 바탕으로 결론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어진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서들을 표시해 보고, 그 단서들을 통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추론하고 결론을 예측하여 쓰게 하거나 보기의 예시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을 고르게 할 수 있다.

(아)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의 연결 관계를 파악한다.

글의 연결 관계 파악이란 글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과 문장 간, 단락과 단락 간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어주는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것은 독해에서 필요한 핵심적 요소이다. 논리적 연결 관계는 어법적 연결 관계와 의미적 연결 관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분리된 다기보다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내용의 어법적 연결 관계와 의미적 연결 관계를 이해하여 주어진 글 앞에 올 수 있는 내용이나 글 뒤에 올 내용을 추론해 보게 한다. 이 외에도 순서가 뒤섞인 문장이나 단락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글의 전개 순서나 논리적 구조 등을 이해한다.

(자) 항의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는 바로 상위 (아)항의 성취 기준이 연계된 것을 알 수 있다(‘글의 연결 관계를 파악’ → ‘글의 전개 순서나, 논리적 구조를 이해’). 글의 전개 순서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이나 단락을 연결해 주는 연결 어구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글의 짜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학습 활동으로는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의 순서를 뒤섞어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내용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이해하여 글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빈칸에 연결어 채워 넣기,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아내기,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 찾기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쓰기

(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생각한 바를 일기로 쓴다.

영어 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이다. 처음에 영어 일기를 쓸 때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영어로만 쓸 수도 있고,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쓸 수도 있으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점차 정확한 영어로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생각한 바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완전한 문장으로 일기를 쓴다기보다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로 일기를 쓰는 목표도 가능하다. 학습 활동으로는 일기 쓰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쓰게 하든지 영어로만 쓰도록 할 수도 있다. 하루 일과에 대한 내용보다는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유도한다.

(나) 짧은 글을 읽고 결말을 완성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읽기 능력의 핵심인 추론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으로서 여기에서는 읽은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짧은 글을 읽고, 결말을 완성하여 쓰게 할 경우 학생의 수준에 따라 결말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초기에는 유창성에 초점을 맞추고 점차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결말을 쓰도록 한다. 자료를 읽고 논리적인 결말을 쓰는 것이지만, 논리적인 수준의 결말 쓰기가 아닌 끝말 이어 쓰기 수준 정도도 가능하다. 내용이 너무 길거나 어렵지 않은 글을 제시하고 주어진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서들을 통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추론하고 결론을 예측하여 쓰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예시문을 참고하여 문장이나 단락을 바꾸어 쓴다.

이 성취 기준은 ‘간단한 이야기를 읽고 주인공이나 시제 등을 바꾸어서 다시 쓴다.’(2학년)와 연계된 쓰기 활동이다. 두 성취 기준 모두 통제 작문이며, 앞선 성취 기준은 단순히 인칭이나 시제를 바꾸어 쓰는 활동이고, 성취기준 (다)항은 문장이나 단락을 바꾸어 쓰는 활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예를 들어, 능동태 → 수동태 문장으로, 직접 화법 → 간접 화법 문장으로, 직설법 → 가정법 문장으로 바꾸어 쓰게 하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라)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듣고 쓰는 것은 영어 학습 활동에 기초가 되는 통합적 성취 기준이다. 즉,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목적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여러 상황에서 일어나는 말이나 대화를 듣게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정보를 메모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생일 초대 관련 대화라면 시간, 장소 등 구체적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특정 주제의 캠페인 관련 대화라면 그 담화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쓰게 할 수 있다.

(마) 쉬운 글을 읽고 요지를 쓴다.

글의 요지는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으로서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요지는 글쓴이의 의견이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표현도 보다 구체적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읽은 글의 요지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 찾아 쓰고 더 나아가 필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담고 있는 핵심어를 화제와 연결 지어 문장 단위로 쓰도록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글쓴이의 의견이나 태도를 담고 있는 핵심어나 문장을 주어진 글에서 찾아 쓰게 하거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문장 단위로 쓰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바) 실물, 사진, 그림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히 쓴다.

이 성취 기준은 친숙한 실물, 사진, 그림을 보고 그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활동이다. 실물, 사진, 그림에 대한 자세한 묘사라기보다는 스케치를 그리듯 보이는 그대로 꾸밈없는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실물, 사진, 그림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유창성에 중점을 두어 한 단락 정도 쓰게 한다.

(사)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간단한 소감문을 쓴다.

이 성취 기준은 읽은 책이나 본 영화에 대하여 개요를 쓰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 쓰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나 장면에 대한 소감을 덧붙여 쓰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읽은 책이나 본 영화에 대하여 제목, 지은이, 감독, 주인공, 대강의 줄거리와 같은 개요나 소감문,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장면에 대하여 짧은 글을 쓰게 할 수 있다.

4. 교수·학습 방법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생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둘째,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며, 셋째, 수준별 수업에 대한 개념을 명료하게 하며 수준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급 조직, 학습 유형, 학습 활동 등을 예시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언어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 중심의 수업을 계획하여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협조자가 되도록 한다.

학생 중심 학습의 특징은 학생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학생들이 학습 내용 및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하고 성취감, 자존심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위해 교사는 학습 목표라는 큰 구조 속에서 학생들의 능력, 필요, 흥미를 고려하여 개인별, 짝별, 조별, 분단별 학습 활동이나 과제를 고안해야 한다. 교수·학습 자료 선정에 앞서 학생들의 흥미나 경험을 조사하여 반영하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이 되어 수업의 효과를 높이게 된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세부적인 학습 내용을 구성해 가는 창의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과제 수행을 통해 필요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자신감이 내적 동기가 되어 다음 수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생 중심의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 스스로 언어 재료를 선택하여 표현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의사소통 활동이 지속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관찰자로서 학습 활동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문제점과 학습 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자신감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학습 과정의 협력자 혹은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계획된 학습 활동 전반을 통제하면서, 학생들의 부정확한 어법이나 부적절한 어휘 사용 등을 지적하고 수정해 주는 교정자 역할에 치중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의욕을 감소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학생 중심의 수업은 교사 주도의 수업과 달리 자칫 학습 목표가 흐려지거나 방향을 잃는 등 수업 활동이 산만해질 수 있고, 교사가 예상하지 못한 수업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나.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수업에는 학생들이 해 볼만한 재미나 가치가 있다고 느낄만한 실제적인 과제를 부여하여 학습 과정에서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의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언어 활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의사 전달과정으로, 학생들이 과업에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학생과 관련이 있는 친숙한 화제를 활용한 의사소통 활동으로 날씨, 뉴스, 스포츠, 영화, TV 프로그램, 주말 활동 등에 관해 교사가 대화를 시작하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하여

학생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완료 시제를 학습한 후 다음 차시에 여행을 화제로 실제 경험을 묻고 답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해당 차시 내용을 도입할 때의 활동으로는 주제어와 관련된 단어, 구, 문장을 표현하도록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개념도 작성 등이 있다. 새로이 제시된 언어 요소를 충분히 연습시킨 후, 이를 활용하여 실제로 발화하거나 글로 쓰는 경험을 갖도록 구성한다. 예를 들어, 게임, 스토리 텔링, 전화 통화하며 메모하기, 간단한 이메일 주고받기, 책이나 영화 등의 소감문을 쓰고 발표하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ICT) 자료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의사소통 참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활동인 역할극은 학생들에게 언어 사용과 관련된 가상의 역할을 부여하여 주어진 상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역할극에의 참여는 의사소통에 미묘한 의미 차이를 주는 억양, 표정, 몸짓 등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 근접한 사회언어학적 언어 기능을 익히는 기회가 된다. 교사는 각 학생이 상대방의 역할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자신의 역할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의사소통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파악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과제해결형 방법도 효과적이다. 상호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두 사람에게 상호 보충적으로 배분해 주면,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소통에 근접한 영어를 사용하게 된다. 의미 교환을 위해 생각하고 자신의 언어 지식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한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행과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험을 쌓게 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고안하고, 활동의 필요성 및 가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학생의 학습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인원 및 수준의 학생들을 배치하여 모두에게 연습 기회를 보장할 뿐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 학생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게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알고 있는 언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전략은 개인이 정보의 생산적인 소통을 위해 세우는 의식적인 계획으로, 회피(avoidance), 바꾸어 말하기(paraphrase), 권위에의 호소(appeal to authority), 직역(literal translation) 등의 언어적 전략과 마임(mime)이나 얼굴 표정 등의 비언어적 전략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대화 중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거나 상대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등의 의사소통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피 전략에는 잘 알지 못하는 화제를 자신이 친숙한 다른 화제로 자연스럽게 전환하여 대화를

유지하는 화제 회피와 주어진 화제는 유지하면서 의미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통사적 혹은 어휘적 항목의 회피가 있다. 바꾸어 말하기 전략은 근사어(approximation)나 신조어(word coinage) 또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어휘 항목(예. waterpipe)을 대신하여 그 항목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주의 어휘(예. pipe)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표현(balloon 대신 airball)을 만들어 사용하고, 적절한 어휘나 구조를 찾지 못할 때 해당 물건이나 행동의 특징 및 요소를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위에 직접 호소하는 전략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한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원어민이나 자신보다 우수한 언어 사용자에게 정확한 용어, 구문 등을 직접 묻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따금 자신의 표현이 옳은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모국어 표현을 그대로 목표어로 직역하여 표현하는 전략은 목표어의 구조나 어휘로는 어색하지만, 의사소통 중단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제한된 언어 능력이나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전략을 가르친 다음, 이러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을 대화로 구성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의식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도록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ICT) 자료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전략이 실제로 사용되는 대화 장면을 보여주면, 전략이 필요한 상황, 사용하는 방법 및 그 효과 또는 중요성 등을 보다 쉽게 인식시킬 수 있다.

라. 듣기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영어 음성 언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지도한다.

듣기 능력은 말하기를 통해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기능이 아니라 말하기 능력보다 우선적으로 학습되어야 하는 기능으로 이해되고 있다. 듣기는 상대방이 말한 것을 소리와 함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수업 시간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교사라면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청각 자료는 인간의 감각 중에 시각과 청각을 자극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매체로서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 뿐 아니라 학습자와 시청각 자료가 상호 작용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지닌 자료를 포함한다. 즉, 시청각 자료는 실물, 그림, OHP, 녹음기, 라디오, TV에서부터 비디오, 컴퓨터, 인터넷 등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업의 성격이나 목표에 부합하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듣기 수업에서는 교사가 듣기 전 활동, 듣기 중 활동, 듣기 후 활동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 듣기 전 활동으로 교사가 웹 사이트나 그림 자료에 제시된 학습 주제와 관련된 학생의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학생은 이를 통해 학습할 내용을 예측하며, 듣기 내용 속의 표현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듣기 중 활동으로 전체적인 듣기를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자세히 들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들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에 응답하고, 배운 표현들을 정리해 본다. 이때, 단계별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듣기 후 활동으로는 들은 내용을 읽거나 쓰기 활동으로 연계하여 그룹별 과제를 실행한 후 발표할 수 있다.

요즘에는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수준별로 학습자에게 적합한 듣기 수업을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으며 단순히 자료를 사용하기 보다는 자료를 활용하여 연극, 노래, 프로젝트 학습 등을 실시하면 학생들의 흥미 유발 뿐 아니라 실제 학습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마. 말하기는 유의적이고 의사소통 중심적인 연습 활동을 통해 유창성과 정확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유의미한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활동이란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질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영어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할 때, 유창성이 중요하므로 학생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말하도록 하되, 유창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정확성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여러 언어 기능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어의 유창성 및 정확성을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말하기 전 활동 수행, 동일한 과제의 반복, 과제 수행 후 언어 형태 초점 활동 등이 있다. 예를 들면, 말하기 활동 전에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과제에 익숙해진 후 과제를 반복 수행하도록 한다. 과제를 진행할 때는 과제의 단계별 학습 과정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그룹 활동으로 제시되는 과제를 수행할 때는 학습자 개인의 역할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각자의 스트레스 해결법을 소개하고 서로에게 조언하는 과제를 할 때, 교사가 제시한 관련 자료에 대한 토의를 통해 학습 주제를 이해하고, 각자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도록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 쓰이는 표현, 또는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고 짝 또는 그룹 활동을 통해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제를 수행한 후에는 핵심이 되는 언어 표현에 대한 후속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정보 찾기, 질문하기, 추론하기, 상상하기, 모호성 견디기, 의미 협상하기 등의 의사소통 전략 등을 익힐 수 있다.

바. 읽기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과업 중심의 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읽기 전략은 독자가 글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정신 작용 및 문제 해결 기술로서, 문맥을 통한 단어의 의미 추측, 그 추측에 대한 평가, 동족어나 동족어군을 식별하기, 훑어 읽기, 예측하

기, 배경지식 활성화, 글의 주제 찾기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참고자료 이용하기, 유목화하기,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기, 추론하기, 전이(transfer)하기, 노트(notetaking), 요약하기, 번역 등이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전략이다. 이러한 읽기 전략은 읽기 학습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읽기 전략을 훈련하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 원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다양한 읽기 전략을 소개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훑어 읽기는 전체적으로 핵심이 되는 정보나 표제어 등을 훑어봄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전략으로 읽기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데,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중요한 개념 중심으로 읽는 전략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모든 단어나 문장을 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활동을 할 때, 교사는 해당 차시의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은 인터넷을 통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연습시킬 수 있다.

또한, 추론하기는 읽기 중 활동에서 글을 읽으면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필자의 논리, 견해, 결론, 혹은 드러나지 않은 주제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필자가 글에서 제시한 단서를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답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학습자의 역할이다. 추론하기를 연습하는데 자주 이용되는 것은 추리 소설과 유머이다. 외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서나 핵심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연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제한 시간 동안 추리소설을 읽고 범인이 누구이며, 그 단서가 무엇인지 짚 활동을 통하여 토론하고 결정된 사항을 이유와 함께 제출한다.

이러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 주어진 과업을 완성하는 학습 활동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읽기 전략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사. 쓰기는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쓰기 능력은 단순히 지식이나 원리를 배움으로써 향상되는 것이 아니며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단어의 선택, 문장의 구조 및 연결 관계, 글의 구성, 통일성과 명료성 등을 글의 목적과 독자의 반응을 예상하고 분석해야 하는 복합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정 중심의 쓰기 지도 방법이나 전략 중심의 지도 방법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기 능력에 비해 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쓰기 학습이 읽기에 비해 교육과정 운영 시 소홀히 취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쓰기 학습 초기 단계에는 통제된 학습 활동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또 쓰기 과정에서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더라도 의미에 중점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쓰기 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초기 단계의 활동으로는 단일 주제나 이야기를 담은 그림, 지도, 도표 등을 시각자료로 이용하여 쓰기 활동에 적합한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가 영어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을 이끌어내고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초안 작성 및 수정 작업에서는 학생들이 글을 쓰는 목적과 필자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흥미, 경험을 이끌어 내어 그것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교사들은 학생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당 수업시간에 학습할 영어로 쓰인 글의 구조 및 형식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때, 읽기와 쓰기를 연계하여 지도하는 수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제를 명확히 제시하는 문장(thesis statement)과 핵심 논제를 뒷받침하는 문장(supporting ideas)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연습시킨다.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중심의 쓰기(writing on function) 활동에는 묘사, 사실이나 자료를 통한 증거 제시, 비교 및 대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쓰기 학습을 한다.

아. 영어권 및 비영어권의 다양한 문화를 학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가치관을 기르도록 한다.

영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영어로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며,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폭넓은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 지도에서는 설명 위주의 수업보다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거나 체험 학습 형태의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영어 수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게임이나 놀이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알아야 할 문화적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거나, 토론 또는 원어민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보나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특히, 문화 교육에서는 역할극(role play)이나 마임(mime) 등을 통해 해당 문화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을 실제로 해 봄으로써 습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의사소통 방식과의 차이점을 알아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알아보고 실제로 수행해 보는 것이다. 이때, 수업 장면을 녹화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다시 점검하며 토론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 교육의 소재로는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몸짓이나 표정들이 각각의 문화에서 다르게 이해되는 것 알아보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이해하기 등이 있다.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이용하여 동영상 자료를 함께 보면서 해당 차시와 연계될 수 있는 문화적 내용을 학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문화에 대한 정형화된 생각을 전달하기 보다는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 및 학습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다.

자. 수업은 가급적 영어로 진행한다.

외국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이 목표 언어에 집중하여 그 언어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습자의 자신감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

다. 또한, 학생들이 영어 과목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유창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교실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학생들이 해당 언어를 배우는데 중요한 입력(input)이 되므로 교사의 올바른 언어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유창한 영어 사용 능력보다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한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실 영어 구사능력이 더 중요하다.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수업에서 교사는 언어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실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주로 교사의 발화가 대부분이며 언어를 통한 상호 작용은 교사에 의해 시작되어 학생은 간단한 반응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교사들은 영어 사용 능력과 함께 학생들 수준에서 유의미한 언어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업 전략을 사용하여 교실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분명한 발음으로 다소 느리게 말한다. 둘째, 짧고 덜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며, 셋째, 쉽게 바꾸어 말하기(paraphrase)와 반복해서 말하기(repetition)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반드시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면서 학습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넷째, 몸짓(gesture)과 시각적 자료(visual aids)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 학생들도 영어를 사용할 때 몸짓 등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울 수 있다. 다섯째, 구체적인 지시 대상을 언급하여 전달하려는 의미를 분명히 한다. 마지막으로, 초기에는 학생들과 함께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관찰하고 모방할 수 있는 언어자료를 제공하며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실제 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scaffolding)을 설정하는 것이다.

한편, 초기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최소한의 모국어 사용이 필요한 것이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항목을 가르칠 때나 한 수업 단위에서 목표 언어와 모국어를 자주 교체하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교사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차.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ICT)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므로 학생들이 실제로 영어를 접하고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 중심의 활동만으로 교실에서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요즘에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문서 자료(written document), 비디오, DVD, CD, 뉴스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교사가 이를 활용

하여 실제와 매우 흡사한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 활동을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하며, 학습자가 원하는 만큼의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

정보 통신 기술(ICT) 활용 영어교육은 학습 및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으로, 영어과의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ICT)을 교육적 매체로써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이용하여 교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차원을 벗어나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ICT)을 이용하여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과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상호작용, 온라인 지원, 다중매체의 성격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심화된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탐구력을 기르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 할 수 있다. 교사는 해당 차시의 학습 주제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기존 지식을 토대로 학습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탐구하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습 주제 및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찾아내는 과정을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가 직접 만든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하면서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이메일, 채팅, 자료 올리고 내려 받기, 게시판에 글쓰기 등의 복합 기능을 부가하여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 상대방과 서신 교환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뉴스그룹(Newsgroup)을 이용하여 영어로 상대방과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뉴스그룹이란 전 세계적인 전자 게시판 서비스를 구성하는 뉴스·토론 시스템으로 인터넷에서 같은 관심거리가 있는 사람들끼리 특정 주제에 관해 토론하거나 최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한다. 학생들은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수도 있고 같은 뉴스그룹 회원들에게 질문을 보낼 수도 있으며,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도 있다. 교사가 주제를 명확히 정하여 활동을 이끌어 준다면 효과적인 영어 학습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말하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 비동시적 의사소통 도구인 음성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계획하여 게시판을 통해 표현하고 점검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음성 게시판이 활용될 수 있으며, 교사는 말하기와 쓰기 능력의 수행평가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음성 게시판이 활용되기 힘든 상황에서는 문자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영어수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보 통신 기술(ICT)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카.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습능력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수준별 수업 운영 유형으로는 학급 간

이동 수업, 학급 내 수업, 학급 간 이동 수업과 학급 내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급 간 수준별 이동 수업을 위한 분반 형태는 학급 수나 학생들의 성적 분포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전체 학년을 두 수준으로 분리하여 심화반과 보충반으로 구성하거나, 세 수준으로 분리하여 심화반, 기본반, 보충반으로 편성하기도 하며, 네 수준으로 분리하여 심화반, 기본반, 보충반, 기초반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다. 수준별 집단 편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교과 성적 이외에도 학생의 다양한 개인차, 교사·학생·학부모의 요구와 희망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편성하되, 분반 기준 및 시기를 다양하게 설정한다. 둘째, 하위 수준 학생들을 배려하여 학급 당 학생 수를 가급적 줄이고 경험 있는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의 모형으로는 모둠별 협력 학습(이질 집단), 수준별 분단 수업(동질 집단), 학생 스스로 수준에 맞는 분단을 선택하는 선택형 분단 수업, 개별 학습 등이 있는데, 기존 학급뿐 아니라 수준별로 편성된 학급에서도 학습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여건에 맞는 적합한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학급 내 수준별 수업 모형에 따른 수업 운영시 다양한 수준에 따라 여러 종류의 학습 자료와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해야 하는 등 교사의 부담은 크지만, 안정된 학급 분위기를 유지해 나갈 수 있고 학생 상호간에 친숙하기 때문에 학습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학습자의 능력, 흥미, 인지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동기 유발 방법과 학습 활동을 구안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오늘날 교육의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학습이다. Rubin(1987)은 성공적인 언어 학습에 이르는 길은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양식에 따라 여러 갈래의 통로가 있다고 하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서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교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은 학습의 개별화를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들의 지적 능력 내지 학업 성취도 차이뿐 아니라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다양성 등의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포함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개개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학업 성취 수준 및 능력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 과제를 부여하는 수준별 교육의 기반 위에 학생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학생이 선호하는 학습 양식 및 다중지능 이론 등을 고려한 학습 활동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습자 훈련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길러 주는 것도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서 자기 보상을 찾을 수 있도록 흥미롭고, 의미가 있으며,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하여 내적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말하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선 흥미를 가

질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심을 높인다. 그런 다음, 누구든지 말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통해 언어 학습이 일어난다는 점을 상기시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학습 내용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를 학습의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고 학습자의 필요를 수용하여 개개인의 현재 상태를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동기 유발 방법과 학습 활동을 구안함으로써, 자신들의 언어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 및 내용을 결정하게 하는 등 가능한 학습 선택권을 많이 부여함으로써 잠재적 가능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 개인차에 따라 수준에 맞는 학습 활동이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기본 교과서나 보조 교재를 다양한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다.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한 완전한 의미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은 불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능력, 적성, 흥미, 요구 등 다양한 개인차를 반영한 교재를 개발하여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면, 학습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활동의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학업 성취 수준 및 능력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 과제를 부과하는 수직적 수준 구현과 함께 학생의 다양한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개인차를 활용하는 수평적 수준 구현을 고려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 중, 하 각 수준에서도 학습자의 스타일이나 다중지능 이론이 반영된 다양한 과제를 개발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수준별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준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이므로 수준에 따라 기본적인 교과서를 각기 달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자가 수준을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정기고사에서 동일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인 교과서는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수준별로 차별화된 학습 활동이나 과업을 포함하는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준별 보조 교재의 경우 교과서를 위주로 공통적인 학습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특히 수준 간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심화반(상위집단)의 교재는 개인 혹은 조별로 창의력을 요하는 다소 어려운 수준의 과업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학습 내용을 더 자연스럽고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창성 증대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둔다. 기본반(중위집단)은 교과서를 약간 응용하거나 변형한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부족했던 자신감을 갖게 하고 개인별, 조별 경쟁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바람직하다. 보충반(하위집단)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수준의 과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다양한 학습매

체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아 줌으로써 학습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는 성취 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언어 기능, 어휘, 언어 형식 등을 학생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이에 맞추어 교수 방법을 다양화한다.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 즉, 실제 언어 사용 능력의 향상이므로, 교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다양한 학습 단계를 거쳐 실제 언어 사용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 목표 성취 기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보충 자료를 통해 정확성에 중점을 둔 다양한 연습 활동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성취 기준을 달성한 학생들에게는 심화 자료를 통해 유창성에 중점을 둔 다양한 언어 사용 활동을 추가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유창성을 보다 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말하기 성취 기준 (마)항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이나 대화를 듣고 자신의 경험과 연관시켜 말한다.’를 학습 목표로 하는 수업에는 언어 기능으로 듣기와 말하기, 언어 형식으로 현재완료시제, 경험과 관련된 어휘가 포함된다. 교사는 각 수준별로 말하기 전(pre-speaking), 말하기 중(while-speaking), 말하기 후(post-speaking) 활동을 구성하고 이에 맞추어 교수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기본반은 목표 언어 형식과 교과서 수준의 어휘를 활용하되 유의적인 내용의 예문으로 언어 형식에 익숙하게 한 후 간단한 의사소통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칭찬으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하여 심화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심화반은 목표 언어 형식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상황을 담은 실제적 자료(authentic material)를 활용하여 추가 과제 및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속도, 자연스러운 의사전달, 감정이입 등을 익히게 하여 언어 학습의 유창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말하기 중 활동으로 각자의 경험과 관련하여 역할극을 하거나 타인의 경험에 관해 조사하여 발표하는 등 보다 자유로운 과업(free task)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말하기 후 활동에서는 관련된 이전 학습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거나,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주제와 관련된 읽기나 쓰기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활동 전반에 걸쳐 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보충반에는 교과서의 최소 필수 내용 요소만으로 재구성하는데, 말하기 전 활동으로 목표 언어 형식과 관련된 동사 활용 등의 선수 학습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쉬운 어휘를 활용하여 목표 언어형식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예문을 제시해 주고 이를 활용한 퀴즈, 게임 등으로 지루하지 않게 반복 연습을 시킨다. 표현에 익숙해지면 각자의 경험을 말하는 유의적인 연습을 통해 통제적인 과업(controlled task)이나마 경험을 묻고 답하는 의사소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5. 평 가

(1) 평가 지침

영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수업 내용이 평가로 반영되어야 하며, 또 평가의 결과가 수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추어 영어 수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의 내용과 방법 및 평가가 일관성 있게 운영될 때, 영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준하여 평가 목표를 설정한 후에 평가를 시행한다.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를 계획할 때에는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에 앞서 영어의 어떤 기능에 관한 평가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평가 목표를 목록화 할 필요가 있다. 평가 목표를 목록으로 작성할 때, 일반적 목표와 함께 교과서의 학습 목표 및 수업 목표에 근거한 구체적인 평가 목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평가 문항과 절차를 개발한다. 또한 각 평가 목표에 대하여 문항의 종류나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이 정확하게 측정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나 학습자가 더 많이 활용하게 될 내용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학생의 우열을 구별하기 위해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출제하는 것 등은 지양해야 한다.

(나)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학생 개별적, 혹은 전체적으로 해석 및 판정한다.

평가를 학습 활동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평가를 하는 시기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가르친 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정도 학습 되었는지 알고자 할 때이다. 학습자 개인별 평가를 할 것인지, 학습자 전체를 평가할 것인지, 또 개개인 혹은 학생 전체에게 기대하는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평가를 계획할 때 염두에 둔다.

한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별로 학습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이것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유리되기 때문에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지도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평가에서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형 문항을 제작할 수 있다. 의사소통 상황과 유사한 문항 형태(item type)를 문항의 제시 형태와 응답 형태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면, 제시 형태는 문자(written), 음성(oral), 비언어적(nonverbal)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응답 형태 역시 문자(written), 음성(oral),

비언어적(nonverbal)의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결합해 보면, 실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9가지의 문항 형태가 가능해 진다(Cohen, 1994). 언어 기능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문항 개발에 있어 이를 권장할 만하다.

- 읽고 말하기
- 듣고 말하기
- 보고 말하기
- 읽고 쓰기
- 듣고 쓰기
- 보고 쓰기
- 읽고 표현(그리거나 표시)하기
- 듣고 표현(그리거나 표시)하기
- 보고 표현(그리거나 표시)하기

평가가 끝나면 교사는 평가의 결과를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교사가 기대한 바와 학습자들의 시험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학생들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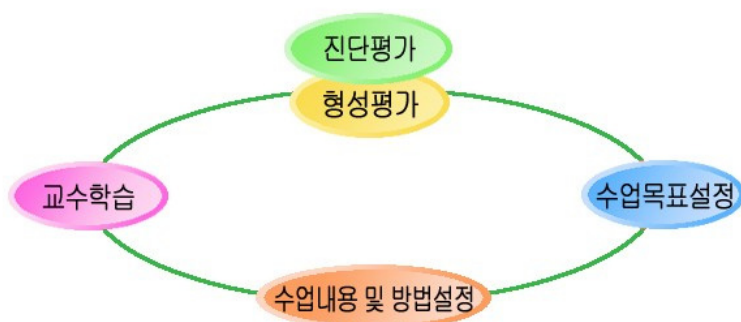
(다) 진단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한 후 교수·학습 방법 및 내용에 적용한다.

평가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습자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어느 정도로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진단을 근거로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진단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한 후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 수업 지도 방법 및 내용을 계획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도모할 수 있다.

(라) 형성 평가를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이 적절한 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의 시점, 또는 평가의 목적과 관련해서 평가는 크게 형성 평가(formative assessment)와 총괄 평가(summative assessment)로 구분된다. 형성 평가는 교사와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학습 과정 중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평가로, 평가의 결과가 다음 학습이나 지도에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하여 준다. 형성 평가의 예로 수업 시간 중에 학습자의 과업 수행 여부에 대한

관찰, 질문, 주어지는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 과제 점검, 워크시트, 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총괄 평가, 혹은 형식적 평가(formal assessment)는 일정 단위의 지도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로 지도가 끝난 후에 학습자의 수행 수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흔히 지필고사로 이루어지는 중간이나 기말고사가 이에 해당한다(McMillan, 2006). 다양한 방법의 형성 평가를 통하여 교수·학습방법이 적절한 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업 목표 설정, 교수·학습방법, 평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과정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목표 설정, 학습, 평가의 관계

(마) 말하기 및 쓰기와 같은 언어 표현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말하거나 쓰기 기능의 경우,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짐작할 수 있는 간접 평가(indirect test)보다는 학습자가 직접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직접 평가(direct test)가 적절하다. 수행 평가란 학습자가 습득된 지식이나 기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지에 의한 간접적인 측정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측정에 의하여 얻은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직접 평가(direct assessment), 전통적인 지필 평가에 대한 대조적인 의미에서의 대안 평가(alternative assessment), 실제적인 맥락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참 평가(authentic assessment)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Blum과 Arter, 1996).

(바) 수행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의 목표, 평가 문항 유형,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한 후에 실시한다.

평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학습자의 영어 능력을 의미 있게 점검하려면, 타당도와 신뢰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수행 평가는 정답이 있는 평가가 아니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평가자의 평가 시행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학습자 이해를 위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타당도는 평가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으로 수행 평가의 경우 평가의 목표와 평가 내용 및 평가 문항 유형이 얼마나 일치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편,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으로 수행 평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1) 평가 요인

- 평가에 제시된 내용 : 평가에 선택된 지문이나 대화의 내용이 학습자에게 익숙한 경우 평가 하고자 하는 능력보다는 배경 지식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 평가 항목의 모호성 :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흔히 발생하듯이, 평가에 제시된 지문이나 대화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정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사전에 답을 가정해 보고 복수 답의 가능성에 대비해 그 변수를 최대한 통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어떻게 결과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 평가에서 주어지는 지시의 명확성 : 평가 문항의 제시 내용이나 요구되는 응답이 잘 계획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지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흔히 발생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평가의 형태 : 학습자들의 평가 형태에 대한 친숙도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습자가 평가 형태에 익숙한 경우 평가 형태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평가 형태에 대한 정보를 주고,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가의 길이 : 학습자의 연령과 학습 수준에 맞추어 평가의 길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평가의 목적에 맞도록 간결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상황적 요인

- 평가 실행자(감독관)의 태도 및 지시 방법 : 제시된 지시문에 대해 평가 실행자가 개인적 해석을 추가하는 경우, 학습자의 응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학급에 국한된 평가가 아닌, 학교 단위의 평가에서는 평가 실행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또 평가 실행자의 표정이나 목소리의 단호함 등 비언어적 표현에 의하여 학습자의 심리적 반응이 달라져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평가 실행자는 온화하면서도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평가받는 장소의 조명, 음향, 안락감 : 평가 장소가 익숙하지 않거나 음향 기기가 순간적으로 오작동하거나, 교실 내 학습자의 위치에 따라 소리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요인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평가 장소 안팎에서 나는 소음 : 평가에 대한 모든 준비가 제대로 되었어도 평가 시 소음에 의하여 학습자의 집중도가 영향을 받거나 혹은 소음으로 인하여 들어야 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듣기 평가를 할 경우엔 소음에 특히 유의한다.

3) 개인적 요인

- 평가받는 학습자의 신체 및 심리적 상태 : 평가를 받는 학습자는 긴장하기 마련인데 소심한 학습자의 경우는 신체 및 심리적 상태에 의하여 영향을 더욱 쉽게 받으므로 학습자가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습자를 평가 장소 및 평가 방식에 익숙하게 하고 가능하다면 여러 번의 평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습자의 영어 사용 능력, 일반적인 지적 능력(IQ) : 최근 외국에서 영어를 학습하고 돌아온 학습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학교 교육만으로 영어를 학습한 대다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어 사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평가 전에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만 평가하므로 공부만 한다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학습자들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의욕을 고무해야 한다.

아울러, 수행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의 목표, 내용, 평가 문항 유형,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한 후,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최대한 통제하여 실시한다.

(사) 포트폴리오 평가,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평가는 학습 과정의 일부분이므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학습자에게 무엇을 평가하는지, 왜 평가하는지, 평가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평가 결과가 사용되는 용도에 관하여 알려주고 만족할 만한 평가 결과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려준다.

의사소통 능력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얻어지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 또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어의 경우 ‘한 번으로 끝내는’ 시험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습 발달 상황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범주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학습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합적인 파악에는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인 평가를 위하여 포트폴리오, 자기 평가, 상호 평가 등 학습자가 참여하는 평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포트폴리오에는 학생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물을 수집한 것이 포함되는데, 교실에서 시행한 시험의 결과, 작문 샘플, 녹음테이프 등의 결과물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학생의 노력, 진보, 혹은 성취도를 보여주는 데 매우 적합하다. 결과물만으로 볼 수 없는 것, 학습 과정상의 어려움, 특정 영역 수행 가능 여부, 자신감 등에 대한 평가로는 자기 평가가 적절하다. 자기 평가는 각 개인의 판단 능력이나 판단의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식적인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학습 과정에 대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스스로 학습 결과에 대하여 점검하게 함으로써 학습 계획이나 학습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적인 평가이다.

학습자 스스로가 소홀히 여기거나 관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로는 학습자 간의 상호 평가가 유용하다. 학습 과정상의 여러 학습 활동상의 태도, 수행 정도, 목소리의 크기 등 교사의 관찰이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 평가의 기능을 할 수 있다.

(2) 평가상의 유의점

의사소통 능력(Canale과 Swain, 1980)의 개념 정의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술하는 틀을 제시하게 되었으며(Bachman과 Palmer, 1996),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도 실생활의 언어 사용에 맞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최근의 평가 경향이다. 영어교육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기 때문에 평가 또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다루어야 한다.

(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영어의 4기능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균형 있게 평가한다.

실제 의사소통 유형과 유사한 문항 형태를 통하여 영어의 네 기능을 고루 평가하도록 한다. 문항의 제시 형태와 응답 형태로 구분하여 볼 때, 글을 읽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보고 말하기, 읽고 쓰기, 듣고 쓰기, 보고 쓰기, 읽고 표현(그리거나 표시)하기, 듣고 표현(그리거나 표시)하기, 보고 표현(그리거나 표시)하기 등의 문항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 읽기나 듣기의 경우, 지문의 종류, 내용, 길이, 제시되는 어휘 수준 등에 따라 학습자가 느끼는 문항의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수업에서 다루어 왔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학습 부진 요인을 분석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학습 과정의 일부이므로 학습자와 함께 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 순간 학습자의 수행 능력의 한 단면만을 보는 평가(test)보다는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성취를 파악하는 평가(assess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학습자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 평가 결과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평가 결과가 사용되는 용도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질 때 평가는 학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에 의한 평가뿐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의 수행 능력을 진단해 보는 것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대한 성취 정도를 <표 IV-3>과 같이 ‘나는 -----을 할 수 있다’ 형식의 진술문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습 목표에 대하여 초기부터 관심을 갖게 하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다.

<표 IV-3> 자기 평가의 예

| 문항의 예 | 매우 자신없다 <-----> 매우 자신있다 | | | | |
|---|-------------------------|---|---|---|---|
| 짝에게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질문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전날 저녁 한 일을 과거형 동사를 사용 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과거형 동사를 사용 하여 일기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 1 | 2 | 3 | 4 | 5 |

자기 평가를 사용하기 전에 학습자가 자기 평가의 목적, 장점, 그리고 방법을 설명하고 학습 과정 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학습에 몰입하고, 자율적인 학습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평가의 결과를 학생들의 등급을 나누는 등의 행정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학생들의 능력을 잘 판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과제와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을 통하여 평가한다. .

수업의 성취도를 평가 하는데 1회의 평가를 사용하면 학습자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얻게 된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테스트가 학습 과정 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학습자는 학습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 받게 되고 스스로의 학습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게 되므로 형성 평가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다.

학교에서 흔히 활용되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V-4> 영역별 평가 방법의 예 1)

| 평가영역 | 평가 방법의 예 |
|------|--|
| 듣기 | 내용을 듣고 선택하기, 내용을 듣고 틀린 곳 찾기, 듣고 그림 그리기, 문장 받아쓰기, 듣고 빈칸 채우기, 듣고 요약하여 말하기·쓰기, 듣고 틀린 부분 고쳐 쓰기 등. |
| 말하기 |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말을 답지에서 찾기, 질문 듣고 대답을 쓰기, 대화 완성하기, 질문에 대답하기, 암기하여 말하기, 그림·활동을 보고 설명하기, 영어 연극이나 역할극 하기, 조별 발표, 개인 발표 등. |
| 읽기 | 읽고 내용에 부합되는 선택지·도표나 그림 찾기, 소리 내어 읽기, 제시문의 순서 맞추기, 읽고 빈칸 채우기, 읽은 내용 요약하여 말하기·쓰기, 단어·지문 해석하기, 읽고 내용 전달하기, 발표하기 등. |
| 쓰기 | 필요한 표현을 답지에서 찾기, 문장 연결하기, 어순 정하기, 주어진 단어 배열하여 문장 만들기, 받아쓰기, 단어·숙어 쓰기, 문장 영역하기, 틀린 부분 고쳐 쓰기, 빈칸 채워 쓰기, 짧은 질문에 응답 쓰기, 문장 바꾸어 쓰기, 짧은 글 쓰기, 그림·활동을 보고 쓰기,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요약 쓰기, 보고서 쓰기, 감상문 쓰기 등. |

(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도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총합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도달 여부를 파악하려면 총합 평가를 통하여 의사소통 상황에서 중요하고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어진 학습 내용 전반에 대하여 고른 평가를 해야 한다. 총합 평가를 계획할 때에는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치우치지 않도록 평가 목표의 목록을 먼저 작성할 필요가 있다. 평가 목록을 작성하게 되면 교사가 수업 목표와 실제로 이루어진 수업 내용을 재점검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며, 평가 내용과 방법이 고르게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 평가 목록에 의하여 평가받는 학습자 또한 수업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고루 점검받음으로써 자신의 성취에 대한 고른 피드백을 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게 되고 또 성취의 기쁨도 느끼게 되어 향후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마)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주의와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평가를 전후하여 학습자는 듣거나 읽거나 말하거나 쓰는 활동에 몰입하게 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와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 전후의 시기는 학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므로 평가를 위한 평가이기보다는 평가 자체가 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가에 주어지는 과업은 수업의 목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실제 의사소통과 연결

되어야 한다.

규준 지향적 평가(Norm-referenced test)는 학습자의 지식이나 수행 능력을 다른 학습자와 비교하여 평가 결과를 해석하며, 기준 지향적 평가(Criterion-referenced test)는 기준이 되는 기술과 수행 능력을 먼저 규정하고 학습자의 지식이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설정된 기준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의 여부로 평가 결과를 해석한다.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는 기준 지향적 평가가 바람직하다. 변별력을 높이는 평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가능하면 실제 의사소통과 가장 유사한 내용을 학습자가 접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표 IV-5> 영역별 평가 방법의 예 2)

| 평가영역 | 평가 방법의 예 |
|------|--|
| 듣기 | 내용을 듣고 선택하기, 내용을 듣고 틀린 곳 찾기, 듣고 그림 그리기, 문장 받아쓰기, 듣고 빈칸 채우기, 듣고 요약하여 말하기·쓰기, 듣고 틀린 부분 고쳐 쓰기 등. |
| 말하기 |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말을 답지에서 찾기, 질문 듣고 대답을 쓰기, 대화 완성하기, 질문에 대답하기, 암기하여 말하기, 그림·활동을 보고 설명하기, 영어 연극이나 역할극 하기, 조별 발표, 개인 발표 등. |
| 읽기 | 읽고 내용에 부합되는 선택지·도표나 그림 찾기, 소리 내어 읽기, 제시문의 순서 맞추기, 읽고 빈칸 채우기, 읽은 내용 요약하여 말하기·쓰기, 단어·지문 해석하기, 읽고 내용 전달하기, 발표하기 등. |
| 쓰기 | 필요한 표현을 답지에서 찾기, 문장 연결하기, 어순 정하기, 주어진 단어 배열하여 문장 만들기, 받아쓰기, 단어·숙어 쓰기, 문장 영역하기, 틀린 부분 고쳐 쓰기, 빈칸 채워 쓰기, 짧은 질문에 응답 쓰기, 문장 바꾸어 쓰기, 짧은 글 쓰기, 그림·활동을 보고 쓰기,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요약 쓰기, 보고서 쓰기, 감상문 쓰기 등. |

V. 영어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 과 목 | |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 비 고 |
|--|----------|---|--|--|
| 국 민 공 통 기 본 교 과 ~ 영 어 ~ | 구 성 | ○ 외국어 교과서의 편제를 ‘영어’, ‘영어I’, ‘영어II’, ‘영어 독해’, ‘영어 회화’, ‘영어 작문’으로 구성 | ○ ‘영어 회화’를 ‘실용 영어 회화’와 ‘심화 영어 회화’로 분리 ○ ‘영어 독해’와 ‘영어 작문’을 통합하여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으로 분리 | ○ 수준의 다양화 ○ 2기능씩 묶어 학습의 효율성 제고 ○ 영어과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 반영 |
| | 성 격 | ○ 영어 필요성 ○ 초·중등 영어교육의 성격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 ○ 영어 필요성, 영어 과목의 필요성 보장 ○ 수준별 수업 운영 권장 | ○ 수준별 교육과정 관련 내용 삭제 ○ 수준별 수업의 자율적 운영을 권장 |
| | 목 표 |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최종단계의 영어교육 목표만 제시 | ○ 전체 목표 아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목표 분리 ○ 명확한 목표 진술 | ○ 학교 급 별 목표를 분리하여 제시 |
| | 내 용 | ○ 언어재료를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단일문장의 길이로 구분 ○ 학년별 어휘 - 초등 450낱말 내외, 7~10학년 1,250낱말 내외 - 전체 누계 1,700낱말 내외 [별표3] 기본어휘목록의 기본어휘 수 : 2,067개 ○ 단계별(학기별) 성취 기준 구분 ○ 목표와 학습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성취 기준을 제시 | ○ 언어재료 중 문화 항목을 소재 포함 ○ 학년별 어휘 - 초등 500낱말 이내, 7~10학년 1,290낱말 이내로 증대 - 전체 누계 1,790낱말 이내 [별표1] ‘소재’에 문화 내용 포함 [별표2]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조정 및 기능 추가 [별표3] 기본어휘목록의 기본어휘 수 증대 : 2,315개 ○ 중등영어의 성취 기준을 학년 단위로 통합, 위계 조정 ○ 성취 기준 하향 조정, 기본·심화과정을 통합하여 제시 ○ 일부 성취 기준에 상황과 화제 개념 도입으로 내용 구체화 ○ 문자언어 도입 시기를 3학년 2학기 앞당기되 음성언어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 | ○ 학년별 새로운 어휘수의 소폭 증대 ○ 의사소통기능 조정 및 예시문 수정·추가 ○ 기본어휘목록의 어휘수 증대 ○ 성취 기준의 학년별 제시 ○ 성취 기준상의 심화과정 내용 삭제 ○ 초등 문자언어 도입 시기 조정 |
| | 교수·학습 방법 |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수·학습 방법 제시 | ○ 교수·학습방법의 하위 항목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구분 제시 ○ 수준별 수업의 학습 유형, 학습 활동, 집단 편성 등의 기본적 원칙 언급 | ○ 단계형·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내용 삭제 ○ 학교 급 별로 교수·학습 방법 내용 제시 ○ 교수·학습방법 항목에 수준별 수업과 관련한 내용 제시 |

| 과 목 | |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 2006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 비 고 |
|--------------|-----------|---|--|--|
| 선택 과 목 |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평가 관련 사항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지침과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구분 ○ 평가 지침에는 초·중등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 제시 ○ 평가상의 유의점은 초·중등학교를 구분하여 관련 내용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관련 내용 삭제 ○ 평가 지침과 평가상의 유의점을 분리, 평가와 관련한 기본 내용 제시 |
| | 영어 I, I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재료를 소재, 문화, 언어, 어휘로 구분 ○ 과목별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I : 2,300낱말 내외 - 영어 II : 3,000낱말 내외 ○ 과목별 4기능별 성취 기준 제시 ○ 대학 진학과 취업 고려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심화 ○ 4기능 균형 평가 강조 ○ 암기 위주 평가 지양 ○ 평가 방법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재료에서 문화를 소재에 포함하여, 소재, 언어, 어휘로 제시 ○ 과목별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I : 2,000낱말 이내 - 영어 II : 2,800낱말 이내 ○ 각 과목에서 표현 기능 성취 기준의 수준을 이해기능 성취 기준 수준보다 낮춤 ○ 일부 성취 기준에 상황과 화제 개념 도입으로 내용 구체화 ○ 정보 통신 기술(ICT) 활용 수업 강조 ○ 언어 기능별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강조 ○ 정의적 평가 요소 추가 ○ 표현 능력(말하기, 쓰기)의 평가 강조 ○ 학습 내용과 평가의 일치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별 사용 어휘수 다양화 ○ 표현 기능 성취 기준의 수준을 이해기능보다 낮춤으로써 학습부담 경감 및 학습효과 제고 기대 ○ 성취 기준 적정화, 연계성 및 위계성 강화 ○ 학습의 효율성 강화 ○ 표현 기능에서의 수행평가를 권장 |
| | 실용 영어 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 영어 I, II 보다 매우 낮춤 - 어휘수 : 1,200낱말 내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과목을 개설하여 영어 회화의 수준을 좀 더 다양화함 - 어휘수 : 1,200낱말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별 사용 어휘수 다양화 ○ 성취 기준 적정화, 연계성 및 위계성 고려 ○ 학습의 효율성 제고 |
| | 심화 영어 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 영어 I, II 보다 매우 낮춤 - 어휘수 : 1,200낱말 내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과목을 개설하여 영어 회화의 수준을 좀 더 다양화함 - 어휘수 : 1,800낱말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별 사용 어휘수 다양화 ○ 성취 기준 적정화, 연계성 및 위계성 고려 ○ 학습의 효율성 제고 |
| | 영어 독해와 작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독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 영어 I, II 보다 수준을 낮춤 - 어휘수 : 2,000낱말 내외 ○ 영어작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 영어 I, II 보다 수준을 낮춤 - 어휘수 : 1,200낱말 내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기능을 하나로 묶어 학습 방법의 효율성을 기함 - 2개 과목을 개설하여 영어독해와 영어작문의 수준을 좀 더 다양화함 ○ 어휘수 : 2,300낱말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별 사용 어휘수 다양화 ○ 성취 기준 적정화, 연계성 및 위계성 고려 ○ 학습의 효율성 제고 |

V. 외국어(영어)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 과 목 | |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 2006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 비 고 |
|--------------|---------------------------|--|---|--|
| 선택 과 목 | 심화 영어 독해 와 작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독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 영어 I, II 보다 수준을 낮춤 - 어휘수 : 2,000 낱말 내외 ○ 영어작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 영어 I, II 보다 수준을 낮춤 - 어휘수 : 1,200 낱말 내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기능을 하나로 묶어 학습의 효율성을 기함 - 2개 과목을 개설하여 영어독해와 영어작문의 수준을 좀 더 다양화함 ○ 어휘수 : 3,000 낱말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별 사용 어휘수 다양화 ○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어휘수를 가장 높게 정함 |

참고 문헌

- 강용구, 염문식. (2006). ICT를 활용한 영어듣기 능력 향상 방안: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7(3), 71-98.
- 고경석, 김진철, 박약우, 이재희, 김혜련, 박기화, 박선호, 최희경. (2006). *초등 영어 교재 연구*. 경문사.
- 고경석, 김혜련, 강성우, 고경희, 김재혁, 김정력, 김영숙, 박선호, 원명옥, 윤여범, 이운, 이의갑, 이재근, 이재희, 최희경, 홍경선. (2006). *초등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 교육부. (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1992-19호.
- 교육부. (1992).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부. (1992). *제 6 차 교육과정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부. (1996).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V) -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 교육부. (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I)*.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14].
- 교육부. (1997).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부. (1997).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인적자원부. (2004).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방안 연구*.
-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부 영어과 수준별 교재모형 연구·개발*.
- 교육인적자원부. (2005).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 사례집*.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중등 교육과정 부분 수정 고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호-75호.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외국어과 교육과정(I)*.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14]
- 김대현, 김석우 (1999).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 김재경. (2002). EFL환경에서의 노래와 챗트의 접근법 및 창의적 반복에 대한 연구. *초등영어교육*, 8(1), 5-32.
- 김진석. (2004). 초등학교 영어 전자교과서 개발 단계와 방향. *외국어교육*, 11(2), 227-247.
- 김진석. (2007).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에서의 연계성 기준. *영어교육*, 19(2), 215-133.
- 두산동아. (1999). *표준국어 대사전*.
- 박상옥. (1996). 영어교육에서 교실 영어 사용의 효과. *영어교육*, 51(1), 3-21.
- 배두분. (2004). *중등학교 영어 교과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 학교 교육 50년의 반성과 전망. 760-777. 한국교원대학교.

- 부경순. (1999). 초등학교에서의 통합적인 영어교육. 초등영어교육, 5(2), 109-137.
- 송재신, 류성남, 임유원, 조혜은, 최연옥. (2004).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 원격 교원 연수 교재.
- 유범, 성일호, 박영예. (2000). 영어과 교사의 문화교육능력 함양을 위한 교재 연구. (연구보고 RR98-III-6).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유제명, 김진완, 박주경, 이소영, 전지현 공역. (2006). 영어교육 길라잡이. 도서출판 인터비전.
- (Nunan, D. (Ed.) (2003).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McGraw-Hill.)
- 이완기. (2007). 초등영어교육론. 문진미디어.
- 이완기 외 14인. (1999). 초등영어 현장 연구. 초등 영어교육, 5(2), 225-270.
- 이의갑, 이양락, 진경애, 박순경, 정영근. (2004). 영어과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연구보고 RRC 2004-1-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의갑, 임찬빈, 진경애, 김진석, 이윤, 장경숙, 김미경. (2004). 영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연구보고 CRE 2004-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의갑, 임찬빈, 진경애, 김진석, 이윤, 장경숙, 김미경, 이문복, 최진황. (2005). 영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 2005-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의갑, 임찬빈, 진경애, 김진석, 이윤, 장경숙, 김미경, 이문복, 최진황. (2005).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C 200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혜원. (2005). 수업언어로서의 영어 사용에 대한 재조명: 수업 중 관찰된 특징과 교사들의 교수이론을 토대로. 초등영어교육, 11(1), 123-156.
- 임찬빈, 박약우, 류재택. (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중학교 영어-. (연구보고 CRE 2000-3-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임찬빈, 전애리. (2002). 영어과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I) (연구보고 RRC 200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임찬빈, 김진석. (2003). 영어과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II). (연구보고 RRC 2003-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초희. (2004). 초등영어 노래 자료의 개발에 관한 연구. 초등영어교육, 10(2), 201-236.
- 최용재. (1998).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의 방향. 영어어문교육, 4, 39-51.
- 최진황. (2000).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영어 수업 모형 및 교실 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진황, 박기화, 김은주. (1997). 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종임. (2002).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방안 연구, 영어교육, 57(4) 533-558.
- 한종임. (2006). 영어의 유창성 및 정확성 증진을 위한 ICT의 효과적 활용방안,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9(1), 211-242.

- 황적륜. (2003).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의 문제. 문화 간 이해를 위한 외국어 교육의 방향. 2003년 한국외국어교육학회 겨울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4-6.
- Bachman, L. F. & Palmer, A. S.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Oxford Univ. Press.
- Barnett, M. A.(1988), *Teaching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ED 305829.
- Bauer, L. & Nation, I. S. P. (1993). Word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6(3), 1-27.
- Blum, R. E. & Arter, J. A. (1996). *A handbook for student performance assessment in a era of restructuring*.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Boo, K. S. (1998). Classroom language in teaching English. *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14(1), 23-42.
- Brewster, J. (1991). What is good primary practice. In Brumfit, C, Moon, J. & Tongue, R. (Eds.). *Teaching English to children: from practice to principle*. 1-17. London: Longman.
- Brown, H. D. (1996). *Teaching by principle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Y.: Longman.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Longman.
- Brumfit, C. (1984) *Communicative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The roles of fluency and accurac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Brumfit, C. (1991) Young learners: young language. Kennedy, C. & Jennifer, J. (Eds.). *Ideas and issues in primary ELT*. 9-17. Helson.
-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yram, M, Adam, N. & Stevens, D. (2001).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practi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Canagarajah, A. S. (1999). Interrogating the native speaker fallacy: Non-linguistic roots, non-pedagogical results. In G. Braine (Ed.). *Non-native educator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Mahwah. 77-92. N.J.: Laurence Erlbaum associates.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147.

- Carrell, P. L. (1989). *Pragmatics and reading in a second language*. IDEAL, 4, 5-24.
- Carter, R. & Nunan, D. (Eds.) (2001).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elce-Murcia, M. (Eds.) (200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Boston: Heinle & Heinle.
- Chaudron, C. (1988). *Second language classrooms: Research on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Cohen, A. (1994). *Assessing language ability in the classroom* (2nd.).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 Curtain, H & Pesola, C. B. (1994). *Language and Children: Making the match,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for an early start, Grade K-8*. N.Y.: Longman.
- Gass, S. & Madden, C. (Eds.) (1985).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ries on Issues in Second Language Research*. Newbury House.
- Gebhard, J. G. (1982). Some suggestions for the EFL conversation class. *Forum*, 20, 14-16.
- Halliwell, S. (1992). *Teaching English in the primary classroom*. London: Longman.
- Heining-Boynton, A. L. (1990). Using FLES program evaluation inventory(FPEI). *Foreign Languages Annals*, 24, 193-202.
- Hudelson. S. (1989). *Write on: children writing in ES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Regents.
- Hughes, A. (2003).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2n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Kachru, Y. (2005). Teaching and Learning of World Englishes. In Hinkel, E. (Eds.). *Hand 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5-173. Mahwah, N.J. : Lawrence Erlbaum.
- Kennedy, C. & Jennifer, J. (Eds.) (1991). *Ideas and Issues in Primary ELT*. Helson.
- Kramsch, C. (2001).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Carter, R. & Nunan, D. (Eds.).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Krashen, S.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N.Y. : Longman.
- Lee, W. (1986). *Language teaching game and contests*. Cambridge: Oxford Univ. Press.

- Liu, Na, & Nation, I.S.P. (1985). Factors affecting guessing vocabulary in context. *RELC Journal*, 16(1), 33-42.
- Long, M. (1983). Native speaker/non-native speaker conversation and the negotiation of comprehensible input. *Applied Linguistics*, 4, 126-41.
- Long, M. (1996). The role of the linguistic enviro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W. Ritchie and T.K. Bhatia (Eds.).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 Y.: Academic Press.
- Long, M. and Porter, P. (1985). Group work, interlanguage talk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19(2), 207-28.
- McDonough, J. & Shaw, C. (1994). *Materials and Methods in ELT*. Cambridge: Oxford Univ. Press.
- McMillan, J. H. (2006).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 Needham Heights: Allyn & Bacon.
- Nation, I.S.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Nunan, D. (2003).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McGraw-Hill.
- Oxford, R. L. (1997). Cooperative learning, collaborative learning, and interaction: three communicative strands in the language classroom.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1, 443-56.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Y.: Newbury House.
- Pica, T. & Doughty, C. (1985). Input and interaction in the communicative language classroom: A comparison of teacher-fronted and group activities. In Gass, S. & Madden, C.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ries on Issues in Second Language Research*. Cambridge. Rowley: Newbury House.
- Richard, J. & Renandya, W. (Eds.) (2002).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Rubin, J (1987). What the language learner can teach us. *TESOL Quarterly*, 9(1), 26-41
- Savignon, S. (2005).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strategies and goals. In Hinkel, E. (Ed.).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645-652, Mahwa, NJ: Erlbaum

- Schmitt, N. (2000). *Vocabular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Skehan, P. & Foster, P. (1999). Task type and task processing conditions as influences on foreign language performance. *Language Teaching Research*, 1(3), 185-211.
- Tomlinson, B. (Ed.) (1998).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Tudor, I. (2001). *The Dynamics of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Warschauer, M. & Healey, D. (1998). Computers and language learning: An overview. *Language Teaching*, 31, 57-71.
- Willis, D. & Willis, J. (2001). Task-based language learning. In R. Carter & D. Nunan (Eds.).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173-179.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Wright, A, Betteridge, D, & Buckby, M. (2006). *Games for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재량 활동

김진규 (교육과학기술부)
이광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미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용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황익중 (경기도교육청)

- I. 재량 활동 개정의 배경
- II. 재량 활동의 의의와 내용
- III.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 IV.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방안 예시
- V. 재량 활동의 평가

I. 재량 활동 개정의 배경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재량 활동 시수가 주당 3시간으로 1시간 감축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분된 시간 배당 체제가 통합적 체제로 변화되어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간 배당을 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것은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 확대’라는 개정 방향을 반영한 변화(교육인적자원부, 2007)로 해석될 수 있다. 재량 활동 중 교과 재량활동의 각 교과 교육과정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개발·고시되었으며 그에 따라 교과별 교육과정 해설서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재량 활동의 변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 사회는 2007년까지 여덟 차례의 교육과정 제·개정을 거치면서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구조에 지방 분권적 개념을 도입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 일환으로 초등학교 3~6학년에 연간 34시간 이상을 ‘학교 재량 시간’으로 신설하였고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흐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교육과정의 편제를 교과 활동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나누어 조직함으로써 재량 활동이 국가 교육과정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도 재량 활동을 신설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과 학교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율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또, 학교장의 창의적 경영 철학이나 교사의 전문성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재량 활동은 교육과정 편성권을 점차 지역으로 이양해 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시대적 동향을 반영하면서 발전되어 온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요구 반영이라는 과제가 점차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중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교육과정 편성권을 보다 전문적으로 행사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또,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가 구성원들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활동을 실천하여야 한다. 중학교

에서의 재량 활동은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며,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창의적 교육 활동 및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 그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재량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시간이 충분히 부여되어야 하나,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및 가정, 지역 사회가 교육의 공동 주체가 되어 보다 균형적인 전인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주5일 수업제가 2006년 3월부터 주5일 수업제를 월2회로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수업 시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재량 활동의 시수가 1시간 감축되어 주당 3시간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조정으로 중학교 재량 활동 시수가 주당 3시간으로 배정되었지만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에서 교과 재량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배당하고 창의적 재량 활동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는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각 학교에서 정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였다. 즉,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3시간의 재량활동 시간 중에서 교과 교육 내용을 보충·심화하고 선택 교과를 학습하는 데 몇 시간을 배당하고 또 지역 사회와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몇 시간을 배당할 것인가를 국가 교육과정에 규정해 두지 않고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학교에서 정할 수 있게 하였다.

II. 재량 활동의 의의와 내용

1. 재량 활동의 의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재량 활동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9b: 107-108).

첫째, 교과 교육 및 특별 활동 교육을 보충·심화함과 동시에, 교과 교육이나 특별 활동 교육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범교과 학습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국가·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의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학교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 등을 중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 사회 및 단위 학교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영역이다. 지역과 학교, 교사, 학생의 특성과 여건,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교장과 교사가 교육 공동체의 신념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운영함으로써,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세째,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확보해 주는 방향을 추구한다. 학생들은 개개인의 적성, 능력의 수준, 장래 진로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므로 그러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기본 교과에 관련된 통합 학습이나 심화 학습, 보충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흥미와 관심, 진로 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교과를 선택하거나 학습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요구와 흥미를 수용한다. 중학생들은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하여 스스로의 앞길을 자기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학생들에게 자신과 관계된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학생 개인의 요구와 관심, 흥미를 교육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섯째,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량 활동은 학습자와 지역 사회의 요구, 학교의 상황과 학교장 및 교사의 교육관에 따라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영역이다. 교사는 담당 교과 외에 특별히 관심 있는 학습 내용을 주제로 선정하고 이를 프로그램화하여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한다.

재량 활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주고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과 필요,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활동을 선정하여 지도함으로써 단위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데 그 고유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재량 활동의 내용

중학교 재량 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 재량 활동은 다시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과 선택 과목 학습의 2개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창의적 재량 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2개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져 총 4개의 하위 영역이 있다. 중학교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1, 2, 3학년 모두 동일하게 배당되어 있고 학년별 총량은 102시간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화된 중등학교 재량 활동 시간 및 영역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중학교 재량 활동 시간 및 영역

| 영역 | 학교급 | 중학교 |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교과 재량 활동 |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 | 102시간 (3) | 102시간 (3) | 102시간 (3) |
| | 선택 과목 학습 | | | |
| 창의적 재량 활동 | 범교과 학습 | | | |
| | 자기 주도적 학습 | | | |

※()안은 주당 시수임

<표 1>에 제시된 4가지 하위 영역별로 다룰 수 있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으로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의 10개 기본 교과에 필요한 심화·보충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선택 과목 학습으로는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에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과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정한 사전 절차를 거쳐 설치·운영한다.
- ③ 범교과 학습을 위한 주제로는 민주 시민 교육을 포함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35가지 범교과 학습 주제가 중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는 주제 탐구 활동이나 소집단 공동 연구 활동,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자연 체험 활동과 같이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의 선정은 학생의 관심과 지적 발달 단계에 적합한 체험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첫째, 학생 개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둘째, 국민 공통 기본 교과 학습 내용이나 범교과 학습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보다 깊이 있게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학생이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량 활동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중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중학교의 교과 재량활동의 선택과목학습의 내용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의 선택 과목 학습 시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한다

창의적 재량활동의 범 교과 학습 내용은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으로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내용으로는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탐구활동 보고서 작성, 학습 정보 활용 능력), 주제탐구활동(교과와 연계한 탐구주제, 생활과 연계된 탐구주제), 자유연구, 소집단 공동연구, 프로젝트 학습 등의 내용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 교육내용으로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Ⅲ.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1.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지침

재량 활동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론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교육과정 총론에 포함되어 있는 중학교 재량 활동 편성·운영 지침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1. 기본 지침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각 학년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간 기준 수업 시간 수이다.
- (3) 재량 활동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단위) 수는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 (나) 중학교의 교과 재량활동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의 선택 과목 학습 시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한다.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

(1) 편 성

- (가) 시·도 교육청은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한다.
 -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 ④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⑳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운 영

- (나) 교원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다) 중학교 선택 과목,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마)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파)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목표 - 내용 - 방법 - 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나. 지역 교육청

(1) 편 성

- (가)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관내의 초·중학교에 제시한다.
 - ①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중점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 ②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운 영

- (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실천 과정을 확인, 평가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다. 학교

(1) 편 성

<공통 지침>

-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①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이며,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 ③ 주간 및 1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합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급별 지침>

(가) 중학교

- ② 중학교 재량 활동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 ㉞ 학교는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를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기초로 융통성 있게 배정한다.

- ㉔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유의한다.

(2) 운 영

(라)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⑦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아)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 (차)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과를 비롯한 각 교과 교육과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 (8)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2.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가.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방향

재량 활동은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의 요구가 반영되고 교과 활동 내용과 특별 활동 내용을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는 체제 속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잠재 가능성과 개성을 살리고 자아실현을 돕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한다(교육부, 1999b: 120-12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운영의 다양성이 가장 크게 기대되는 영역이 재량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단위 학교의 재량권이 확대됨으로써 재량 활동은 각 학교별 편성·운영 방향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차별화될 것이므로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되며, 교과 재량 활동은 중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고 창의적 재량 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선택 과목은 가급적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은 기본 교과에 대한 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한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35개의 범교과적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주제는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활동,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영할 것이 요청된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학교에 재량권과 자율성이 더 많이 부여되었으므로 학교에서는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지역, 학교,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보다 적절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함으로써 폭넓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시기와 집단 편성 방법을 정할 때에는 학교 실정을 우선 고려하는 등 교육과정 구성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인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교육부, 1999a: 78)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현장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중학교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핵심은 학생의 능력·적성·진로에 대한 적극적 고려, 다양한 교육 내용·방법 선정, 학교 현장의 자율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재량 활동의 장점과 기본 정신을 더욱 확대하고 계승하는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 재량 활동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할 때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재량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이다.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 장소, 인적·물적 자원의 운용뿐 아니라, 학교 전체 교육 활동과의 조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그리고 교육과정 하위 영역들 간의 상호 관계 등을 적절하게 선정·조합하여야 한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에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9b: 120-122).

첫째, 재량 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지역화 및 분권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재량 활동은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

교과 창의적이고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여건과 지역 사회의 실정을 최대한 수용하고 그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때 단위 학교 재량 활동의 분권화와 지역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종래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 형태를 벗어나 학교별로 특색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과서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가 만드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고력 신장, 발표력 신장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주제 탐구 학습, 소집단 공동 학습, 실험, 관찰, 조사, 수집, 조작, 토론, 견학, 답사, 자유 탐구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강사 초청, 교육 방송, 시청각 기·교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및 컴퓨터 등 다양한 학습 기자재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재량 활동은 초·중·고등학교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범교과 학습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은 무엇이고 중학교에서는 그러한 학습 경험을 어떻게 심화·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하여 연계성 있는 재량 활동을 편성하여야 한다. 선택 과목 학습의 경우 중학교의 선택 과목 결정을 위한 설문 조사를 할 때 학생들에게 인근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한다면 고등학교와 연계된 교과 재량 활동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 무리 없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 전체 교육 활동과의 조화와 통합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세 가지 영역이 실제로 있어서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이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승적 요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들을 통합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 한 교과에서 다루기 어렵고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교육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폭넓고 종합적인 지적 발달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재량 활동은 내용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지식 정보화 시대의 폭발적인 지식 정보와 사회적 요구는 기존의 교과에 모두 담을 수 없으므로, 재량 활동에서 범교과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학습 주제는 민주 시민 교육 등 총 35개 항목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수용할 경우 각각의 학생들이 배우게 될 활동의 주제들이 너무 많아 수박 겉핥기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수업의 내용과 양을 알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생의 흥미와 관심, 적성에 따라 학습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만드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체제를 운영하며, 사고력 신장, 발표력 신장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주제 탐구 학습, 소집단 공동 학습, 실험, 관찰, 조사, 수집, 조작, 토론, 견학, 답사, 자유 탐구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의 개인 차에 적합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진정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일곱째, 학교의 여건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운영의 융통성과 다양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집단 구성에 있어서 학교 전체, 학년, 학급, 학생 개인 등으로 다양화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양한 주제로 학년·학급별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과정에 배정된 이수 한도 내에서 운영의 주관을 학년 및 학급으로 운영의 권한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재량 활동의 특성에 따라 정일제, 집중제 등과 같은 다양하게 시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은 지역, 학생, 학부모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되,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재량 활동은 학생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결국 전체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요소

단위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기본 요소¹⁾는 다음<표 2>와 같다.

<표 2>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요소

| 편성·운영의 기본 요소 | 세부 내용 |
|----------------|-----------------------------------|
| 시간 운영 | ◦ 시간, 시간 분량, 연속성, 기간(월간, 학기간, 연간) |
| 장소 활용 | ◦ 교실 운영, 지역 활동, 시설의 활용 |
| 교사 조직 | ◦ 지도 교사 배정, 교과목 배정 |
| 주제 설정 | ◦ 학생 중심, 교사 의지와 교육적인 내용, 학생의 선택 |
| 집단 편성 | ◦ 학급, 학년, 전교 단위, 능력별 활동, 주제별 활동 |
| 교재 선정 | ◦ 자체 구성, 인정 도서, 학급, 학년 단위 프로그램 마련 |
| 교과, 특별 활동과의 연계 | ◦ 교과와의 상호 보완 ◦ 특별 활동과의 상호 보완 |

1) 교육부(1999b),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p. 123의 '(2) 편성·운영의 기본 요소'를 재구성한 것임

재량 활동은 학생, 교사,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그 편성·운영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단위 학교의 재량 활동은 학교 급별에 따라 다르고, 하위 영역의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편성하고 운영하게 된다. 재량 활동은 원칙적으로 교육과정의 지침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편성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형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모든 학교의 재량 활동 운영 방식이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학교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과 시간 배당, 활동 주제의 선택, 활동 집단의 구성 등 재량 활동 편성 시 고려해야 할 모든 요소의 조합이 가능하므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편성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점, 또는 보다 바람직한 편성 형태의 제시 등으로 편성의 기본적인 모형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의 재량 활동은 학년별로 연간 102시간의 수업 시간 수가 배당되어 있다. 그러나 하위 영역인 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의 시간을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학교의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된 만큼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다만 운영의 편리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어느 하위 영역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는지 유의하여야 한다.

재량 활동 하위 영역 및 시수 운영 관련 지침에 의하면 재량 활동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중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단위) 수는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분권화, 자율화, 지역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영역이다. 학교, 지역 사회의 실정과 학생·학부모·교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특성에 알맞게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 편성은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성을 피하고, 지역, 학교, 교사,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교과나 프로그램의 선택, 재량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간 배정과 운영, 활동 집단의 크기, 활동 방법의 선택 등이 다양한 만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단위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면서도 지역 사회나 학교의 실정에 적합하게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집단 편성, 학습 시기, 학습 장소, 사용 교재, 그리고 지도 교사의 다양성 등을 기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융통성 있게 선택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재량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재량 활동 관련 변인²⁾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2) 교육부(2000), 특별 활동·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p. 106을 재구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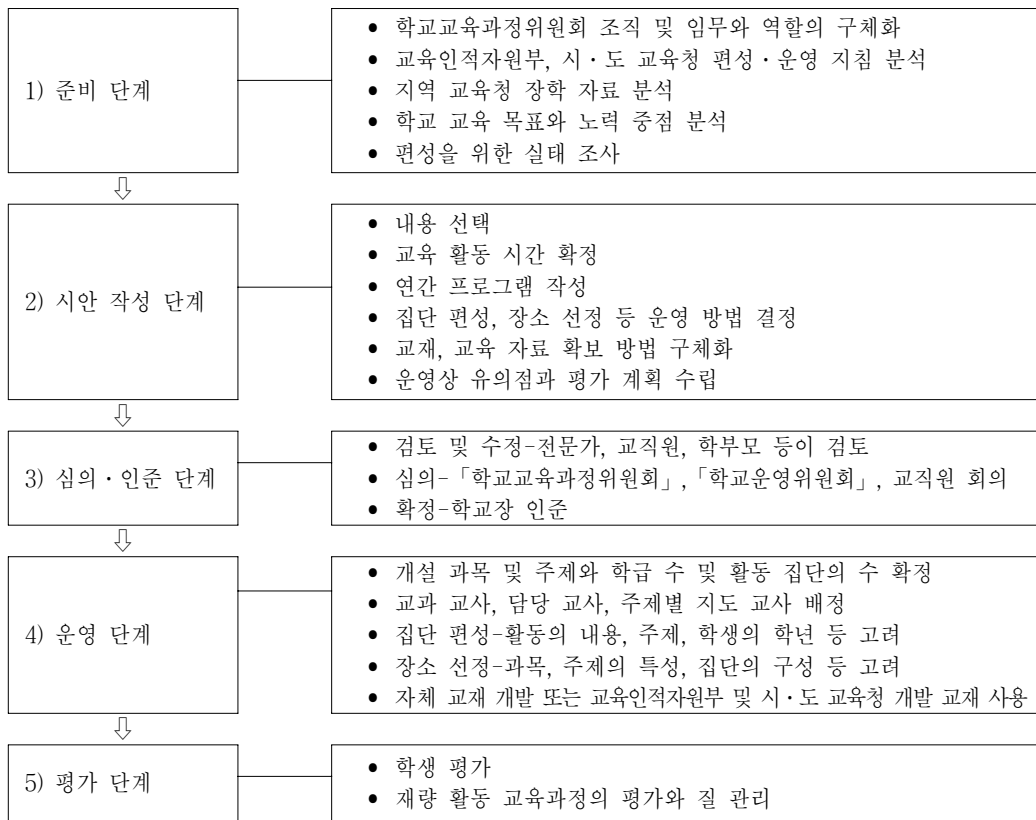
<표 3> 재량 활동 관련 변인

| 변 인 | | 하위 변인 |
|-------|--------|--|
| 상황 변인 | 여 건 |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실정과 여건 |
| | 요 구 |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요구 |
| 내용 변인 | 재량 활동 | 선택교과학습, 심화·보충학습, 창의적 재량(범교과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
| 방법 변인 | 시간 배당 | 균분 배당, 비균분 배당 |
| | 학습 방법 | 토의, 주제 탐구, 현장 학습, 체험 학습, 신문 학습, 노작 학습 등 |
| | 집단 편성 | 개인, 소집단, 학급, 학년, 학년 통합 |
| | 시간 운영 | 정일, 전일, 격주, 주말, 월 집중, 계절 집중, 방학 |
| | 장소 설정 | 교내, 교외 |
| | 사용 교재 | 학교 자체 제작,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 주관 개발 자료, 기존의 교육프로그램, 기타(교육 방송 프로그램, 각종 기관 발행자료 등) |
| | 지도 교사 | 교과 담당 교사, 담임교사, 외부 강사(학부모, 지역 인사 등 명예 교사, 특기 적성 자격증 소지자 등) |
| | 학생 선택권 | 완전 선택(비 필수), 부분 선택, 비 선택(필수) 등 |

다.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절차

중학교 현장에서 재량 활동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양할 것이다. 단위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편성 절차³⁾를 예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3) 교육부(1999b),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pp. 126 - 130 의 '라. 학교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절차'를 재구성 한 것임



[그림 1] 재량 활동의 일반적 편성 절차

재량 활동 편성은 준비, 시안 작성, 심의·인준, 운영, 평가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9b: 127-130).

1) 준비 단계

가) 학교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인원 조직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교원,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실무 요원 조직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고 임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상위 교육과정과 교육 목표의 분석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 등을 분석한다.
- 재량 활동 교육 목표의 설정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 지표, 교육 중점 과제, 학교의 교육 목표 등을 분석한다.

다) 편성을 위한 실태 조사

-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의 요구를 분석한다.
- 교사 수급 현황, 교실 상황 등의 학교 여건, 지역 사회의 특성을 분석한다.
- 교사의 전문적 지도 가능 분야, 학습 자료의 구비 실태를 조사한다.
-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외부 강사 등), 물적 자원(장소, 시설 등),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등을 조사한다.
- 재량 활동과 성격이 비슷한 교육 활동(예 : 특색 사업, 방과 후 학교 교육 활동 등)의 결과를 분석한다.
- 연구 학교 자료, 연구 기관 보고서 등을 분석한다.
-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 학교의 규모, 교원 조직, 학교의 특수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 평가 결과의 적극적 활용 여부를 파악한다.

2) 시안 작성 단계

가) 교과 재량 활동 시안 작성

- 영역별 하위 영역 시간 배정
기초 조사 및 실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재량 활동 102시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어떻게 배당할 것인지를 정한다.
- 하위 영역별 개설 가능 과목 조사
각종 요구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학습 내용, 교사 수급 상황, 확보한 교사(강사)의 지도 가능 분야, 교실(시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 가능한 ‘선택 과목’과 ‘보충·심화할 기본 과목’에 대한 안을 마련한다.
- 학생 선택 범위 결정
개설 가능한 과목 중에서 학교에서 필수로 지정할 과목과 학생의 흥미, 관심 및 수준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할 과목을 분류한다.

- 개설 과목의 확정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조사하여 선택 과목을 확정한다.
- 시간 운영 방법의 결정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에서 가장 적절한 형태를 선택한다.

나) 창의적 재량 활동 시안 작성

-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간을 배분한다.
- 영역별 하위 영역 시간 배정
교과 재량의 시수 확보에 따라 다양한 배정이 결정된다.
- 하위 영역별 활동 가능한 주제 조사
교사 수급 상황, 확보한 교사(강사)의 지도 가능 분야, 교실(시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 가능한 ‘범교과 학습’ 주제와 ‘자기 주도적 학습’ 형태를 조사한다.
- 학생 선택 범위 결정
학생에게 필수로 지정할 주제와 선택권을 부여할 주제들을 분류한다.
- 개설 과목의 확정
학생의 희망을 1~2회 정도 조사하여 선택 주제를 확정한다.
- 시간 운영 방법의 결정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에서 가장 적절한 형태를 선택한다.

3) 심의·인준 단계

가) 검토 및 수정

실무진이 작성한 재량 활동 시안을 교육과정 전문가, 교직원, 학부모가 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한다.

나) 심의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교직원 회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한다.

다) 확정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4) 운영 단계

가) 개설 과목(주제)과 학급 수(활동 집단의 수) 확정

- 가급적 선택 과목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강 신청을 받아 개설 과목(주제)을 확정한다.
- 수강 신청 결과가 선택 과목 운영에 부적절할 경우, 결과를 공시하고 1~2회 정도 수 강 신청을 다시 받아 선택 과목(주제)을 확정한다.

나) 지도 교사 배정

- 선택 과목(주제) 지도를 위해 적절하게 지도 교사를 선정한다. 이때, 교과 교사, 담당 교사, 주제별로 분담한 교사 외에 교과와 특성, 지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지역 사회의 외부 강사, 자원 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선정된 지도 교사는 지도 계획(학년별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평가 계획 등)을 수립한다.

다) 집단 편성

- 확정된 과목(주제)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절한 활동 집단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집단을 편성한다. 이때 기존 집단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재편성할 수도 있다.
- 집단 재편성에 있어서도 학년을 통합하는 방식도 있고 동학년 학생만을 재편성하는 방식도 있다.
- 활동의 성격, 학생의 학습 준비도를 고려하여 수준별 편성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흥미, 적성 등을 반영한 협동 학습으로 반을 편성할 수 있다.

라) 장소 선정

- 과목 특성에 따라 장소를 교내로 할 것인지 교외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교외일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를 사전에 섭외한다.
- 지역 사회 외부 프로그램 이용이 적절한 경우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교섭한다.

마) 교재 선택

교과 재량 활동에는 적절한 교재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창의적 재량 활동의 경우에는 학교 실정 및 여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교육연구원, 학교 자체 제작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교재를 채택하여 활용한다.

5) 평가 단계

가) 학생 평가

재량 활동의 본질적 취지에 맞게 가급적 진도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경험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재량 활동에 관한 편성·운영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재량 활동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한다.

라. 영역별 편성·운영의 방안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 및 시간 배당에 대한 편성·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단위) 수는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즉, 시·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을 어떻게 배당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관점과 그에 따라 명료한 지침을 정해 제시해 주어야 한다. 재량 활동으로 주어진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 운영할 것인지 일부 영역으로 제한하여 시간을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학교 재량에 맡길 것인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단위 학교 재량 활동의 영역별 시간 배당이 달라질 것이다.

1) 교과 재량 활동

가) 선택 과목 설정 및 심화·보충 학습 교과 설정

선택 교과의 경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즉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의 선택 과목 학습 시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한다. 가급적 복수의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과 재량 활동 이수 시간을 정할 때는 학교마다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가 있도록 시간 운영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입장에서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교과 설정은 10개 교과 중 특정 교과를 학교에서 지정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거나, 10개 교과 중 몇몇 교과를 학교에서 개설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 유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학교 실정 및 교육적 필요에 적합하게 교과를 설정하도록 한다.

나) 시간 운영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의 이수 시간 구분을 학교에서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선택 교과 학습에 34시간을 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68시간 운영도 가능하다. 즉, 선택 과목과 기본 교과 심화·보충 학습에 1 : 1, 또는 2 : 0으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시간 운영은 정일제로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시간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한 시기에 집중 편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다) 교과와의 연계

교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교과를 재량 활동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교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성격의 교과를 선택하여 교과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재량 활동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시·도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교과를 신설하거나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시간으로 활용한다.

라) 활동 집단 편성

선택 교과 학습에서는 가급적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으로 활동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에서는 학기 초에 실시하는 진단 평가와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집단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선택 과목의 수나 심화·보충을 실시하는 기본 교과의 수가 학급의 크기나 편성·운영 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과 재량 활동을 위한 활동 집단 편성은 학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또 학년 구분 없이 선택하도록 하여 학교 전체가 하나의 운영 단위가 되도록 할 수도 있다.

2) 창의적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의 운영 목표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문화 풍토에 알맞게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함으로써 21 세기의 세계화, 다양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하는데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흥미, 적성을 반영한 새로운 영역을 설정하고 직접적인 체험 활동 및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한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그 하위 영역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고,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편성·운영할 수도 있다.

범교과 학습은 지침에 제시된 학습 주제는 중학교 여건 및 지역 사회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영역이다. 학교의 교육 노력 중점이나 특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 적성 등에 따라 학생이 스스로 학습 활동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설정하고, 활동은 개인별 또는 소집단별로 공동 연구를 실시하게 하거나, 집단별로 다른 주제를 선택하여 탐구하게 할 수도 있다. 또 동일 주제를 여러 집단에서 탐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교원의 자율성 증진 및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통해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하고 학교의 특색이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형성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동의 선택, 시간의 배정과 운영 형태, 활동 집단의 편성 방법에 따라 많은 유형의 모형이 있을 수 있다. 활동의 주제가 많고 다양해서 운영의 형태는 교과 재량 활동에 비하여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그러한 다양성 확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하위 영역 선택

범교과 학습 프로그램과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 범교과 학습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 중 한 가지에 집중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나) 주제 설정

연간 계획 속에 여러 개의 주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고, 한 두 개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

다) 시간 운영

창의적 재량 활동에서는 시간 배정을 매우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계

절 집중제 등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들 형태를 조합한 새로운 형태도 가능하다. 정일제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고, 전일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절 집중제는 동계나 하계 또는 학년 초나 학년 말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해양 교육을 실시하거나, 2학년말에 진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이 계절 집중제의 예이다.

라) 활동 집단 편성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학급 단위, 학급 내 소집단 단위, 학년별 단위 등으로 다양한 활동 집단을 편성할 수 있다. 학급 단위는 학년별로 수준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학년이 대상이 되어 학급 단위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고, 학급 내에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게 하는 학급 내 소집단 단위는 학급 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학년별 단위는 특별 활동의 계발 활동과 같이 전체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마) 교과, 특별 활동과의 연계

교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었으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범교과적 주제를 교과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편성하는 경우 등 교과와 특별 활동을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의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시도할 수도 있다.

마. 특별 활동과의 연계적 운영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두 영역을 상호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 두 영역 간에 상호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1) 지도 시기의 통합

창의적 재량 활동을 주제 중심으로 34시간 운영할 경우 특별 활동과 지도 시기를 통합하려면 토요 수업일 1교시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2·3교시를 특별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매주 정일제를 운영하고자 하면 주중 하루를 정하여 5교시는 창의적 재량 활동, 6교시, 7교시를

특별활동으로 할 수 있다.

재량 활동을 특별 활동과 연계하여 시간을 운영하는 방법은 학교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고 교사의 지도 가능성을 검토하여 운영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지도 시기 통합의 형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도 시기의 통합은 교육의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통합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2) 지도 내용의 통합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35가지 주제를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제시하였다. 연간 34시간을 운영할 경우 시간 배당 문제에 있어서나 교사 수급, 교재 편성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모든 주제를 지도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특별 활동과의 효율적인 지도 내용 통합이 필요하게 되며, 세밀하게 구안된 지도 내용의 통합은 바로 두 활동의 연계 효과를 높여 줄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별 활동에서의 봉사 활동 및 행사 활동의 일환으로 재해 대비 교육, 농촌 이해 교육, 예술 교육 등과 같이 현장 실습 교육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 학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자 하는 영역을 몇 가지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시간을 배분하고, 그 외의 주제들은 특별 활동 중의 행사 활동 등 하위 영역에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특별 활동 시간과 범교과 영역의 모든 주제에 대한 지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도 있다.

IV.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방안 예시

재량 활동이 지역 사회 및 단위 학교,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이론상으로는 단위 학교 수만큼의 재량 활동 모형이 있을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재량 활동 연간 이수 시간 수만 102시간으로 정하고 하위 영역별 이수 시간 수는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고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단위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에 따라 무수히 많은 재량 활동 모형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재량 활동 시수 7, 8, 9학년 도합 102시간을 기준으로 하위 영역별 시간 배당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 <표 4>⁴⁾와 같다.

<표 4> 재량 활동 영역별 시간 배당 편성 유형(예시)

| 영역 | 세부 내용 | 유형 | | | | | | |
|-----------------|--|-----|-----|-----|-----|-----|-----|-----|
| | | A | B | C | D | E | F | G |
| 교과 재량 활동 | 선택 과목 학습 -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 | 68 | 68 | 51 | 51 | 34 | 85 | 34 |
| |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 국민 공통 기본 교과 | 0 | 17 | 34 | 17 | 0 | 0 | 34 |
| 창의적 재량 활동 | 범교과 학습 | 34 | 17 | 17 | 34 | 68 | 17 | 34 |
| | 자기 주도적 학습 | | | | | | | |
| 계 |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

A 유형은 선택 과목 시간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시간 및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동일하게 균분 배정한 경우이다. 선택 과목 학습에 68시간을 배정한 B, G형은 한 학년에 2개 선택 과목을 개설하거나 1개 선택 과목을 2개 학년에서 개설하고자 할 때, 혹은 1개 선택 과목을 1개 학년에서 주당 두 시간씩 이수하는데 적절한 유형이다. B 유형은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과 교과의 심화·보충 시간을 각각 한 학기 17시간씩 하도록 시간을 배정한 것으로, 1, 2학기 시간표를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G 형은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대신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확보한 유형이다.

4) 교육부(1999b),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pp. 112-113의 '4. 재량 활동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임

C, D, F 유형은 교과외 심화 보충 학습 또는 창의적 재량 활동에 17시간씩을 배정하고 다른 영역에 34시간 이상을 배정하였으므로 선택 과목 학습을 3학기나 5학기의 홀수 학기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E, F, G 유형은 교과외 심화·보충 시간은 전혀 배정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선택 과목 학습이나 창의적 재량 활동에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1. 교과 재량 활동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중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외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으로, 중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의 선택 과목 학습 시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하며,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간 34주, 총 102시간으로 배정된 재량 활동 시간 중 선택 과목 학습에 배당되는 시간은 이론적으로 학년 당 주당 평균 1시간 단위로 보면 34시간, 68시간, 또는 102시간의 유형이 가능하나, 102시간을 모두 선택 과목 시간으로 운영하게 되면 재량 활동의 다른 하위 영역인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외 심화·보충 시간이나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전혀 확보할 수 없어 매우 극단적인 재량 활동의 운영 유형이 될 것이다. 학생의 선택 방식을 중심으로 교과 재량 활동의 편성 모형을 구성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선택 방식에 따른 교과 재량 활동 편성 모형(예시)

| 선택 방식 | 과목 개설 내용 | 비 고 |
|-----------------|--------------------|------------------------|
| 완전 선택형 | 모든 선택 과목과 심화·보충 교과 | 학교 지정 과목 없이 모든 과목 중 선택 |
| 부분 선택형 | 모든 선택 과목과 심화·보충 교과 | 학교 지정 과목 + 모든 과목 중 선택 |
|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 일부 과목 | 학교 지정 과목 없이 일부 과목 중 선택 |
|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 일부 과목 | 학교 지정 과목 + 일부 과목 중 선택 |
| 학교 지정형 | 모든 과목 | 모든 선택 과목을 학교가 지정함 |

5) 교육부(1999b),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pp. 131-134의 '7.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예시 - (1) 교과 재량 활동'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가. 선택 과목 학습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재량 활동 편성·운영 지침에 의하면, 재량 활동 시간으로 배정된 102 시간 중에서 교과 재량 활동에 정확히 몇 시간을 배정하라고 제시하지 않는 대신,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기초로 융통성 있게 시간 배정을 하되,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유의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선택 과목 학습 유형을 세분해 보면 <표 6>⁶⁾과 같이 ‘완전 선택형’, ‘부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마지막으로 학생의 선택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학교 지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택 과목 학습 시간을 68시간 기준으로 편성할 경우를 예시로 나타내면 <표 7>에서 <표 11>과 같다.

<표 6> 학생의 선택 유형에 따른 선택 과목 편성·운영 유형(예시)

| 개설 과목 | 과목 수 | 선택 유형 | 비고 |
|--|--------|-----------------|--------------------------|
|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 | 10개 이상 | 완전 선택형 | 모든 선택 과목 중 선택 |
| | | 부분 선택형 | 학교 지정 과목 + 모든 선택 과목 중 선택 |
| | 3개 이상 |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 학교 개설 과목 중 선택 |
| | |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 학교 지정 과목 + 개설 과목 중 선택 |
| | 1-2개 | 학교 지정형 | 모든 선택 과목을 학교가 지정 |

1) 완전 선택형

아래 <표 7>의 ‘완전 선택형’은 선택 과목으로 가능한 과목을 모두 개설하고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으로 가장 학습자 중심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교사 수급이나 교실 확보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가능한 유형이다. 학생은 2과목을 선택하거나 1과목을 2개 학년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편성 학년은 1개 이상의 학년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간은 정시제로 주당 1시간 혹은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재는 선택 과목의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고, 지도는 해당 과목 교사가 하게 된다.

6) 교육부(1999b),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pp. 131-134의 ‘7. 재량 활동 편성·운영 예시 - (1) 교과 재량 활동’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표 7> 선택 과목 편성·운영-완전 선택형(예시)

| 배당 시간 | 개설 과목 | 학생 선택 | 편성 학년 | 시간 운영 | 지도 |
|----------|---|----------------------------------|----------|----------|----------|
| 68 | 모든 선택 과목 -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 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 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 | 2과목 자유 선택 혹은 1과목의 2개 학년 이수 | 학년 통합 | 정시제 | 교과 교사 |

2) 부분 선택형

아래 <표 8>의 ‘부분 선택형’은 선택 과목으로 가능한 과목을 모두 개설하고, 학교의 교육적 필요에 의해 선택 과목 중 한 과목을 학교에서 지정한 다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모형이다. 학생의 선택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나 교사 수급이나 교실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학생은 학교 지정 1과목을 이수하고, 1과목을 자유 선택할 수 있다. 편성 학년은 2개 과목을 1개 이상의 학년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간은 정시제로 주당 1시간 혹은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재는 선택 과목의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고, 지도는 해당 과목 교사가 하게 된다.

<표-8> 선택 과목 편성·운영-부분 선택형(예시)

| 배당 시간 | 개설 과목 | 학생 선택 | 편성 학년 | 시간 운영 | 지도 |
|----------|---|------------------------|----------|----------|----------|
| 68 | 모든 선택 과목 -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 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 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 | 1과목 학교 지정 1과목 자유 선택 | 학년 통합 | 정시제 | 교과 교사 |

3)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아래 <표 9>는 교사 수급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비롯한 단위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선택 과목으로 가능한 과목 중에서 일부만 개설하고, 개설된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개설한 3개 이상의 선택 과목 중 2과목을 자유 선택 하거나 1과목을 2개 학년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편성 학년은 2개 과목을 1개 이상의 학년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간은 정시제로 주당 1시간 혹은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재는 선택 과목의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고, 지도는 해당 과목 교사가 하게 된다.

<표 9> 선택 과목 편성·운영-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예시)

| 배당 시간 | 개설 과목 | 학생 선택 | 편성 학년 | 시간 운영 | 지도 |
|----------|---|---|----------|----------|----------|
| 68 | 3개 이상의 선택 과목 -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 | 일부 개설 과목 중 2과목 자유 선택 혹은 1과목의 2개 학년 자유 선택 | 학년 통합 | 정시제 | 교과 교사 |

4)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아래 <표 10>은 교사 수급 등의 단위 학교의 현실적인 사정에 의하여 선택 과목을 일부만 개설하고, 개설된 범위 내에서 한 과목은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고 남은 과목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개설한 3개 이상의 선택 과목 중 학교 지정 1과목을 이수하고, 1과목을 자유 선택할 수 있다. 편성 학년은 2개 과목을 1개 이상의 학년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간은 정시제로 주당 1시간 혹은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재는 선택 과목의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고, 지도는 해당 과목 교사가 하게 된다.

<표 10> 선택 과목 편성·운영-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예시)

| 배당 시간 | 개설 과목 | 학생 선택 | 편성 학년 | 시간 운영 | 지도 |
|----------|---|--------------------------------------|----------|----------|----------|
| 68 | 3개 이상의 선택 과목 -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 | 일부 개설 과목 중 1과목 학교 지정 1과목 자유 선택 | 학년 통합 | 정시제 | 교과 교사 |

5) 학교 지정형

아래 <표 11>은 학교 규모 혹은 교사 수급 등 단위 학교의 현실적인 사정에 의하여 선택 과목을 모두 학교에서 지정하여 제시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은 고려하지 않는 유형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개설한 2개의 지정 과목을 이수하거나 1개의 지정 과목을 2개 학년에 걸쳐 이수할 수 있다. 편성 학년은 2개 과목을 1개 이상의 학년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간은 정시제로 주당 1시간 혹은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재는 선택 과목의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고, 지도는 해당 과목 교사가 하게 된다.

<표 11> 선택 과목 편성·운영-학교 지정형(예시)

| 배당 시간 | 개설 과목 | 학생 선택 | 편성 학년 | 시간 운영 | 지도 |
|----------|--|---|----------|----------|----------|
| 68 | 1~2개의 선택 과목 -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 | 학교에서 선택과목 2개 지정 혹은 1개 선택 과목의 2개 학년 이수 지정 | 학년 통합 | 정시제 | 교과 교사 |

나.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심화·보충 학습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재량 활동 편성·운영 시 교과 재량 활동 중 선택 교과 학습에 중점을 두고,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확보하다 보면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심화·보충 학습하기 위한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학교가 소규모인 경우 교사 수급 형편상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심화·보충 학습 시간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하기 원하는 경우와 같이 단위 학교의 사정 및 교육적 필요에 의해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심화·보충 학습 시간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하게 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시간 편성·운영 예시 모형을 선택 과목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에 따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선택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표 12>⁷⁾와 같다.

<표 12> 학생의 선택권에 따른 심화·보충 학습 시간 편성·운영 유형(예시)

| 개설 과목 | 과목 수 | 선택 유형 | 비고 |
|------------------|-------|-----------------|---------------------------|
| 국민 공통 기본 교과(10개) | 10개 | 완전 선택형 | 학교 지정 과목 없이 모든 교과 중 선택 과목 |
| | | 부분 선택형 | 학교 지정 과목 + 모든 교과 중 선택 과목 |
| | 3개 이상 |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 학교 지정 과목 없이 일부 교과 중 선택 과목 |
| | |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 학교 지정 과목 + 일부 교과 중 선택 과목 |
| | 1-2개 | 학교 지정형 | 모든 선택 과목을 학교가 지정함 |

7) 교육부(1999b),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pp. 131-134의 '7.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예시 - (1) 교과 재량 활동'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1) 완전 선택형

아래 <표 13>의 ‘완전 선택형’은 심화·보충 학습 시간을 위해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모두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으로 가장 학습자 중심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특정 교과로 학생의 선택이 편중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생은 심화·보충 대상 과목을 10개 교과 모두에서 선택할 수 있다. 편성 학년은 1개 학년이며, 시간은 정시제로 주당 1시간 운영할 수 있다. 교재는 보충 학습을 위해 자체 제작하고, 지도는 해당 과목 교사가 하게 된다.

<표 13> 심화·보충 학습 시간 편성·운영 - 완전 선택형(예시)

| 배당 시간 | 개설 과목 | 학생 선택 | 편성 학년 | 시간 운영 | 지도 |
|----------|--------------------------------|-------|-------|-------|-------|
| 34 |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모두 심화·보충 과목 개설 | 자유 선택 | 1개 학년 | 정시제 | 교과 교사 |

2) 부분 선택형

아래 <표 14>의 ‘부분 선택형’은 심화·보충 학습 시간을 위해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과목 중 1과목을 지정하고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유형이다. 학생은 심화·보충 대상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편성 학년은 1개 학년이며, 시간은 정시제로 주당 1시간 운영할 수 있다. 교재는 보충 학습을 위해 자체 제작하고, 지도는 해당 과목 교사가 하게 된다.

<표 14> 심화·보충 학습 시간 편성·운영 - 부분 선택형(예시)

| 배당 시간 | 개설 과목 | 학생 선택 | 편성 학년 | 시간 운영 | 지도 |
|----------|--------------------------------|------------------------|----------|----------|----------|
| 34 |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모두 심화·보충 과목 개설 | 1과목 학교 지정 나머지 자유 선택 | 학년 통합 | 정시제 | 교과 교사 |

3)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아래 <표 15>는 교사 수급 등의 현실적인 문제 및 단위 학교의 교육적 필요로 인해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중 일부만 개설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학생은 학교가 개설한 심화·보충 대상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편성 학년은 1개 학년이며, 시간은 정시제로 주당 1시간 운영할 수 있다. 교재는 보충 학습을 위해 자체 제작하고, 지도는 해당 과목 교사가 하게 된다.

<표 15> 심화·보충 학습 시간 편성·운영 -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예시)

| 배당 시간 | 개설 과목 | 학생 선택 | 편성 학년 | 시간 운영 | 교재 | 지도 |
|----------|-----------------------------------|------------------|----------|----------|----------|----------|
| 34 |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중 일부만 심화·보충 과목 개설 | 일부 개설 과목 중 자유 선택 | 학년 통합 | 정시제 | 자체 제작 | 교과 교사 |

4)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아래 <표 16>은 교사 수급 등의 현실적인 문제 및 단위 학교의 교육적 필요로 인해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중 일부만 개설하고, 그 중 1개는 학교가 지정하고 나머지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심화·보충 대상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편성 학년은 1개 학년이며, 시간은 정시제로 주당 1시간 운영할 수 있다. 교재는 보충 학습을 위해 자체 제작하고, 지도는 해당 과목 교사가 하게 된다.

<표 16> 심화·보충 학습 시간 편성·운영-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예시)

| 배당 시간 | 개설 과목 | 학생 선택 | 편성 학년 | 시간 운영 | 지도 |
|----------|-----------------------------------|-----------------------------------|----------|----------|----------|
| 34 |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중 일부만 심화·보충 과목 개설 | 일부 개설 과목 중 1과목 학교 지정 나머지 자유 선택 | 학년 통합 | 정시제 | 교과 교사 |

5) 학교 지정형

교사 수급 등의 현실적인 문제 및 단위 학교의 교육적 필요로 인해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중 일부만 개설하여 이를 심화·보충 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고려되지 않는 유형이다. 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심화·보충 대상 과목을 이수한다. 편성 학년은 1개 학년이며, 시간은 정시제로 주당 1시간 운영할 수 있다. 교재는 보충 학습을 위해 자체 제작하고, 지도는 해당 과목 교사가 하게 된다.

2. 창의적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은 범교과적으로 학습 주제가 다양하고, 연간 배정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교의 독특한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의거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다. 단위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 교육 여건 등에 따라 시간 배정과 운영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창의적 재량 활동의 예시 모형을 제시하기가 매우 난해하다. 편의상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별 시간 배정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방식을 제시하면 <표 17>과 같이 하위 영역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분리하여 둘의 비중을 같게 운영하는 ‘균분 배정형’, 범교과 학습에 시간을 좀 더 많이 배정하는 ‘범교과 학습 중심형’,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을 보다 많이 배정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형’, 둘을 분리하지 않고 주제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통합형’이 있다.

<표 17>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 배정 유형⁸⁾(예시)

| 배당 시간 | 시간 배정 | | | | | | |
|----------|---------------------------|--------|------------|----|--------------|----|-----|
| | <div>시간배정 하위 영역</div> | 균분 배정형 | 범교과 학습 중심형 | | 자기주도적 학습 중심형 | | 통합형 |
| 34 | 범교과 학습 | 17 | 24 | 20 | 10 | 14 | 34 |
| | 자기 주도적 학습 | 17 | 10 | 14 | 24 | 20 | |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의 실제 운영은 교과 시간이나 특별 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데,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운영하는 정일제, 하루 온종일 실시하는 전일제, 2주에 한 번 실시하는 격주제, 학년 초나 학년 말 등 특정 시기에 특정 내용을 집중 실시하는 집중제 등 다양한 유형을 편성·운영할 수 있고, 집단 구성 방법도 학급 내 소집단 구성, 학급 간 통합, 학년 간 통합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일에 집중 실시하는 정일제의 경우 매주 금요일에 특별 활동 시간과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배정하여 편성하면 <표 18>과 같다.

8) 교육부(1999b),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pp. 134-139의 “7.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예시- (2) 창의적 재량 활동”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표 18>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 편성·운영- 특별 활동 연계형(예시)

| 배당 시간 | 요일별 운영 | | | | | 주제 배정 | 편성 형식 | 시간 운영 | 교재 | 지도 교사 |
|----------|----------|----------|----------|----------|-----------------------------------|-----------|----------|----------|----------|----------|
| | 월 | 화 | 수 | 목 | 금(토는 격주) | | | | | |
| 34 | 교과 수업 | 교과 수업 | 교과 수업 | 교과 수업 | 교과수업 창의적 재량 활동1시간 특별 활동 2시간 | 범교과 중심 | 학년 통합 | 정일 제 | 자체 제작 | 교과 교사 |

가. 범교과 학습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써야 한다. 재량 활동의 취지상 범교과 학습 주제 선택은 학교보다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도 반영해야 한다. 범교과 학습에 배정된 시간을 학생에게 부여하는 주제 선택권에 따라 나누면 ‘완전 선택형’, ‘부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학교 지정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학생의 주제 선택권에 의한 범교과 학습 유형(예시)

| 개설 주제 | 학생의 선택 | 비고 |
|------------------------------|-----------------|------------------------|
| 민주 시민 교육 등 35개 주제 및 기타 | 완전 선택형 | 학교 지정 주제 없이 모든 주제 중 선택 |
| | 부분 선택형 | 학교 지정 주제 + 모든 주제 중 선택 |
| |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 학교 지정 주제 없이 일부 주제 중 선택 |
| |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 학교 지정 주제 + 일부 주제 중 선택 |
| | 학교 지정형 | 모든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교가 지정함 |

학생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창의적 재량 활동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완전 선택형’이나 ‘부분 선택형’ 혹은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으로 편성·운영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범교과 학습 주제 중 교사 수급, 학생 요구,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의 학습 주제를 개설하고, 이들 중 일부를 학교에서 지정하여 학습하도록 정한 뒤 나머지는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을 운영할 수 있다. 지나치게 다양한 주제 개설로 심도 있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나, 단위

학교에서 ‘독서 교육 강화’ 같은 독특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주제를 학교에서 모두 정하는 ‘학교 지정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1)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아래 <표 20>은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특정 주제는 학교 지정으로 모두 학습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범위에서 학년별 혹은 학년 통합으로 일부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모두 고려하는 면이 있다.

<표 20> 범교과 학습 시간 편성·운영-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예시: 20시간 유형)

| 배당 시간 | 학년 | 개설 주제 | | 편성 형식 | 시간 운영 | 지도 교사 |
|----------|----|-----------|--|----------|----------|----------|
| | | 학교 지정 | 선택(택 2) | | | |
| 20 | 1 | 성 교육(10) | 인성 교육(5), 안전 교육(5), 여가 활용 교육(5), 환경 교육(5), | 학년별 | 정시제 | 담당 교사 |
| 20 | 2 | 환경 교육(10) | 소비자 교육(5), 국제 이해 교육(5), 에너지 교육(5), 보건 교육(5) | | | |
| 20 | 3 | 보건 교육(10) | 통일 교육(5), 양성 평등 교육(5), 경제 교육(5), 진로 교육(5) | | | |

2) 학교 지정형

학년별 혹은 학년 통합으로 특정 주제를 학교에서 지정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으나 학교의 교육적 필요를 달성할 수 있는 유형이다. <표 21>은 학기별 주제 개설 운영의 사례이고, <표 22>는 학급군별 주제 개설 운영의 예로서 학급별 주제 순환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 범교과 학습 시간 편성·운영-학교 지정형(예시: 24시간 유형)

| 배당 시간 | 주제 개설 형태 | | | 편성 형식 | 시간 운영 | 지도 교사 |
|----------|----------|--------------|--------------|----------|----------|----------|
| | 학년 | 1학기 학교 지정 주제 | 2학기 학교 지정 주제 | | | |
| 24 | 1 | 논술 교육(12) | 성 교육(12) | 학년별 | 정시제 | 담당 교사 |
| | 2 | 인성 교육(12) | 다문화 교육(12) | | | |
| | 3 | 미디어 교육(12) | 진로 교육(12) | | | |

<표 22> 범교과 학습 시간 편성·운영 - 학교 지정형(예시: 학급 수가 많을 경우)

| 배당 시간 | 주제 개설 형태 | | | | | 편성 형식 | 시간 운영 | 지도 교사 |
|----------|-----------------------------|-------------------|-------------|----------|-------------|----------|----------|----------|
| | 구분 | 1~3반 | 4~6반 | 7~9반 | 10~12반 | | | |
| 24 | 1 | 논술 교육(6) | 진로 교육(6) | 보건 교육(6) | 문화 예술 교육(6) | 학년별 | 정시제 | 담당 교사 |
| | 2 | 근로 정신 함양 교육(6) | 민주 시민 교육(6) | 안전 교육(6) | 에너지 교육(6) | | | |
| | 3 | 장애인 이해 교육(6) | 토론 중심 교육(6) | 환경 교육(6) | 통일 교육(6) | | | |
| | 분기별로 나누어 학급 군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 | | | | | | | |

나.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은 어느 특정한 학습 방법이나 형태라기보다는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의미한다. 범교과 학습과 달리 자기 주도적 학습은 특정 주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 학교, 학생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식 기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

학문의 기본 개념에 기초하여 주제를 정하거나 학습자의 삶과 연계하여 생활 주변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스스로 탐구해 가는 ‘주제 탐구 활동’, 2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하여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역할 분담 및 협력 활동을 통하여 주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자 스스로 탐색하고 싶은 주제를 설정하여 여러 가지 탐구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개인 자유 연구’, 학습자가 탐구 활동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장기간 수행하는 ‘프로젝트 학습’, 그 밖에 다양한 체험 학습 등이 자기 주도적 학습의 주요 운영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려면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지식 정보 사회 및 평생 학습 사회의 필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정리, 활용 능력 신장을 통해 가능하며, 따라서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은 이러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룰 경우는 ‘교과 중심 편성형’, 여러 가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는 ‘학습 방법 중심 편성형’, 특정 교과와 관련되기보다는 여러 교과와 다양하게 연계된 주제 혹은 특정 주제를 다룰 경우는 ‘주제 중심 편성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급별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학급별 편성형’, 학년 내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학년별 통합형’, 학년 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년 통합형’을 제시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다루는 주제와 학생 편성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실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교과 중심 편성 유형은 학년별 통합형으로, 주제별 편성 유형은 학급별 편성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교과 중심 편성형

이 유형은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을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각 학생별 희망 교과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교사를 배정하여 편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을 살려서 전공 교과와 관련된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를 보다 많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일부 교과의 교사에게는 업무의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12시간으로 편성하는 교과 중심 편성형의 사례는 <표 23>과 같다.

<표 23>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 편성·운영 - 교과 중심 편성형(예시)

| 배당 시간 | 주제 개설 형태 | | 편성 형식 | 시간 운영 | 지도 교사 |
|----------|---------------------------------|--------------|----------|----------|----------|
| 12 | 국어반, 영어반, 수학반, 사회반, 음악반 중 선택 | 주제별 탐구반 중 선택 | 학년별 | 정시제 | 담당 교사 |

2) 학습 방법 중심 편성형

이 유형은 범교과 학습 운영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도 학교의 교육적 필요 및 여건을 감안하여 이미 짜여 있는 학급 집단을 기준으로 ‘학습 방법’에 초점을 두어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각 학년 및 학급 군별로 4가지 주제에 대해 분기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12시간으로 편성하는 학습 방법 중심 편성형의 사례는 <표 24>와 같다.

<표 24> 자기 주도 학습 편성·운영 - 학습 방법 중심 편성형(예시)

| 배당 시간 | 주제 개설 형태 | | | | | 편성 형식 | 시간 운영 | 지도 교사 |
|----------|-----------------------------|-----------------|----------------|----------------|-------------------|----------|----------|----------|
| | 학년 | 1~3반 | 4~6반 | 7~9반 | 10~12반 | | | |
| 12 | 1 | 소집단 공동 연구(3) | 현장 체험 학습(3) | 주제 탐구 학습(3) |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3) | 학년별 | 정시제 | 담당 교사 |
| | 2 | 소집단 공동 연구(3) | 현장 체험 학습(3) | 주제 탐구 학습(3) |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3) | | | |
| | 3 | 소집단 공동 연구(3) | 현장 체험 학습(3) | 주제 탐구 학습(3) |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3) | | | |
| | 분기별로 나누어 학급 군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 | | | | | | | |

3) 주제 중심 편성형

이 유형은 동일한 주제를 운영하거나 주제별 요구 조사를 실시한 후 학년별 혹은 학년 통합 방식으로 학생을 조직하고 지도 교사를 배정하여 편성하는 방식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34시간으로 편성하는 주제 중심 편성형의 사례는 <표 25>와 같다.

<표 25>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 편성 · 운영 - 주제 중심 편성형(예시)

| 배당 시간 | 주제 개설 형태 | 편성 형식 | 시간 운영 | 지도 교사 |
|----------|---------------------------------------|-----------|-------|-------|
| 34 | 탐구 주제별 요구 조사 후 탐구반 개설 → 탐구반별 지도 교사 배치 | 학년별/학년 통합 | 정시제 | 담당 교사 |

다.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통합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은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이지만 이는 별도의 분리된 학습 영역이라기보다는 전자는 주제에, 후자는 방법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들 영역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함수곤, 1998). 이렇게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습하면서, 그 주제와 관련된 개인 연구나 소집단 공동 연구, 또는 현장 학습을 하기 때문에 편성이 용이하고 두 영역 간의 학습 전이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26>과 <표 27>은 범교과 학습 영역에서 주제를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영역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표 26>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통합 유형(예시 1)

| 배당 시간 | 주제 개설 형태 | | | | 학생 선택 | 편성 형식 | 시간 운영 | 지도 교사 |
|----------|---|--------------------------------------|------------------------------------|------------------------------------|------------|----------|----------|----------|
| | 1학기(17) | | 2학기(17) | | | | | |
| | 소집단 공동 연구 | 주제 탐구 학습 | 현장 체험 학습 | 개인 자유 연구 | | | | |
| 34 | -소비자 문제 탐구 조사반(17) -한국 문화 답사 연구반(17) | -진로 및 직업의 세계 조사반(17) -다문화 연구반(17) | -해양 현장 체험 반(17) -안전 현장 체험 반(17) | -경제 문제 탐구 반(17) -환경 문제 조사 반(17) | 학기별 택 1 | 학년별 | 정시제 | 교과 교사 |

<표 27>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통합 유형(예시 2)

| 배당 시간 | 주제 개설 형태 | | | | 학생 선택 | 편성 형식 | 시간 운영 | 지도 교사 |
|----------|--|---|--|---|------------|----------|----------|----------|
| | 1학기(17) | | 2학기(17) | | | | | |
| | 목요일반 | 토요일반 | 목요일반 | 토요일반 | | | | |
| 34 | -소비자 문제 탐 구 조사반(17) -한국 문화 답사 연구반(17) | -진로 및 직업의 세계 조사반(17) -국제 이해 연구 반(17) | -해양 현장 체 험반(17) -안전 현장 체 험반(17) | -경제 문제 탐 구반(17) -에너지 문제 조 사반(17) | 학기별 택 1 | 학년별 | 정시제 | 교과 교사 |

3.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사례

단위 학교에서는 지역 사회 실정,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량 활동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재량 활동의 학교 자율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량 활동 편성·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 및 수요자 요구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 재량 활동 편성을 위한 실태 분석

재량 활동은 학습자의 활동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인들의 결합에 의해서 다르게 편성될 수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면서도 지역 사회나 학교 실정에 적합하게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실정, 학생의 요구, 재량 활동 영역 또는 내용, 집단 편성, 학습 시기, 학습 장소, 사용 교재, 그리고 지도 교사의 다양성 등 여러 변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실태 분석 내용은 앞의 ‘<표 4> 재량 활동 관련 변인’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 규모별, 하위 영역별 시수 배정 방식에 따라 재량 활동 편성·운영 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대규모 학교 사례

1) 선택 과목 중심 편성

이 유형은 교과 재량 활동 영역 중 선택 과목 학습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편성 사례는 <표 28>과 같다.

<표 28> 대규모 학교에서의 재량 활동 편성·운영 방안(예시: 36학급의 경우)

| 영역 (시수) | 하위 영역 (시수) | 방법 | 내용 | 지도 교사 | 집단 편성 | 시간 운영 | 비고 |
|-------------------------|------------------|--------------|--|----------|----------|-----------------|--|
| 교과 재량 활동 (68) | 선택 과목 학습(68) | 부분 선택형 | 지정-한문, 정보 선택-일본어, 중국어 | 과목 교사 | 학급별 | 교과 활동과 연계 | 한문, 정보는 지정하 고 일본어와 중국어 는 희망을 고려함 |
| | 심화·보충 학습(0) | . | | | | | |
| 창의적 재량 활동 (34) | 범교과 학습(24) | 학교 지정형 | 학년별 3학급씩 같은 주제 진행 - 논술 교육(6) - 인성 교육(6) - 문화 예술 교육(6) - 국제 이해 교육(6) | 모든 교사 | 학급별 | 정일제 | 분기별로 나누어 학 급군을 순환하는 방 식으로 운영 |
| | 자기 주도적 학습(10) | 주제 중심 편성형 | - 소집단 활동 | 담임 교사 | 학급별 | 정일제 | 학급 중심 활동으로 편성 |

선택 과목 중심 편성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에는 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교과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학습에 68시간을 배정하여 연간 2과목을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단위 학교는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한문을 2개 학년에 정보를 1개 학년에 학교 지정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일본어와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개설하고 있다. 이 유형은 선택 과목을 두 과목 이상 확보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창의적 재량 활동 영역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보다 범교과 학습 중심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범교과 학습 주제는 논술 교육, 인성 교육, 문화 예술 교육, 국제 이해 교육 등이 선정된 것이다. 범교과 학습의 경우 학년별 학급군(3학급씩)을 배정하여 분기별로 순환하여 4개 주제를 모두 학습하도록 편성하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담임교사가 담당하여 학급별로 집단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에 34시간을 배정하여 시간 운영에 편리한 측면이 있으며, 학생의 주제 선택권이 다소 제한되는 단점이 있지만, 범교과 학습 주제별로 희망 교사를 배치하여 분기별로 나누어 학급군을 순회하여 담당하고 교재 제작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심화·보충 학습 중심 편성

이 유형은 교과 재량 활동 영역 중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편성 사례는 <표 29>와 같다.

<표 29> 대규모 학교에서의 재량 활동 편성·운영 방안(예시: 30학급의 경우)

| 영역 (시수) | 하위 영역 (시수) | 방법 | 내용 | 지도 교사 | 집단 편성 | 시간 운영 | 비고 |
|-------------------------|--------------------|--------------------------|---|----------|----------|-----------------|-----------------------|
| 교과 재량 활동 (82) | 선택 과목 학습(34) |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 개설-한문, 정보, 중국어, 일본어 선택-학년별 선택 범위 지정 | 과목 교사 | 학급별 | 교과 활동과 연계 | 학년별 두 과목 중 선택 |
| | 심화·보충 학습(48) | 학교 지정형 | 과학, 영어, 수학 | 과목 교사 | 학급별 | 교과 활동과 연계 | 학년별 과목 지 정 |
| 창의적 재량 활동 (20) | 범교과 학습 (14) | 부분 선택형 | 지정-진로 교육(7) 선택-인성 교육, 문화 예술 교육, 국제 이해 교육 등 35개 주 제 중 선택(7) | 담당 교사 | 학급별 | 정일제 | 학기별로 분리 운영 |
| | 자기 주도적 학습(6) | 학습 방법 중심 편성형 | - 소집단 활동 | 담당 교사 | 학급별 | 정일제 | 학급 중심으로 소 집단 활동 운영 |

심화·보충 학습 중심 편성형에서는 교과 재량 활동 중 선택 과목은 연간 34시간, 심화·보충 학습은 48시간으로 배정하고 있다. 선택 과목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한문, 정보, 중국어, 일본어 4개 과목을 개설하되 1학년에서는 한문, 정보 중에서 선택하고, 2학년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선택하며, 3학년에서는 4과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여러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1년간 학습하는 과목 수의 최소화 및 학년 간 학습의 연계성을 중시한 편성 방식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의 심화·보충 학습은 ‘요구 과목’에 대한 우선적 희망을 고려하여 과학, 영어, 수학 과목을 연간 48시간 이수하도록 하며, 교사 확보와 학년별 시수 배정 상황을 감안하여 1학년에는 과학, 2학년에는 영어, 3학년에는 수학 과목을 개설한 것이다.

창의적 재량 활동 영역은 연간 전체 시수 배정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시간이 배정되지는 않았으나, 연간 20시간을 확보하여 시간 편성에 있어서는 특별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위 영역에서는 학교의 교육적 필요에 의해 범교과 학습 중 진로 교육에 중점을 두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범교과 주제 중 특정 주제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도 어느 정도 보장되도록 한 것이다.

다. 중규모 학교 사례

1) 선택 과목 중심 편성

이 유형은 교과 재량 활동 영역 중 선택 과목이 제2외국어를 포함하여 두 과목 이상 개설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편성 사례는 <표 30>과 같다.

<표 30> 중규모 학교에서의 재량 활동 편성·운영 방안(예시: 24학급의 경우)

| 영역 (시수) | 하위 영역 (시수) | 방법 | 내용 | 지도 교사 | 집단 편성 | 시간 운영 | 비고 |
|-------------------------|-----------------------------|--------------------------|--|----------|----------|----------|-----------------|
| 교과 재량 활동 (86) | 선택 과목 학습(68) |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 지정-1학년(정보) 2학년(한문) 3학년(한문) 선택-일본어, 중국어 | 과목 교사 | 학급별 | 정시제 | 선택권 부여 |
| | 심화·보충 학습(18) | 학교 지정형 | 1학년-영어 2학년-수학 3학년-국어 | 과목 교사 | 수준별 | 정시제 | 학년별 운영 |
| 창의적 재량 활동 (16) | 범교과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16) | 학교 지정형 |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4) 양성 평등 교육(4) 다문화 교육(4) 여가 활용 교육(4) | 담당 교사 | 학급별 | 정시제 | 교과 활동과 연계 편성 |

선택 과목 중심 편성형에서는 교과 재량 활동 중 선택 과목은 연간 68시간, 심화·보충 학습은 18시간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 유형에서는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특정 과목으로 지정하고(정보, 한문) 일부 과목(일본어, 중국어)을 학생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여건과 학습자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 시간과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에 연간 34시간을 배정한 것은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택 과목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 우선 순위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지정 및 학생 선택 방식으로 편성하고, 심화·보충 학습의 경우 주로 교과 개설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다. 창의적 재량 활동 영역은 다양한 학습 내용을 편성하는 범교과 학습에 중점을 두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포함하여 편성한 것이다.

창의적 재량 활동을 운영하는 방식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합하여 범교과 학습은 내용을, 자기 주도적 학습은 소집단 공동 연구 또는 개인 자유 연구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통합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하위 영역별 균형적 배정 편성

이 유형은 교과 재량 활동 영역에서 선택 과목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 간, 창의적 재량 활동 영역에서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 간에 시수 배정을 균형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히 선택 과목이 제2외국어를 포함하여 두 과목 이상 개설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편성 사례는 <표 31>과 같다.

<표 31> 중규모 학교에서의 재량 활동 편성·운영 방안(예시: 20학급의 경우)

| 영역 (시수) | 하위 영역 (시수) | 방법 | 내용 | 지도 교사 | 집단 편성 | 시간 운영 | 비고 |
|-------------------------|------------------|------------|--|----------|----------|-----------------|-------------------------------------|
| 교과 재량 활동 (68) | 선택 과목 학습(34) | 부분 선택형 | 지정-한문 선택-정보, 중국어 | 과목 교사 | 학급별 | 교과 활동과 연계 | 1학년-한문 지정 2, 3학년-중국어, 정보 중 선택 |
| | 심화·보충 학습(34) | 학교 지정형 | 수학(17) 과학(17) | 과목 교사 | 학급별 | 교과 활동과 연계 | 학기별 다른 과목 운영 |
| 창의적 재량 활동 (34) | 범교과 학습(22) | 학교 지정형 | 성 교육(10), 진로 교육 (3), 경제 교육(3), 인성 교육(3), 다문화 교육(3) | 담당 교사 | 학급별 | 정일제 | 교사별 주제 선택 |
| | 자기 주도적 학습(12) | 주제별 학습형 | 소집단 공동 연구(3), 현 장 체험 학습(3), 주제 탐구 학습(3),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3) | 담당 교사 | 학급별 | 정일제 | 블록 타임제로 운영 |

이 유형은 선택 과목의 개설 범위를 넓힐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한문은 1학년에 지정하고, 2학년과 3학년에서는 정보와 중국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학생의 선택권을 반영하여 선택 과목을 개설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은 34시간을 확보하였으나, 교사 수급 및 시수 배정 상황을 고려해 학급군을 정하여 학기별로 다른 과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량 활동의 기본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창의적 재량 활동 영역에 34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범교과적 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블록 타임제로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을 운영함으로써 실제적인 자기 주도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다.

라. 소규모 학교의 사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소수 교사의 인적 구성에 따른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웃 학교의 지원을 통해 재량 활동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히 교과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개설을 위해 학교 지정으로 2개 과목을 개설한 것이다. 구체적인 편성 사례는 <표 32>와 같다.

<표 32> 소규모 학교에서의 재량 활동 편성·운영 방안(예시: 9학급의 경우)

| 영역 (시수) | 하위 영역 (시수) | 방법 | 내용 | 지도 교사 | 집단 편성 | 시간 운영 | 비고 |
|-------------------------|------------------|-----------|--|----------|-----------|----------|---------------------|
| 교과 재량 활동 (68) | 선택 과목 학습(34) | 학교 지정형 | 한문, 정보 | 과목 교사 | 학급별 | 정시제 | 전 학년 동일 교과 |
| | 심화·보충 학습(34) | 학교 지정형 | 학년별 국민 공통 기본 교과 | 담당 교사 | 과목 희망별 | 정일제 | 전 학년 |
| 창의적 재량 활동 (34) | 범교과 학습 (20) | 제한 선택형 | 성교육(4) 인성 교육(4) 다문화 교육(4) 독서 교육(4) 소비자 교육(4) | 담당 교사 | 주제별 | 정일제 | 담당 교사가 교과 활동과 연계 편성 |
| | 자기 주도적 학습(14) | 자유 선택형 | 소집단 활동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주제 탐구 학습 | 담임 교사 | 학급별 | 정일제 | 학급 중심 활동으로 편성 |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사 수급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도 역량이 있는 교사가 교과 재량 활동의 심화·보충 학습 시간을 전담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 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 5, 6교시를 정일제로 정하여 심화·보충 학습과 창의적 재량 활동을 운영하며,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도 전 교사의 희망을 받아 주제별로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 교사 확보가 어려워 다른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외부 강사를 확보하거나, 혹은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중에서 관심 있는 교사가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심화·보충 학습 시간은 학생의 희망을 고려해 운영하지 않고, 교사의 수업 시수에 따라 한 두 시간씩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간 배정은 교사에게 공정할 수 있으나 특정 과목을 심화해서 학습하거나 부족한 과목을 보충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편성 방식은 심화·보충 학습 시간과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정일제로 설정함으로써 블록 시간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 연간 시간표 편성 상 일관성을 갖게 되는 장점은 있으나, 교재를 자체 제작하고 교수·학습 내용을 공유할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V. 재량 활동의 평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항에서 재량 활동 평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재량 활동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1. 재량 활동 평가의 기본 방향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재량 활동이고, 특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학교의 자율권이 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에 각 학교는 학교 실정에 맞는 재량 활동을 편성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량 활동을 편성해야 한다. 재량 활동의 평가는 활동의 계획, 조직, 실천 등의 여러 과정에 걸쳐 교육 활동을 개선하고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재량 활동 의의에 부합되는 재량 활동 평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 활동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량 활동은 단위 학교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정형화된 평가 틀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재량 활동의 평가 방식도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각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학교 재량 활동 평가는 교과 활동과 관련된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참여도, 태도 등이 평가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하며,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 결과는 문장으로 기록한다.

셋째,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를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활동 계획에 대한 평가’, ‘활동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평가’, ‘집단의 변화·발전에 대한 평가’, ‘학생 개인의 발달에 대한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 평가와 함께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 활동 평가 결과는 환류되어 차후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점을

추출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2. 학생 평가

가. 재량 활동 학생 평가의 기본 방향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교과 재량 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평가 기준에 준하되 창의적 재량 활동은 평가의 주안점과 평가 기준을 정할 때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교육부, 1999b: 140-141).

- ① 창의적 재량 활동은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과 활동을 통해서 켈 수 없는 정의적, 심동적 측면에 대한 전인적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 과정에서의 참여 의욕, 상호 관계, 진보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③ 평소 활동의 누가 기록, 발표, 자기표현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를 실시한다.
- ④ 학생들의 능력차를 가려내어 서열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개인차를 발견하여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평가를 실시한다.
- ⑤ 교사 주도적인 평가보다 학생 스스로의 평가, 학생 상호간의 평가, 학부모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⑥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재량 활동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재량 활동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⑦ 학생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학교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평가를 포함하여 후속 계획 수립과 운영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한다.

나. 학생 평가의 방법

재량 활동의 평가 방법은 각 학교에서 작성된 재량 활동의 목표와 평가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 방법 및 요령을 예시하면 다음<표 33>과 같다(교육부, 1999c: 203).

<표 33> 재량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평가 방법(예시)

| 구 분 | 평가 방법 | 평 가 요 령 |
|---------------|--------------------------|---|
| 활동 상황의 관찰 | 일화 기록 | ◦ 학생의 활동 상황을 자유롭게 기록(지도록, 카드, 노트 등) |
| | 체크리스트 | ◦ 활동에의 참가 태도, 실천 상황을 미리 준비된 목록에 의거 점검 |
| | 평정 척도 | ◦ 활동 상황, 발언 내용 등을 일정한 척도에 비추어 기록 |
|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 | 의식, 태도 조사 | ◦ 활동에의 생각, 흥미, 관심, 태도 등을 설문식으로 조사 |
| | 자기 평가 | ◦ 집단 활동의 참가 태도, 행동의 정착도를 각자 반성 평가 |
| | 상호 평가 | ◦ 집단 활동에의 참가 태도, 실천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의 선택 평가 |
| 학생의 기록, 작품 | 활동의 기록 | ◦ 활동의 계획이나 활동의 실제 기록(미리 준비한 자기 계획) |
| | 개인 기록, 보고서, 리포트 등 | ◦ 개인의 자유 연구, 소집단 공동 연구, 주제 탐구 활동, 자연 체험 활동 등의 활동 보고서, 기록 결과물, 작품, 사진 등의 자료 분석 |
| | 작문, 일지 | ◦ 활동의 계획, 실시에 대한 의견, 참가 후, 활동 후의 감상 |
| 교사의 협의, 의견 교환 | 동 학년 협의, 타 학년, 진교 단위의 협의 | ◦ 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 반성 평가 |

다. 학생 평가의 기록과 활용

재량 활동을 평가하고 기록함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창의적 재량 활동상황’란에 입력하는 내용은 활동 영역 또는 주제와 이수 시간을 입력하되, 활동 주제가 세분화되어 특별히 많을 경우에는 창의적 재량 활동의 2가지 영역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나누어 해당 영역에 대한 연간 이수 시간과 특기 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특기 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문장으로 간단하게 입력하되,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2가지 활동 영역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각 활동 영역에 대한 특기 사항을 문장으로 간략하게 입력할 수 있다. 이때, 대 영역을 기록한 경우 소 영역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⁹⁾

재량 활동 평가 결과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요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표 34>와 같이 입력한다.

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07. 2. 28,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 제12조(재량활동) ①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및 영역·내용·평가 등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⑤ 창의적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상황’란에 활동영역 또는 주제, 연간 이수 시간을 입력하고 평가는 활동영역 또는 주제에 대한 특기사항을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간략한 문장으로 입력한다.

- ① 선택 과목의 평가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하며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교과, 과목, 성취도, 석차(동석차수)/재적수를 입력한다.
- ②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의 이수 여부는 학기말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 이수 시간 및 이수 과목 등을 입력한다.
- ③ 창의적 재량 활동은 활동명, 연간 이수 시간, 평가 결과, 특기 사항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평가 기준표에 따라 서술식으로 학생의 장점과 특기, 흥미 정도를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문장으로 서술한다.

창의적 재량 활동 평가 기록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창의적 재량 활동 평가 기록(예시)

| 학년 | 활동 영역 또는 주제 | 이수시간 | 특 기 사 항 |
|----|-------------|------|--|
| 1 | 범교과 학습 | 00시간 |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하여 질서 의식이 고양되고 정보 윤리 교육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 에티켓을 익힘 |
| | 자기 주도적 학습 | 00시간 | 장인 정신 체험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잘함 |
| 2 | 국제 이해 교육 | 0시간 | 국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 활동과 자료 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 | 성 교육 | 00시간 | 성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이성 교제를 위해 가져야 할 태도를 잘 인식함 |
| | 독서 교육 | 0시간 | 「청소년 토지」 등 권장 도서 20권을 독서함 |

3.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

가. 재량 활동 교육과정 평가의 기본 방향

학생 평가와는 별도로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함수곤·김찬재, 2006).

첫째,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에서는 시간 배당의 적절성, 시간 조직의 효율성, 시기의 융통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재량 활동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에서는 활동 목표의 타당성, 내용 선정 조직의 타당성, 교수·학습 방법의 효율성, 교수·학습 자료의 효과성을 고려한다.

세째, 재량 활동의 평가 측면에서는 재량 활동의 각 세부 영역별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평

가 방법 구안, 평가 도구의 타당도, 평가 기록 및 통지 방법,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을 고려한다.

나.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재량 활동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재량 활동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교사의 자기 평가가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 있으며, 교사의 자기 평가를 통하여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자기 평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기 평가 관점을 사전 조사, 주제 선정, 편성, 운영, 평가 등 몇 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예시하면 다음 <표 35>와 같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53).

<표 35> 재량 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자기 평가표(예시)

| 평가 일시 | 년 | 월 | 일 | 평가자 | 교사 : | | | |
|---------|--|----|----|-------|------|---|---|----|
| 활동명 | 재량 활동 | 기별 | 학기 | 프로그램명 | | | | |
| 영역 | 관점 | | | | 평가 | | | 반성 |
| | | | | | 상 | 중 | 하 | |
| 사전 조사 | •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찾아 낼 수 있는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 | | | | | | |
| 주제 선정 | • 학생 각 개인의 필요한 과제를 찾을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되었는가? • 학생 개인 능력에 따른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주제 선정이 되게 하였는가? | | | | | | | |
| 교육과정 편성 | • 학년 재량 활동의 목표와 활동 내용에 적합한 프로그램 학습 활동 내용으로 편성되었는가? •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 내용이 학년 간에 위계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 | | | | | | |
| 시간 운영 | • 학습 활동 계획이 학생 주도적으로 짜여졌는가? • 학습 활동 시간 배당이 학습 활동 운영에 적절하였는가? | | | | | | | |
| 학습 자료 | • 학습 자료로 이용한 자료가 도움이 되었는가? | | | | | | | |
| 평가 | • 평가 방법이 학생의 자기 평가, 학생의 상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학습 활동에 따른 평가 관점을 수립하고 평가에 임하였는가? | | | | | | | |

〈표 36〉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표 (예시)

| 구분 | 평 가 관 점 | 평 점 | | | | | 평 균 | 개선 항점 |
|--------|---|-----|---|---|---|---|--------|----------|
| | | 1 | 2 | 3 | 4 | 5 | | |
| 계 획 | 1) 전 교직원의 조직, 임무, 역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 | | | | | |
| | 2) 교육과정 기준과 지침의 내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추출하여 반영하였는가? | | | | | | | |
| | 3) 각종 실태 조사 분석이 반영되었는가? | | | | | | | |
| | 4) 재량 활동 목표 구현을 위한 교육 중점이 전교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정되었는가? | | | | | | | |
| | 5) 재량 활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 | | | | | |
| | 6) 재량 활동의 주제, 지도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가? | | | | | | | |
| | 7) 교사의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연수가 잘 추진되었는가? | | | | | | | |
| 편 성 | 1) 재량 활동 교육과정 기본 방향이 합리적인가? | | | | | | | |
| | 2) 재량 활동의 성격- 목표-방법-평가가 학교 특성을 살려 일관성있게 운영되도록 편성되었는가? | | | | | | | |
| | 3) 교과 및 특별 활동의 심화·발전을 꾀하고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창의적인 교육활동인가? | | | | | | | |
| | 4) 학년 목표가 타당하게 설정되고,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편성인가? | | | | | | | |
| | 5) 지역사회, 학교 실정에 알맞고, 학생의 개성 소질에 부합하는 내용인가? | | | | | | | |
| | 6) 시설, 설비, 장소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편성되었는가? | | | | | | | |
| | 7) 재량 활동 내용이 학생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이고, 학생의 개별 상황에 적합 한가? | | | | | | | |
| 운 영 | 1) 재량 활동 시간 배당 기준을 준수하고 본질에 맞는 수업을 하였는가? | | | | | | | |
| | 2)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는가? | | | | | | | |
| | 3) 학생들에게 공동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했는가? | | | | | | | |
| | 4) 재량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였는가? | | | | | | | |
| | 5) 학생 능력에 알맞은 학습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였는가? | | | | | | | |
| | 6)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자료 준비가 잘 되었는가 | | | | | | | |
| | 7) 지역 사회와 가정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졌는가? | | | | | | | |
| 평 가 | 1) 재량 활동의 평가가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와 활동 과정을 중심으로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 | |
| | 2) 평가의 준거가 될 평정 척도 또는 평가 관점을 적용하여 활용하였는가? | | | | | | | |
| | 3) 평가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활용하여 목표 도달도를 측정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가? | | | | | | | |
| | 4) 재량 활동 내용이 일반화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치가 있겠는가? | | | | | | | |
| | 5) 재량 활동 내용이 학교 전통으로 계속될 수 있겠는가? | | | | | | | |
| 소 계 | | | | | | | | |

또한 설문지나 평정 척도 표를 통한 평가는 학교에서 합목적으로 구안하거나 개발된 평가 내용 및 평가 관점을 중심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그 결과에 기초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평가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평가는 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교사들은 평가의 관점, 방법 등을 이해하고, 평가가 효율적이고 합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표를 예시하면 위의 <표 36>과 같다(함수곤, 1998: 함수곤·김찬재, 2006).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요’**.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호(2007. 2. 2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 교육인적자원부(2003).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우수 사례집 - ‘중학교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 준비에서 평가까지’**.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1999a).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9b).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Ⅴ)**.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9c).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한국교육개발원(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97 교육부 위탁 연구과제 답신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원대학교(1998). **초·중등학교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연구**. 교육부 위탁 연구 과제 답신보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 **초등학교 재량 활동 운영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재량 활동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재량·특별 활동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함수곤 외(1998).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모형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 함수곤, 김찬재(2006). **교육과정 장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한 문

박 미 현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호 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안 재 철 (단 국 대 학 교)
윤 재 민 (고 려 대 학 교)
송 병 렬 (영 남 대 학 교)
김 왕 규 (한 국 교 원 대 학 교)
이 군 선 (원 광 대 학 교)

- I. 한문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II. 한문 과목 교육과정의 변천
- III. 한문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IV. 한문 과목 교육과정 해설
- V. 한문 과목 신·구 교육과정 비교

I. 한문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교육과정은 국제화를 비롯한 사회 여건의 변화, 교육 이론이나 프로그램의 발전 등의 외적 조건, 그리고 교육 현장의 내적인 필요에 의하여 개정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내적·외적인 요인에 따라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개정하여 사회적·국가적 요구를 다양하게 수렴·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한문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정책이 변화하였다. 교육과정 정책은 그동안의 일시적·전면적인 개정 체제에서 수시 개정 체제로 제도가 보완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수시 개정 및 활성화 방안’은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의 요구를 탄력적·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이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된 이후 학교 현장에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문 과목 교육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 한문 과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화·세계화로 변화되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한문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총론이나 기본 체제는 유지하되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량이나 내용 수준 등은 적정하게 조절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다른 교과와의 관련 속에서 한문 과목의 고유한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

한편 한자문화권과의 다각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다른 교과보다 한문 과목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국제교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정책의 변화를 수용하고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문 과목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한문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한문 과목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제화·세계화로 변화하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II. 한문 과목 교육과정의 변천

한문 과목이 국어 교육의 일부로 존속되다가 독립된 것은 1972년도이다. 1972년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한문 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교과 교육으로 처음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학교 교육에서의 한문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제1~7차의 한문 과목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은 한문 교육이 변화해 온 과정이며, 이는 앞으로의 한문 교육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문 과목 교육과정의 체제, 목표, 내용 체계 및 내용, 방법, 평가 등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문 교육의 체계화 과정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고, 미래의 한문 교육을 구상할 수 있다. 제1~7차의 한문 과목 교육과정의 체제, 목표,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체제

제1~5차 한문 과목 교육과정의 체제는 용어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이라는 기본 틀로 되어 있다. 그러다가 제6차 교육과정에 와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체제를 갖추면서 보다 완전한 문서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 목 표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교과 목표에 따른 ‘한자 및 한문 학습의 의의’를 5개항으로 제시하였다. 제2~5차 한문 과목 교육과정에 제시한 목표는 학교 급별 목표와 학년별 목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후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학교 급별 목표만 제시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제1차와 유사하나 학년 목표를 한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목표에 따르는 ‘일반 목표’를 3개항으로 제시하였고, 학년 목표는 학년별로 3개항씩 제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문(前文)과 한자, 한문 문장, 한문 기록을 통한 전통문화의 이해, 계승, 발전에 관한 5개항을 제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과 한자, 한자어, 독해력 신장, 한문 기록을 통한 전통문화의 이해, 계승, 발전에 관한 5개항을 제시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제5차 교육과정의 ‘목표’ 5개항을 4개항으로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의 ‘목표’ 4개항을 다시 5개항으로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3. 내용 및 내용 체계

제1~7차 한문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 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교재 내용’과 ‘지도 요령’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 제2차: ‘지도 내용’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1학년 7개항, 2학년 6개항, 3학년 6개항).
- 제3차: ‘내용’ 항에서 학년별 ① 지도 사항과 ② 주요 형식으로 ‘지도 사항 및 형식’을 두고, 이어서 ‘제재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 제4차: ‘내용’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1학년 7개항, 2학년 9개항, 3학년 9개항).
- 제5차: ‘내용’을 학년별로 제시하고 가) 한자, 나) 한자어, 다) 한문으로 구별하였다(1학년: 한자 6개항, 한자어 5개항, 한문 6개항, 2학년: 한자 4개항, 한자어 5개항, 한문 9개항, 3학년: 한자 3개항, 한자어 5개항, 한문 11개항).
- 제6차: ‘내용’을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내용 체계’는 ‘영역’과 ‘학년별 내용요소’(1학년: 한자 5개항, 한자어 4개항, 한문 4개항, 2학년: 한자 5개항, 한자어 4개항, 한문 6개항, 3학년: 한자 4개항, 한자어 4개항, 한문 7개항)로 제시하고, ‘학년별 내용’은 학년별 내용요소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1학년: 한자 5개항, 한자어 4개항, 한문 5개항, 2학년: 한자 5개항, 한자어 5개항, 한문 6개항, 3학년: 한자 4개항, 한자어 5개항, 한문 6개항).
- 제7차: ‘내용’을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내용 체계’는 ‘영역’과 ‘내용’으로 구성하되, ‘내용’을 학년별 구분 없이 영역별로 ‘하위 항목’(한자: ‘한자 익히기’, ‘한자 활용하기’, 한자어: ‘한자어 익히기’, ‘한자어 활용하기’, ‘가치관 형성하기’, 한문: ‘한문 익히기’, ‘한시 익히기’, ‘한문 활용하기’, ‘가치관 형성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시키기’)과 ‘내용 요소’(‘한자 익히기’ 4개항, ‘한자 활용하기’ 2개항, ‘한자어 익히기’ 4개항, ‘한자어 활용하기’ 2개항, ‘가치관 형성하기’ 1개항, ‘한문 익히기’ 4개항, ‘한시 익히기’ 1개항, ‘한문 활용하기’ 1개항, ‘가치관 형성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시키기’ 2개항)로 한 단계 더 상세화하여 제시하였다. ‘영역별 내용’은 하위 항목의 내용 요소를 영역별로 ‘내용+행동’의 형식으로 기술하되, 학년별로 학습할 내용을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1학년: 한자 6개항, 한자어 7개항, 한문 5개항, 2학년: 한자 5개항, 한자어 7개항, 한문 6개항, 3학년: 한자 5개항, 한자어 7개항, 한문 8개항).

4. 제재 선정의 기준

제재 선정의 기준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설정·제시한 4개항이 유일하다. 제1차는 ‘교재 내용’에서, 제2차는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제4, 5차에서는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의 ‘지도’ 항에서, 제6, 7차는 ‘방법’ 항에서 다루었다.

5.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제1~3차 교육과정에서는 지도에 관한 유의 사항만 다루었고,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평가에 관한 유의 사항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뿐만 아니라 지도와 평가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도와 평가 계획 수립 및 실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Ⅲ. 한문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중학교 한문 과목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와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과목의 위상, 현행 한문 과목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내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2007년 개정 한문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문 과목의 도구교과적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과목의 도구 교과적 성격을 국어 어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 학습을 통하여 언어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찾았다. 그러나 한문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언어생활에서의 활용과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이루어진 각종 자료 및 이와 관련된 학문과 문화의 제 분야를 이해하는 데도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 이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과목의 도구교과적 성격을 한문 과목의 정체성에 맞게 재규정하였다.

둘째, 한문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을 상호 통일적 연계 속에서 설정하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이 부분적으로 상호 조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에 대한 내용이 ‘성격’에서는 한문 과목의 일반적 성격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나 ‘목표’와 ‘내용’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한문 과목의 일반적 성격 중의 하나로서 뿐만 아니라 그에 조응하는 한문 과목의 일반 교육 목표 중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또 이를 ‘내용’의 내용 체계 및 영역별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격’, ‘목표’, ‘내용’이 상호 조응하도록 하였다.

셋째, 한문 과목의 교과적 특성과 학문적 체계에 부합하도록 내용 체계를 재조직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이래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어 온 ‘한자’, ‘한자어’, ‘한문’의 세 영역 체제는 영역들의 내포와 외연이 불명료하고 영역 설정의 기준 또한 모호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은 ‘한문’과 ‘한문지식’의 두 영역 체제를 수용하였다. 곧, 한문 과목의 학문적 성격을 고려하여 한문에 대한 언어적, 문학적, 사상적, 문화적 이해 전반을 ‘한문’ 영역으로 설정하되, 한문 과목의 언어적 특질을 고려하여 한문에 대한 문법적 이해 측면을 별도로 ‘한문지식’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새로운 영역 체제에 따라 중영역의 성격과 그 내용 또한 재조직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은 중영역을 영역의 성격에 따라 ‘한문’ 영역은 ‘읽기’, ‘이해’, ‘문화’로 설정하고, ‘한문지식’ 영역은 ‘한자’, ‘어휘’, ‘문장’으로 설정하되, 학교 급별 및 과목별에 따라 중영역의 설정에 차이를 두지 않음으로써 한문 학습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영역 체제 및 중영역의 설정에 따라 내용 요소의 성격과 그 내용 또한 재조직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은 영역과 중영역의 범주적 특성 및 학교 급별 과목별 수

준을 고려하여 내용 요소를 선정하되, 내용 요소가 영역별 내용에서 제시할 학습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준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교육과정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들을 개정 교육과정이 새로 설정한 영역 및 중영역에 따라 새롭게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평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평가 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다시 ‘평가 계획’과 ‘평가 목표와 내용’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내용을 보다 상세화하여 제시하였다.

IV. 한문 과목 교육과정 해설

1. 성격

가. 한문 과목의 일반적 성격

한문 과목의 일반적 성격은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을 말한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주로 한자(漢字)·한문(漢文)으로 문자 생활을 영위하였다. 또한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한문은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를 표현하고 기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근대 시대의 문자 생활에서 한문이 차지하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의 여러 나라에 공통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문은 구어(口語)로서의 언어 구사 능력을 중시하는 현대의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여타의 외국어와 달리 한자문화권의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고전(古典) 문언문(文言文)으로서 일종의 국제적 표기 수단의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 온 한자·한문을 남의 나라 글자나 글로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문자는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화 자산이다. 가령, 한글 또한 누구나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글자나 글로 사용하여 그것이 전통이 된다면 곧 그 나라의 글자나 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한자의 음을 중국어의 음과 달리 우리식 음으로 읽거나, 한문에 우리말의 어법을 적용하여 토를 달아 읽는 것 등은 한자·한문이 우리말화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문 과목은 이와 같이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고전 문언문인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 교과이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한자, 어휘, 문장의 차원에서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서의 활용을 위해 한문 과목에서 학습해야 할 최소한의 지식을 지칭한다. 이러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한문 능력은 국어 어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언어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이루어진 각종 한문 자료 및 이와 관련된 학문과 문화의 제 분야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도구의 역할을 한다.

한문 과목은 한문의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한문의 학습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한문을 읽고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한문을 읽고 풀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저절로 신장되는 것이 아니다. 한문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문체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들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의 그 역사적 성격 및 문체적 특징에 대해서 최소한이나마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문을 읽고 풀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제대로 기를 수 없을 것이다. 한문의 읽기와 풀이 및 이해와 감상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한문은 기본적으로 고전어(古典語)이며 또한 문언문(文言文)으로서, 구어(口語)로서의 언어 구사 능력을 중시하는 여타의 외국어와 달리 한자문화권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문 과목은 가치중립적인 다른 외국어와 달리 일정한 가치지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과목이다. 선인들의 사상과 감정, 가치관과 문화 의식을 담고 있는 한문 자료의 학습은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여 최소한의 인문적 교양을 기르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곧, 한문 과목은 한문 자료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동양과 서양 및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가치관들이 혼재하여 가치관의 혼란을 겪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에 기초한 가치관을 돌아보게 해 주어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도록 하며, 나아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여 전통문화를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과목이다.

또한 한문 과목은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힘으로써,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특히 한자문화권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아래 형성된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는 한자문화권에 공통된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문 독해 능력의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도 한다. 일반적인 외국어 교과는 가치중립적인 문법의 학습만으로 해당 교과의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한문은 가치중립적인 문법의 학습만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한문에서는 그 문장에 쓰인 단어 자체가 갖는 전고성(典故性), 곧 그 단어 내지 용어가 갖는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문법적 요소에 대한 이해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여러 점을 고려하여 새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과목의 일반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문은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고전(古典) 문언문(文言文)인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 교과이며, 한문의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한문은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우리 생활 전반에 면면히 이어 온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과목이다.

한문은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다.

나. 중학교 한문 과목의 성격

한문 과목은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으로 구별되고, 과목별로는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로 구별된다.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는, 그 연계성의 측면에서는 일반적 성격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위계성의 측면에서는 서로 각기 구별되는 특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문 과목의 과목별 성격을 한문 과목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 성격과 과목에 따라 구별되는 특수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문 과목의 학교 급별에 따라 구별되는 특수적 성격을 학교 급별로 정해진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에 의거하여 규정했다. 따라서 중학교 ‘한문’은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에 의거하여, 그리고 고등학교 ‘한문 I’과 ‘한문 II’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에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를 더한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 의거하여 먼저 그 학교 급별 성격을 규정했다.

그런데 과목에 따라, 학교 급별로 정해진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와 해당 과목 사이의 관계는 그 성격이 각기 다르다. 한자를 익히는 식자(識字) 교육의 측면에서만 보면, 중학교 ‘한문’에서 익혀야 할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는 중학생이 이를 처음 접한 때로부터 산술적으로 1년에 300자씩 익혀야 중학교 3년의 과정 동안 다 익힐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한문 I’은 중학교 ‘한문’의 이수, 곧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를 모두 익힌 것을 전제로 하는 과목이지만, 고등학교 ‘한문 I’에서 익혀야 할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는 여전히 고등학생이 소정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한문 I’의 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다 익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한문 II’는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과 성격이 다르다. 고등학교 ‘한문 II’는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의 이수, 곧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모두 익힌 것을 전제로 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적어도 식자(識字) 교육의 측면에서, ‘한문 II’에서 새롭게 익혀야 할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과목에 따라 익혀야 할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와 해당 과목 사이의 관계가 가지는 그 특수한 성격을 살펴볼 때, 중학교 ‘한문’은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를 처음으로 익히기 시작하는 과목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 점에 유의하여 새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한문’ 과목의 특수적 성격으로 “한문 과목이 학교 교육의 정규 교과로는 중학교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라는 부가 규정을 두었다.

중학교 한문의 과목별 성격에 대한 서술 중에서 이상의 학교 급별, 과목별에 따른 특수적 성격에 의거한 서술을 제외한 나머지 서술들은 한문 과목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 성격에 의거한 서술들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 한문 과목의 일반적 성격에 의거한 서술 부분에서, 중학교 ‘한문’의 경우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부분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에서는 이 한문 과목의 일반적 성격에 의거한 서술 부분에서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가 공통 그 내용을 같이 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여러 점들을 고려하여 새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한문의 과목별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중학교 한문은 위와 같은 한문 과목의 일반적인 성격에 근거하여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특히, 한문 과목이 학교 교육의 정규 교과로는 중학교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2. 목 표

새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중학교 한문 과목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가.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나.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마.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새 교육과정의 목표를 전문(前文)과 하위 목표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前文)은 한문 과목의 일반 목표와 특수 목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한문 과목의 일반 목표는 한문 과목의 일반적 성격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에서 공통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목표이다. 한문 과목의 특수 목표는 한문 과목의 학교 급별, 과목별에 따른 특수적 성격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에서 각기 수준별로 다르게 성취되어야 할 목표이다. 새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의 전문은 그 내용이 같다. 이것은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이 공히 한문 과목의 일반 목표를 성취해야 할 목표로 삼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목표의 차원에서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의 수준별 차이는 하위 목표에서 별도로 하나의 항목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하위 목표는 전문에 제시된 목표를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화한 것이다. 단, 중학교 ‘한문’은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로 설정하여 학교 급별에 따른 수준별 성취 목표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하위 목표에서 추가 설정된 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각기 그 전문의 내용과 조응하는 것이다. 새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중학교 한문의 하위 목표는 모두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 중 <가>항은 중학교 한문 과목의 학교 급별, 과목별에 따른 특수 목표로서 제시한 것이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한문의 내용 영역을 ‘한문’, ‘한문지식’으로 나누고 있는바, 이 <가>항은 ‘한문’, ‘한문지식’ 영역에서 모두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하위 목표 중 나머지 4개 항목은 한문 과목의 일반 목표로서 제시한 것이다. 그 중 <나>항은 ‘한문지식’ 영역에서, <다>, <라>, <마>항은 ‘한문’ 영역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제시한 것이다.

3. 내 용

가. 내용 체계

내용 체계는 교과와 학문적 특성과 핵심 내용을 간명하게 체계화·구조화하여 제시한 틀로, 교과와 학문적 구조와 교수·학습 내용 및 활동을 요약·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한문 과목의 내용 체계는 한문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한문 과목 교육 내용의 선정의 근거로, 영역별 학습 내용의 위계화·계열화에 따른 교육적 정당성 판단과 제시 기준으로, 또한 학습 내용의 상세화 및 진술 방식의 지침으로 기능한다.

새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 1> 내용 체계

| 영역 | 내용 | |
|------|----|------------------|
| 한문 | 읽기 | 단문의 읽기와 풀이 |
| | | 산문의 읽기와 풀이 |
| | | 한시의 읽기와 풀이 |
| | 이해 | 단문의 이해와 감상 |
| | | 산문의 이해와 감상 |
| | | 한시의 이해와 감상 |
| | 문화 |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
| | |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
| 한문지식 | 한자 | 한자의 특징 |
| | | 한자의 짜임 |
| | | 한자의 역사 |
| | 어휘 | 단어의 형성 |
| | | 단어의 갈래 |
| | | 어휘와 의미 |
| | 문장 | 문장의 구조 |
| | | 문장의 유형 |
| | | 문장의 수사 |

새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를 ‘영역’과 ‘내용’으로 구성하되, ‘내용’을 다시 영역별로 ‘중영역’과 ‘내용 요소’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영역은 한문 과목의 학문적 성격과 언어적 특질을 고려하여 ‘한문’과 ‘한문지식’으로 설정했다. 곧, 한문 과목의 학문적 성격을 고려하여 한문에 대한 언어적, 문학적, 사상적, 문화적 이해 전반을 ‘한문’ 영역으로 설정하되, 한문 과목의 언어적 특질을 고려하여 한문에 대한 문법적(文法的) 이해 측면을 별도로 ‘한문지식’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영역의 내용은 영역의 성격에 따라 ‘한문’ 영역은 ‘읽기’, ‘이해’, ‘문화’로 중영역을 설정하고, ‘한문지식’ 영역은 ‘한자’, ‘어휘’, ‘문장’으로 중영역을 설정하였다. 내용 요소는 영역과 중영역의 범주적 특성 및 학교 급별 과목별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영역별 내용에서 제시할 학습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준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곧, ‘한문’ 영역의 경우, ‘읽기’와 ‘이해’에서는 한문 텍스트를 ‘단문’, ‘산문’, ‘한시’의 세 종류로 나누고, 이 각각에 대한 ‘읽기와 풀이’, ‘이해와 감상’을 내용 요소로 선정하고, ‘문화’에서는 한자문화권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한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내용 요소로 선정하였다. ‘한문지식’ 영역의 경우, ‘한자’에서는 한자의 문자학적

(文字學的) 특성과 한문의 언어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한자의 역사’를 내용 요소로 선정하고, ‘어휘’에서는 한문 어휘의 형태론적 특성과 한문의 언어적 환경을 고려하여 ‘단어의 형성’, ‘단어의 갈래’, ‘어휘와 의미’를 내용 요소로 선정하고, ‘문장’에서는 한문 문장의 통사론적 특성과 한문의 언어적 환경을 고려하여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문장의 수사’를 내용 요소로 선정하였다.

나. 영역별 내용

<1학년>

- 한 문 -

<읽 기>

[1-읽기-(1)] 한문 단문(短文)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한문 단문을 이루는 단어(單語), 구절(句節), 문장(文章)을 바르게 발음하여 읽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문(漢文)’은 한자(漢字)로 이루어진 문언체(文言體)의 글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한문은 구어(口語)로서는 사용되지 않고 문언문(文言文)으로서만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가 접하는 한문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품 또는 저술(著述)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한문 단문(短文)’은 예로부터 널리 전해지거나 알려진 격언(格言), 속담(俗談), 명언(名言)·명구(名句), 기타 한문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글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개 기존의 특정 작품 또는 저술의 일부에서 발췌(拔萃)하거나 가공(加工)한 것들이다.

‘한문 단문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한문 단문을 이루는 단어, 구절, 문장을 바르게 발음하여 읽을 수 있음을 말한다.

문장은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최소 언어 단위이다. 구절은 문장 내에서 끊어 읽는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구절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단어는 하나의 한자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한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어 한자어(漢字語)에서는 두 개 이상의 한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가 일반적이지만, 한문에서는 하나의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문에서도 두 개 이상의 한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단어를 바르게 발음하여 읽기 위해서는 단어로 사용된 한자의 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한자의 발음이 다른 한자의 발음과 결합할 때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음운론적(音韻論的) 규칙도 알아야 한다. 가령, 아래의 보기 중에서 ‘良’자는 원래 음이 ‘량’이지만 ‘良藥(양약)’의 경우와 같이 두음법칙(頭音法則)이 적용되는 환경에서는 ‘양’으로 발음하고 발음의 한글 표기 또한 ‘양’으로 한다.

보기 良藥(양약)은 苦於口(고어구)라.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또한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개의 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개의 음을 가지는 한자는 그 한자가 사용된 문맥에서의 의미에 따라 음이 정해진다. 가령, ‘樂’자는 아래 보기의 ‘不亦樂乎’에서는 ‘즐겁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음이 ‘락’이며, ‘樂水’와 ‘樂山’에서는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음이 ‘요’가 된다. 이외에도 ‘樂器(악기)’라는 단어에서와 같이 ‘樂’자가 ‘음악’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음을 ‘악’으로 읽어야 한다.

보기 有朋(유봉)이 自遠方來(자원방래)면 不亦樂乎(불역락호)야?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知者(지자)는 樂水(요수)하고, 仁者(인자)는 樂山(요산)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1-읽기-(2)] 한문 단문을 끊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한문 단문을 이루는 구절,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문으로 된 옛글들은 대부분 단어, 구절, 문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붙여 쓰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글을 읽을 때는 문장과 문장 사이 및 문장 내의 구절과 구절들 사이를 적당하게 끊어서 읽었으니, 이것을 구두(句讀)라고 한다. 원래 ‘구(句)’는 문장과 문장 사이 휴지(休止)가 필요한 곳을 끊어 읽는 것이니, 곧 하나의 문장이 완결되는 자리를 끊어 읽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讀)’는 하나의 문장 내에서 구절과 구절들 사이에 정돈(停頓)이 필요한 곳을 끊어 읽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늘날 문장 부호 사용법을 이르는 구두법(句讀法)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한문의 끊어 읽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권점(圈點)’, ‘띄어쓰기’, ‘구결(口訣)’, ‘현토(懸吐)’, ‘구두법(句讀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현토(懸吐)’와 ‘구두법(句讀法)’이다.

현토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한문을 읽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다. 가령, 아래 보기 ①과 같은 문장이 있으면, 이것을 ②와 같이 읽었으니, 여기서 ‘~이’, ‘~면’, ‘~아’와 같이 문장의 구절과 구절 사이 및 문장이 완결되는 자리에 붙이는, 우리말로 된 조사나 어미를 토(吐)라고 하고, 이처럼 토를 다는 것을 ‘현토(懸吐)’라고 한다. 토는 한문의 뜻을 어느 정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문법의 기능도 부분적으로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구두법은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끊어 읽는 위치를 표시하는 현대적 방법이다. 중국에서는 1951년에 ‘표점부호용법(標點符號用法)’을 공포한 이래 중국어의 문장 부호 사용법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맞춤법’에서 문장 부호 사용에 대한 규정을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한문의 구두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문의 구두법은 국어에서 사용하는 문장 부호를 원용하되 한문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국어의 구두법은 띄어쓰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필요한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 그러나 한문의 구두법은 띄어쓰기만을 따로 하지 않고(단순히 띄어쓰기만을 한다면 아래 보기 ⑤와 같이 될 것이다) 끊어 읽어야 할 자리에 문장 부호를 표시하면서 아울러 띄어쓰기를 한다. 가령, 아래 보기 ①의 국어 번역은 ③과 같이 띄어쓰기를 기본으로 하고 문장 부호로 마침표의 일종인 물음표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문의 구두법 표기는 ④와 같이 문장이 끝났을 때 사용하는 물음표 이외에도 문장 내에서 구절과 구절 사이 끊어 읽기를 하는 자리마다 문장 부호로 쉼표를 사용하면서 아울러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다.

보기

- ①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 ②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 ③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 ④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
- ⑤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

‘한문 단문을 끊어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한문 단문을 이루는 구절, 문장을 바르게 끊어서 현토하여 읽거나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음을 말한다.

단, 현토하여 읽기는 현토를 이용하여 읽는 데 중점을 두어, 이미 현토되어 있는 한문 단문을 토의 구실에 유의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토의 종류는 워낙 많고 또 현대 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조사나 어미가 토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문 단문에서 실제로 사용된 토에 대해서만 그 구실을 이해하도록 하여, 현토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토의 원리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도록 한다.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표기하기는 이미 현토되어 있는 한문 단문을 토 대신에 문장 부호가 사용된 문장으로 바꾸어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한문의 구두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표점(標點)의 원리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도록 한다. 한문의 구두법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 부호의 예를 들면, 우선 문장이 끝날 때는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마침표[終止符]를 찍는다. 문장 내의 구절과 구절 사이 끊어 읽기를 하는 자리에는 쉼표[休止符]로 반점(.)을 찍는다. 단, 인용하는 말이나 대화를 표시하는 ‘曰’, ‘云’ 등의 뒤에는 쉼표로 쌍점(:)을 찍고, 인용하는 말이나 대화는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등의 따옴표[引用符]로 묶어 표시한다.

[1-읽기-(3)] 한문 단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한문 단문을 이루는 단어, 구절, 문장을 바르게 풀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문을 풀이하는 방법에는 크게 직역(直譯)과 의역(意譯) 두 가지가 있다. 직역은 원문(原文)을 단어나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에 충실하게 풀이하는 것이다. 의역은 원문을 단어나 구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문장 전체의 뜻을 살려서 풀이하는 것이다.

한문 학습의 과정에서 한문의 풀이는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는 것이 좋다. 직역은 원문의 의미와 맛을 원문에 가깝게 느끼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원문에 대한 이해의 정확도를 바로 가늠할 수 있게 해 주어 한문 독해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된다. 다만 한문과 우리말의 차이로 인하여 직역을 할 수 없거나 직역만으로는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의역을 해야 한다.

보기

晝耕夜讀.

- ① 낮에는 갈고 밤에는 읽는다.
- ②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한다.
- ③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위의 보기에서 ‘晝耕夜讀’을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여 “낮에는 갈고 밤에는 읽는다.”라고 풀이하면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게 느껴지고, 의역을 하여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한다.”라고 풀이하면 의미는 분명해졌지만 대신 원문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晝耕夜讀’은 ‘晝耕田, 夜讀書’에서 ‘田’과 ‘書’가 생략된 형태로 보고, 이를 우리말로 풀이할 때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라고 하여 생략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풀이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와 맛을 아울러 살리는 좋은 방법이 된다.

한문 단문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장 전체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문장 전체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 속에서 사용된 단어나 구절의 구체적인 의미, 문장의 구조와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보기

百花滿發[온갖 꽃이 활짝 피다.]

위의 보기에서 ‘百’은 숫자 ‘백’의 의미가 아니라 ‘온갖’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숫자 ‘백’의 의미로 풀이한다면 이는 바른 풀이라고 할 수 없다.

[1-읽기-(4)] 한문 산문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한문 산문을 바르게 발음하여 읽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내용은 [1-읽기-(1)]을 참고하되, 한문 산문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한문 산문(散文)’은 자수(字數)나 운율(韻律) 등의 외형적(外形的)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로, 한시(漢詩)와 상대되는 글을 말한다. 한문 산문은 원래 압운(押韻)을 하는 글인 운문(韻文)이나 압운(押韻)을 하지는 않지만 성률(聲律)과 대우(對偶)를 강구하는 변문(駢文)과 상대되는 글을 말한다. 그러나 중학교 한문 과목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한문 산문은 한시(漢詩)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사용한다. 따라서 한시에 포함시켜 다루기 곤란한 작품이나 저술은 일단 모두 한문 산문에 포함시켜 다룰 수 있다.

[1-읽기-(5)] 한문 산문을 끊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한문 산문을 바르게 끊어 읽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내용은 [1-읽기-(2)]를 참고하되, 한문 산문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한문 산문 중에는 여러 개의 문장 또는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문단이 끝나는 자리에 종결의 의미를 갖는 토를 달지 않고 연결의 의미를 갖는 토를 달아서 다음 문장이나 문단과의 연결 관계를 밝혀주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글을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표기할 때에는 문장과 문장 사이 및 문단과 문단 사이에 비록 연결의 의미를 갖는 토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토를 쉼표 종류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고 마침표 종류로 바꾸어 표기해야 한다.

[1-읽기-(6)] 한문 산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한문 산문을 바르게 풀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내용은 [1-읽기-(3)]을 참고하되, 한문 산문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1-읽기-(7)] 한시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한시를 바르게 발음하여 읽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내용은 [1-읽기-(1)]을 참고하되, 한시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한시(漢詩)’는 한문으로 된 시를 말한다. 한시는 보통 한 구(句)가 5자로 된 오언시(五言詩)

와 한 구가 7자로 된 칠언시(七言詩)로 이루어져 있다. 오언시는 주로 두 자, 세 자 단위로 띄어 읽고(○○/○○○), 칠언시는 주로 네 자, 세 자 단위로 띄어 읽는다(○○○○/○○○).

보기

低頭(저두) / 思故鄉(사고향) [머리를 숙이고 고향을 그리워한다.]

白雲生處(백운생처) / 有人家(유인가) [흰 구름 이는 곳에 인가가 있다.]

[1-읽기-(8)] 한시를 끊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한시를 바르게 끊어 읽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내용은 [1-읽기-(2)]를 참고하되, 한시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한시의 토는 대개 하나의 구(句)가 끝나는 자리마다 달아서 그 구의 뜻을 풀어주거나 그 구와 다음 구의 연결 관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시에 달린 토의 구실에 유의하면서 한시를 읽으면 한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단, 한시의 토는 특별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하여 현대 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조사나 어미가 토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시에서 실제로 사용된 토에 대해서만 그 구실을 이해하도록 하여, 한시의 현토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토의 원리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도록 한다.

보기

秋風唯苦吟하니, [가을바람에 쓸쓸히 읊으니,]

舉世少知音이라. [세상에 알아주는 이 적구나.]

窓外三更雨요, [창밖에는 한밤중 비가 내리고,]

燈前萬里心이라. [등불 앞에 내 마음은 만 리 밖을 내닫네.]

한시의 구두법 표기는 이미 현토되어 있는 한시를 토 대신에 문장 부호가 사용된 문장으로 바꾸어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의 구두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표점(標點)의 원리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도록 한다. 한시는 대개 두 개의 구(句)가 모여 하나의 연(聯)을 이루므로, 첫째 구의 끝에는 보통 쉼표를 찍고 둘째 구의 끝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보기

秋風唯苦吟, 舉世少知音. 窓外三更雨, 燈前萬里心.

[1-읽기-(9)]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한시를 바르게 풀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내용은 [1-읽기-(3)]을 참고하되, 한시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한시는 간결한 어휘로 함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역을 하기 곤란하거나 직역만으로는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한시를 풀이할 때에는 우선 직역의 단계를 충실하게 거친 후, 한시 속에 함축된 뜻이 시적으로 유려하게 드러나도록 의역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보기

秋風唯苦吟, [가을바람에 오직 괴롭게 읊으니 → 가을바람에 쓸쓸히 읊으니,]

舉世少知音. [온 세상에 지음이 적구나 → 세상에 알아주는 이 적구나.]

窓外三更雨, [창밖에는 삼경의 비요 → 창밖에는 한밤중 비가 내리고,]

燈前萬里心. [등불 앞에는 만 리의 마음이라 → 등불 앞에 내 마음은 만 리 밖을 내닫네.]

<이해>

[1-이해-(1)] 한문 단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한문 단문의 내용과 주제(主題)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문 단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문 단문 속에서 사용된 단어나 구절의 구체적인 의미, 한문 단문의 구조와 분위기 등 한문 단문의 내용을 그 주제와 관련지어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제는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적인 의미, 내용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중심 내용을 말한다.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그 주제와 관련지어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한문 단문의 주제는 문장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고 잘 드러나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한문 단문의 주제가 문장의 표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말해진 내용 중에서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문 단문의 주제가 문장의 표면에 잘 드러나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말해진 내용으로부터 그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한문 단문의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명시적인 내용이 바로 그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문 단문은 의미심장한 교훈이나 철리(哲理)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해 보지 않으면 그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보기

- ① 己所不欲, 勿施於人.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주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 ② 三歲之習, 至于八十.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주제) 한번 몸에 밴 버릇은 고치기가 어렵다.

①은 『논어(論語)』에 나오는 공자(孔子)의 말로서, 주제가 문장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말해진 내용으로부터 그 주제를 직접적으로 추리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②는 교훈적인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俗談)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먼저 비유의 표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어서 이 비유 속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주제는 단일한 고정된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①의 문장 속에 담긴 공자의 생각, 곧 이 문장의 주제는 보기에 제시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령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어한다.” 또는 “자기가 하기 좋아하는 일은 남들도 하기 좋아한다.”라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을 해아린다.”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될 수도 있다. 이처럼 주제가 내용으로부터 합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라면, 그 주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문장의 내용 또한 주제와 관련지어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이해-(2)] 한문 단문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한문 단문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문은 구어(口語)와 달리 정제된 표현을 중시하는 문언문(文言文)이다. 한문 단문은 한문 중에서도 더욱 정제되고 압축적인 언어로 풍부한 내용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문 단문은 주로 기존의 한문 작품 또는 저술 중에서도 더욱 정채(精彩) 나는 부분, 곧 격언(格言), 속담(俗談), 명언(名言)·명구(名句) 등을 가려 뽑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격언은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말이다. 속담은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와 민중들의 공감을 얻어 널리 퍼진 것으로, 실생활에서 생겨난 소박하고 짧은 말이다. 명언·명구는 선현들이 깊은 사색과 체험을 통하여 터득한 사물의 이치, 인격의 수양과 처세의 지침, 자신의 인생관이나 철학 등을 표현한 짧은 말이나 글귀를 일컫는다.

한문 단문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것은 격언, 속담, 명언·명구 등 한문 단문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을 찾아보고, 그러한 표현 방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나아가 그러한 표현 방식이 어떤 효과를 드러내는지 파악하고 감상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단, 여기서 표현 방식은 특정한 수사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수사법도 그 안에 포함되는, 글 하나하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특수한 효과를 발휘하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동일한 내용의 글이라도 표현 방식의 차이에 따라 그 글의 의미와 효과가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현의 중요성에 유의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아래 보기의 문장들은 같은 내용의 속담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두 문장의 의미상 내용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의미는 아주 다르다. ①은 말하는 사람에게 중점을 두어 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일반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②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반응에 중점을 두어 힐난과 비판의 의미를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

보기

① 去言美, 來言美.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② 來語不美, 去語何美? [오는 말이 곱지 않은데 가는 말이 어찌 곱겠는가?]

[1-이해-(3)]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내용은 [1-이해-(1)]을 참고하되, 한문 산문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 속에서 사용된 단어나 문장 또는 문단의 의미, 글의 구조와 내용의 전개 방식 등 글의 내용을 그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적인 의미, 곧 주제와 관련지어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문 산문은 글에 따라 주제가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고 잘 드러나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교훈적인 내용이나 도리(道理)를 설파하는 글, 사회의 풍속(風俗)이나 인정(人情)을 기술하는 글 등은 주제가 글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글의 주제가 글의 표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글의 내용 중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중심 내용을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생동하는 인물 형상을 빌려서 모종의 도리를 나타내는 우언(寓言)이나 특징적인 인물의 언행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풍모를 드러내는 일화(逸話)와 같은 글들은 주제가 잘 드러나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글의 주제가 글의 표면에 잘 드러나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글의 내용으로부터 그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이해-(4)] 한문 산문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한문 산문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내용은 [1-이해-(2)]를 참고하되, 한문 산문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1-이해-(5)]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내용은 [1-이해-(1)], [1-이해-(3)]을 참고하되, 한시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시에서 사용된 시어(詩語)나 시구(詩句)의 의미와 이미지, 한시의 구조와 시상(詩想)의 전개 방식 등 한시의 내용을 한시의 주제와 관련지어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적인 배경 지식이 작품의 내용 이해 및 주제 파악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적인 배경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작품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주제를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적인 배경 지식은 작가의 일생 및 작품이 지어진 배경뿐만 아니라 작품에 사용된 특별한 전고(典故)도 포함된다.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곧, 네 구(句)로 된 한시인 절구(絶句)의 경우, 기구(起句)에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승구(承句)에서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발전시키며, 전구(轉句)에서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전환시켰다가, 결구(結句)에서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한시의 주제를 바르게 파악하려면 시의 시상 전개 과정을 잘 살펴서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1-이해-(6)] 한시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한시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내용은 [1-이해-(2)]를 참고하되, 한시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문화>

[1-문화-(1)]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이 학습 내용은 한문에 담긴 선인(先人)들의 삶과 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한다.’는 것은 한문 학습을 통하여 한문에 담겨있는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의 선인들은 주로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영위하였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한문은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를 표현하고 기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의 선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삶의 모습과 지혜, 사상, 감정 및 가치관을 한문으로 기록하여 놓았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의

선인들이 기록해 놓은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의 단절이 없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기록해 놓은 한문을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는 것은 한문 학습을 통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知識基盤社會)를 주도할 학습자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문 기록 속에는 현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간 소외,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환경 문제 등)에서 초래된 가치관의 혼란 및 인간성의 상실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한문을 학습할 때에는 학습자의 감각에 맞으면서도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정선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1-문화-(2)]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 학습 내용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전통문화(傳統文化)’란, 생활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형성·발전시켜온 것이며, 그들의 생산 활동과 생활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타 집단의 문화와 구별되는 그 집단만의 특색을 갖춘 문화이다. 전통문화는 그들의 집단 성원들에게 생활의 질서와 정서를 잡아 주어 생활에 안정감을 주며, 생활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歸屬感)을 심어 주어 자아(自我)가 정체성(正體性)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어떤 한 민족의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는 외래문화를 수용하기도 하고 전통문화에 수정을 가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문화의 근간을 살려서 가꾸어 가는 것이다. 강력한 외래문화에 압도되어서 전통문화가 쇠퇴, 소멸되어 가는 현상은 참다운 문화의 계승·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여 풍부한 전통문화를 형성·발전시켜 왔으며, 이런 전통문화는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한문 문헌으로 보존·전승되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한문의 대부분이 이를 반영한 것들이다. 따라서 한문 학습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문화-(3)]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힌다.

이 학습 내용은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은 한자문화권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아래 형성된, 한자문화권의 문화 상식을 말한다.

한문은 기본적으로 고전어(古典語)이며 또한 문언문(文言文)으로서, 구어(口語)로서의 언어 구사 능력을 중시하는 여타의 외국어와 달리 한자문화권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적인 외국어 교과는 가치중립적인 문법의 학습만으로 해당 교과에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한문은 가치중립적인 문법의 학습만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한문에서는 그 문장에 쓰인 단어 자체가 갖는 전고성(典故性), 곧 그 단어 내지 용어가 갖는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문법적 요소에 대한 이해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문화권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아래 형성된 한자문화권의 문화 상식에 대한 일정한 이해는 한자문화권에 공동된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문의 읽기와 풀이 및 이해와 감상에도 매우 긴요한 것이다.

중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한자문화권의 문화 상식은 한자문화권의 세시풍속(歲時風俗), 절기(節氣), 간지(干支), 그리고 의식주(衣食住) 관련 생활 문화 등 각종 문화 상식 중 중학교 한문의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배경 지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한자문화권의 문화 상식을 학습할 때에는 중학교의 학교 급별 및 학년별 수준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한문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개략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문화 상식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문화-(4)]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 학습 내용은 [1-문화-(3)]을 통하여 익힌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자문화권에 속한 나라의 상호(相互) 이해와 교류(交流)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자문화권의 중심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등은 세계의 다른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들 나라는 역사적으로 한자가 통용되었고, 한자를 이용해 자국의 문화를 기록함으로써 방대한 한문 고전 문화유산을 축적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한자와 한자어가 여전히 중요한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날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의 일상 어휘의 상당 부분은 한자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학술적 용어 등 개념어들은 대부분 동아시아의 한문 고전에서 유래한 것이거나 한자의 조어력(造語力)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한문의 학습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여러 나라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더욱이 한자문화권의 동북아시아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증대해 가는 오늘날, 한문 학습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문의 학습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한문지식 -

<1학년>

<한자>

[1-한자-(1)] 한자의 형·음·의를 안다.

이 학습 내용은 한자를 이루는 모양[形]과 소리[音]와 뜻[義]을 통하여 한자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形]·소리[音]·뜻[義]의 세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문자이다. 곧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단지 어떤 음(音)의 단위만을 나타내는 표음문자(表音文字)와 달리, 하나의 글자가 어떤 뜻의 단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뜻에 해당하는 소리까지도 아울러 나타내는 표의문자(表意文字)이다. 따라서 한자를 학습할 때에는 해당 글자의 모양과 소리와 뜻을 동시에 익혀야 한다.

보기

| | | | |
|---|----|----|---|
| 형 | 木 | 天 | 水 |
| 음 | 목 | 천 | 수 |
| 의 | 나무 | 하늘 | 물 |

[1-한자-(2)]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안다.

이 학습 내용은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통하여 한자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을 가진다. 그러나 인류의 문화가 날로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미 있는 한자를 응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겨났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학습할 때에는 그 음과 뜻을 관계 지어 잘 익혀야 한다.

보기

| | | |
|---|---|------|
| 樂 | 악 | 음악 |
| | 락 | 즐기다 |
| | 요 | 좋아하다 |

[1-한자-(3)]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을 찾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자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아 한자를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자전(字典)’이란, 한자의 부수(部首) 214자에 따라 분류한 한자를 획수의 차례로 배열하여 글자마다 우리말로 음과 뜻을 써 놓은 책으로, 이를 옥편(玉篇)이라고도 한다.

‘부수(部首)’란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기본 글자로 자전에서 자형을 중심으로 한자를 정리·분류·배열할 때 뜻을 나타내는 부분의 공통된 한자를 말한다. 자전에서는 이를 색인의 대표로 삼는다.

‘한자의 부수를 안다.’란 자전에서 한자를 찾기 전에 부수가 되는 글자를 아는 것이다.

‘자전을 찾을 수 있다.’는 부수를 통해서 한자의 ‘모양[形], 소리[音], 뜻[義]’을 자전에서 찾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은 ‘부수 색인(部首索引) 이용법’, ‘총획 색인(總畫索引) 이용법’, ‘자음 색인(字音索引) 이용법’ 등이 있다. 1학년 때에는 주로 ‘부수 색인 이용법’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도록 한다. ‘부수 색인 이용법’으로 한자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부수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자전을 이용하여 한자를 찾는 방법도 있다.

[1-한자-(4)] 한자를 바르게 읽고 쓸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한자를 바르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자는 한자가 1자 1음이 원칙이긴 하나, 문맥에 따라서 한자의 음과 뜻이 바뀌며, 뜻은 같더라도 한자의 결합관계에 따라서 음이 바뀌어, 1자 2음 또는 1자 3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뜻에 따라 바뀐 한자의 음을 바르게 읽어야 한다. 또한 한자는 같은 한자를 쓰는 한자문화권의 여러 나라에서 각기 다르게 발음하므로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읽을 때에는 우리 한자음으로 읽어야 한다.

보기

| | | |
|---|---------|--------|
| 洞 | (동) 고을 | 洞民(동민) |
| | (통) 꿰뚫다 | 洞察(통찰) |

바른 ‘필획’은 한자를 바르고 맵시 있게 쓰는 데 편리하다. 따라서 바른 모양과 순서로 한자를 쓰도록 한다. 단, 한자를 바르게 쓰는 것은 중요하나, 한자의 필순 원칙에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나라마다 필순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글자를 쓰는 순서나 획수 지도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 ② 위에서 아래로 쓴다.
- ③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될 때에는 가로획을 먼저 쓴다.
- ④ 빼침과 파임이 만날 때에는 빼침을 먼저 쓴다.
- ⑤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에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 ⑥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에는 바깥쪽을 먼저 쓴다.
- ⑦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 ⑧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찍는다.
- ⑨ 받침은 나중에 쓴다.

[1-한자-(5)] 상형·지사자의 짜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상형자’와 ‘지사자’의 짜임 원리를 익혀 한자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자는 애초에는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러나 생활의 영역이 확대되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수많은 사물과 다양한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많은 수의 글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자의 짜임은 일정한 구성 원리와 응용 원리에 따라 크게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 등 6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를 육서(六書)라고 한다. 이 중 ‘상형’·‘지사’·‘회의’·‘형성’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고, ‘가차’와 ‘전주’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응용하는 원리이다. ‘가차’와 ‘전주’는 학설이 다양하여 학습에 혼동을 주므로, 중·고등학교 한문 학습에서는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위주로 학습한다.

‘상형자(象形字)’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다. ‘日’은 ‘해[𠄎]’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였는데, 글자의 모양이 바뀌어 오늘날에는 ‘日’과 같은 글자로 된 것이다.

보기

日(일) : 𠄎 → 日 → 日[해]

月(월) : 𠄎 → 月 → 月[달]

‘상형자’는 위의 보기처럼 시각적인 형태 자체에서 그 문자가 가리키는 사물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그 한자가 가리키는 뜻까지도 알 수 있다. ‘상형자’는 ‘지사자’와 더불어 한자의 짜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자이다. 그러므로 한자 학습의 초보 단계에 있는 학습자에게 한자 학습의 흥미를 돋우고, 학습 성과의 전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문자에 대한 지도는 ‘상형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지사자(指事字)’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 글자이다. ‘上’은 ‘위’라는 뜻을 점과 선으로 나타낸 글자인데, 기준선[—] 위에 어떤 물체[•]가 있음을 나타낸 글자[亅]에서 ‘上’과 같은 글자의 모양으로 바뀌었다.

보기

上(상) : 𠂔 → 𠂔 → 上[위]

本(본) : 本 → 本 → 本[근본]

‘지사자’는 위의 보기처럼 시각적인 형태 자체에서 그 문자가 가리키는 개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상형과 지사에 해당하는 한자는 모든 한자의 기본이 되는 글자로서, 한자의 부수(部首) 글자는 거의 이에 속하기 때문에 ‘회의자’와 ‘형성자’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글자로 쓰인다.

[1-한자-(6)] 회의·형성자의 짜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회의자’와 ‘형성자’의 짜임 원리를 익혀 한자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정하였다.

‘회의자(會意字)’는 이미 만들어진 둘 이상의 글자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되, 그 글자들이 지닌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男’은 이미 만들어 놓은 ‘田’자와 ‘力’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글자로, 밭[田]에 나가 쟁기[力]를 사용하여 일하는 사람이 남자[男]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

田[밭] + 力[쟁기] → 男[남] 남자

亻[사람] + 木[나무] → 休[휴] 쉬다

‘회의자’는 결합된 외형 형태에 있어 기성 문자가 상하, 좌우, 내외 등으로 결합되며, 글자들의 결합된 뜻으로 새로운 뜻을 나타낸다.

‘형성자(形聲字)’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되, 일부는 뜻[形]을 나타내고 일부는 음[聲]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洋’은 이미 만들어진 ‘水(氵)’와 ‘羊’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水’는 ‘물’과 관련된 뜻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羊’은 ‘양’이라는 음을 나타내어, 결국 ‘洋’은 ‘바다’라는 뜻과 ‘양’이라는 음을 지닌 새로운 글자가 된 것이다.

보기

豆[(두) 콩] + 頁[(혈) 머리] → 頭[(두) 머리] — { 豆 : ‘두’라는 음을 취함
頁 : ‘머리’라는 뜻을 취함

門[(문) 문] + 耳[(이) 귀] → 聞[(문) 듣다] — { 門 : ‘문’이라는 음을 취함
耳 : ‘귀’라는 뜻을 취함

‘형성’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한자의 짜임은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상형’, 점이나

선으로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 보인 ‘지사’ 등의 방법과는 크게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한자를 가지고 소리와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한자를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언어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숫자에 해당하는 수많은 ‘형성자’가 만들어졌으며, 전체 한자의 70% 이상이 ‘형성자’에 속한다.

‘형성자’는 형(形)과 음(音)의 짜임 학습을 통하여 한자 자체의 음(音)을 짐작할 수 있고, 뜻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 학습의 흥미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문자인 것이다.

[1-한자-(7)] 한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한자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한자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자’라는 말은 한(漢)나라 때에 이르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자와 거의 같은 문자로 발달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한자는 오랜 세월을 두고 발생·변화·발전해 왔다. 한자는 세계의 주요 문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글자이다. 한자가 발생한 시기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한자는 은(殷)나라 때 갑골(甲骨)이나 청동기(靑銅器)에 새겨 놓은 글자이다. 은나라 문자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한 것이므로 그러한 문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대는 은나라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전이었을 것이다.

갑골에 새겨 놓은 글자를 ‘갑골문(甲骨文)’이라고 한다. 은나라의 왕들은 점치기를 좋아하여 제사(祭祀)·정벌(征伐)·사냥·농사 등의 일이 있으면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물어 보고, 점친 글자를 거북의 껍질[龜甲]이나 짐승의 뼈[獸骨]에다 새겨 놓았다. 은나라 때의 이런 갑골들은 1899년에 중국 하남성(河南省) 안양(安陽)에서 서북쪽으로 5리쯤 떨어져 있는 소둔촌(小屯村)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 일대가 은나라의 옛 도읍지였다. 1928년 이후 다시 몇 차례의 발굴 작업을 거쳐 찾아낸 갑골은 무려 10만 조각 이상이나 되는데, 그 중 대다수가 은나라 후기의 임금 반경(盤庚)이 도읍을 엄(奄)으로부터 은(殷)으로 옮긴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었으니, 대략 기원전 14세기 중엽에서 11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갑골문 글자의 수는 4,500여 자이며, 이 중 해독(解讀)된 것은 2,000여 자 정도이다.

청동기로 만든 종(鐘)이나 솥(鼎)과 같은 각종 제기(祭器)나 용기(容器)에 새겨 놓은 글자를 ‘금문(金文)’이라고 한다. 현재 전해지는 가장 이른 시대의 금문은 은나라 중기의 것이다. 은나라 중기의 금문은 비록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은허의 갑골문보다도 이른 시기의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금문은 그 전성시대라고 할 서주(西周) 시기를 거쳐 춘추(春秋) 전국(戰國) 시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으니, 대략 기원전 15세기 무렵인 은나라 중기 때부터 기원전 3세기 무렵 진(秦)나라가 중국을 통일시기까지 1,200여 년 동안 사용된 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금문 글자의 수는 4,000여 자이며, 이 중 해독(解讀)된 것은 2,500여 자 정도이다.

[1-한자-(8)] 한자 자체(字體)의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한자 자체의 변천 과정을 통하여 한자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자의 글자 모양은 사물의 모습을 본뜬 발생기의 그림 문자 형태에서 점차 발전하여 갑골문(甲骨文), 금문(金文), 전서(篆書), 예서(隸書), 해서(楷書) 등으로 여러 차례 자체(字體)의 변천을 겪어 왔다.

갑골문은 글자를 거북의 껍질이나 짐승의 뼈에 칼로 새겨 놓은 것이므로 필체가 가늘고 길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 그림 문자 단계를 벗어나 문자로서 어느 정도 완비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아직 많은 글자들의 획과 부수가 완전히 정형화되지는 못하였다.

금문은 글자를 청동기에 주조(鑄造)하거나 조각해 넣은 것이므로 자획이 넓고 굵으며 비교적 정연하여 균형이 잡혀 있다. 갑골문에 비해 회화적인 특징이 줄어들고 기호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보기

| | | | |
|--------------|---|---|---|
| 馬 [(마) 말] |  | → |  |
| | 갑골문 | | 금문 |

<어 휘>

[1-어휘-(1)] 단어의 종류를 안다.

이 학습 내용은 단어의 종류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단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단어는 그 형성 방법에 따라 단순어(單純語)와 복합어(複合語)로 나뉜다. 단순어는 하나의 의미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며 복합어는 두 개 이상의 의미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의미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단순어에는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음절(單音節) 단순어와 두 개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다음절(多音節) 단순어가 있다. 복합어에는 실질 의미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合成語)와 실질 의미 요소에 부가 의미 요소가 붙어서 이루어진 파생어(派生語)가 있다.

보기

| | |
|-----|-------------------|
| 단순어 | 단음절 단순어 : 山, 川 |
| | 다음절 단순어 : 堂堂, 亞細亞 |
| 복합어 | 합성어 : 父母, 讀書 |
| | 파생어 : 女子, 男子 |

[1-어휘-(2)] 단어의 짜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단어의 짜임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단어의 짜임’은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두 개 이상의 의미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에는 반드시 어떤 기능상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단어의 짜임을 문법적 기능 관계에 따라 이해하게 되면, 단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여 어휘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어의 짜임을 학습할 때에는 용어나 상호 관계를 도식적으로 강조하는 식의 문법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용례를 통하여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풀이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단어의 짜임을 문법적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주술 관계(主述關係)

주어(主語)와 서술어(敍述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주어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주어는 서술어의 진술을 받는 대상이 된다. 주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는 나중에 새긴다.

보기 年少 [나이가 어림]
 人和 [사람들이 화목함]

(㉡) 술빈 관계(述賓關係)

서술어와 빈어(賓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존재나 소유를 나타내고, 빈어는 그 대상이 된다. 빈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술빈 관계’의 단어는 어순(語順)이 우리말과 다르다. ‘술빈 관계’에서 유의할 점은 빈어가 우리말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말의 목적어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목적어’라는 용어 대신 ‘빈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보기 立志 [뜻을 세움]
 登山 [산에 오름] (‘山’이 ‘登’의 목적지를 나타내므로 빈어로 봄)
 入學 [학교에 들어감] (‘學’이 ‘入’의 목적지를 나타내므로 빈어로 봄)
 有罪 [죄가 있음] (‘罪’가 ‘有’의 대상을 나타내므로 빈어로 봄)

(㉢) 술보 관계(述補關係)

서술어와 보어(補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고,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하여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 준다. 보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술보 관계’의 단어도 그 어순이 우리말과는 다르다.

보기 難解 [풀기가 어려움]
 多感 [느낌이 많음]
 下山 [산에서 내려옴]

(㉠) 수식 관계(修飾關係)

수식어(修飾語)와 피수식어(被修飾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성격에 따라 명사류를 수식하는 것과 동사류를 수식하는 것이 있다.

보기 友情 [친구 사이의 정] (명사류 수식)
 廣告 [널리 알림] (동사류 수식)

(㉡) 병렬 관계(並列關係)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에는 서로 상대되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경우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한자가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보기 大小 [크고 작음] (서로 상대되는 의미)
 海洋 [바다] (서로 비슷한 의미)

[1-어휘-(3)]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품사(品詞)’는 어휘를 문법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 놓은 단어들의 갈래를 말한다.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한문의 품사는 단어가 원래 지니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쓰임까지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단, 품사를 학습할 때에는 문장의 풀이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개략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문법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實辭)와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고 단독으로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허사(虛辭)가 있다.

실사에 속하는 품사는 다음과 같다.

(㉠) 명사(名詞)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보기 仁者, 樂山.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顏淵, 問仁. [안연이 인을 묻다.]
 義, 人之正路也.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㉔) 대명사(代名詞)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보기 人皆有兄弟, 我獨亡.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홀로 없다.]
 是, 誰之過與?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백성의 즐거움을 즐기는 자는 백성이 또한 그의 즐거움을 즐긴다.]

(㉕) 수사(數詞)

사물의 수량(數量)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보기 吾十有五而志于學.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
 宣祖, 德興君第三子也. [선조 임금은 덕흥군의 셋 째 아드님이다.]

(㉖) 동사(動詞)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행위, 심리 활동, 소유, 존재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보기 坐於堂上. [당 위에 앉다.]
 敬天愛人.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다.]
 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爲能.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서도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능할 수 있다.]

(㉗) 형용사(形容詞)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보기 月明. [달이 밝다.]
 天下之水, 莫大於海. [천하의 물은 바다보다 큰 것이 없다.]

(㉞) 부사(副詞)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여 정도·범위·시간·부정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보기

水益深. [물이 더욱 깊어지다.]

志之立, 知之明, 行之篤, 皆在我耳. [뜻이 섬, 앎이 밝음, 행실이 도타운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을 따름이다.]

不知老之將至.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한다.]

[1-어휘-(4)] 허사의 쓰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허사의 종류와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허사(虛辭)’는 어휘적 의미가 없거나 그다지 실제적이지 않고, 실사(實辭)에 붙어서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허사는 그 주된 기능이 문장 안에서의 문법적인 기능으로 기본적으로 문장에서의 쓰임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허사에 속하는 품사는 다음과 같다.

(㉟) 개사(介詞)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名詞類)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주면서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명사류와 어울려 ‘개사 + 빈어’의 구조를 이루어, 보통 서술어의 뒤에서 서술어를 보충하거나 서술어의 앞에서 서술어를 수식·한정하는 구실을 한다.

보기

月出於東天. [달은 동쪽 하늘에서 뜬다.]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의롭지 못한데도 부유하고 또 귀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뜬 구름과 같다.]

(㊱) 접속사(接續詞)

단어와 단어, 어구(語句)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이다.

보기

富與貴, 人之所欲也. [부와 귀는 사람이 바라는 바이다.]

任重而道遠. [소임은 무겁고 길은 멀다.]

(㊲) 어조사(語助詞)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의 앞, 가운데나 뒤에 와서 문법적인 의미나 어기(語氣)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보기 夫死生有命, 富貴在天. [무릇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子不談父之過.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仁, 人心也. [인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㉔) 감탄사(感歎詞)

문장의 밖에 독립적으로 놓여 화자(話者)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보기 嗚呼! 哀哉! [아! 슬프도다!]
 惡! 是何言也? [아! 이 무슨 말이고?]
 諾! 吾將問之. [예! 제가 장차 그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1-어휘-(5)] 어휘의 유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어휘(語彙)의 유형을 바르게 알고 언어생활과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어휘’는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때로는 어휘를 이루는 개별 단어들을 ‘어휘’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휘는 의미를 기준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의어(類義語), 반의어(反義語), 성어(成語) 등이 그것이다.

유의어는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단어가 의미 자질(資質)의 차원이 대체로 같지만 정도(程度)나 상태(狀態)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단어군(單語群)을 말한다. 반의어는 한 쌍의 단어 사이에 서로 공통되는 의미 자질이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대립되는 의미 자질이 하나 있는 단어군을 말한다.

단어의 의미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고 문장 속에 위치할 때만 그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 단어는 어휘의 체계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 가지는 관계 아래에서만 자신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문의 어휘를 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휘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문장의 이해에도 긴요한 것이다.

보기 유의어 : 世界 ≡ 天地, 乾坤, 天下, 宇宙 …
 반의어 : 收入 ↔ 支出, 平和 ↔ 戰爭

[1-어휘-(6)]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성어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언어생활과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성어(成語)’란, 옛사람들이 만든 숙어(熟語)로 오늘날에도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성어는 대체로 2~4자로 이루어진 관용구(慣用句)이다. 특히, 옛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故事成語)는 성어가 이루어진 내력이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가 한문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고사성어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는 단순히 겉뜻만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속뜻을 알고 그 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기

朝三暮四

(겉뜻)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줌.

(속뜻) 간사한 꾀로 남을 우롱하고 속임.

<문장>

[1-문장-(1)] 문장의 성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문장의 성분(成分)과 그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장은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최소 언어 단위이다. 문장은 몇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 구성요소를 ‘문장의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의 성분에는 주어(主語), 서술어(敍述語), 빈어(賓語), 보어(補語), 관형어(冠形語), 부사어(副詞語), 독립어(獨立語) 등이 있다.

주어는 문장에서 진술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다. 서술어는 문장에서 진술의 내용이 되는 성분이다. 빈어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지배를 받는 성분이다. 보어는 문장에서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성분이다. 이들 주어, 서술어, 빈어, 보어를 주성분(主成分)이라고 한다.

주성분에 덧붙여 이를 수식하는 성분을 부속성분(附屬成分)이라고 한다. 부속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관형어는 문장에서 명사류를 수식하는 성분이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류를 수식하는 성분이다.

또, 주성분과 부속성분에 속하지 않는 독립성분으로 독립어가 있다. 독립어는 감탄의 말이나 누군가를 부르는 말[呼格] 등과 같이 문장 구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된 성분이다.

보기

花開. [꽃이 피다.]

富潤屋. [부는 집을 운택하게 한다.]

少年易老. [소년은 늙기가 쉽다.]

淸風徐來. [맑은 바람이 천천히 불어온다.]

噫! 天喪予! 天喪予! [아!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1-문장-(2)] 문장의 구조를 안다.

이 학습 내용은 문장의 구조(構造)를 바르게 이해하여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을 말한다. 문장의 구조를 주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술 구조(主述構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주술구조의 서술어는 주어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이 되는 성분이며, 주어는 서술어의 진술을 받는 대상이 되는 성분이다. 주어가 앞에 놓이고 서술어가 뒤에 놓인다.

보기 花開. [꽃이 피다.]
天高. [하늘이 높다.]

(㉡) 주술빈 구조(主述賓構造)

주어, 서술어와 빈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주술빈 구조의 서술어는 동사로써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성분이며, 빈어는 동사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으로써 동사의 지배를 받는 성분이다.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빈어가 뒤에 놓인다.

보기 臣事君. [신하가(는) 임금을 섬긴다.]
君使臣. [임금이(은) 신하를 부린다.]
孔子登東山. [공자가 동산에 올랐다.]

(㉢) 주술보 구조(主述補構造)

주어, 서술어와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주술보 구조의 서술어는 보어의 보충 설명을 필요로 하는 성분이며,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 또는 한정하여 서술어의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주는 성분이다.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보어가 뒤에 놓인다.

보기 少年易老. [소년은 늙기 쉽다.]
王坐於堂上. [왕이 당 위에 앉다.]

<2학년>

- 한 문 -

<읽기>

[2-읽기-(1)] 한문 단문(短文)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1)]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단문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문 단문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위해서는 한문 단문의 의미와 문맥에 맞게 한문 단문의 단어, 구절,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구절을 바르게 발음하여 읽기 위해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결합관계에 유의하여 읽어야 한다. 가령, 아래 보기 중에서 ‘自遠方來’는 ‘自’, ‘遠方’, ‘來’의 세 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自/遠方/來’로 읽어야 하며, 만일 이를 ‘自遠/方來’로 읽으면 안 된다.

보기

有朋(유봉)이 自遠方來(자원방래)면 不亦樂乎(불역락호)아?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2-읽기-(2)] 한문 단문을 끊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2)]와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단문을 바르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2-읽기-(3)] 한문 단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3)]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단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2-읽기-(4)] 한문 산문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4)]와 연계된다. 또한 이 내용은 [2-읽기-(1)]을 참고하되, 한문 산문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산문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2-읽기-(5)] 한문 산문을 끊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5)]와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산문을 바르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2-읽기-(6)] 한문 산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6)]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산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2-읽기-(7)] 한시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7)]과 연계된다. 또한 이 내용은 [2-읽기-(1)]을 참고하되, 한시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시를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시의 구(句)는 보통 오언시는 두 자, 세 자 단위로 띄어 읽고(○○/○○○), 칠언시는 네 자, 세 자 단위로 띄어 읽지만(○○○○/○○○), 하나의 구를 바르게 발음하여 읽기 위해서는 구를 이루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결합관계에도 유의하여 읽어야 한다. 가령, 아래 보기 중에서 ‘滿四澤’은 ‘滿/四澤’으로, ‘世間何事’는 ‘世間/何事’로, ‘到吾心’은 ‘到/吾心’으로 읽어야 한다.

보기

春水(춘수) / 滿四澤(만사택) [봄물이 사방 언뚝에 가득하다.]

世間何事(세간지사) / 到吾心(도오심) [세간의 어떤 일이 내 마음에 이르겠는가?]

[2-읽기-(8)] 한시를 끊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8)]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시를 바르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2-읽기-(9)]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9)]와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2-이해-(1)] 한문 단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1-이해-(1)]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단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이해-(2)] 한문 단문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이해-(2)]와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단문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2-이해-(3)]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1-이해-(3)]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이해-(4)] 한문 산문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이해-(4)]와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산문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2-이해-(5)]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1-이해-(5)]와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이해-(6)] 한시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이해-(6)]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시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

[2-문화-(1)]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이 학습 내용은 [1-문화-(1)]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학습을 통하여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2-문화-(2)]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 학습 내용은 [1-문화-(2)]와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학습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

[2-문화-(3)]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힌다.

이 학습 내용은 [1-문화-(3)]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학습을 통하여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2-문화-(4)]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 학습 내용은 [1-문화-(3)], [1-문화-(4)], [2-문화-(3)]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학습을 통하여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

- 한 문 지 식 -**<한자>****[2-한자-(1)] 한자의 형·음·의를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1)]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모양[形]과 소리[音]와 뜻[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2-한자-(2)]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2)]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알 수 있어야 한다.

[2-한자-(3)]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을 찾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3)]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한자-(4)] 한자를 바르게 읽고 쓸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4)]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를 바르게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2-한자-(5)] 상형·지사자의 짜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5)]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상형·지사자의 짜임 원리를 통해 한자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한자-(6)] 회의·형성자의 짜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6)]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회의·형성자의 짜임 원리를 통해 한자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한자-(7)] 한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7)]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소전(小篆)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한자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춘추 시대 말 전국 시대 초에 이르러 글씨를 쓰는 데 죽간(竹簡)과 비단이 사용되어 붓으로 글자를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갑골문이나 금문처럼 칼로 새긴다거나 주조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문자의 사용도 날로 많아졌다. 이 때 열국(列國)의 문자들은 각각 지방적 특색을 띠게 되어 형태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현상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문자의 통일이다. 진나라가 열국(列國)을 무너뜨리고 통일 왕조를 건립하자 승상 이사(李斯 : ?~B.C.208)는 문자를 통일할 것을 주장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 때 진나라가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던 문자도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고쳤으니, 이를 ‘소전(小篆)’이라고 한다.

소전은 한나라 때까지 국가의 표준 서체로 쓰였다. 한나라 때 허신(許愼 : A.D 30~124)이 지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소전 글자 9,353자가 수록되어 있다. 한자는 소전 이후 점차 체계화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2-한자-(8)] 한자 자체(字體)의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8)]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전서, 예서, 해서 등의 자체를 통하여 한자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서(篆書)에는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이 있다. 대전은 ‘주문(籀文)’이라고도 하는데, 전국 시대 각 제후국에서 통행한 것으로, 주(周)나라 선왕(宣王)때의 태사(太史)인 주(籀)라는 사람이 옛 글자들을 줄이고 고쳐서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구조가 복잡하고 중첩된 것이 많아서 쓰는 데 몹시 불편하였다. 소전은 진나라 때 문자를 통일하면서 정한 자체이다. 후세에 전서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전을 가리킨다. 소전은 형체가 대전보다 간단하고 구조도 금문에 비하여 가지런하며, 쓰는 방법도 일정한 규범을 지니게 되어 동일한 편방(偏旁)을 취하고 있는 여러 글자는 그 편방(偏旁)을 쓰는 방법과 위치가 모두 일정하였다.

예서(隸書)는 진(秦)나라 말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한(漢)나라에서 통용되고 삼국(三國) 시대까지 사용된 자체로서, 전서를 대폭 간략화하여 쓰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다. 전서의 필획을 생략하고 곡선이나 원을 직선과 네모난 모양으로 간략화하여 장방형(長方形)의 틀을 갖추도록 하였다. 예서의 출현은 이후 해서(楷書)의 등장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해서(楷書)는 한(漢)나라 말기에 출현하여 지금까지 통용되는 자체이다. ‘해(楷)’는 ‘본보기’라는 뜻이니 사람들이 본뜰 만한 표준적인 자체라는 말이다. 해서는 그 이전의 상형적인 원칙을 버리고 원래 구불구불하고 쓰기 힘들던 획들을 곧은 획으로 고쳐서 네모 글자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오늘날의 한자는 바로 이 해서체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보기

| | | | | | |
|--------------|---------|---|---------|---|---------|
| 馬 [(마) 말] | 馬 소전 | → | 馬 예서 | → | 馬 해서 |
|--------------|---------|---|---------|---|---------|

<어 휘>

[2-어휘-(1)] 단어의 종류를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어휘-(1)]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단어의 종류를 알 수 있어야 한다.

[2-어휘-(2)] 단어의 짜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어휘-(2)]와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단어의 짜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2-어휘-(3)]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어휘-(3)]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한문의 단어는 특정한 문장 환경 아래에서 임시로 다른 품사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이를 품사의 활용이라고 한다. 품사 활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보기

母友不如己者. [자기만 같지 못한 자를 벗어나지 말라.] (명사의 동사적 활용)

學者, 雲集. [배우는 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명사의 부사적 활용)

一戰卽勝. [한번 싸우면 곧 이긴다.] (수사의 부사적 활용)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탐하여 인을 해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 (동사의 명사적 활용)

勤爲無價之寶. [부지런함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형용사의 명사적 활용)

孔子, 登東山而小魯. [공자는 동산에 오르고서 노나라를 작게 여겼다.] (형용사의 동사적 활용)

[2-어휘-(4)] 허사의 쓰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어휘-(4)]와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한문 문장에서 자주 쓰이는 허사들을 종류별로 제시하고 그 쓰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㉞ 개사

① 於

명사류(名詞類) 앞에 위치하여 처소, 대상, 시간,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낸다.

보기

日落於西山. [해는 서산에서 진다.]

勞力者, 治於人. [힘을 쓰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一年之計, 在於春. [일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 있다.]

霜葉紅於二月花. [서리 맞은 잎이 이월의 꽃보다 붉다.]

② 以

주로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도구, 수단, 자격, 대상, 원인 등의 뜻을 나타낸다.

보기

臣事君以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써 섬긴다.]

王待吾以國土. [왕이 나를 국사로 대우하다.]

弟以其一與兄. [아우가 그 중의 하나를 형에게 주다.]

不以成功自滿. [성공으로 인하여 자만하지 말라.]

③ 自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동작의 기점(起點)을 나타낸다.

보기

自初至終. [처음부터 끝까지.]

㉟ 접속사

① 而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며, 순접(順接)일 때와 역접(逆接)일 때가 있다.

보기

登高山而望四海. [높은 산에 올라서 사해를 바라본다.] (순접)

子欲養而親不待.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는다.] (역접)

② 且・與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보기

重且大. [중하고도 크다.]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빈과 천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다.]

③ 則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되, 주로 조건을 나타낸다.

보기

水至清, 則無魚.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仁則榮, 不仁則辱. [어질면 영화롭게 되고, 어질지 않으면 욕되게 된다.]

㉡ 어조사

① 也, 矣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판단이나 확인의 어기(語氣)를 나타낸다.

보기

孝, 百行之本也. [효는 온갖 행실의 근본이다.]

朝聞道, 夕死可矣.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② 已, 而已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한정이나 강조의 어기를 나타낸다.

보기

王之所大欲, 可知已. [왕이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알겠습니다.]

我知種樹而已. [나는 나무 심는 것을 알 뿐이다.]

③ 乎, 哉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의문이나 반어(反語)의 어기를 나타낸다.

보기

汝登高山乎? [너는 높은 산에 올랐느냐?]

豈可他求哉? [어찌 다른 데서 구할 수 있겠는가?]

④ 哉, 矣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보기

君子哉! [군자로구나!]

甚矣! 吾衰也! [심하구나! 나의 쇠함이여!]

[2-어휘-(5)] 어휘의 유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어휘-(5)]와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어휘의 유형을 바르게 알고 언어생활과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어휘-(6)]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어휘-(6)]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성어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언어생활과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

[2-문장-(1)] 문장의 성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문장-(1)]과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문장의 성분과 그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은 하나의 단어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단어가 결합한 어구나 그 자체 주어와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절(節)일 수도 있다.

보기

民之從之也, 輕. [백성들이 따르기가 쉽다.] (주어절)

孝, 百行之本也.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서술어구)

不患人之不己知.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라.] (빈어절)

[2-문장-(2)] 문장의 구조를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문장-(2)]와 연계된다. 2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문장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여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한문의 문장 구조를 살펴볼 때는 제일 먼저 어순(語順)을 보고, 그 다음에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어순이 바뀌면 비문(非文)이 되거나 문장의 성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한문의 문장은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어순이 도치되어도 문장의 성분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술빈 구조의 기본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빈어가 뒤에 놓인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빈어가 서술어 앞에 놓이기도 한다. 곧, 아래 보기 ①과 같이 의문(疑問)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構文)에서 의문대명사가 빈어로 쓰일 때, 또는 ②와 같이 부정(否定)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構文)에서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빈어로 쓰일 때 등에는 빈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

보기

① 臣實不才, 又誰敢怨? [신은 실로 재주가 없는데 또 누구를 감히 원망하겠습니까?]

② 子不我思, 豈無他人? [그대가 나를 사모하지 않으니 어찌 다른 사람이 없겠는가?]

술보 구조의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보어가 뒤에 놓인다. 술보 구조의 어순을 바꾸어 보어를 서술어의 앞으로 위치를 옮기면 보어가 부사어로 그 성분이 변한다.

보기

① 王, 待吾以國土. [왕이 나를 국사로 대우하다.] ('以國土'가 보어)

② 王, 以國土待吾. [왕이 국사로 나를 대우하다.] ('以國土'가 부사어)

술빈 구조와 술보 구조는 모두 서술어가 앞에 놓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구조를 이루는 성분 사이의 결합 방식은 서로 다르다. 술빈 구조는 서술어와 빈어가 지배 관계를 이루어 서술어와 빈어 사이에 개사(介詞)가 들어갈 수 없지만(빈어 앞에 개사가 들어가면 개빈 구조를 이루어 보어가 된다), 술보 구조는 서술어와 보어가 보충 관계를 이루어 서술어와 보어 사이에 개사가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보어는 서술어의 앞으로 위치를 옮겨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지만, 빈어는 서술어의 앞으로 위치를 옮겨 부사어로 쓰일 수 없다. 빈어가 서술어의 앞에 놓일 때는 서술어와 빈어가 도치되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며, 이때 빈어는 서술어의 앞에 놓이더라도 빈어의 속성을 여전히 간직한다.

[2-문장-(3)] 문장의 유형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문장의 유형과 그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장의 유형을 화자(話者)가 나타내는 어기(語氣)를 기준으로 나누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평서문과 의문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평서문

화자(話者)가 청자(聽者)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이다. 긍정의 평서문과 부정의 평서문이 있다.

보기

孔子, 聖人. [공자는 성인이다.]
 霜葉紅於二月花. [서리 맞은 잎이 이월의 꽃보다 붉다.]
 一日之狗, 不知畏虎.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을 모른다.]
 賢者, 不必有德. [어진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지는 않다.]
 鳳者, 必不食死肉. [봉황은 반드시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不得不從事於衣食. [의식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의문문

화자(話者)가 청자(聽者)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보기

以子之矛, 陷子之盾, 何如?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는가?]
 子將安之? [그대는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
 何花最好? [어떤 꽃이 가장 예쁜가?]
 王以爲孰勝? [왕께서는 누가 이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2-문장-(4)] 문장의 수사법을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한문의 독특한 표현법을 익혀 한문의 이해와 감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한문 문장은 다채로운 방법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한문에서의 수사법은 문장의 표현과 의사전달의 효과에 착안하여 문장의 감상을 돕는 것으로 음운 효과를 고려한 압운과 평측, 문체, 그리고 표현기법 등을 들 수 있다. 한문 문법과 한문 수사법은 시문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 있어 상보상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문 작품 안에는 한문 문법의 각도로 바라볼 때 불완전하고 어색한 표현이라 생각되는 문장이 한문 수사법의 시각으로 감상할 때는 고도의 예술적 표현인 경우가 많다.

(㉠) 비유(比喩)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두 사물 사이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수법이다.

보기

君子之德, 風也. [군자의 덕은 바람이다.]
 君子之交, 淡如水. [군자의 사귄은 담박하기가 물과 같다.]
 淡白梨花面. [해맑기는 배꽃 얼굴이다.]

(㉔) 대우(對偶)

자수와 구법이 서로 같거나 서로 비슷한 어구의 표현을 이용하여 상반되거나 상관된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보기

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 [새가 장차 죽으려 할 때에는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 할 때에는 그 말이 착하다.]

江碧鳥愈白, 山青花欲然. [강은 푸르려 새 더욱 희고 산이 파랗니 꽃이 불타는 듯하다.]

<3학년>**- 한 문 -****<읽기>****[3-읽기-(1)] 한문 단문(短文)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1)], [2-읽기-(1)]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단문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문 단문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위해서는 한문 단문을 이루는 단어, 구절, 문장을 한문 단문의 의미와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문장의 어조(語調)에 맞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어조는 말하는 사람, 곧 화자(話者)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같은 문장이라도 문장의 어조에 따라 뜻이 달라지거나 곡해될 수 있으므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을 때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도록 읽어야 한다. 가령, 아래 보기 ①의 문장은 화자가 자기의 생각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평서문(平敘文)이므로 문장의 끝을 내려서(↘) 읽고, ②의 문장은 화자가 청자(聽者)의 의사를 묻는 의문문(疑問文)이므로 문장의 끝을 올려서(↗) 읽으며, ③의 문장은 화자가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문(感歎文)이므로 문장의 끝에 느낌의 색채가 묻어나도록 적절하게 읽어야 한다.

보기

農者(농자)는 天下之大本也(천하지대본야)니라.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다.]

王之所大欲(왕지소대욕)을 可得聞與(가득문여)야? [왕께서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嗚呼(오호)라 痛哉(통재)로다! [아! 원통하도다!]

[3-읽기-(2)] 한문 단문을 끊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2)], [2-읽기-(2)]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단문을 바르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읽기-(3)] 한문 단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3)], [2-읽기-(3)]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단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3-읽기-(4)] 한문 산문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4)], [2-읽기-(4)]와 연계된다. 또한 이 내용은 [3-읽기-(1)]을 참고하 되, 한문 산문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 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산문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읽기-(5)] 한문 산문을 끊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5)], [2-읽기-(5)]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산문을 바르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읽기-(6)] 한문 산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6)], [2-읽기-(6)]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산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3-읽기-(7)] 한시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7)], [2-읽기-(7)]과 연계된다. 또한 이 내용은 [3-읽기-(1)]을 참고하 되, 한시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시를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읽기-(8)] 한시를 끊어 읽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8)], [2-읽기-(8)]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시를 바르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읽기-(9)]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읽기-(9)], [2-읽기-(9)]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

[3-이해-(1)] 한문 단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1-이해-(1)], [2-이해-(1)]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단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이해-(2)] 한문 단문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이해-(2)], [2-이해-(2)]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단문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3-이해-(3)]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1-이해-(3)], [2-이해-(3)]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이해-(4)] 한문 산문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이해-(4)], [2-이해-(4)]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산문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한문 산문은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 방식과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사물의 이치를 따지거나 자신의 사상을 천명함으로써 남을 설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들은 주로 의론적(議論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산천(山川)의 경물(景物)이나 지리(地理) 또는 사회의 풍속(風俗)이나 인정(人情)을 기술하는 글들은 주로 묘사적(描寫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는 글들은 주로 서사적(敘事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사람이나 사물, 사건에 대해 느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들은 주로 서정적(抒情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한문 산문에서 사용된 특수한 표현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술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서술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단, 서사·묘사·의론·서정 등의 서술 방식은 한 편의 글 속에서도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 엄격한 구별을 강조하기보다 이에 대한 이해가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3-이해-(5)]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한시의 시체(詩體), 압운법(押韻法), 대우법(對偶法) 등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시의 시체(詩體)는 크게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로 나눌 수 있다. 고체시는 고시(古詩)라고도 하는데, 당(唐)나라 때 근체시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지어진 시체로서, 구수(句數), 자수(字數), 운율(韻律) 등에 대한 규칙이 비교적 자유로운 한시를 말한다. 고체시 중에서 한 구(句)의 자수가 5자로 된 것을 오언고시(五言古詩), 7자로 된 것을 칠언고시(七言古詩)라고 한다. 근체시는 당나라 때 성립된 시체로서, 구수(句數), 자수(字數), 운율(韻律) 등에 대한 규칙이 엄격한 한시를 말한다. 절구(絶句)와 율시(律詩)가 여기에 속한다. 절구는 작품 한 수(首)의 구수가 4구로 된 것으로, 각 구의 명칭을 특별히 기구(起句:제1구), 승구(承句:제2구), 전구(轉句:제3구), 결구(結句:제4구)라고 부른다. 한 구(句)의 자수가 5자로 된 것을 오언절구(五言絶句), 7자로 된 것을 칠언절구(七言絶句)라고 한다. 율시는 작품 한 수(首)의 구수가 8구로 된 것으로, 두 구를 묶어 연(聯)이라고 하여 각 연의 명칭을 특별히 수련(首聯:제1·2구), 함련(頷聯:제3·4구), 경련(頸聯:제5·6구), 미련(尾聯:제7·8구)이라고 부른다. 한 구(句)의 자수가 5자로 된 것을 오언율시(五言律詩), 7자로 된 것을 칠언율시(七言律詩)라고 한다.

압운법(押韻法)은 한시에서 특정한 구(句)의 끝자리를 운(韻)이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압운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한다. 운이 같은 글자는 한자의 발음에서 초성(初聲)을 제외하고 중성(中聲)과 종성(終聲)의 발음이 서로 비슷한 글자들을 말한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 글자에 있는데, 첫째 구의 끝 글자에도 달 수 있다.

대우법(對偶法)은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를 이루는 두 구는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고 부른다. 율시는 함련(頷聯)과 경련(頸聯)에서 반드시 대우를 이루어야 하지만, 절구는 기구(起句)와 승구(承句) 또는 전구(轉句)와 결구(結句)에서 대우를 이루기도 한다.

중학교의 한시 학습은 4구로 된 고시(古詩)나 절구(絶句)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화 학습의 경우 4구 이상으로 된 고시(古詩)나 율시(律詩)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평측법(平仄法) 등 복잡하고 난해한 시의 형식이나 규칙 등에 대한 학습은 피하는 것이 좋다.

[3-이해-(6)]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1-이해-(5)], [2-이해-(5)]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이해-(7)] 한시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이해-(6)], [2-이해-(6)]과 연계된다. 또한 이 내용은 [3-이해-(4)], [3-이해-(5)]를 참고하되, 한시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시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3-문화-(1)]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이 학습 내용은 [1-문화-(1)], [2-문화-(1)]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학습을 통하여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3-문화-(2)]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 학습 내용은 [1-문화-(2)], [2-문화-(2)]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학습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3-문화-(3)]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힌다.

이 학습 내용은 [1-문화-(3)], [2-문화-(3)]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학습을 통하여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3-문화-(4)]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 학습 내용은 [1-문화-(3)], [1-문화-(4)], [2-문화-(3)], [2-문화-(4)]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학습을 통하여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한 문 지 식 -**<한자>****[3-한자-(1)] 한자의 형·음·의를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1)], [2-한자-(1)]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모양[形]과 소리[音]와 뜻[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3-한자-(2)]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2)], [2-한자-(2)]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알 수 있어야 한다.

[3-한자-(3)]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을 찾을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3)], [2-한자-(3)]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3-한자-(4)] 한자를 바르게 읽고 쓸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4)], [2-한자-(4)]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를 바르게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3-한자-(5)] 상형·지사자의 짜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5)], [2-한자-(5)]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상형·지사자의 짜임 원리를 통해 한자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3-한자-(6)] 회의·형성자의 짜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6)], [2-한자-(6)]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회의·형성자의 짜임 원리를 통해 한자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3-한자-(7)] 한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7)], [2-한자-(7)]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한자의 증가 과정을 통하여 한자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한자는 사회와 문화의 발달에 따라 그 수가 계속 증가해왔다. 진(晉)나라 때 『자림(字林)』에는 12,824자, 후위(後魏) 때 『자통(字統)』에는 13,734자, 양(梁)나라 때 『옥편(玉篇)』에는 22,561자, 송대(宋代) 『유편(類篇)』에는 31,319자, 청대(清代)에 만들어진 『강희자전(康熙字典)』에는 47,000여 자의 한자가 수록되었다. 대만에서 발행된 『중문대사전(中文大辭典)』(1973년)에는 49,905자, 『한어대사전』(1985년)에는 56,000여 자, 중국에서 발행된 『중화자해(中華字海)』(1994년)에는 85,568자가 수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지금의 생활과 문화를 반영한 한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卡([가] 카드)’ 등의 글자들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권병훈(權丙勳 : 1867~1943)의 『육서심원(六書尋源)』(1938년)에는

60,000여 자가 수록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도 실려 있다. 예를 들면 논농사를 뜻하기 위해 만든 ‘畚(논 답)’자와 이름에 쓰기 위해 만든 ‘턱(격)’, ‘찢(돌)’ 자 등이다.

[3-한자-(8)] 한자 자체(字體)의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1-한자-(8)], [2-한자-(8)]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초서, 행서, 약자 등의 자체를 통하여 한자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초서(草書)와 행서(行書)는 필기체의 서체(書體)이다. 초서는 복잡한 글자의 윤곽을 간략화하거나 생략하여 갈겨 쓴 서체이다. 행서는 해서(楷書)와 초서의 중간에 해당하는 서체로서, 해서보다는 쓰기가 편리하고 초서보다는 읽기가 쉬웠으므로 사람들이 즐겨 쓰는 서체이다.

약자(略字)는 획수가 복잡한 한자 정자(正字)를 간략화하거나 생략하여 정자(正字) 대신에 쓰는 글자이다. 약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공통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르게 쓰는 것도 있다. 원래는 약자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정자로 인정되어 사용되는 한자도 있다. 중국의 간화자(簡化字)는 자주 쓰는 한자들 중 복잡한 한자를 간화시키고 표준화하여 정자로 공포한 것인데, 이 중 상당수는 예전부터 통용되던 약자이거나 해당 약자를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보기

| 종류 \ 正字 | 傳 | 聲 |
|---------|---|---|
| 우리나라 약자 | 伝 | 声 |
| 중국 간화자 | 传 | 声 |
| 일본 약자 | 伝 | 声 |

<어 휘>

[3-어휘-(1)] 단어의 종류를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어휘-(1)], [2-어휘-(1)]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단어의 종류를 알 수 있어야 한다.

[3-어휘-(2)] 단어의 짜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어휘-(2)], [2-어휘-(2)]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단어의 짜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3-어휘-(3)]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어휘-(3)], [2-어휘-(3)]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한문의 품사는 단어가 원래 지니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쓰임까지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한문 문장에서 특별하게 쓰이는 품사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그 쓰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㉞) 대명사의 특수 용법

① 或

명확하게 가리키는 대상이 없이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되, 긍정의 뜻을 담아 ‘어떤 것’, ‘어떤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보기

或爲大人, 或爲小人.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된다.]

② 莫

명확하게 가리키는 대상이 없이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되, 부정의 뜻을 담아 ‘어떤 것도 없음’, ‘어떤 사람도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보기

養心, 莫善於寡欲. [마음을 기르는 데에는 욕심을 적게 가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㉟) 동사의 특수 용법

① 能, 可, 得

가능(可能)을 나타내는 조동사(助動詞)이다.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또는 동사류(動詞類) 앞에 위치하여 그 동사 또는 동사류의 작용을 보조해 주는 특수한 동사이다.

보기

能行大事乎? [큰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豈可_レ是己而非人? [어찌 자기를 옳다고 하고 남을 그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不得_レ不讀之. [그것을 읽지 않을 수 없었다.]

② 欲, 願

원망(願望)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보기 樹欲靜而風不止.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
願聞子之志. [그대의 뜻을 듣고 싶다.]

③ 當

당연(當然)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보기 汝當見金如石. [너는 마땅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여야 한다.]

[3-어휘-(4)] 허사의 쓰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어휘-(4)], [2-어휘-(4)]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한문 문장에서 자주 쓰이는 허사들을 종류별로 제시하고 그 쓰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접속사

① 以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보기 作文以記之. [글을 지어서 그것을 기록하다.]

(㉡) 어조사

① 之

동사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조사로 쓰일 때는 주로 ‘수식어 + 之 + 피수식어’, ‘주어 + 之 + 서술어’, ‘빈어 + 之 + 서술어’의 구조로 쓰여 문장 성분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보기 無羞惡之心, 非人也.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仁之勝不仁也, 猶水勝火也. [인이 불인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何罪之有? [무슨 죄가 있는가?]

② 者

‘수식어 + 者’의 구조로 쓰여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거나, ‘명사 + 者’의 구조로 쓰여 제시·정돈 등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조사이다.

보기

仁者, 不憂.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愛人者, 人恒愛之.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항상 그를 사랑한다.]

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 [대인은 그의 갓난아이 때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古者, 易子而教之. [옛날에는 자식을 서로 바꾸어서 가르쳤다.]

③ 所

‘所 + 수식어’의 구조로 쓰여 ‘~하는 바, ~하는 것’의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이다.

보기

子之所言, 世俗之言也. [그대가 말하는 것은 세속의 말이다.]

有司未知所之. [유사가 갈 곳을 알지 못하다.]

[3-어휘-(5)] 어휘의 유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어휘-(5)], [2-어휘-(5)]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어휘의 유형을 바르게 알고 언어생활과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어휘-(6)]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이 학습 내용은 [1-어휘-(6)], [2-어휘-(6)]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성어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언어생활과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

[3-문장-(1)] 문장의 성분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문장-(1)], [2-문장-(1)]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문장의 성분과 그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3-문장-(2)] 문장의 구조를 안다.

이 학습 내용은 [1-문장-(2)], [2-문장-(2)]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문장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여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한문은 문장 안에서 번잡하거나 중복을 피하고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문장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문장성분의 생략은 앞 뒤 문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일 경우에 가능하다.

보기

- ① 樊噲曰：“今日之事，何如？”良曰：“[]甚急。”[번쾌가 말했다. “오늘의 일이 어떠한가?” 장량이 말했다. “매우 급하다.”] (주어의 생략)
- ② 楊子之鄰人，亡羊，既率其黨[]，又請楊子之堅追之。[양자의 이웃이 양을 잃어버린 자 온 집안 식구를 동원하고 또 양자의 종에게도 청하여 쫓았다.] (서술어의 생략)
- ③ 備之，則勞中國之士，不備[]，則侵盜不止。[방비하자니 나라 안의 군사들을 수고스럽게 해야 하고, 방비하지 않자니 침략과 도적질이 그치지 않는다.] (빈어의 생략)

①은 생략된 문장 앞에 ‘今日之事’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대화상의 뒤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한 것이고, ②는 생략된 부분의 뒤 문장에 ‘追之’가 있기 때문에 추론하여 알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생략한 것이다. 이 문장에서 ‘率其黨’은 부사어에 해당한다. ③은 앞 문장에 빈어 ‘之’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이를 생략한 것이다.

[3-문장-(3)] 문장의 유형을 안다.

이 학습 내용은 [2-문장-(3)]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문장의 유형과 그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문장의 유형을 화자가 나타내는 어기(語氣)를 기준으로 나누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명령문과 감탄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명령문

화자(話者)가 청자(聽者)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이다. ‘勿, 無, 請’ 등 금지 또는 요청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기

- 附耳之言，勿聽焉。[귀에 대고 하는 말은 듣지 마라.]
 無友不如己者。[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하지 마라.]
 王請度之。[왕께서는 청컨대 헤아리십시오.]

(㉡) 감탄문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문장 앞에 감탄사인 ‘嗚呼’, ‘噫’ 등의 감탄사를 사용하거나 ‘乎’, ‘哉’ 등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조사를 문장 끝에 사용한다.

보기

噫! 天喪予! 天喪予! [아!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嗚呼! 國恥民辱, 乃至於此. [아!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여기에 이르렀구나.]
 噫! 悲夫. [아! 슬프구나.]
 嗚呼哀哉! [아! 슬프구나.]

[3-문장-(4)] 문장의 수사법을 이해한다.

이 학습 내용은 [2-문장-(4)]와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의 독특한 표현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㉞) 과장(誇張)

표현상의 필요에 의하여 고의로 그 사실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사람, 사물, 일에 대하여 확대 혹은 축소하여 묘사하는 방법이다.

보기

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 [허공의 물이 곧장 쏟아지는데 삼천 척이나 되니 은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것인 듯하였다.]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대동강 물이 어느 때나 마르리,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보태지는 것을.]

(㉟) 도치(倒置)

뜻을 돌출시키고 어기(語氣)를 순하게 하며 성음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반적인 언어 순서를 바꾸어 놓는 방법이다.

보기

誰與? 哭者. [누구입니까? 우는 사람이.]
 久矣! 吾不復夢見周公. [오래되었구나! 내가 다시 꿈속에서 주공을 보지 못한 것이.]

4. 교수 · 학습 방법

가. 교수 · 학습 계획

교수 · 학습 계획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활동이며, 교수자가 교육 활동에 앞서 갖추어야 할 지적, 기능적인 과제이다. 한문 과목 교수 · 학습 계획을 세울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한문의 교육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여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중학교 한문 과목 교육과정의 ‘목표’에 제시된 전문과 하위 목표 5개항의 특징과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교수·학습 계획의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2) ‘한문’과 ‘한문지식’ 영역의 학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한문 과목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한문’ 영역과 ‘한문지식’ 영역의 학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반복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학년별 각 단원의 내용은 ‘한문’ 영역과 ‘한문지식’ 영역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유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단원별로 제시된 학습 내용의 반복 학습을 통하여 언어생활이나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자, 가정, 사회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계획한다.

한문 과목 교수·학습 계획을 세울 때에는 중학교 한문 과목 교육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되, 학습자 또는 가정이나 사회 등 주변 환경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한다. 교육이 사회의 요구에 대처해 나가야 하듯이 한문 과목도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문 교육은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맞아 한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학교 교육에 적극 수용하도록 한다.

(4) 학습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학년 간 및 다른 교과와의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한문 과목 교수·학습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학습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3개 학년 간 및 다른 교과와의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문의 어휘에서 유래한 한자어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생활 속에서, 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가운데 항상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문 공부를 처음 시작한 학습자가 그 음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실제의 언어생활이나 다른 교과의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학습 장면이나 학습자의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한다.

한문 과목 교수·학습 계획은 학습 장면이나 학습자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계획하되, 전후 학습 간에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곧, 각 단원의 학습에 있어서 단원의 특성에 맞는 학습 장면이나 학습자의 성취 수준, 그리고 시간 별 학습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한문 과목이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자의 교육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6)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되,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적인 학습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한문 과목 교수·학습 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 단원별 학습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학습자가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에 자극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한문 과목 교수·학습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시대 조류에 부응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을 세울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한다.
 - (가) 한문 영역의 '읽기'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읽고 풀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나) 한문 영역의 '이해'는 강의법, 토의 학습법, 역할 놀이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 한문 영역의 '문화'는 토론 학습, 비교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및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라) 한문지식 영역의 '한자'는 부수 중심 지도법, 구조 분석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지도한다.
 - (마) 한문지식 영역의 '어휘'는 조어 분석법, 언어 활용법, 색출법, 비교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지도한다.
 - (바) 한문지식 영역의 '문장'은 다양한 수업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지도한다.

한문 과목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자가 한문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되, 학습 부담을 지나치게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문' 영역의 '읽기', '이해', '문화'와 '한문지식' 영역의 '한자',

‘어휘’, ‘문장’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단, ‘한문지식’의 학습은 한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문법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한문’ 영역과 ‘한문 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제시된 수업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토의 학습법 : 문제 해결을 위해 학급 전체에서 학습자와 교사 또는 학습자 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학습법이다.
- 역할 놀이 학습법 : 학습자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학습법이다.
- 토론 학습법 : 문제 해결을 위해 학급을 몇 개의 작은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끼리 학습 내용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모둠별로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학습법이다.
- 비교 학습법 : 둘 이상의 학습 내용이나 또는 같은 내용이라도 달리 적용되는 학습 내용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여 학습의 수준을 넓혀가는 학습법이다.
- 부수 중심 지도법 : 부수의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한자로 확장하는 학습법이다.

보기

| | | | | | |
|---|---|---|----|---|---|
| | ↗ | 霜 | | ↗ | 財 |
| 雨 | → | 雲 | 貝 | → | 貧 |
| | ↘ | 雪 | 또는 | ↘ | 貴 |

- 구조 분석법 : 한자의 짜임을 분석하여 지도하는 학습법이다. 구조 분석법은 한자의 특성을 살려 그림을 그려서 수업을 진행한다든가, 질문 또는 토의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보기

| |
|---|
| 休 → 人[사람] + 木[나무] : 사람이 나무 밑에 있다. 곧 ‘쉬다.’ |
| 材 → 木[나무 : 뜻 부분] + 才[재 : 음 부분] |

- 조어 분석법 : 어휘의 짜임을 풀이하여 지도하는 학습법이다.

보기

| | | | | | | | |
|----|--|---|---|----|-----|---|--------|
| 年少 | <table><tr><td>年</td><td>少</td></tr><tr><td>나이</td><td>어리다</td></tr></table> | 年 | 少 | 나이 | 어리다 | → | 나이가 어림 |
| 年 | 少 | | | | | | |
| 나이 | 어리다 | | | | | | |

- 언어 활용법 : 어휘를 실제 언어생활이나 학습 내용에 적용하게 하는 학습법이다.

보기

나는 논어라는 위대한 古典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것저것 해석해 보려고 했다.

《안병욱, 사색인의 향연》

- 색출법 : 신문·서적·표지판·광고 등을 제시하여 학습하거나, 학습한 어휘를 찾아보는 학습법이다.

(2)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강의, 토론, 현장 학습, 협동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지도한다.

교사는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문’·‘한문지식’의 영역에 알맞은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되, 학습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강의 학습 : 교사가 모든 학습 내용을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학습법이다.
- 2) 현장 학습 : 한문 문화의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학습법이다.
- 3) 협동 학습 : 모둠별로 협동을 통해 내용을 습득하도록 하는 학습법이다.

(3)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되, 교사와 학습자가 쌍방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한문 과목의 교수·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컴퓨터,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되, 교사와 학습자가 쌍방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교사 개인의 홈페이지, 교과 학습 카페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다. 교수·학습 자료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한문 과목의 교수·학습 자료는 앞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각종 기자재를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가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수·학습 자료는 한문 독해 능력을 기르고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며,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및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선정한다.

한문 과목의 교수·학습 자료는 한문의 독해의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선정한

다. 한문의 독해를 통해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3) ‘한문’, ‘한문지식’의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체 자료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한문 과목의 교수·학습 자료는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를 높이고, 가능한 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각 단원에 제시된 내용에 맞추어 카드, 용판, 패도, 컴퓨터, OHP, 실물화상기,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 매체 자료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평가

새 교육과정의 ‘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은 ‘평가 계획’,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방법’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이다.

‘평가 계획’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평가 하되,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기본적으로 익힌 다음, ‘한문’ 영역의 ‘읽기’, ‘이해’, ‘문화’ 그리고 ‘한문지식’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지식, 이해, 적용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고려하며, 학습자의 한문 학습 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수행 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관찰이나 면담 등과 같은 질적 평가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강조하였다. 특히 평가 목적, 평가 방법, 평가 기준, 평가 영역과 내용(범위), 평가 시기 등을 학습자에게 미리 친절하게 안내하여 평가를 통한 학습자의 한문 학습 능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하였다.

‘평가 목표와 내용’에서는, 먼저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구체적 도달점을 평가 목표로, 평가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 조직된 평가의 대상을 평가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평가 목표의 경우,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평가 주체와 객체, 평가 내용,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 교수·학습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데 유의하였다. 그리고 평가 내용은 한문 과목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를 고려하되, ‘내용 체계’, ‘영역별 내용’에서 학년별 수준과 범위에 적합한 평가 요소를 추출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대규모 평가 대상으로 인한, 평가 방법의 편의성에 치우쳐 ‘한문’, ‘한문지식’ 영역의 단편적, 일회적 지식이나 기초적 문법 기능 측정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였다.

‘평가 방법’에서는 평가 방법이 한문 교육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평가 목표, 평가 영역 및 내용,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그리고 단순 암기력을 측정·평가하였던 기존의 지필 고사 위주의 획일적 평가 방법을 지양하고, 학교 현장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학습자의 고등 정신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활용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곧, 결과 중심의 양적 평가 이외에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중시한 질적 평가, 비형식 평가, 수행 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서는 평가 결과를 한문 과목 학업 성취도 판단 준거로 활용함과 동시에 선수 학습의 정도,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의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곧,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의 한문 능력 성취 정도에 대한 자료를 넓게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하여 교사의 수업 과정 및 전략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평가 계획

한문 과목 평가에서 ‘평가 계획’은 평가 목적,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시기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사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계획 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는 학습자의 학습 성취 정도를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한문 과목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한문 과목의 성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 조직한 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한문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평가 도구와 관련이 깊지만, 평가 목적,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시기 등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2) 평가 목적, 평가 주체, 평가 대상, 평가 기준, 평가 시기, 평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형식 평가와 비형식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한문 과목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왜 평가를 하는가?’라는 평가 목적을 확인하는 일이다. 수업 전, 학습자의 선수 학습 진단을 위한 것인지, 교사의 수업 개선 활용에 쓸 것인지, 학습자의 한문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것인지 등 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평가 시기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문 교사는 무엇보다 평가의 목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교사의 평가 목적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평가 주체(교사)가 평가 대상(학습자)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평가 목적과 평가 주체는 평가

계획 수립 시 특히 주의를 요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가 목적과 평가 내용을 고려하여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형식 평가와 비형식 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평가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교육 활동의 절대 지침이 되어 학습자의 한문 학습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습자의 한문 학습 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수행 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관찰이나 면담 등과 같은 질적 평가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말고사, 중간고사와 같은 형식 평가뿐만 아니라, 쪽지 시험, 모둠별 과제, 형성 평가, 진단 평가와 같은 비형식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3) 중학교 ‘한문’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되,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가) 한문과 평가 목표와 학습 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되, ‘한문’ 영역과 ‘한문지식’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학습자의 지식, 이해, 적용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되, 평가 내용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다)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도 평가하도록 한다.
 - (라) 평가 목적, 평가 방법, 평가 기준, 평가 내용, 평가 시기 등을 학습자에게 안내하여 평가를 통한 학습자의 한문 학습 능력 제고를 도모한다.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교 급별 한문 과목 교육과정에 제시한 목표의 달성 여부에 중점을 두되, ‘한문’ 영역과 ‘한문지식’ 영역의 학습 내용을 분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해 및 적용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고려하며, 학습의 과정 또한 평가의 주요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평가 목적, 평가 방법, 평가 기준, 평가 내용, 평가 시기 등을 학습자에게 미리 친절하게 안내하여 평가를 통한 학습자의 한문 학습 능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나. 평가 목표와 내용

한문 과목 평가에서 ‘평가 목표’란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구체적 도달점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조직된 평가의 대상을 평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평가 목표 설정 및 평가 내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평가 목표는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한문 과목의 평가 목표는 무엇보다 학교 급별 한문 과목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그리고 영역별 내용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성격, 목표, 내용 가운데 교사의 선호도에 근거하여 특정 항목에 치중하거나 일부 학습 내용을 강조하는 평가는 지양되어야 한다.

(2) 평가 목표는 평가 주체와 대상, 평가 내용,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 교수·학습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평가 목표는 한문 과목 성격, 목표,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평가 행위가 학교 교실 현장에서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사와 학습자의 특성, 수업 내용의 수준과 범위, 기준과 방법의 적절성, 평가 시기와 환경 등 교수·학습의 구체적 맥락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한문’ 영역과 ‘한문지식’ 영역의 평가 목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설정한다.

- (가) 한문 영역의 ‘읽기’는 단문, 산문, 한시의 바르게 읽기와 정확한 풀이 능력에 중점을 둔다.
- (나) 한문 영역의 ‘이해’는 단문, 산문, 한시의 내용과 주제, 특수한 표현 방식 등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둔다.
- (다) 한문 영역의 ‘문화’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에 중점을 둔다.
- (라) 한문지식 영역의 ‘한자’는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한자의 역사 등 한자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의 성취와 그 활용에 중점을 둔다.
- (마) 한문지식 영역의 ‘어휘’는 단어의 형성, 단어의 갈래, 어휘와 의미 등 어휘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의 성취와 그 활용에 중점을 둔다.
- (바) 한문지식 영역의 ‘문장’은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문장의 수사 등 문장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의 성취와 그 활용에 중점을 둔다.

‘한문’ 영역 ‘읽기’의 평가 목표는 단문, 산문, 한시의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바르게 풀이하기 능력에, ‘이해’의 평가 목표는 단문, 산문, 한시의 내용과 주제, 특수한 표현 방식 등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에, ‘문화’의 평가 목표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중점을 두어 설정해야 한다.

‘한문지식’ 영역의 평가 목표는 하위 영역인 ‘한자’, ‘어휘’, 그리고 ‘문장’의 기초적 지식 성취와 그 활용에 중점을 두어 설정해야 한다. 곧, ‘한자’의 경우,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한자의 역사 등에, ‘어휘’의 경우, 단어의 형성, 단어의 갈래, 어휘와 의미 등에, 그리고 ‘문장’의 경우, 문장의 구조, 유형, 수사 등 문장과 관련된 기초적 지식과 활용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 (4) 평가 내용은 한문과 교육과정의 ‘1. 성격’, ‘2. 목표’, 그리고 ‘3. 내용’의 ‘가. 내용 체계’와 ‘나. 영역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5) 평가 내용은 학년별 수준과 범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6) 평가 내용 선정 시, 평가 방법의 편의성에 치우쳐 각 영역의 단편적 지식이나 기초적 기능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한다.

평가 내용은 평가 목표와 연계하여 선정하되,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별 및 학년별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 적합한 평가 요소를 추출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평가 방법의 편의성에 치우쳐 각 영역의 단편적 지식이나 기초적 기능 측정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다. 평가 방법

한문 과목 평가에서 ‘평가 방법’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평가 방법 선택,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평가 목표, 평가 내용, 평가 기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2) 단순 암기력보다는 이해력, 사고력, 창의력 등 고등 정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를 개발·활용한다.

평가 목표, 평가 내용, 평가 기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려하되, ‘한문’ 영역의 ‘읽기’, ‘이해’, ‘문화’ 그리고 ‘한문지식’ 영역의 ‘한자’, ‘어휘’, ‘문장’을 분절적으로 구분한 결과, 단편적 지식이나 정보의 기억과 회상에 의존하는 단순 암기력을 측정하기보다는 한문 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사고력, 창의력 등 고등 정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를 다양하게 개발·활용한다.

- (3) ‘한문’ 영역과 ‘한문지식’ 영역의 평가 목표와 평가 내용에 적합한 선택형·서답형 지필 평가와 토론, 관찰, 구술시험,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 대상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은 다르다.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때 평가 대상에 대해 보다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평가 대상인 학습자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교사가 한문 학습자의 특성이나 성취 수준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선택형(진위형, 배합형, 선다형) 및 서답형(단답형, 완결형, 논문형) 지필 검사 방식을 활용하되,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행 평가 방식(토론법, 포트폴리오법, 연구보고서법,

논술형 검사법, 관찰법, 구술시험법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4) 교사 중심의 평가 이외에 학습자의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선택형 검사 문항으로 구성된, 교사의 일방적 지필 평가 방법 외에 학습자 자신의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평가는 주로 교사가 평가 주체가 되어 학습자를 평가하는 일방적 평가를 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사가 아닌 학습자가 평가 주체가 되어 학습자 자신의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기 평가나 학습자 상호 간의 평가인 동료 평가를 적극적으로 교실 현장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양적 평가 이외에 질적 평가, 수행 평가, 비형식 평가, 직접 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평가 방식은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수 방식과 학습자의 학습 방식을 유도하고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한문 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택형 지필 검사 방법에 치중된 양적 평가 보다는 관찰, 면담, 의견 조사 등의 질적 평가, 수행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수행 평가, 쪽지 시험 등과 같은 비형식 평가, 그리고 직접 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라. 평가 결과의 활용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형식 평가와 비형식 평가, 직접 평가와 간접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선택, 활용하여 학습자의 한문 학습 과정과 결과를 측정된 뒤, 그 결과를 교사와 학습자의 교수·학습 과정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에 활용하는 것을 ‘평가 결과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평가 결과는 선수 학습의 정도나 성취 수준의 진단, 교수·학습 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한다.

평가는 진단 평가나 형성 평가의 경우처럼, 학기 초, 혹은 교수·학습을 시작하기 전이나 도중에 실시하여, 학습자의 선수 학습의 정도나 성취 수준의 진단, 학습 목표의 성취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총괄 평가와 같은 대단원 및 소단원 학습 목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사의 수업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고, 이후 전개될 교수·학습 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한다.

(2)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한문 학습 능력의 정도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한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며, 교사의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의 자료로 활용한다.

진단 평가, 형성 평가, 그리고 정기 고사를 통한 총괄 평가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개별 학습자의 학업 성취 정도의 지표를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의 결과를 단지 학업 성취 정도에 따른 성적 매기기에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가 결과는 무엇보다 평가 목표 설정, 평가 내용 선정, 그리고 교사의 교수 전략을 동원한 한문 학습의 전개 이후, 학습자의 한문 능력 향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만약 정도가 낮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습자를 평가한 결과는 교사의 자기 평가 자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학습자의 한문 평가 결과는 교사의 한문 교수 활동 및 지도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V. 한문 과목 신·구 교육과정 비교

중학교 한문 과목 새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개정 사항 요약 및 제7차와 새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비교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정의 중점

- 학습자의 한문 능력 향상을 중시
-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
- 기초·기본 교육의 내실화
- 교육 내용의 사회적, 개인적, 학문적 적합성을 추구

2. 개정 사항 요약

- 한문 과목 성격 규정의 명료화
- 한문 과목 목표 체계의 일원화
- 교육 내용의 정선 및 내적 구조화 지향
-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의 구체화
-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의 개선(내용+행동)
-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

3. 신·구 교육과정 비교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문 과목의 중요한 차이점을 교육과정 체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순서로 요약하면 <표2>와 같다.

<표 2> 신·구 교육과정 비교

| 구 분 | 제7차 교육과정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비 고 |
|----------|---|---|--|
| 체 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5영역으로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문서 체제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명칭 변경 |
| 성 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을 일반적 성격과 과목별 성격으로 나누어 제시 ◦ 과목별 성격을 일반적 성격과 특수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제시하되, 일반적 성격 중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부분을 누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서술 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 ◦ 과목별 성격을 일반적 성격과 특수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문 과목의 특성을 명료화 |
| 목 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를 전문과 하위 목표로 나누어 제시 ◦ 영역별 목표를 ‘한자’, ‘한자어’, ‘한문’으로 나누어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서술 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 ◦ 영역별 목표를 ‘한문’, ‘한문지식’으로 나누어 제시 ◦ ‘한문’ 영역의 목표에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항목을 추가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를 ‘성격’, ‘내용’과 조응시켜 체계화 |
| 내 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을 ‘한자’, ‘한자어’, ‘한문’의 3개 영역으로 제시 ◦ ‘한자’ 영역의 중영역 내용을 ‘한자 익히기’, ‘한자 활용하기’로 제시 ◦ ‘한자어’ 영역의 중영역 내용을 ‘한자어 익히기’, ‘한자어 활용하기’로 제시 ◦ ‘한문’ 영역의 중영역 내용을 ‘한문 익히기’, ‘한문 활용하기’, ‘가치관 형성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시키기’로 제시 ◦ 내용 요소를 21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을 ‘한문’, ‘한문지식’의 2개 영역으로 제시 ◦ ‘한문’ 영역의 중영역 내용을 ‘읽기’, ‘이해’, ‘문화’로 제시 ◦ ‘한문지식’ 영역의 중영역 내용을 ‘한자’, ‘어휘’, ‘문장’으로 제시 ◦ 내용 요소를 17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문 과목의 교과 특성을 반영한 영역 구분의 체계화, 위계화, 계열화 |
| 교수·학습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자료’로 나누어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서술 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시 |
| 평 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으로 나누어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계획’,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으로 나누어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실천을 위한 지침을 구체화하여 제시 |

참고 문헌

- 문영진, 장호성, 김왕규, 박영호, 송병렬, 안재철, 윤재민, 이군선(2006). **중·고등학교 한문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 문교부(1988).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 문교부(1989).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부(1994).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 한문·컴퓨터·환경 -**.
- 교육부(1995).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 한문 I, 한문 II -**.
- 교육부(1998).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과목 교육과정 -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
-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 외국어(영어), 재량 활동,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
- 교육부(1998). **한문, 교련, 교양 선택과목 교육과정**.
-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한문 -**.

정 보

이 휴 성 (교 육 과 학 기 술 부)
김 경 훈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강 신 천 (공 주 대 학 교)
강 의 성 (순 천 대 학 교)
김 성 식 (한 국 교 원 대 학 교)
김 영 식 (한 국 교 원 대 학 교)
유 현 창 (고 려 대 학 교)
이 원 규 (고 려 대 학 교)

- I. 정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II. 정보 과목 교육과정의 변천
 - III. 정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IV. 정보 과목 교육과정 해설
 - V. 정보 과목 신·구 교육과정 비교
- <부록> 외국의 정보 교육

I. 정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2005.2.25)’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정책(2005.4.15)’ 등을 발표하면서 현행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기본 정책으로 일시적이고 전면적인 개정이 아닌, 수시로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국민과 각계각층의 요구를 탄력적·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과 충실도가 높은 교육 정책을 구현함과 아울러 교육 수요자의 만족감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교과 교육 내용 개선과 적정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7차 컴퓨터 교육과정은 컴퓨터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얼마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지와 같은 컴퓨터의 도구적 활용을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현대 정보화 시대의 필수 도구인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과학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과목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 지식 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본질적인 과학으로서의 정보 교육의 필요성 대두

둘째, 정보 교육의 전문성 결여, 정보 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 수준의 미달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 교육의 필요성 대두

셋째, 컴퓨터의 형식적이고 단순 도구적 활용 측면보다는 컴퓨터 원리,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 정보 윤리 교육의 강화 요구

넷째, 교육 내용의 범위와 지도 시기, 학문적 연계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컴퓨터 관련 교육 내용의 재구성 필요성 대두

이와 같은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내적·외적 필요성에 따라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컴퓨터 관련 선택 과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현행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Ⅱ. 정보 과목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은 비교적 일찍 수용되어 1969년 문교부령 제251호로 부분 개정·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산업 일반’ 과목에 컴퓨터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통 일반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교육이 처음 도입된 것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부터이며, 제4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산업 기술과 수학에까지 확대되었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까지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이것은 전문 계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문 정보 처리 기능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컴퓨터 교육이 일반 교육으로 그 개념이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컴퓨터 교육이 일반 보통 교육으로 인식되었고,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 해결에 컴퓨터를 주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컴퓨터 인식과 프로그래밍 교육보다 응용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데에 머무른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선택 과목의 하나로 설정되어 본격적인 정보 시대를 대비한 컴퓨터 교육 체제로 발전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컴퓨터 과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 형태로 편성되어 있으나, 교과목의 목표를 정보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 함양에 두고 내용에 있어서도 프로그래밍 교육 등의 정보 처리 능력 함양이 아닌 컴퓨터를 생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확대하였으며, 모든 교과의 학습 활동에 정보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도록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과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명칭을 ‘정보’로 변경하고, 컴퓨터의 형식적이고 단순 도구적 활용 측면보다는 컴퓨터 원리, 문제 해결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정보 윤리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의 지식 정보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본질적인 과학으로서의 정보 과목 교육 체제를 마련하였다.

1. 제3차 교육과정

1970년 7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교부가 ‘전자계산기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으로써 컴퓨터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1971년 8월 문교부령 제286호로 공포된 교육과정에서 전자 계산 일반이 설정되어 상업계 필수 과목으로, 코볼 프로그래밍, 포트란 프로그래밍,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전자 계산 실무 등 4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전자계산기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상업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산 기능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교육이 시작된 시기이다.

1974년 12월 문교부령 제350호로 개정,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술 과목에서 전자계산기 구성과 전자계산기의 활용 등의 내용이 부분 반영되어 컴퓨터의 구성 체계를 이해하고 컴퓨터와 관련된 용어와 컴퓨터의 작업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컴퓨터의 활용 분야를 알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컴퓨터 교육이 직업 전문 교육이 아니라 일반 보통 교육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제4차 교육과정

1980년대는 컴퓨터 교육이 일반 보통 교육의 하나로 인식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에 문교부령 제442호로 고시되었는데, 중학교 기술 과목에 정보 사회에서의 컴퓨터 역할에 대한 내용이 처음 도입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벌써 정보 사회로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학교 교육에서부터 이에 대비한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이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는 1983년을 ‘정보 산업의 해’로 지정하고 ‘국가 기간 전산망 기본 방침’을 확정하여 발표함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 및 컴퓨터 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문교부와 과학기술처는 1983년에 90여 개의 상업 고등학교에 각각 30대의 퍼스널 컴퓨터를 보급하였다. 이어서 1984년도에는 상업계 고등학교에 정보 처리과, 공업계 고등학교에는 정보 기술과를 각각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산업 기술에 전자계산기 단원을 설정하고 전자계산기의 개요와 전자계산기의 응용을 포함시켜 모든 산업에 컴퓨터가 활용됨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그리고 실제 산업과 금융 등의 생활과 연계된 분야에 컴퓨터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컴퓨터가 이미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그 중요성을 알도록 하였다. 수학 I에서는 순서도와 알고리즘을 포함시켜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컴퓨터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초·중등학교 컴퓨터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1983, 교육개발원)’와 같은 일반 보통 교육으로서의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3. 제5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은 1987년 12월에 고시되었고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초등학교부터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컴퓨터가 도입되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문교부에서 1987년 12월 ‘학교 컴퓨터 교육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초등학교는 실과에서 4~6학년 학생들이 13시간에 걸쳐 자판 익히기와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분야 및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중학교는 기술·가정 과목에 컴퓨터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되었으며, 컴퓨터가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되는 분야와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성,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표 1】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컴퓨터 관련 내용

| 학교 급 | 교과명 | 컴퓨터 관련 내용 | | |
|------|-------|-----------|-----|---|
| | | 학년 | 시간 | 내 용 |
| 초등학교 | 실 과 | 4 | 1 | <저축과 컴퓨터> |
| | | 5 | 4 | <일과 컴퓨터> ◦ 컴퓨터의 하는 일 ◦ 컴퓨터와 작업 |
| | | 6 | 8 | <컴퓨터 다루기> ◦ 컴퓨터 프로그램 ◦ 컴퓨터 다루기 |
| 중학교 | 기술 | | 21 | <컴퓨터의 이용> ◦ 컴퓨터와 생활 |
| | 기술·가정 | | 16 | ◦ 컴퓨터의 구성과 프로그램 언어 ◦ 컴퓨터의 사용 방법 |
| | 가정 | | 10 | <소비 생활과 자원 활용> ◦ 생활 정보와 컴퓨터 이용 - 컴퓨터와 생활 - 컴퓨터의 구성과 프로그램 언어 - 프로그램의 작성법 |
| | 상업 | | 3 | <계산> ◦ 계산 용구에 의한 계산 ◦ 컴퓨터 |
| 고등학교 | 기술 | | 19 | <컴퓨터> ◦ 컴퓨터와 산업 사회 ◦ 컴퓨터의 구성과 원리 ◦ 컴퓨터의 이용 |
| | 정보 산업 | | 128 | <정보와 정보 산업> ◦ 컴퓨터의 구성과 원리 ◦ 프로그래밍 ◦ 정보 통신 ◦ 컴퓨터의 이용 |
| | 공업 | | 8 | <전자 공업> ◦ 전자계산기 ◦ 공업의 발전과 미래 사회 ◦ 공업과 자동화 ◦ 미래의 공업 |
| | 상업 | | 4 | <사무 관리> ◦ 경영 정보 시스템과 사무 자동화 ◦ 계산과 컴퓨터의 활용 ◦ 컴퓨터의 활용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독립 과목인 정보 산업이 선택 과목으로 도입되어 정보의 의미와 정보 산업의 개념을 이해하고, 컴퓨터의 구성과 원리를 간단히 학습한 후 프로그래밍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학습하도록 하였다. 또, 정보 통신의 개념과 통신 매체, 정보 통신의 원리 및 컴퓨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기술 교과서에서는 산업 사회에서 컴퓨터가 활용되는 사례와 컴퓨터의 구성과 원리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표 1】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컴퓨터 관련 내용이다.

4. 제6차 교육과정

1992년 9월에 개정,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에 컴퓨터 관리 및 글쓰기 내용이 포함되어 중학교 컴퓨터 교과와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학교 재량 시간에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에 대한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1호)은 1995년도부터 적용되었는데, 중학교의 필수 교과인 기술·산업 교과에 컴퓨터 단원을 포함시켜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기본적인 이론과 활용을 학습하여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였으며, 선택 교과에 정보 관련 독립 과목으로 컴퓨터를 신설하여 본격적인 정보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컴퓨터 교과는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를 이해하고 자판과 운영체제를 다루는 방법을 익혀서 문서의 작성과 전자 계산표의 작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응용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생활 속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분야와 컴퓨터 통신, 컴퓨터와 관계되는 직업 및 컴퓨터의 윤리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과의 ‘기술’에 ‘정보 통신’ 단원이, ‘상업’에 ‘컴퓨터’ 단원이 포함되었고, 제5차 교육과정과 같이 단독 교과로는 ‘정보 산업’이 유지되었다. 【표 2】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컴퓨터 교과에 대한 내용이다.

【표 2】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컴퓨터 교과의 내용

| 영역 | | 내용 |
|------------|------------------|--|
| I. 컴퓨터의 이해 | 1. 컴퓨터란 무엇인가? | (1) 컴퓨터의 뜻 (2) 컴퓨터의 역사 (3) 컴퓨터의 특성 |
| | 2. 하드웨어의 구성과 기능 | (1) 하드웨어의 뜻 (2) 하드웨어의 기본 구성 (3) 하드웨어의 기능 |
| | 3.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종류 | (1) 소프트웨어의 뜻 (2) 소프트웨어의 특성 (3) 소프트웨어의 종류 |

| 영역 | | 내용 |
|------------------|-----------------|--|
| II. 컴퓨터 다루기 | 1. 컴퓨터의 설치와 가동 | (1) 컴퓨터의 설치 (2) 컴퓨터의 기동과 종료 |
| | 2. 컴퓨터 자판 다루기 | (1) 자판의 구성과 기능 (2) 자판 다루기 |
| | 3. 운영체제 익히기 | (1) 운영체제의 개요 (2) 디스크 다루기 (3) 파일 다루기 (4) 디렉터리 다루기 |
| III. 응용 프로그램의 활용 | 1. 문서 작성 | (1) 문서 처리 프로그램의 개요 (2) 문서 파일 다루기 (3) 문서의 입력 (4) 문서의 편집 (5) 문서의 인쇄 |
| | 2. 전자 계산표의 작성 | (1) 표 계산 프로그램의 개요 (2) 전자 계산표의 작성 과정 (3) 전자 계산표의 작성 화면 (4) 전자 계산표 만들기 (5) 전자 계산표의 인쇄 (6) 그래프 그리기 |
| | 3. 재미있는 응용 프로그램 | (1) 도형 작성 (2) 자료 관리 (3) 컴퓨터 보조 학습 |
| IV. 프로그래밍의 이해 | 1. 프로그램의 뜻 | (1) 프로그램의 뜻 (2)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3) 프로그래밍의 절차 |
| | 2. 순서도 그리기 | (1) 순서도의 뜻과 중요성 (2) 순서도 그리는 방법 (3) 순서도의 종류 |
| | 3. 프로그램의 작성 | (1) 베이직의 기초 (2) 자료의 입출력 (3) 분기와 반복 실행 |
| V. 컴퓨터와 생활 | 1. 컴퓨터의 이용 | (1) 사무 처리 분야 (2) 생산 분야 (3) 가정생활 분야 |
| | 2. 컴퓨터와 통신 | (1) PC 통신 (2) 근거리 통신 (3) 종합 정보 통신 |
| | 3. 컴퓨터와 직업의 세계 | (1) 컴퓨터와 직업 사회의 종류 (2)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의 종류 |
| | 4. 컴퓨터와 윤리 | (1) 사생활 보호 (2) 저작권 보호 (3) 물자의 절약 (4) 건강 보호 |

5. 제7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공포되었으며, 중학교는 2001년 1학년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2002년에는 2학년, 2003년에는 3학년까지 적용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모든 교과와 학습 활동에 정보 기술을 활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초·중등학교 약 20여 개의 과목에서 각론에 정보 기술 활용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정보 교육이 독립된 기술 교육으로부터 모든 교과와 학습 도구로써 흡수되어 통합된 생활 교육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컴퓨터 과목은 프로그램 등의 정보 처리 기술에 관한 내용 대신에 정보화 사회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내용으로 체험적 학습을 통하여 익힌 것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수준별 학습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표 3】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컴퓨터 과목에 설정된 내용이다.

【표 3】 제7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컴퓨터 과목의 내용

| 영역 | | 내용 | |
|----------------|----------------|---------------------------------|----------------------------------|
| I. 인간과 컴퓨터 | 1. 컴퓨터의 발달 | (1) 컴퓨터의 탄생 (3)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 (2) 컴퓨터의 변천 과정 |
| | 2. 컴퓨터와 인간 생활 | (1) 사회 발달과 정보 처리 (3) 컴퓨터와 윤리 | (2) 정보화 사회와 컴퓨터 |
| | 3. 컴퓨터와 일 | (1) 직업의 이동 (3) 컴퓨터의 활용 | (2) 정보 산업과 직업 |
| II. 컴퓨터의 기초 | 1. 컴퓨터의 구성과 조작 | (1) 하드웨어 (3) 운영체제 다루기 | (2) 소프트웨어 |
| | 2. 소프트웨어의 구성 | (1) 시스템 소프트웨어 (3) 유틸리티 | (2) 응용 소프트웨어 |
| III. 워드 프로세서 | 1. 문서의 작성 | (1) 메뉴 사용 방법 (3) 문서의 입출력과 저장 | (2) 도구의 사용 방법 |
| | 2. 문서의 편집 | (1) 문서의 수정 (3) 문서의 꾸밈 | (2) 복사와 오려붙이기 |
| | 3. 그림 그리기 | (1) 그림 도구의 사용 (3) 객체 편집 | (2) 직선과 도형 그리기 |
| | 4. 표 작성 | (1) 표 만들기 (3) 자료 입력과 계산 | (2) 표의 편집 |
| IV. PC 통신과 인터넷 | 1. PC 통신 활용 | (1) PC 통신의 개념 (3) 정보 찾기 | (2) 통신 예절 (4) 전자 우편 |
| | 2. 인터넷의 활용 | (1) 인터넷의 개념 (3) 전자 우편 | (2) 정보 찾기와 활용 (4) 가족 홈페이지 만들기 |

| 영역 | | 내용 |
|----------|--------------|--|
| V. 멀티미디어 | 1. 소리 자료 만들기 | (1) 소리의 녹음과 재생 (2) 소리 자료의 편집 (3) 효과음 발생 |
| | 2. 그림 자료 만들기 | (1) 그림 자료 입력과 저장 (2) 그래픽 프로그램 (3) 그림 그리기와 편집 |
| | 3. 멀티미디어 제작 | (1) 명함 만들기 (2) 학급 신문 만들기 |

6.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07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 호로 공포되었으며, 중학교는 2010년 1학년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2011년 2학년, 2012년에는 3학년까지 각각 적용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 관련 과목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과목의 성격이나 목표, 교과 내용의 연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학교 급별 과목 명칭을 ‘정보’로 통일하여 변경하였다.

컴퓨터의 도구적 활용 뿐 아니라, 정보 과학과 기술의 원리와 이해 증진을 통해 지식·정보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응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기능 교육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정보 윤리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였다. 초등학교 정보 관련 과목에서 선행 학습한 내용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도록 구성하되, 선택 과목이라는 특성 때문에 선수 내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자율 학습, 가정 학습 등을 통하여 선수 학습 내용을 학습하도록 지도하고, 선수 내용을 이수한 학생이 중복하여 같은 내용을 학습하지 않도록 하였다. 영역별 내용 요소는 3개 학년에 걸쳐 지도할 수 있도록 3개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4】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정보 과목에 설정된 내용이다.

【표 4】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정보 과목의 내용

| 영역 | 내 용 요 소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 ○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 컴퓨터의 구성요소 · 컴퓨터의 동작원리 | ○ 운영체제의 이해 · 운영체제의 원리 · 운영체제의 기능 · 운영체제의 종류와 활용 | ○ 네트워크의 이해 · 네트워크의 개념 ·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와 동작 방식 · 네트워크 서비스 |
| 정보의 표현과 관리 | ○ 정보와 자료구조 · 정보와 자료의 개념 · 정보의 유형과 표현 · 자료구조의 유형 ○ 자료의 표현과 연산 · 이진수와 이진연산 · 이진코드 | ○ 선형 구조 · 선형 구조의 개념 · 배열의 개념 ○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 · 그림 및 사진의 표현 · 소리의 표현 | ○ 선형 구조 · 스택의 개념과 연산 · 큐의 개념과 연산 · 리스트의 개념 ○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 · 동영상의 표현 |
|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 ○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 · 문제의 분석과 표현 · 문제 해결 과정 ○ 프로그래밍의 기초 · 변수의 개념과 활용 · 자료의 입력과 출력 · 제어문의 이해 | ○ 알고리즘의 개요 · 알고리즘의 이해 · 알고리즘의 표현 ○ 알고리즘의 실제 · 알고리즘의 설계 · 알고리즘의 분석 · 알고리즘의 구현 | ○ 자료의 정렬 · 자료의 정렬 방법 · 정렬 알고리즘의 구현 ○ 자료의 탐색 · 자료의 탐색 방법 · 탐색 알고리즘의 구현 |
|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 ○ 정보 사회와 윤리 · 정보 사회의 역기능과 대책 · 개인 정보 보호 ○ 정보의 수집과 전달 · 정보의 수집과 가공 · 정보의 전달 | ○ 정보의 공유와 보호 · 정보의 공유와 관리 · 정보 보호 기술과 지적 재산권 ○ 웹 문서의 작성 · 웹 문서의 이해 · 웹 문서의 편집 | ○ 정보 기술과 산업 · 정보 기술의 변화 · 정보 산업의 미래 ○ 멀티미디어 정보의 가공 · 애니메이션의 제작 · 동영상의 가공 |

Ⅲ. 정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2007년 개정 중학교 정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은 제7차 컴퓨터 관련 교과 선택 과목(중학교 컴퓨터, 고등학교 정보 사회와 컴퓨터)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개선 및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정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교과의 정체성, 연계성, 계열성을 강화하고, 교양 교육으로서의 보통 교과 성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선택 과목의 명칭을 변경
- 둘째, 응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기능 교육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강화
- 셋째, 최저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그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
- 넷째, 교수·학습 및 평가 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교과재량활동 I 교육과정 문서 체제에 제시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의 정보 관련 과목 명칭을 살펴보면, 중학교 선택 과목명은 ‘컴퓨터’, 고등학교 선택 과목명은 ‘정보 사회와 컴퓨터’로 되어 있다. 학교 급별로 정보 관련 교육 내용을 다루면서도 과목 명칭이 각기 달라 과목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과목의 연계성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 관련 교육에 대한 학문적 체계의 재정립을 위해서 과목 명칭을 ‘정보’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과목 명칭은 교사 양성 체제와 같은 행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울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보 과목의 성격, 목표, 영역 명칭, 영역 수를 동일하게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중학교 ‘컴퓨터’ 교육과정 내용 영역은 중학교 컴퓨터는 인간과 컴퓨터, 컴퓨터의 기초, 워드 프로세서, PC 통신과 인터넷, 멀티미디어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 컴퓨터의 단순 도구적 활용에 많은 내용이 편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정보의 표현과 관리,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등의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셋째, 컴퓨터의 도구적 활용뿐 아니라, 정보 과학과 정보 기술에 대한 원리의 이해 증진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내용을 선정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게

재조직하였다. ‘정보’ 과목의 목표는 정보 처리의 기본 원리와 올바른 정보 활용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표현하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 과목의 영역 내용을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정보의 표현과 관리’,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로 선정하여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3개 학년에 걸쳐 지도할 수 있도록 3단계로 구성하였다.

넷째, 새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 방법의 계획’에 관한 내용,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내용, ‘교수·학습 자료 및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평가는 ‘평가 계획’, ‘평가 목표와 방법’, ‘평가의 활용’으로 구분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중학교의 교과재량 활동 교육과정 문서 체제에 실현 가능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IV. 정보 과목 교육과정 해설

1. 성 격

‘정보’는 지식·정보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 과학과 정보 기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및 활용을 통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중학교 ‘정보’는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이수한 컴퓨터 관련 기초·기본 교육을 바탕으로 7~9학년에서 이수하며, 10~12학년의 보통 교과와 ‘정보’ 과목 및 전문 교과와 정보·컴퓨터 관련 과목의 선수 과목으로서 연계성을 갖는다. ‘정보’ 과목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정보’는 정보 기술의 활용을 통해 미래 지향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의사 결정력 등을 함양시키는 과목이다.

정보 사회는 인간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생산, 제작, 가공, 저장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의 유통을 확산시켜 나가는 활동이 보편화된 사회를 말한다.

정보 과목은 지식 정보 사회에서 가장 높게 요구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기초·기본 교과로서 비판적 사고력 및 판단력, 합리적 의사 결정력의 신장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의 다양한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고, 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이 요구된다.

‘정보’는 정보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고 정보 처리를 위한 기능을 익힘으로써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과목이다.

학생들이 ‘정보’ 과목 학습을 통하여 정보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습득하고 기능을 익혀,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및 문제의 표현과 해석 과정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며,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 활동 및 경험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정보’는 정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다.

정보 사회에서 지식은 생명 주기가 짧고, 새로운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유통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성된 많은 정보는 개인에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보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정보 사회에서는 많은 정보 중에서 정보의 질을 바르게 평가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정보 과목은 이러한 정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적절한 형태의 정보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정보’는 정보 기기의 다양한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다.

컴퓨터는 정보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사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정보 기기의 발달은 정보 사회의 발전을 가속시켜 왔다.

정보 과목은 이러한 정보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보 기기의 다양한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신장시켜준다.

‘정보’는 정보 사회의 일원으로 갖추어야 될 정보 윤리,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고취시키는 과목이다.

정보 사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이 제공하는 익명성과 접근 용이성 때문에 여러가지 역기능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보 사회의 특징과 정보 보호 그리고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과목은 올바른 정보 윤리 의식을 가지고 정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길러준다.

2. 목 표

중학교 정보 과목의 목표는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로 구분되고, 컴퓨터 활용 교육뿐만 아니

라 정보 과학 교육을 지향한다. 정보 과목의 목표는 컴퓨터 과학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정보 처리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며,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이 정보 윤리와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정보 과목의 각 영역별 목표는 【표 5】와 같다.

【표 5】 정보 과목의 영역별 목표

| 영역 | | 내용 |
|---------------|--------------|--|
|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와 역할을 이해하며, 컴퓨터의 동작에 있어서 운영체제가 필요한 이유와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
| | 운영체제의 이해 | 운영체제의 원리와 기능,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하여 활용 분야에 대해 이해한다. |
| | 네트워크의 이해 | 네트워크의 개념을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와 역할, 데이터 전송 방식, 나아가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능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살펴본다. |
| 정보의 표현과 관리 | 정보와 자료구조 | 정보와 자료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의 유형과 표현 방법을 익히며, 컴퓨터에서 다루는 자료구조의 유형을 구분하고 적합한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
| | 자료의 표현과 연산 | 이진수의 개념과 특성, 이진연산의 원리와 방법을 익히고, 이진 코드에 대해 이해한다. |
| | 선형 구조 | 선형 구조에 대한 개념과 배열의 개념을 이해하고 각각의 표현 방법을 익힌다. |
| |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 | 화소와 해상도의 의미를 알고 소리 정보의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
| | 선형 구조 | 스택, 큐, 리스트의 구조를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각각의 자료 처리 방법을 익힌다. |
| |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 | 동영상의 구성요소를 알고, 동영상 정보의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

| 영역 | | 내용 |
|-----------------|--------------|--|
|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 | 여러 가지 문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한 후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설계한다. |
| | 프로그래밍의 기초 | 변수의 개념, 자료 입출력, 조건문과 반복문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 | 알고리즘의 개요 |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힌다. |
| | 알고리즘의 실제 | 알고리즘 분석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 및 구현한다. |
| | 자료의 정렬 |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의 정렬 문제를 해결한다. |
| | 자료의 탐색 | 여러 가지 탐색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의 탐색 문제를 해결한다. |
|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 정보 사회와 윤리 | 정보 윤리의 중요성과 정보 보호 기술을 이해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
| | 정보의 수집과 전달 |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여 수집하고 유용한 형태로 구성하여 정보 수요층에게 전달한다. |
| | 정보의 공유와 보호 | 정보 사회에서 개인 및 단체의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 | 웹 문서의 작성 | 웹 문서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적용하여 웹 문서를 편집해 본다. |
| | 정보 기술과 산업 | 과거와 현재의 정보 사회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 사회에 발전할 정보 기술들을 살펴본다. |
| | 멀티미디어 정보의 가공 | 애니메이션, 동영상의 구성 요소와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한 편집 및 제작을 할 수 있다. |

가. 총괄 목표

중학교 정보 과목은 정보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 과학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및 활용을 통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그러므로 정보 과목은 정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보 소양 능력을 함양하며 정보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정보 처리의 기본 원리와 올바른 정보 활용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표현하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정보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 소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의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 법칙 등 정보 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수집, 가공,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나. 하위 목표

정보 과목에서 총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의 하위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하위 목표는 정보 과목의 4개 영역에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나타낸다.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원리, 운영체제의 원리와 기능, 네트워크의 이해를 통해 정보 기기를 직접 다루고 조작할 수 있다.

학생들이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원리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여 컴퓨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운영체제의 원리와 기능에 대한 학습을 통해 컴퓨터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반적인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 기기를 직접 다루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구조 및 정보 표현의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표현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표현과 자료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각종 자료들이 구조화되는 원리를 알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표현 방법과 자료구조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실세계의 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보 처리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활 속에 적용된 정보 처리의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이러한 지식의 응용을 통해 생활 속의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 처리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윤리 및 정보의 공유와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며,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정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공유와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적 재산권, 정보 보호 기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지식 정보 사회의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윤리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정보 가공 및 제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정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내 용

정보 과목은 정보 및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과제 및 활동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기능적 활용이나 전문적인 이론 중심의 내용을 지양하고,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 학습, 실습 과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정보 과목은 정보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의 세부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정보 과목의 내용 체제

| 영역 | 학습 내용 | 학습 방법 |
|---------------|-----------------------------|-----------------------|
|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 정보 기기의 개념 및 동작원리 | 이론 및 실습 |
| 정보의 표현과 관리 | 자료구조와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 | 점진적 심화 학습 및 수준별 실습 |
|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실습 | 점진적 심화 학습 및 수준별 실습 |
|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 정보 윤리의 이해와 정보의 수집 및 가공 | 이론 및 수준별 실습 |

각 영역은 【표 7】과 같은 비율로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며,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표 7】 영역별 비율

| 영역 |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 정보의 표현과 관리 |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
|----|------------------|---------------|-----------------|-----------------|
| 비율 | 20% | 30% | 30% | 20% |

가. 영역명 :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영역은 정보 기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함과 더불어 정보 기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스스로 정보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정보 기기의 구성 요소와 그 동작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생활 속에 적용된 정보 처리 관련 문제를 스스로 찾고 응용력을 길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방법을 길러주기 위한 영역이다.

1)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1단계)

- ① 컴퓨터의 구성 요소
- ② 컴퓨터의 동작 원리

◎ 핵심 내용

이 단원은 컴퓨터의 구성 요소와 기능, 동작 원리를 이해하여 컴퓨터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의 구성 요소’에서는 일상생활의 사례나 비유를 통하여 컴퓨터의 용도와 활용 분야를 살펴봄으로써 컴퓨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친숙감을 갖도록 한다.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기능,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게 하며, 하드웨어 구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습이나 관찰을 권장한다. 실습이나 관찰이 어려울 경우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은 보조 학습 자료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다.

‘컴퓨터의 동작 원리’에서는 컴퓨터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드웨어가 동작한다는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실제 경험이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컴퓨터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며, 용도에 따라 적절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기능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는 학습을 권장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2단계의 ‘운영체제의 이해’ 단원과 연계된다. 이 단원에서는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에 대해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기초 능력의 습득이 요구된다. 이 단원에서 습득된 능력을 바탕으로 2단계의 ‘운영체제의 이해’ 단원에서는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 유의 사항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실습이나 관찰을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나 학생들에게 컴퓨터의 동작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의 증진, 컴퓨터의 활용 능력의 향상 등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직접 실습이나 관찰을 권장한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실습이나 관찰을 위해서는 시간과 실습 도구가 필요하므로, 이 단원의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하드웨어의 실습 또는 관찰을 위한 환경과 사용할 소프트웨어들을 미리 준비하고 실습 또는 관찰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습 또는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은 보조 학습 자료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다.

2) 운영체제의 이해(2단계)

- ① 운영체제의 원리
- ② 운영체제의 기능
- ③ 운영체제의 종류와 활용

◎ 핵심 내용

이 단원은 운영체제의 원리와 기능을 이해하고, 운영체제의 종류와 활용에 대해 이해하여 운영체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용도에 따라 적절한 운영체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체제의 원리’에서는 일반적인 운영체제의 개념, 특징을 이해하고, 운영체제와 하드웨어의 관계,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며, 운영체제가 없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실생활의 사례나 비유를 통하여 운영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체제의 기능’에서는 컴퓨터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운영체제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운영체제의 다양한 기능과 활용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므로 가능한 한 운영체제의 기능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습이나 관찰을 권장한다. 실습 또는 관찰이 어려운 경우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은 보조 학습 자료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다.

‘운영체제의 종류와 활용’에서는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 기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운영체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용도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운영체제들 중에 선택하여 기능과 응용 분야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는 활동을 권장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1단계의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단원과 연계되고, 3단계의 ‘네트워크의 이해’ 단원과 연계된다. 이 단원에서는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에 대해 이해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 단원에서 습득된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3단계의 ‘네트워크의 이해’ 단원에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동작 방식, 역할,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의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사용함

으로써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유의 사항

운영체제에 대한 실습이나 관찰을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나 학생들에게 운영체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의 증진, 운영체제를 통한 컴퓨터의 사용 능력의 향상 등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직접 실습이나 관찰을 권장한다. 운영체제에 대한 실습이나 관찰을 위해서는 시간과 실습 도구가 필요하므로, 이 단원의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실습 환경과 운영체제를 미리 준비하고 실습 또는 관찰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습 또는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은 보조 학습 자료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다.

3) 네트워크의 이해(3단계)

- ① 네트워크의 개념
- ②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와 동작 방식
- ③ 네트워크 서비스

◎ 핵심 내용

이 단원은 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와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게 하여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한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의 개념’에서는 네트워크의 개념, 동작에 대해 살펴보고, 컴퓨터와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친숙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와 동작 방식’에서는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송신기, 수신기와 전송 매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가 전송되는 구조와 방법을 이해하게 한다. 네트워크의 올바르게 적절한 활용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실습이나 관찰을 권장한다. 실습이나 관찰이 어려운 경우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은 보조 학습 자료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며, 목적에 따라 적절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해야 함을 이해하게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의 올바르게 적절한 활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보교환, 자원 공유, 원격 제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들(예를 들면, FTP, E-mail 프로그램, 메신저

등)을 선택하여 기능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는 활동을 권장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2단계 ‘운영체제의 이해’ 단원과 연계된다. 이 단원에서는 1단계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단원과 2단계 ‘운영체제의 이해’ 단원에서 습득한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와 동작 방식,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네트워크의 서비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컴퓨터와 더불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유의 사항

네트워크 대한 실습이나 관찰을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나 학생들에게 네트워크의 기능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의 증진, 네트워크 사용을 통한 정보 활용 능력의 향상 등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직접 실습이나 관찰을 권장한다.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실습이나 관찰을 위해서는 시간과 실습 도구가 필요하므로, 이 단원의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네트워크 실습 환경과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미리 준비하고 실습 또는 관찰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습 또는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은 보조 학습 자료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다.

나. 영역명 : 정보의 표현과 관리

정보의 표현과 관리 영역은 실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의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컴퓨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 표현의 원리와 방법을 익히고, 자료구조의 유형과 각 유형별로 구조화하기에 적합한 자료 집합의 특성을 이해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적절한 형태의 자료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 정보와 자료구조(1단계)

- ① 정보와 자료의 개념
- ② 정보의 유형과 표현
- ③ 자료구조의 유형

◎ 핵심 내용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정보와 자료의 개념과 차이점, 자료 처리의 필요성과 과정, 컴퓨터에

서 다루는 자료구조의 유형들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정보와 자료의 개념’은 정보와 자료의 개념 및 차이점,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방법 및 과정,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의 특성 등을 이해함으로써 컴퓨터가 자료 처리의 중요한 도구임을 알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또한 다양한 실생활의 사례들을 통해, 자료 처리의 필요성 및 자료가 처리되어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정보의 유형과 표현’은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별 제시되는 정보의 표현 형태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의 유형들을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정보 기기들을 조사해 봄으로써 컴퓨터가 정보 표현의 주요 도구임을 알고, 정보를 컴퓨터에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 처리하기 위한 표현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자료구조의 유형’은 컴퓨터에서 다루는 자료구조의 다양한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실생활의 사례를 통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료를 처리할 경우 자료의 유형과 수 그리고 필요한 연산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그에 적합한 자료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정보 표현과 관리’ 영역의 2, 3단계 과정에서 학습하는 ‘선형 구조’ 및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의 기초가 된다. 또한,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영역의 1, 2, 3단계 과정과 연계성을 갖는다.

◎ 유의 사항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실생활의 예제와 멀티미디어 자료 사용을 권장한다.

2) 자료의 표현과 연산(1단계)

- ① 이진수와 이진연산
- ② 이진코드

◎ 핵심 내용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이진수의 개념과 특성, 진법 변환 방법 및 이진수의 연산 방법을 익히고 이진코드의 종류와 특성, 코딩 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진수와 이진연산’은 이진수를 십진수로,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기 위한 진법 변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과 이진수의 덧셈과 뺄셈, 이진수의 2의 보수 개념, 2의 보수에 의한 뺄셈 연산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진코드’에서는 사람에게 익숙한 문자를 컴퓨터에서 표현하기 위한 이진코드의 종류와 특성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ASCII 코드, 유니코드 등과 같은 표준 코드가 실제 사용되는 사례를 제시한다. 코딩방식의 차이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표준 코드 체계들을 비교·분석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정보 표현과 관리’ 영역의 2, 3단계 과정에서 학습하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과 연계된다.

◎ 유의 사항

익숙하지 않은 이진수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진 연산 방법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컴퓨터의 자료 표현과 연산을 이해하고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상당한 의의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친숙해질 수 있는 학습 상황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이진 연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준코드들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사례로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선형 구조(2단계)

- ① 선형 구조의 개념
- ② 배열의 개념

◎ 핵심 내용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선형 구조의 개념과 선형 구조로 표현 가능한 자료 집합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배열의 개념을 실생활과 연관시킴으로써, 컴퓨터에 저장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선형 구조의 개념’은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자료구조의 한 유형인 선형 자료구조의 개념과 선형 자료구조에 포함되는 자료구조의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선형 자료구조로 표현될 수 있는 자료 집합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므로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선형 자료구조의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배열의 개념’은 선형 자료구조의 하나인 1, 2차원 배열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배열의 형태로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료 집합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실생활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배열의 저장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 메모리 연속 할당 시 첨자 이용 방법을 익히는 내용을 포함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정보 표현과 관리’ 영역의 3단계 과정에서 학습하는 ‘선형 구조’의 기초가 되며, 아울러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영역의 2, 3단계 과정과 연계성을 갖는다.

◎ 유의 사항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배열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메모리 할당 과정을 설명할 때에는 첨자 이용 방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메모리 주소를 계산해 보도록 유도한다. 이 때, 행우선 순서와 열우선 순서의 사용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2단계)

- ① 그림 및 사진의 표현
- ② 소리의 표현

◎ 핵심 내용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영상 정보와 소리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영상 및 소리 정보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와 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림 및 사진의 표현’은 그림 및 사진과 같은 영상 정보의 표현방식인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의 특성과 장단점, 활용 분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픽셀의 개념과 해상도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해상도가 높을수록 보다 선명한 화질의 그림 및 사진 표현이 가능하나 파일의 용량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소리의 표현’은 진폭, 주파수와 같은 소리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 자료와 디지털 형태의 소리 자료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표준화 및 양자화의 개념과 디지털 소리 정보 표현을 위한 파일 형식(예, WAV 등) 및 소리 압축 기술(예, MP3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1단계 과정에서 학습한 ‘자료의 표현과 연산’ 단원과 연계된다. 1단계에서는 숫자 및 문자 자료의 표현 방법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단원에서는 그림, 사진, 소리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현하는 법을 아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3단계 과정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 단원과 연계된다.

◎ 유의 사항

이 단원은 영상 정보 및 소리 정보에 대한 파일 포맷들의 특성과 차이점을 인식함으로써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품질의 영상 정보와 소리 정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직접 간단한 그림이나 사진의 색상 및 해상도를 조정하거나 파일 형식을 변환해 보는 실습을 통해 영상 품질의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고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디지털 형태의 소리를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선형 구조(3단계)

- ① 스택의 개념과 연산
- ② 큐의 개념과 연산
- ③ 리스트의 개념

◎ 핵심 내용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스택, 큐의 개념과 특성을 실생활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하고 각 자료구조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리스트 자료구조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스택의 개념과 연산’에서는 스택 자료구조 연산의 대표적인 특성인 LIFO의 개념과 스택 자료구조에 자료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스택 자료구조의 응용 분야를 간략히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택 자료구조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스택 자료구조에 저장될 수 있는 자료 집합의 특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큐의 개념과 연산’에서는 큐 자료구조 연산의 대표적인 특성인 FIFO의 개념과 큐 자료구조에 자료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큐 자료구조의 응용 분야를 간략히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큐 자료구조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큐 자료구조에 저장될 수 있는 자료 집합의 특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스트의 개념’은 리스트 자료구조의 개념과 특성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2단계에서 학습한 배열 자료구조와의 비교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연속된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의 구조와 장단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각 구조에 따른 자료 검색 및 삽입, 삭제 방법을 알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은 1, 2단계 과정에서 학습한 ‘자료의 표현과 연산’ 단원 및 ‘선형 구조’ 단원과 연계된다. 1, 2단계의 내용이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선형 구조에 대한 이해를 시작한 기초 단원이었다면, 본 단원은 더욱 다양한 선형 구조의 자료구조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 유의 사항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실생활의 예제와 멀티미디어 자료 사용을 권장한다. 특히 스택 자료구조와 큐 자료구조는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유의하여 설명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한 방법이며, 리스트 자료구조의 경우 2단계에서 학습한 배열 자료구조와의 비교를 권장한다.

6)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3단계)

① 동영상의 표현

◎ 핵심 내용

‘동영상의 표현’은 동영상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고, 동영상 정보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와 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동영상 자료의 표현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고 동영상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를 설명함으로써 이들과 파일 크기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다양한 동영상 파일 형식들의 특성과 차이점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품질의 동영상 정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과 품질의 동영상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권장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1단계 과정의 ‘자료의 표현과 연산’ 단원, 2단계 과정의 ‘멀티미디어 정보

의 표현’ 단원, 3단계 과정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가공’ 단원과 연계된다. 1, 2단계에서는 하나의 그림 또는 사진을 표현하는 방법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에 반해, 이 단원에서는 움직이는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 유의 사항

다양한 형식과 품질의 동영상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본 단원의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단원은 특정한 시기에 전체 내용을 학습하기보다는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영역의 3단계 ‘멀티미디어 정보의 가공’ 단원의 학습을 진행하는 중간에 학습하는 등의 재구성을 권장한다.

다. 영역명 :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영역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보 과학의 관점에서 이해·분석하여,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알고리즘을 설계·구현해 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기본적인 알고리즘과 문제 해결 방법 및 절차를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1단계)

- ① 문제의 분석과 표현
- ② 문제 해결 과정

◎ 핵심 내용

이 단원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분석하여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해 보고, 기본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다.

‘문제의 분석과 표현’은 제시된 문제를 분석하여 문제의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를 결정하고,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분석한 문제를 말, 글, 기호 등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문제 해결 과정’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일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알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한 후,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문제 해결 방법을 설계하고 비교해 보는 활동을 권장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1단계의 ‘정보와 자료구조’ 단원, 2단계의 ‘알고리즘의 개요’ 및 ‘알고리즘의 실제’ 단원과 연계된다. 이 단원의 내용에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제시할 때에는 나선형 방식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제시한다.

◎ 유의 사항

이 영역은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여 문제의 결과 값을 찾는 데 치중하기 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학생들에게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을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2) 프로그래밍의 기초(1단계)

- ① 변수의 개념과 활용
- ② 자료의 입력과 출력
- ③ 제어문의 이해

◎ 핵심 내용

이 단원은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입출력 자료를 구성하고 필요한 변수를 선언하여 제어문을 이용해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변수의 개념과 활용’은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올바른 전문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법을 익히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숫자와 문자를 포함해 컴퓨터에 저장되는 자료의 형태를 이해하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다루기 위한 변수의 유형 및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여, 연산에서 실행된 것들을 포함한 상수, 변수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한다.

‘자료의 입력과 출력’은 문자, 숫자, 문자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 입출력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고, 상수, 변수와 수식을 이용하여 입력 자료에 따른 출력 자료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주어진 문제에서 필요한 입력 자료와 출력 자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설계에 따르는 입력과 출력 명령문을 작성해 보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제어문의 이해’에서는 반복과 조건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반복문과 조건문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한다. 반복문과 조건문을 이용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기 위한 내용으로, 둘 이상의 선택을 포함하는 조건문과 유한 반복문을 사용하여 의사코드로 표현해 보거나, 프로그

램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 설계에 따르기 위한 적당한 순차, 조건, 반복문을 선택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어문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제시하여 의사코드로 표현해 보거나,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보도록 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1단계의 ‘자료의 표현과 연산’ 단원, 2단계의 ‘선형 구조’ 단원 및 ‘알고리즘의 실제’ 단원과 연계된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해 문법이 간결하고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여 인지적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 유의 사항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예제를 교과서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문법이 쉽고 간결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용을 권장한다. 그리고 이 단원은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래밍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3) 알고리즘의 개요(2단계)

- ① 알고리즘의 이해
- ② 알고리즘의 표현

◎ 핵심 내용

이 단원에서는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알고리즘 표현 방법 및 요건 등을 이해하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로 알고리즘을 표현해 보도록 한다.

‘알고리즘의 이해’는 다양한 의사 전달 방법(사람 대 사람, 사람 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입력, 출력, 유한성, 명확성, 수행 가능성과 같은 알고리즘의 요건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알고리즘의 표현’은 문제 해결 과정인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자연어, 순서도, 의사코드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익히고, 해당 알고리즘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해 보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다양하게 표현한 방법 중 문제 해결 과정을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은 1단계의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 단원, 3단계의 ‘자료의 정렬’ 단원 및 ‘자료의 탐색’ 단원과 연계된다. 1단계의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 단원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 단원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 여러 가지 방법의 형태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 유의 사항

다양한 실생활의 문제와 현상을 협력 학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알고리즘의 실제(2단계)

- ① 알고리즘의 설계
- ② 알고리즘의 분석
- ③ 알고리즘의 구현

◎ 핵심 내용

이 단원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알고리즘의 설계’에서는 문제의 입력값에 따른 올바른 출력값을 산출하기 위한 단계들을 명확히 도출할 수 있도록, 활동이나 프로그램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알고리즘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방법 중 문제 해결 과정을 절차적으로 표현하는데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다.

‘알고리즘의 분석’에서는 알고리즘을 왜 분석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알고리즘 분석 기준을 알아, 분석 기준에 따른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계산해 보도록 한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알고리즘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알고리즘의 구현’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활동이나 프로그램 작성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해 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은 1단계의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 단원 및 ‘프로그래밍의 기초’ 단원, 2단계의 ‘알고리즘의 개요’ 단원과 연계된다. 또한 3단계의 ‘자료의 정렬’ 단원 및 ‘자료의 탐색’ 단원과 연계된다. 이 단원에서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 유의 사항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나 학생들에게 컴퓨터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의 증진 등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컴퓨터를 사용한 직접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 단원의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구현 방법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준비한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단원은 1단계의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등의 재구성을 권장한다.

5) 자료의 정렬(3단계)

- ① 자료의 정렬방법
- ② 정렬 알고리즘의 구현

◎ 핵심 내용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을 이해하도록 하고, 실생활에서 정렬이 필요한 경우를 찾아 의사코드로 표현하거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하여, 그 과정에서 터득한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자료의 정렬 방법’에서는 정렬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다양한 정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실생활의 예를 다양한 정렬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서, 정렬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 실생활의 예를 통해 정렬의 효율성과 적용 조건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정렬 알고리즘의 구현’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렬이 필요한 경우를 찾아 보고,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문제의 자료를 정렬하는 절차를 활동이나 프로그램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해 보도록 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에서는 2단계의 ‘알고리즘의 개요’ 단원, ‘알고리즘의 실제’ 단원, 3단계의 ‘선형 구조’ 단원과 연계된다. ‘알고리즘의 개요’와 ‘알고리즘의 실제’ 내용을 학습한 후, 문제의 자료를 정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 유의 사항

이 영역은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정렬 문제를 제시하여 문제의 결과 값을 찾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자료 정렬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학생들에게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자료의 탐색(3단계)

- ① 자료의 탐색 방법
- ② 탐색 알고리즘의 구현

◎ 핵심 내용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탐색 알고리즘을 이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터득한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자료의 탐색 방법’은 탐색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다양한 자료 탐색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실생활의 예를 다양한 탐색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서, 탐색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 실생활의 예를 통해 탐색의 효율성과 적용 조건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탐색 알고리즘의 구현’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탐색이 필요한 경우를 찾아 보고,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문제의 자료를 탐색하는 절차를 활동이나 프로그램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해 보도록 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에서는 2단계의 ‘알고리즘의 개요’ 단원, ‘알고리즘의 실제’ 단원, 3단계의 ‘선형 구조’ 단원과 연계된다. ‘알고리즘의 개요’와 ‘알고리즘의 실제’ 내용을 학습한 후, 문제의 자료를 탐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 유의 사항

이 단원은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탐색 문제를 제시하여 문제의 결과 값을 찾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자료 탐색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학생들에게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영역명 :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영역의 내용은 정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보 윤리, 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등에 관한 이해를 통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건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올바른 태도를 갖추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효과적인 정보의 수집과 전달, 웹 문서 작성, 멀티미디어 정보의 가공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정보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정보 사회와 윤리(1단계)

- ① 정보 사회의 역기능과 대책
- ② 개인 정보 보호

◎ 핵심 내용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과 그에 대한 대책을 이해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정보 사회의 역기능과 대책’은 정보 사회는 인간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였지만, 역기능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안을 이해하여 정보 사회 역기능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추기 위한 내용이다.

‘개인 정보 보호’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매매, 금융 결제 등과 같은 경제 활동이 일반화되고, 사이버상에서의 사회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게 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기술을 이해하여 자신과 타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2단계의 ‘정보의 공유와 보호’ 단원과 연계성을 갖는다.

◎ 유의 사항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 프로그램, 각종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방, 개인 정보 유출 및 도용 등은 사회와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

칠 수 있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 사회의 역기능,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유형 등을 조사하거나, 발표하게 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깨닫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정보 보호 기술인 경우 전문적인 정보 보호 기술에 대한 이해보다는 비밀 번호, 인적사항 등의 기초적인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한 기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2) 정보의 수집과 전달(1단계)

- ① 정보의 수집과 가공
- ② 정보의 전달

◎ 핵심 내용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방대한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그 정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정보의 수집과 가공’은 정보 검색에 사용되는 논리연산자, 키워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일반 문서, 발표형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해 보기 위한 내용이다.

‘정보의 전달’은 저장매체를 이용한 전달 방법,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이메일이나 개인 간 메세징 기능을 이용한 방법 등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2단계의 ‘웹 문서의 작성’ 단원과 3단계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가공’ 단원과 연계성을 갖는다.

◎ 유의 사항

많은 정보보다는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며, 검색 방법에 따라서 정보 수집 효율이 달라짐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집한 정보를 보고서, 발표용 문서 등, 용도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해 보고, 정보에 적합한 전달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경험을 해 볼 것을 권장한다.

3) 정보의 보호와 공유(2단계)

- ① 정보의 공유와 관리
- ② 정보 보호 기술과 지적 재산권

◎ 핵심 내용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공유된 정보,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정보의 공유와 관리’는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서 인터넷상에 공유되어 있는 정보들도 보호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이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갖추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공유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적절히 관리되고 보호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정보 보호 기술과 지적 재산권’에서는 정보 보호 기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음악, 영상,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에 관련된 지적 재산권의 의미와 종류를 이해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은 1단계의 ‘정보 사회와 윤리’ 단원, ‘정보의 수집과 전달’ 단원과 연계성을 갖는다.

◎ 유의사항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 또한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무형의 지적 재산권도 유형의 재산과 같이 중요한 재산임을 인식시키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한다.

4) 웹 문서의 작성(2단계)

- ① 웹 문서의 이해
- ② 웹 문서의 편집

◎ 핵심 내용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웹 문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적절

히 웹 문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알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적용하여 웹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을 포함한다.

‘웹 문서의 이해’는 웹 문서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이해하여 텍스트,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다른 웹 문서와 연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웹 문서의 편집’은 웹 문서의 스타일과 관련된 태그나 속성을 적용함으로써 웹 문서가 보이는 외양이 달라짐을 이해하는 내용이다.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고, 글자색, 글꼴 등의 스타일을 변경함으로써 웹 문서의 외양을 변경할 수 있고, 나열식, 표 형식 등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 문서 스타일을 적용하여 편집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3단계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가공’ 단원과 연계성을 갖는다.

◎ 유의 사항

웹 문서 편집 시 간단한 문서 스타일을 적용함으로써 웹 문서 전체의 글꼴색이나 크기 등을 손쉽게 바꿀 수 있음을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스타일을 문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 문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스타일 적용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웹 문서 작성 및 편집 예제를 교과서에 명시해서는 안 되며, 실습을 할 경우에도 단순한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하여 함으로써 웹 문서의 근본적인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5) 정보 기술과 산업(3단계)

- ① 정보 기술의 변화
- ② 정보 산업의 미래

◎ 핵심 내용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정보 기술의 빠른 변화에 따른 과거와 현재의 사회 모습을 살펴보고, 정보 산업의 미래 모습, 미래의 정보 기술들을 예측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정보 기술의 변화’는 최근 정보 기술의 응용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정보 기술의 변천 과정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사회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정보 산업의 미래’는 앞으로 발전하게 될 정보 산업의 미래 모습과 미래 사회의 정보 기술을 예측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미래의 정보 기술은 정보 과목 전 영역의 요소 기술들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정보 과목의 전 영역과 연계가 된다.

◎ 유의사항

현재까지의 정보 기술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므로, 과거의 사회 모습과 현재 사회 모습을 비교했을 때 대표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정보 기술 위주로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리 있는 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사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검색하고 주문하여 물건을 사는 것 등이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다.

6) 멀티미디어 정보의 가공(3단계)

- ① 애니메이션의 제작
- ② 동영상의 가공

◎ 핵심 내용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대표적인 멀티미디어 정보인 애니메이션과 동영상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과 동영상을 제작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애니메이션의 제작’은 그림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플립북 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의 동작 원리와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XML 그래픽 언어나 도구를 이용하여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동영상의 가공’은 동영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동영상 편집기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동영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 내거나, 잘라 낸 동영상들을 이어 붙여 재구성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동영상 편집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동영상 파일 포맷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 내용의 연계성과 수준

이 단원의 내용은 2단계와 3단계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 단원과 연계된다. 프레임, 초당

프레임 수 등의 용어는 애니메이션과 동영상에 공통적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동영상은 영상과 소리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유의사항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동영상의 가공 등은 2, 3단계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 단원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애니메이션 제작과 동영상 가공 실습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VG(scalable vector graphics)와 같은 인터넷 표준 XML 그래픽 언어를 이용하면 간단한 텍스트 에디터만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하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세부 기능 중심의 이해를 지양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용 프리웨어를 이용하여 원리 중심으로 실습할 것을 권장한다. 동영상의 가공은 프리웨어를 이용하여 동영상 오리기, 이어 붙이기 등의 내용을 간단한 원리 위주로 실습할 것을 권장한다.

4. 교수·학습 방법

정보 과목은 다양한 소재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한 과제 중심의 체험 학습과 수준별 개별 선택 학습 체제가 도입되었고, 범교과 학습에서 정보 기술 활용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이 교과서의 개발 및 현장의 교수·학습 운영 시에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 과목의 특성

정보 과목은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으로 운용되므로 과목의 선택 여부, 배당 시간, 배당 시간에 따른 교육 내용, 수업 자료, 특히 응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종류 등과 같은 컴퓨터 운영상의 주요 결정 사항이 실질적으로 단위 학교 또는 컴퓨터 지도 교사에 위임되어 있다.

또한 정보 과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물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정보 과목을 담당할 전문성을 갖춘 지도교사, 실습 활동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필요로 한다. 정보 교과와 실질적인 운영은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정보 과목이 타 교과목과 비교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정보 과목의 중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드웨어 장비를 포함하여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지역 또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정보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학교가 확보하고 있는 하드웨어의 규격과 성능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소프트웨어 사양의 이질성을 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사용 목적, 과제 특성, 개발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같은 명칭의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버전(version)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관련한 정보 과목의 교육 내용을 국가가 제시하는 표준화에 기초한 획일화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도구적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개발이나 지식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요컨대 실질적인 학습 경험 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특정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보 과목 내용의 원리를 익히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습을 하기보다는 교과 내용이 담고 있는 원리나 지식의 정확한 학습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학습 방법도 병행하도록 한다.

셋째, 교사 재교육 및 신규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정과 연계하여, 교사가 정보 과목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서의 명칭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다. 컴퓨터 과학에 대한 교과 내용학적 교사 재교육의 문제와 이에 맞는 교사의 양성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의 문제는 현행 교육과정이 ‘컴퓨터의 도구적 활용’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담하던 교사의 재교육문제와 신규 교사의 양성 문제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고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각 학생별 정보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에 대한 소양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특성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각 학교 급간의 정보 교육의 계속성과 연관된 문제이다. 각 학교 급에서의 정보 교육과 관련한 과목이 제량 활동 및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특정 학교 급의 특정 학년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선수 능력이 매우 큰 폭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 과목의 수업 조직은 타 교과목에서의 수업 조직에 비하여 특성에 대한 차별적 고려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다섯째, 관련 학문의 급속한 발전 또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정보 과목의 모 학문에 해당하는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과 소프트웨어 공학(software engineering)이라는 학문은 수학이나 물리 등의 학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앞에서 살펴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과정 체제는 대략 5년 주기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 기술의 변화 주기는 이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또한 비교적 그 변화가 완만한 컴퓨터 과학의 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정보 과목은 범 교과의 정보활동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교과라는 점이다. 이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일부 고려되었으나,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에 정보활동을 강

화하고 있고 타 교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보 기술을 고려하여 범교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기본 교과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도록 한다.

끝으로, 정보 처리 능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정보 과목의 중요성은 더욱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보 과목은 재량 활동의 선택 교과 형태로 운영되는 있으며, 모든 학습자에게 선택하여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다. 정보 과목의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비록 재량 활동의 선택 교과로 운영되지만 필수 선택하여 교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과목 운영의 중점

1) 자율 재량권의 추구

지도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 과목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첫째 전제는 과목 운영에 대한 종래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 과목 운영에 대한 많은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도 교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지도 교사는 소속 학교의 운영 여건,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필요, 동료 교직원, 특히 학문과 교사와의 이해관계, 학교의 경영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 과목의 운영에 대한 올바른 의사 결정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지도 목표, 내용, 자료 등의 재구성과 재조직 등의 수업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지도 교사의 몫이므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책임과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종래의 인식과 접근으로 불가능하므로, 보다 자율적, 창의적, 전문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정보 과목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은 정보 교과서에 충실하도록 한다. 다만 실습을 위한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는 단위 학교의 실정과 교과를 운영하는 지도 교사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선정·조직될 수 있도록 한다.

2) 운영 형태의 다양성 추구

정보 과목의 운영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최소 34시간에서 204시간까지의 이수 시간별 유형 여섯 가지와 이수 시기 3개 학년의 세 가지 조합으로 생겨나는 기본적인 운영 형태만도 18가지이다. 이수 시간이나 시기 이외에도 클럽 활동 조직과 같은 학생 개별 희망에 따른 학습 조직이나, 정보 관련 소양에 대한 선수 학습 능력별 학습 조직 방법 등을 가미하면 정보 과목의 운영 형태는 훨씬 다양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 형태의 다양성 정도가 높을수록 컴퓨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종래의 획일적인 형태, 다른 학교의 형태 등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학교, 내 학급, 내 학생의 여건, 요구, 필요 등에 알맞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교과 운영 형태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정보 교육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최소 기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 학기에 최소 1단위 이상의 시수를 고정 확보하고 나머지 교과를 선택·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교육 내용의 재조직 및 탄력적 운영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용 도서의 내용과 분량은 102시간을 이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예시적인 안에 불과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앞부분에서 논의한 컴퓨터 과목의 특수성에 비추어, 컴퓨터 과목의 내용은 이수 시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수량과 규격, 학습 조직 등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운영 형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재조직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그 범위가 깊이, 지도 순서 등도 조정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시수·편제는 교육 내용에 의존적이다. 물론 현장에서는 시수·편제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교육 내용을 편제에 맞추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지도 교사는 교육 내용(학습 경험)을 정보 과목의 본질과 방향에 맞게 선정·조직·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과목이 지향하는 교육 내용의 큰 방향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의 구성과 재구성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재조직하고 탄력적인 교과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학습 운용의 중점

정보 과목의 교육 내용에 따른 주요 학습 운용은 다음의 주안점에 있다. 첫째,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원리, 운영체제의 원리와 기능, 네트워크의 이해를 통해 학습자가 직접 정보 기기를 다루고 조작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둘째, 자료구조 및 정보 표현의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표현하고 구조화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셋째,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보 처리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넷째, 정보 윤리 및 정보의 공유와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며,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또한 실질적인 교수·학습에서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학습 내용이 획일적이고 수준에 맞지 않아 지루한 느낌을 가지게 되어 학습 흥미를 잃게 되므로 수준이 낮은 학생을 도와주

게 하거나 별도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수준이 높은 학생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혹은 방법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에서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는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 자료 및 교육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충분한 보충 학습을 마친 학생의 경우 심화된 교육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 내용의 경우 실습이 단절되지 않도록 충분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또한 실습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교과 내용이 담고 있는 기초·기본의 원리나 지식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운용을 한다. 실습을 할 때도 반드시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교과 내용이 담고 있는 원리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 과제 해결 지도

학습 시간에 실습을 통하여 익힌 내용은 복습할 수 있는 내용의 과제를 제시하고 반드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체험을 통하여 숙달하고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과제는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고,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수준이 낮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모자라는 학생은 수준이 높은 학생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자기 스스로 조작하여 완성함으로써 얻는 성취감을 가지도록 해 주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음 학습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면서 유사 문제를 통한 반복적 실습을 통하여 숙달되도록 지도한다.

또, 수준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을 줄이고 서로 돕고 토론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팀별 공통 과제를 부여한다. 어떤 과제를 학생이 해결하였을 때 완성된 결과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처리 과정도 함께 검증하여 올바르게 익혔는지를 검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지도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 주며, 결과가 틀리더라도 처리가 잘못된 부분부터 지도하여 결과를 완성할 수 있게 한다.

마. 수준별 지도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수준별 학습이다. 학습의 결과는 개인차와 환경에 따라 성취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 교육은 특히 개인별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과목 중의 하나이다.

실질적인 교수·학습에서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학습 내용이 획일적이고 수준에 맞

지 않아 지루한 느낌을 가지게 되어 학습 흥미를 잃게 되므로 수준이 낮은 학생을 도와주게 하거나 별도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수준이 높은 학생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혹은 방법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에서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는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 자료 및 교육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충분한 보충 학습을 마친 학생의 경우 심화 된 교육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실습 시간에는 전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이 복습과 응용이 될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혼동되는 부분이나 학생이 잘못 이해한 부분은 학습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스스로 깨닫게 유도하여 응용력이 길러지도록 지도한다. 그러므로 실습의 지도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식으로 지도한다.

바. 실기 지도

실기를 위한 소재나 문제 사태의 도입은 가급적 생활 속의 문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기에서 다루는 각종 도구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상업적인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한다.

실기를 위한 시간의 운영은 이론을 위한 수업 시간의 운영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실기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실기 시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실기의 교수·학습 방법은 실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예컨대, 직접 기계를 다룰 경우는 시범·실습의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실기의 경우는 결과물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기 지도를 할 때는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예제를 교과서에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실기의 평가는 실기를 결과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기의 과정도 타당한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평가의 근거는 실기의 결과와 함께 보고서도 포함하도록 한다. 실기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평가의 준거를 분명하게 수립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사. 학습 진행

새로운 영역을 학습할 때에는 먼저 이론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면 지루함을 느끼므로 학습할 목표와 그것이 활용되는 예를 보여 주고 흥미를 가지도록 한 후 기본적인 과제를 가지고 하나씩 따라 하게 하면서 학습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나의 과제를 완성하여 이론적으로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몰라도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된다는 작동 방법을 먼저 익히게 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여 진행된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기본 원리를 설명하도록 한다. 특히, 원리나 구성과 같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목적한 과제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작동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아. 윤리 지도

윤리 지도는 별도의 영역을 정하여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모든 교과 지도 영역에서 정보활동에 따른 정보 윤리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한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활동이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의 중요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해 꾸준히 주지시키도록 한다. 이때 불건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함께 알려 주도록 한다. 정보 사회는 사이버 공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빠르게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을 익혀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한 질서에 적응하고 정보 통신 예절을 잘 지켜 건전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평 가

정보 과목의 평가는 학습 목표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수행 평가를 적절히 활용하되 평가의 기준, 방법, 시기 등은 사전에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교과 또는 영역의 목표와 내용에 적합하게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를 위한 과제는 주로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어느 특정 영역이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가. 영역별 평가 방법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영역의 평가는 정보 기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정보 기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스스로 정보 기기를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와 기능, 컴퓨터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역할과 관계,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의 역할과 차이, 운영체제의 목적, 역할, 종류, 응용 프로그램, 운영체제, 하드웨어와 계층적 관계와 역할, 네트워크의 역할과 구성 요소,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와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보의 표현과 관리 영역의 평가는 정보와 자료의 개념과 차이점, 자료 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실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적합한 자료 유형으로 구분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자료의 표현과 연산에서는 이진수의 연산 방법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진수를 통해 디지털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의 이해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선형 구조로 표현 가능한 실생활의 자료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멀티미디어 정보 표현의 경우, 각 멀티미디어 정보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와, 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압축 기술 표준들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영역의 평가는 문제를 정보 과학의 관점에서 해결하고 있는지 각각의 단계를 평가한다. 이 영역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법을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의사코드나 자연어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평가한다.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표상화 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주어진 문제를 이용해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 해결하는가를 평가한다.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영역의 평가는 정보 사회에서 역기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의 정보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보 산업의 미래와 기술에 대한 예측과 관심도를 평가한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정보의 공유와 보호를 위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애니메이션 제작과 동영상상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나. 평가 결과의 활용

학생 입장에서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의 향후 학습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 개인의 영역 또는 단원의 목표 도달 여부와 강·약점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 입장에서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어져야 한다.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필요한 영역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교수 전략의 학생 지도 방안 탐색 등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보 과목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실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고, 추후 정보 과목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V. 정보 과목 신·구 교육과정의 비교

정보 과목은 교육과정 편제 특성상 학교와 교사의 재량에 의해 교과 선택 및 학습의 운영 방식이 결정되므로 교사의 자율성, 창의성,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요건인 교과이다. 정보 과목은 제7차 교육과정의 ‘컴퓨터’ 과목의 명칭이 개정된 교과이며 그 내용이 전면 개정되었다. 제7차 컴퓨터 교육과정이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과목은 실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정보 과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과목의 중요한 차이점을 교육과정 체계,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순서로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정보 과목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 구분 | 제7차 교육과정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비고 |
|---------|---|---|---|
| 과목명 | 컴퓨터 | 정보 | 과목명 변경 |
| 교육과정 체계 | 1.성격 2.목표 3.내용 4.교수·학습 방법 5.평가 | 1.성격 2.목표 3.내용 4.교수·학습 방법 5.평가 | 내용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 성격 | 컴퓨터는 정보화 사회에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교환하는 일반적 도구이므로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교육한다. | ‘정보’ 교과는 지식 정보 사회에서 가장 높게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기본교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판단 및 의사 결정력 등의 신장을 강조한다. | 창의적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판단 및 의사 결정력 등의 신장을 강조하였다. |
| 목표 | 컴퓨터와 인간 생활과의 관계 및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성 체계를 이해하고 조작 방법을 익혀서, 컴퓨터에 대한 친숙감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컴퓨터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가. 컴퓨터와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정보화 사회에서의 컴퓨터의 역할과 사용에 따른 윤리관을 확립하여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다. | 정보 처리의 기본 원리와 올바른 정보 활용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표현하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원리, 운영체제의 원리와 기능, 네트워크의 이해를 통해 정보 기기를 직접 다루고 조작할 수 있다. 나. 자료구조 및 정보 표현의 원 | 정보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내면화를 바탕으로 정보 처리의 기본 원리를 익혀,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 구분 | 제7차 교육과정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비고 |
|-------|---|---|--|
| | <p>나. 컴퓨터의 구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p> <p>다.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림과 표를 작성하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p> <p>라. 소리와 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을 익혀서 활용할 수 있다.</p> <p>마. PC 통신과 인터넷 통신망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전자 우편을 사용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p> | <p>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표현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p> <p>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보 처리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p> <p>라. 정보 윤리 및 정보의 공유와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며,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p> | |
| 내용 체계 | <p>I. 인간과 컴퓨터</p> <p>1. 컴퓨터의 발달</p> <p>2. 컴퓨터와 인간 생활</p> <p>3. 컴퓨터와 일</p> <p>II. 컴퓨터의 기초</p> <p>1. 컴퓨터의 구성과 조작</p> <p>2. 소프트웨어의 구성</p> <p>III. 워드 프로세서</p> <p>1. 문서의 작성</p> <p>2. 문서의 편집</p> <p>3. 그림 그리기</p> <p>4. 표 작성</p> <p>IV. PC통신과 인터넷</p> <p>1. PC통신 활용</p> <p>2. 인터넷의 활용</p> <p>V. 멀티미디어</p> <p>1. 소리 자료 만들기</p> <p>2. 그림 자료 만들기</p> <p>3. 멀티미디어 제작</p> | <p>I.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p> <p><1단계></p> <p>○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p> <p><2단계></p> <p>○ 운영체제의 이해</p> <p><3단계></p> <p>○ 네트워크의 이해</p> <p>II. 정보의 표현과 관리</p> <p><1단계></p> <p>○ 정보와 자료구조</p> <p>○ 자료의 표현과 연산</p> <p><2단계></p> <p>○ 선형 구조</p> <p>○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p> <p><3단계></p> <p>○ 선형 구조</p> <p>○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p> <p>III.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p> <p><1단계></p> <p>○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p> <p>○ 프로그래밍의 기초</p> <p><2단계></p> <p>○ 알고리즘의 개요</p> <p>○ 알고리즘의 실제</p> <p><3단계></p> <p>○ 자료의 정렬</p> <p>○ 자료의 탐색</p> <p>IV.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p> <p><1단계></p> <p>○ 정보 사회와 윤리</p> | <p>지도 내용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의 내용은 수준별로 3단계로 제시하였다. 컴퓨터 과학 내용을 강화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p> |

V. 정보 과목 신·구 교육과정의 비교

| 구분 | 제7차 교육과정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비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수집과 전달 <2단계> ○ 정보의 공유와 보호 ○ 웹 문서의 작성 <3단계> ○ 정보 기술과 산업 ○ 멀티미디어 정보의 가공 | |
| 교수 · 학습 방법 | 모든 영역에서 실습을 중심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컴퓨터를 조작하는 능력을 기르며, 수준별로 난이도가 다른 과제로 학습한다. | 단순한 기능 실습 위주가 아니라 정보의 활용 방법을 이해하여 생활주변이나 다른 교과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의 형태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지식 정보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실습의 경우는 컴퓨터의 활용뿐만 아니라 원리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활동이나 게임 등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
| 평가 | 실기 위주로 평가하고 수시로 관찰하여 평가하며, 수준별 차이는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로 해결한다. | 각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이나 성과를 수시로 평가한다. 평가를 위한 과제는 주로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개인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되 실질적인 개인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 문헌

- 김경훈, 강신천, 강의성, 김성식, 김영식, 김용, 송재신, 유헌창, 이병모, 이영준, 이원규, 조현철, 최재혁, 최현종(2006). **중·고등학교 컴퓨터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 교육부(1994).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 한문·컴퓨터·환경 -**.
- 교육부(1998).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과목 교육과정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외국어(영어), 재량 활동,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부록>

외국의 정보 교육

정보 기술의 선진국이라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보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여 취학 전부터 정보 관련 개념들을 습득하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보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학교 급별 교육의 흐름을 살펴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정보의 원리와 개념을 생활 속에서 습득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정보 교육을 시작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체계적이고 심화된 정보 교육 및 직업적 정보 교육을 실시하는 추세이다.

1.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컴퓨터 발달 초기부터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운 교과로 개발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컴퓨터는 3R(reading, writing, arithmetic) 외에 네 번째의 교육 기본 요소가 되었고, 현재 학생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의 정보 교육을 받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 과학 교과가 고등학교 교육에 등장하였고, 현재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필수 선택으로 컴퓨터 과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대학 입학 시험에 포함되는 교과이기도 하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컴퓨터 교과가 제2 외국어 등과 함께 선택 교과에 속해 있다.

컴퓨터 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이 1단위를 이수하는 낮은 수준과, 1학년 및 2학년에 3단위를 이수하는 중간 수준, 고등학교 3년 동안 5단위를 이수하는 높은 수준의 학습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며, 하위에 5개의 모듈이 포함된다. 컴퓨터 과학을 구성하는 하위 5개의 모듈은 기초 1, 2, 소프트웨어 디자인, 두 번째 패러다임, 애플리케이션, 이론 등이며, 각 모듈별 교육 내용은 【표 부록-1】 과 같다.

【표 부록-1】 컴퓨터 과학의 모듈별 교육 내용

| 모듈명 | 교육 내용 | 시간 |
|-----------|---|-------|
| 기초 1, 2 | · 전체 컴퓨터과학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를 제공함 · 알고리즘적 개념과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가르침 | 180시간 |
| 소프트웨어 디자인 | · 기초 1, 2의 연장 · 데이터 구조에 중점을 둠 | 90시간 |
| 두 번째 패러다임 | · 절차적 방법과 개념적으로 다른 두 번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소개함 | 90시간 |
| 애플리케이션 | ·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영역 및 원리와 실재를 소개함 | 90시간 |
| 이론 | · 이론적 컴퓨터 과학에서 선택된 주제들을 제공함 - 90시간 계산 모델 또는 45시간 계산 모델+45시간 수치 해석 | 90시간 |

2. 영국

영국은 교수 및 학습에 있어서 국가 교육과정의 기초 교과로 ICT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ICT 교과는 역사, 지리, 디자인과 기술, 음악, 체육 등과 함께 영국의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의 비핵심 기본 교과를 이룬다.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의사소통, 수의 이용, 타인과의 작업, 학습 및 성취도 향상, 문제 해결 등과 함께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기술(key skill)에 속한다. 이것은 정보 자원 및 ICT 기술의 사용 능력뿐 아니라 ICT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력까지를 포함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ICT 교과 교육은 학생들의 기능적인 면의 개발보다는 기술 자체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단계별(key stage)로 초·중등 ICT 능력의 성취 목표를 5가지 측면과 8가지 레벨로 구분·제시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에 속하는 타 교과에서 ICT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들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모든 교과에서 ICT 도구를 사용하여 ICT 능력을 적용 및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중학교 ICT 교과의 전체적인 구성은 【표 부록-2】와 같다.

【표 부록-2】 중학교 ICT 교과의 학년별 교육 내용

| 학년 | 단원 | 학습 내용 | 학습 시간 |
|----|----|---------------------------|-------|
| 7 | 1 | ICT의 사용 | 4시간 |
| | 2 | 정보와 표현 | 5시간 |
| | 3 | 텍스트와 이미지 처리 | 7시간 |
| | 4 | 모델: 규칙 및 연구 | 5시간 |
| | 5 | 데이터: 데이터 구조 설계, 획득, 표현하기 | 6시간 |
| | 6 | 제어: 입력, 처리, 출력 | 5시간 |
| | 7 | 물리 데이터 측정 | 4시간 |
| 8 | 8 | 일반 정보 시스템 | 7시간 |
| | 9 | 웹에 출판하기 | 7시간 |
| | 10 | 정보: 신뢰성, 유효성, 편견 | 7시간 |
| | 11 | 데이터: 사용과 오용 | 3시간 |
| | 12 | 시스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통합 애플리케이션 | 12시간 |
| 9 | 13 | 제어 시스템 | 10시간 |
| | 14 | 전역 통신: 데이터 교섭과 전송 | 10시간 |
| | 15 |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 16시간 |

3. 일본

일본은 1998년에 발표한 학습 지도 요령에서 모든 학교 급에서 컴퓨터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것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모든 교과에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제의 통합 학습 영역에서 정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가정 등의 타 교과에서도 학습 활동에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 학습 영역은 정보 이용 능력 및 문제 해결 학습을 위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필수 교과군인 정보 영역을 통해 정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정보 영역은 일반 교육과 전문 교육으로 구분되며, 일반 교육에는 정보 A, 정보 B, 정보 C가 있고, 전문 교육에는 분야별로 11개의 교과 즉, 정보 산업과 사회, 정보화 표현, 모델화와 시물레이션, 알고리즘, 정보 시스템의 개발,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디자인, 도형과 화상의 처리, 멀티미디어 표현, 과제 연구, 정보 실습이 있다. 일반 교육에 속하는 하위 교과별 단위 내용은 【표 부록-3】과 같다.

【표 부록-3】 정보 영역의 하위 교과별 단위 내용

| 교과명 | 단위명 |
|-------------------------|--------------------------|
| 정보 A (Information A) | 1.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정보 기기 |
| | 2. 정보의 수집, 전송과 정보 기기의 활용 |
| | 3. 정보의 통합처리와 컴퓨터의 활용 |
| | 4. 정보 기기의 발달과 생활의 변화 |
| 정보 B (Information B) | 1. 문제 해결과 컴퓨터의 활용 |
| | 2. 컴퓨터의 구조와 동작 |
| | 3. 문제의 모델화와 컴퓨터를 활용한 해결 |
| | 4. 정보 사회를 지탱하는 정보 기술 |
| 정보 C (Information C) | 1. 정보의 디지털화 |
| | 2. 정보 통신 네트워크와 통신 |
| | 3. 정보의 수집, 전송과 개인의 책임 |
| | 4. 정보화의 발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

4. 인도

인도는 2000년에 제정하고 2005년에 개정한 정보 통신 기술 교육 운영 지침에서 국가 수준의 정보 교육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 교육 운영 지침은 정보 교육을 6가지 영역(기본적인 조작과 개념, 사회와 윤리적 이슈, IT 도구, 의사소통 도구, 연구 도구, 문제 해결 도구)으로 구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별로 각 영역별 학습 목표 및 학습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정보 교육은 선택 교과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학교 9학년과 10학년에서는 정보 기술의 입문, 컴퓨터 응용, 컴퓨터 과학 등의 교과를,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에서는 컴퓨터 과학, 멀티미디어와 웹 기반 기술, 정보의 활용 등의 교과를 이수할 수 있다. 중학교의 정보 교과별 교육 내용은 【표 부록-4】와 같다.

【표 부록-4】 중학교의 정보 교과별 교육 내용

| 교과명 | 내용 | |
|-----------|--|--|
| | 9학년 | 10학년 |
| 정보 기술의 입문 | 1. 정보 기술 기초 2. 정보 기술 도구 • Windows • MS Office 3. 정보 기술 응용 | 1. 정보 기술 기초 2. 정보 기술 도구 • MS Office • HTML 3. 정보 기술 응용 |
| 컴퓨터 응용 | 1. 운영체제 2. 인터넷 3. 컴퓨팅과 윤리 4. 워드 프로세싱 5.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6. 스프레드시트 7. 데이터베이스 8. 객체와 클래스의 기초 개념 9. 값과 자료형 10. 조건문과 단일 루프 | 1. 9학년 교육과정 복습 2. 클래스 3. 생성자 4. 함수 5. 사용자 정의 함수 6. 의사 결정(조건문) 7. 반복문 8. 라이브러리 클래스의 활용 9. 캡슐화 10. 배열 |
| 컴퓨터 과학 | 1. 컴퓨터 하드웨어 2. 자료 표현과 컴퓨터 내부 구조 3. 컴퓨터 소프트웨어 4. 컴퓨팅의 사회적 상황과 윤리적 이슈 5. 알고리즘 6. 고급 언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7. 일상생활 속의 컴퓨터 | 1. 컴퓨터 구조 2. 프로그래밍 복습 3. 고급 프로그래밍 4. 프로그램의 작성 5. 실습 과제 |

환 경

노 유 경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최 석 진 (인 하 대 학 교)
이 동 엽 (전 북 대 학 교)
정 철 (대 구 대 학 교)
윤 석 희 (이 화 여 대 부 속 중 학 교)
이 두 곤 (한 국 교 원 대 학 교)

- I. 환경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II. 환경 과목 교육과정의 변천
- III. 환경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IV. 환경 과목 교육과정 해설
- V. 환경 과목 신 · 구 교육과정의 비교

I. 환경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1992년 중학교 교육과정에 정규 과목으로 ‘환경’이 개설된 이후 환경 과목은 많은 발전이 있었다. 환경 과목의 목표와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었고, 1996년 이후 대학에 ‘환경 교육과’가 신설되었다. 2000년부터는 환경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중등 교육 현장에 진출하면서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사에 의한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중학교 환경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의 이념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고,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환경 친화적 사고의 함양과 실천력 배양을 목표로 내용이 선정되어 환경 교육이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환경 과목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고, 이 기간 동안 중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채택한 비율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전국 중학교 재량활동 선택 과목 중에서 12~18% 정도였다.

이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지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환경 과목을 둘러싼 주변 상황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기후 변화와 국가 간 환경 규제, 지속가능한 발전, 자원의 고갈 등 범지구적 환경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 교육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구 환경에 대한 개인의 책무성이 중시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 교육의 변화와 경향을 효율적으로 환경 과목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중등교육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7년도에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여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 과목도 제7차 환경 과목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 교육과 관련하여 축적된 연구 결과와 새로운 변화와 경향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제7차 교육과정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의 목표 일부와 내용을 수정하는 수준에서의 개정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환경 과목도 새로운 환경 교육의 변화와 경향을 반영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인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환경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환경 과목의 새 정의와 추구하는 인간상의 명료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과목을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치 탐구와 태도 변화에 비중을 두는 과목’으로 정의함으로써 환경을 생태계로 한정하여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과목을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와 인간에 의한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식과 기능, 환경 친화적 사고와 태도를 함양하는 과목’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환경 과목의 목적이 학생들이 환경, 환경 문제, 다양한 환경 현상을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의 틀에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환경적 실천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궁극적으로 환경 감수성과 환경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환경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환경 오염 방지에 적극 참여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 시민’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과목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환경과 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바른 인식, 환경 감수성과 환경 소양을 길러 자연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지향하며 환경 친화적으로 사고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제시하여 환경 과목의 목적을 보다 명료화하였다.

2. 최근 환경 교육의 변화 반영

새로운 환경 과목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선정과 조직에 있어서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 교육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ESD)은 인류의 새로운 화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다(UNESCO, 2005). 이는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과 책임에 대한 신념을 갖고, 생활에서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에서 요구되는 가치, 행동, 삶의 양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 이념은 ‘환경적으로 사고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건강한 시민의 육성’이라는 환경 과목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의 환경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건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 생활 환경과 연관된 삶의 양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이해, 관찰과 체험 학습을 통한 환경 감수성의 함양, 환경 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 등이 강조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추세를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영역에 반영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환경 과목의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지속가능발전의 구현을 위한 생활양식’, ‘개인의 일상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중한 환경의 가치’, ‘환경 감수성과 체험’, ‘생태 공간의 회복’, ‘일상생활 제품의 환경 친화적 이용’ 등이다.

3. 중·고등학교 간의 연계성 및 차별성 확보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환경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환경 교육의 목적, 목표, 주제 면에서 연계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과정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에서 차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지속가능한발전과 생활양식’, ‘자원과 에너지’, ‘공기, 물, 토양 환경’, ‘폐기물’,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환경 보전 실천’ 영역으로 범주화함으로써 대 영역 수준에서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중학교 환경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과 학습 단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조직하되, 환경 체험과 환경 감수성 함양 등 정서적인 접근을 강조하였다. 반면, 고등학교 환경 교육과정은 환경과 환경 문제에 대한 지적·논리적 접근과 종합적 인지 능력에 기초한 환경 소양의 함양과 의사 결정력,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이라는 주제의 경우, 중학교에서는 ‘환경’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중시하고, 환경 실천의 주체자로서의 나의 주관성과 자각, 체험과 환경 감수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지구 환경 구성 요소’, ‘환경관에 따른 인간의 생활양식’, ‘경제-생태-환경’, ‘환경 정의’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지구 환경 시스템 내에서의 인간 및 인간의 활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중·고등학교가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에 차이를 두었다. 예를 들어 ‘물 환경’이라는 주제의 경우, 중학교에서는 ‘물의 가치’와 ‘물-인간-생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해’, ‘물의 보전을 위한 개인의 실천력 함양’에 목표를 두었다면, 고등학교에서는 ‘물과 인간의 관계’, ‘물 환경 문제’, ‘해양 오염과 갯벌 문제 대책’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 이처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 **환경 과목**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4. 기존 교육과정에서의 쟁점 반영

개정된 환경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쟁점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따랐다. 기존 연구를 통해 추출된 **환경 과목**의 주요 쟁점은 환경 과목의 정체성 확립, 환경 교육 내용, 방법, 평가에서의 지역화 전략, 환경 과목에서의 통합적 및 간학문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의 강화, 학습자의 활동을 통한 환경 교육의 이해,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 환경 문제의 부각보다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내용 구성, 미래 지향적·실천 지향적인 환경 과목의 특성 강화, 친환경적 사고와 실천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 등이다. 이 중에서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쟁점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5. 통합 교과로서의 환경 과목과 타 교과의 환경 교육 특징 보완

환경 교육의 주제와 내용은 환경 문제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특성 때문에 범교과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환경 교육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독립된 ‘환경’ 과목 외에 도덕,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에서 범교과적으로 환경 교육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원적 환경 교육 체제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나 구분이 없어 환경 교육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다’¹⁾와 ‘바’²⁾ 항목을 통해 범교과 학습으로서의 환경 교육에 대한 ‘환경’ 과목 교육과정의 위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 교육에는 간학문적 접근 방법과 같은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강조되는데 ‘환경’ 과목은 다양한 교과와 경로를 통해 범교과적으로 학습되는 환경 관련 지식과 기능을 종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1) “‘환경’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과목임에 유의하여 …… 간학문적 탐구 방법을 활용한다.”

2) “다른 교과목의 환경 관련 내용 또는 사회 환경 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종합하여 학습하는 과목으로 …… 목표와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하고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 학습이 되도록 한다.”

II. 환경 과목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 환경 교육은 국제 환경 교육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으며, 환경 교육이 학교 교육 속에 제도화되어 ‘환경’ 과목으로 독립하게 된 것은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 시기로 그 역사가 비교적 짧다. 우리나라 환경 교육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환경 교육 변화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국제 수준에서의 환경 교육 발달

1980년대 이전은 환경 교육의 태동기로 환경 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국제적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49년에 설립된 ‘국제 자연 및 자연자원 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IUCN)’ 산하 교육 분과의 활동이다. 이 조직은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출판물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환경 교육 협의회를 소집하였다.

둘째,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류 환경에 관한 유엔 제1차 회의’는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회의에는 유엔 회원국과 유엔 산하 기구들이 참여하였는데,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하고, ‘인간 환경 선언(Declaration on Human Environment)’을 채택하였으며, ‘인간 환경에 관한 행동 강령’을 승인하였다. 스톡홀름 회의의 권고에 따라 1973년에는 국제적 환경 기구인 ‘유엔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 UNEP)’이 설립되었다.

셋째, 1975년에 세계 교육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국제 환경교육회의’에서는 환경 교육의 경향과 시각을 검토하고, 기본 지침으로서 ‘베오그라드 헌장’을 채택하였다. 이 헌장은 환경 교육의 철학적 기저와 골격, 평가, 환경 관련 행동 강령의 최종 목표,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등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 1977년에 UNESCO-UNEP 주관으로 소련의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환경 교육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서는 인구, 식량, 에너지, 자원 문제, 남북문제, 핵과 군비 축소 문제와 같은 인류 당면 문제들을 환경 문제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교육, 즉 환경 교육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고, 국가 수준과 국제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 교육의 기본 지침과 구체적 이행을 위한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환경 교육의 국제적 공동 노력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다섯째, 민간 환경 단체들이 조직되면서 국제적으로 환경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주요 단체는 그린피스, 시에라 클럽,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 기구들의 활발한 연구와 활동은 환경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탐색, 환경 문제와 관련한 문제 해결, 효과적인 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환경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1981년에서 1991년은 환경 교육의 성립기로 국제적으로는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두드러지게 전개되었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은 1982년 ‘세계 자연 현장’, 1987년 ‘2000년대를 향한 환경 전망’을 채택하여 환경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둘째, 1987년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UNESCO-UNEP 주최로 ‘환경 교육과 훈련에 관한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1990년대 실천해야 할 환경 교육 및 훈련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환경 교육 발전 계획 수립, 환경 교육의 목표, 환경 교육 자료 개발 및 전문가 양성, 환경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국가 간·지역 간의 환경 교육 정보 교환 등을 건의하였다.

1992년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지구적 환경 문제로 인한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환경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1992년에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세계 환경의 날’ 20회를 기념하여 열렸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의제 21(Agenda 21)’과 ‘지구 기후 보전에 관한 국제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정립·부각되면서 환경 교육이 더욱 강조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의 환경 교육 발달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환경 교육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1973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환경 교육에 대한 각종 연구와 학습 자료 등을 개발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환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한 교육과정은 1981년에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이다. 제4차 교육과정 ‘총론’의 운영 지침에는 ‘…… 환경 교육 등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이라는 선언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며, 각론에서는 관련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에서 환경 교육 관련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이때부터 사회과에서는 ‘공해’, 과학과에서는 ‘환경오염’ 등 구체적인 환경 용어들이 교육 과정에 등장하게 되었다.

1987년에 고시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라는 규정과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라는 규정을 두어 환경 교육에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지침에 따라,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는 여러 교과에서 분산적으로 환경 교육이 시작되었다.

환경 과목은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부터 개설·독립되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 재량 시간(3~6학년 : 연간 34시간)'을 편성하였고,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선택 교과(1~3학년 : 연간 34~68시간)의 하나로 '환경' 과목을 개설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양 선택 교과에 '환경 과학(4단위)' 과목을 신설하였다. 당시 중학교 환경 과목 교육과정의 '성격'에는 신설된 환경 과목을 '지금까지 관련 교과에서 분산 지도해 오던 환경에 관련된 교육 내용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이 교육과정에서 신설한 선택 교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환경 과목의 독립은 그 동안 여러 교과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던 환경 교육을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학교 환경 교육이 교육과정 상에 환경 과목과 일반 교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이원적 체제가 나타났다.

1997년 고시되어 2001년부터 적용·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환경 과목의 위상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재량 활동 시간(3~6학년 : 연간 68 시간)'을 편성하였고, 중학교 교과 재량 활동의 선택 교과(1~3학년 : 연간 34~102 시간)에 '환경' 과목을 설정하였고, 고등학교 교양 과목에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환경 과학'이 '생태와 환경'으로 변경되어 보다 환경교육적 측면을 보완하였다.

내용 체계에서의 특징을 보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개념과 환경 문제와 대책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중시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지식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적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환경에 대한 이해와 환경 문제의 인식 수준이 '객체로서의 환경과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관계 맺음의 결과로서의 환경 특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맑고 깨끗한 공기'와 같은 단원명에서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환경 과목의 목표와 특성이 구체화되어 있고, 학생들의 일상적 공간에서의 환경 보전 실천을 강조하면서 환경 친화적 태도와 실천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Ⅲ. 환경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2007년 개정 중학교 환경 과목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철학과 교육적 이념을 계승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였다.

1. ‘환경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이해 보완

교육적 효과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적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과의 관련성을 이해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 교육은 환경과 자신이 이미 연관되어 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환경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와 ‘환경’이 주체와 객체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나’의 행동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환경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환경 현상에 대한 인식을 학생 개개인의 구체적 환경 경험과 주관성에서 출발하는데 의미가 있다. 환경을 자신과 연관지어 발견할 때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자각할 수 있으며, 환경 보전의 실천자로서의 신념을 가질 수 있다.

환경과 나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과 나’라는 대영역을 선정하였고, 구체적으로 ‘나를 둘러싼 환경의 의미에 대한 이해’, ‘쾌적한 환경의 소중함’, ‘자신의 생활과 활동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 ‘주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스스로의 실천’ 등을 주요 내용 요소로 선정하였다. 또한 ‘나’는 지구 생태계 구성의 일원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처한 장소에서의 직접적 관찰과 체험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 강화

새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환경 교육의 주요 이념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강조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삶의 질과 사회경제 발전이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제7차 환경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새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에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 의사 결정력과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여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한다.’라고 명시하였고, 교육과정 내용에서도 ‘환경의 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영역을 설정하였다.

환경 교육과정 내용의 전반부에는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구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후의 환경 교육과정의 주제도 대부분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태도의 함양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3. 체험을 통한 환경 감수성의 함양 강조

개정 환경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감수성과 체험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명시하였다. 환경 과목의 목적이 환경 감수성을 갖추고 환경 친화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아는 것(knowing)에서 그치지 않고, 감정으로 느끼며(feeling), 직접 행동(acting)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 감수성이 고취되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감수성을 갖는 것은 환경의 상황이나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어떠한 문제 상황이건 자신과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강화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환경에 대한 감수성 함양은 환경 문제 실천력 배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환경 감수성의 함양은 환경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환경 감수성이 함양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체험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 체험은 배우의 대상이 놓인 상황에서 감각적 경험과 이성적 판단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만일 학생들이 주위의 건강한 생태 공간을 방문하여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은 경험한 만큼 풍부해질 것이다. 이는 환경 감수성의 함양을 위해 내용과 소재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의 환경 교육이 환경오염과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에 대한 감수성 및 이해와 환경의 가치, 그리고 총체적 환경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4.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 보완

환경과 환경 현상의 배경은 매우 복잡하다. 이는 통제된 조건 속에서 실험을 통해 인과 관계

를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 탐구의 영역을 넘어 현상에 대한 인문·사회적 해석의 과정까지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환경에 대한 이해는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보이는 환경 문제라 하더라도 현상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주체,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과정은 자연적, 사회적, 시·공간적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학습할 때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깨끗하고 풍부한 물’ 영역의 내용 요소들은 물과 관련하여 지리적,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인문적 관점이 종합될 수 있도록 지구 순환과 관계된 환경 요소로서의 물,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자원으로서의 물, 물과 인간과 생물 체계 내에서의 물, 물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 물과 관련된 제도, 물 보전을 위한 개인의 실천 등의 내용 요소를 연계하여 구성하였다.

5. 학생들의 일상적 경험 세계와의 연계 강조

환경 교육을 통해 개인의 환경적 자각과 실천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일상 공간과 그 세계에서의 일상적 경험과 환경과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경험하고 느끼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환경 교육은 학생들의 일상적 경험 세계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일상적 경험에 기초하여 환경 과목의 내용을 학습하면서 이전에 이미 존재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들, 즉 자신들의 일상이 환경과 결합되어 있고, 환경적 경험을 하고 있으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주체이자 객체가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의 일상적 경험 세계와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식주, 여가 등 일상생활의 조사를 통하여,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 ‘일상생활이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됨을 알고 ……’, ‘일상생활의 여러 제품과 도구 ……’ 등과 같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6. 환경 교육의 지역적 접근 방법 강화

환경 교육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단위 지역 공간에서 체험적으로 환경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 때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환경 교육은 학습자들의 삶의 터전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환경 교육의 주제와 공간적 범위는 거시적이고 국제적이다. 그러나 이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구체화된 학습 내용과 방법은 학생들의 일상성과 지역성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는 ‘지금 - 여기’에 터한 학습 경험이 이루어질 때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지금 - 여기’에서의 나의 행위는 구체적인 사물들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사물들이 놓이게 된 역사적·공간적 전개 과정을 분석해보면 ‘지금 - 여기’에서의 자신의 행위가 지구 전체와 통합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지금 - 여기’의 상황에서 학습 경험으로 형성된 환경 친화적 태도와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은 시·공간적으로 사고 조작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지구와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지역’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기초한 공간으로 그들의 거주 공간이기도 하다. 작은 지역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일상 공간인 지역과 지역 총체로서의 지구촌은 서로 연계 되어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단위 지역에서 행하는 환경적 실천이 궁극적으로 지구적 환경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교육의 지역적 접근을 강화하여 ‘…… 주위 환경을 통하여 환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 ‘…… 주위 생태계에 대한 조사 ……’, ‘…… 주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 ‘내가 사는 지역 사회 환경의 특징을 조사하고 ……’, ‘자기 지역의 여러 환경 문제의 원인과 현상 ……’, ‘지구 환경 문제는 지역적인 인간 활동의 결과가 ……’, ‘개인과 단체 및 지역 차원에서 ……’ 등과 같은 내용을 선정하였고, 교수·학습 방법의 ‘사’ 항에 지역의 환경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7. 환경 과목의 실천 지양적 특성 강조

환경 과목은 환경 친화적 태도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과목이다. ‘실천’은 주체가 사물과 연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자기 자신의 연결고리를 찾고, 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 상황을 자신과 연계된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환경적 실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학생들이 환경적 실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모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라도, 이를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여 자신과 분리시키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체감은 학습자가 자신이 처한 삶의 공간에서 환경과 환경 문제를 인식할 때 구체화되고, 실제화 될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 교육과정 전 영역에서 환경적 실천과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실천 교과로서 환경 과목의 특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IV. 환경 과목 교육과정 해설

1. 성격

가. 환경 과목의 성격

2007년 개정 환경 교육과정의 ‘환경 과목의 성격’에서는 환경 과목의 목적,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운영 및 고등학교와의 연계성 및 강조점 등을 밝히고 있다.

즉, 중학교 ‘환경’ 과목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와 인간에 의한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위한 지식과 기능, 환경 친화적 사고와 태도를 함양하며, 환경과 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환경 감수성과 환경 소양을 길러 자연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지향하며, 환경 친화적으로 사고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지속 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환경 과목의 주요 내용은 환경과 나의 관계, 환경의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서의 환경의 구성 요소, 자원과 에너지,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환경 보전의 실천 등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앞서 개정의 중점에서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및 강조하였다. 첫째, 나를 비롯한 우리의 활동과 환경의 변화, 둘째, 환경 친화적 가치관과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등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셋째, 자기 지역의 환경 문제와 해결 노력을 포함하는 지역별 환경 문제와 대책, 넷째, 지구적 환경 문제를 포함하는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다섯째, 생태 공간의 회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 보전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다.

환경 교육을 실시함에는 생활 주위의 자연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자연 환경에 대한 친근감과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상황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와 구체적인 사례, 여러 집단의 이해가 얹힌 갈등 장면, 지역적인 특성을 띤 환경 문제를 학습 현장에 도입한다. 이로써 환경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내야 하며, 기초적이면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력과 아울러 가치 내면화와 실천력 향상을 통한 환경 보전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우리나라 중학교에서의 환경 교육은 여러 환경 관련 교과에서 교과별 특성에 따라 범교과적

으로 지도하는 동시에, 간학문적 특성을 띠는 내용을 독립된 환경 과목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절충적 방식의 2중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내용이나 목표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경 과목과 관련 교과에서의 지도가 연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 환경 과목에서는 기타 다른 교과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나 환경 교육 방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일관성 있게 다루도록 한다.

중학교 ‘환경’은 고등학교의 ‘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초적인 경험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가 현재까지 경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환경 교육도 고려하여 일관성과 체계성에 유의한다.

중학교 ‘환경’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여러 교과목에 포함된 환경 교육적인 내용의 이론적인 학습이나 다른 도구적인 교과목의 학습보다는 경험적이며, 실천적, 행동적 학습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 과목의 학습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경험, 활동 영역,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혼자서 쉽게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사, 현장 학습, 실험, 사례 연구, 토론 등의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 공동체적 의식을 가진 실천이 이루어지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는 목표 지향적으로 하며 수행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를 한다.

나. 환경 과목의 특징

중학교 ‘환경’은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책임감 있게 하는 시민을 기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환경과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환경을 위하는 가치와 태도가 내면화되어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실천을 유도하는데 기여하는 과목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중학교 ‘환경’은 국가·사회적 요구에 의해 설정된 과목이다. 20세기 이후 환경오염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되어, 환경 문제 해결이 범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으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독립 및 선택 과목으로 신설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 시기를 거치면서 내용이 보완되었다. 이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과목이 유엔 주도 하에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 ‘환경’은 다학문적, 간학문적, 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환경 관련 교과와 학문들의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범교과적으로 접근하여 환경을 주체로 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중학교 ‘환경’은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가치관 함양에 역점을 두고 활동 중심의 환경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과목의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교사가 강의 위주로 환경 지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학생의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실제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면서 환경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실천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넷째, 중학교 ‘환경’은 선택 과목으로서 그 운영이 탄력적이다. 즉,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상황이나 이 과목의 내용적 특성 및 학습자의 수준 등에 따라서, 교육과정 내용 영역 중에서 일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도 내용과 순서를 재구성하고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교수·학습 방법, 활동,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조직할 수 있다.

다섯째, 중학교 ‘환경’에서 평가는 목표 지향적으로 하되, 인지적 목표와 더불어 정의적 목표 달성에도 중점을 둔다. 또한, 종합적이며 전인적 평가를 지향하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평가 결과의 활용은 학교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2. 목 표

가. 목표 설정의 배경

환경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동안 환경 교육의 목표는 유네스코와 선진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발전되어 왔다.

이번 중학교 환경 과목의 목표는 그동안의 여러 연구와 성과 중에서 특히 유네스코 보고서(1980, 1987, 2005)와 우리나라의 제 6차와 7차 교육과정 중·고교 환경 과목의 목표, 2007년 개정 고등학교 환경 과목의 목표 및 환경부 연구(2006) 등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최근 유엔과 유네스코(2005)에서의 구체적인 제안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신을 중학교 수준에서 가능한 반영하려고 하였다.

나. 환경 과목의 목표

중학교 ‘환경’ 과목의 목표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인지적, 정의적 영역간의 균형 있는 발달을 고려하되, 중학교 학생의 발달 수준과 환경 및 환경 문제의 특성, 환경 교육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였다. 중학교 ‘환경’ 과목의 종합 목표와 영역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환경 감수성과 인식을 길러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며 환경에 대한 지식의 탐구와 문제 해결 능력과 기능을 갖추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 의사 결정력과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여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한다.

종합 목표에는 환경 과목 목표의 영역별 목표를 포함하여, 최근 강조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사결정력과 환경 친화적 가치관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가. 환경 감수성과 인식을 길러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한다.
 나. 환경에 대한 지식의 탐구와 문제 해결 기능을 기른다.
 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사 결정력과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한다.
 라. 나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한다.

환경 과목의 영역별 목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중학교 학생에게 필요한 환경 교육의 목표를 인지적 및 정의적 영역 등을 가능한 고르게 강조하였으며, 목표의 제시 및 달성 단계를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조정하였고, 오늘날 환경 교육에서 특히 강조되는 목표들을 추가 보완하였다.

또한, 환경 감수성에 이어서 인식과 이해 단계, 그리고 지식과 기능의 습득, 나아가 환경 쟁점의 이해와 환경 문제 탐구 및 대안 제시에 특히 필요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력과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 함양, 그리고 최종 목표인 참여와 실천 등의 행동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영역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환경 감수성과 인식을 길러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한다.

환경 교육의 주요 영역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관한(about), 환경을 위한(for), 환경 안(in)에서/환경을 통하여(through)/환경으로부터(from)의 교육으로 구분하고, 이들 교육을 통하여 인식·지식, 기능, 가치·태도 및 행동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 중에서, 저학년 학생에게 특히 강조되는 것이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감수성 및 심미안(審美眼)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과 심각함을 인식(認識, awareness)하게 하며, 그 이전에 관심을 기르도록 한다. 인식(awareness)에는 경각심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해(comprehension, understanding)는 환경에 대한 단순한 사실이나 지식의 습득 이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포함한다.

- 환경에 대한 지식의 탐구와 문제 해결 기능을 기른다.

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단순히 암기 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탐구 과정을 통하여 기르도록 한다. 그리고 기능(技能, skill)은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과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사 결정력과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한다.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오늘날 전 인류의 대표적인 당면 과제가 되고 있으며,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범교과적으로 지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중학교 환경 과목에도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력과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 함양 등이 포함된다.

- 나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한다.

환경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쾌적하고 질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그를 위한 참여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중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심과 참여 및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고 실생활 등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3. 환경 과목의 내용

가. 내용 체계

중학교 환경 과목의 내용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이 ‘환경과 나’, ‘환경의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자원과 에너지’,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환경 보전의 실천’ 등 여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영역 | 중영역 | 내용 |
|-------|-----------|--|
| 환경과 나 | 환경과 나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의 의미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 나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 생태계 속의 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와 생물 중 다양성의 중요성 • 생태계의 일부로서의 나 • 환경 감수성과 체험 |

| 대영역 | 중영역 | 내용 |
|------------------------|-------------------------|--|
| 환경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 우리 활동과 환경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생활의 변화와 환경의 영향 • 경제활동 및 도시화 등과 환경의 변화 |
| | 환경 친화적 가치관과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이를 위한 생활양식 |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 맑고 상쾌한 공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중한 공기 • 공기와 인간 및 생물의 관계 • 공기의 오염과 보전 |
| | 깨끗하고 풍부한 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중한 물 • 물과 인간 및 생물의 관계 • 물의 오염과 보전 |
| | 생명의 터전인 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중한 흙 • 흙과 인간 및 생물의 관계 • 흙의 오염과 보전 |
| 자원과 에너지 | 우리 생활과 자원 및 에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및 에너지의 의미와 문제 • 에너지의 미래와 환경 친화적 이용 |
| | 다시 사용하는 쓰레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의 발생 원인과 문제 • 쓰레기의 재활용 및 자원화 |
|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 지역사회의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지역의 환경문제와 해결 노력 • 지역별 환경문제와 대책 |
| | 지구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지구 환경문제 • 지구환경 위기의 극복 노력 |
| 환경보전의 실천 | 생태 공간의 회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 공간 회복의 의미 • 생태 공간의 회복과 보전 노력 |
| | 환경 보전의 실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제품의 환경 친화적 이용 • 세계 시민으로서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의 참여 |

나. 영역별 내용

(1) 환경과 나

(가) 환경과 나의 관계

이 영역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주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환경과 나의 관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환경의 일부로서의 나의 활동과 그에

따른 역할을 모색해 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영역에서는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환경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특징과 소중함을 가능한 체험을 활용함으로써 인식하도록 한다. 즉, 환경과 나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환경과 나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한다.

여기에서는 주위 환경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환경과 나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주위 환경의 관찰을 통해 감수성을 길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환경에 끼치는 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도록 하여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 의지를 기른다.

① 환경의 의미

나의 주위 환경을 통하여 환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환경과 나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내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환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환경과 나의 상호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설정하였다. 즉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일상의 생활 환경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환경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여기에서는 환경의 의미, 환경과 나의 관계를 다루며, 주제의 학습에서는 일상에서 경험한 환경에 대한 느낌을 글로 표현하게 하거나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환경 신문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과 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한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환경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환경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

◎ 유의 사항

이 주제의 학습은 환경 과목을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이므로, 수업 전에 글쓰기, 그리기, 검사지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진단하고, 이를 환경 수업의 방향 설정에 반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②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특징과 소중함을 관련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주위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사례를 찾아 특징을 조사하고, 건강한 환경과 오염된 환경의 비교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특징과 소중함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해한다.

여기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특징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간단한 관찰이나 사례 조사가 가능한 과제 제시와 발표를 통해 내가 사는 곳의 환경에 대한 건강함과 쾌적한 정도를 깨닫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오염된 환경에서의 경험을 활용한 환경 신문 만들기, 우리 고장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지도 만들기, 오염 지도 만들기 활동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 주제의 학습에서는 개별 또는 모둠 학습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나에게 주는 소중함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유의 사항

이 주제의 학습은 대영역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루는 공기, 물, 흙과 같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며, 단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갖는 의미만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③ 나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의 생활과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토의하고 주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의지를 기른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모든 활동이 환경과 분리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해하게 하고, 나의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에는 필연적으로 환경의 영향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즉 나의 활동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의지를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여기에서는 나의 일상 활동을 조사하고, 나의 여러 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즉, 하루 동안 주요 시간 별로 나의 행동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하루 동안의 나의 생활과 활동이 환경에 끼치는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를 학급 구성원과 비교해보고 토의를 통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의지를 기르도록 한다.

◎ 유의 사항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할 때는 후에 학습하게 될 ‘우리 활동과 환경의 변화’ 단원과는 달리 ‘우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나’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나) 생태계 속의 나

이 영역은 나를 포함한 인간은 지구 생태계 구성 요소의 일부분이며,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 각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생태계의 일부로서의 나를 인식하며,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소중함을 고양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즉,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위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지구 생태계에 대한 감수성과 다양한 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는 나와 생태계는 각각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나 또한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물종 중의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또,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물종과 지구상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멸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에 대한 사례를 통해 건강한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에서의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르게 한다.

① 생태계의 일부로서의 나

지구 생태계 구성 요소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태계의 일부로서의 나를 인식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나를 포함한 인간은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일부로서, 많은 다른 구성 요소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생태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데 중점을 둔다. 즉 생태계의 일부로서의 나는 다른 생태계 구성 요소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다른 요소들과 상호 관계를 이루며 공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생태계의 의미와 종류, 생태계의 구성 요소,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의 균형 유지 등을 다루고, 생태계 구성 요소 중 한 요소의 변화가 전체 생태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생태계 균형 유지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한다.

◎ 유의 사항

생태계의 종류에서는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보다는 용어 수준에서만 다루도록 하여 환경에 따라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생태계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와 생태계 내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하여 인식하게 한다.

② 생태계와 생물 종 다양성의 중요성

생태계의 생물종 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 및 보전 방법을 알고 관심을 가진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지구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각각의 생물종은 생태계 내에서 각각 고유한 역할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여, 그에 대한 중요성과 보전 방법을 알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생물종 다양성의 의미, 생물종 다양성의 가치와 중요성,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방법 등을 다룬다.

이 주제의 학습에서는 다양한 생물종이 있는 생태계와 그렇지 않은 생태계의 사례 비교를 통해 생태계에서 생물종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거나, 우리나라의 멸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과 외래종의 사례 조사를 통해 생물종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서식지 훼손과 같은 인간 활동이 생물종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된 작은 생태계로서 자연 생태공원 설치, 생물종 복원 등과 같이 생물종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

◎ 유의 사항

생물종 다양성이 갖는 경제적·문화적·환경적 가치 등의 학습에서는 생물종 다양성의 의미를 인간의 관점에서만 다루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생태계에서 생물종이 차지하는 생물종 고유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생물종이 지닌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③ 환경 감수성과 체험

주위 생태계에 대한 조사·관찰·체험 활동을 통해 환경 감수성과 이해를 높인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주위 생태계에 대한 체험 활동을 통해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태계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생물을 조사, 관찰하게 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학교 숲과 같은 학교 내 환경 시설을 활용하거나 주위의 자연 학습장이나 환경 시설을 방문하여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태계에 대한 조사·관찰·체험 활동에 있어서는 오감을 활용한 적극적인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한다. 즉, 생태계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여 환경 감수성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조사·관찰·체험한 자연 환경에 대한 사진 찍기, 식물 세밀화 그리기, 글쓰기, 동시 짓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체험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인다.

◎ 유의 사항

이 주제의 학습에서는 환경에 대한 체험을 통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 함양이 중요한 목표이므로 가능한 교실 수업을 지양하고 자연의 직접 체험을 권장하며, 학습 보조 자료로 인터넷이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지속적인 체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에 숲이나 연못, 꽃밭 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환경의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가) 우리 활동과 환경의 변화

이 영역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인간 활동이 환경 문제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탐구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이 영역에서는 먼저 우리의 의식주와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탐구한다. 그리고 경제활동, 도시화, 교통수단의 이용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본 영역과 ‘1) 환경과 나의 관계 (3) 나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의 내용 차이 및 연계성은 다음과 같다. 앞부분인 (3) 나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환경과 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이번 ‘3) 우리 활동과 환경의 변화’ 영역에서는 인식을 보다 객관화시키고 발전시켜,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상생활에서의 의식주와 여가활동, 생산과 소비활동, 교통수단의 이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점이 있다. 즉, 인간의 구체적인 활동과 환경 문제를 연계시켜 봄으로써 환경보전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진다.

① 우리 생활의 변화와 환경의 영향

우리의 의식주, 여가 등 일상생활의 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즉 의식주와 여가활동 등의 인간 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내용의 중점이 있다. 이 주제에서는 우리 삶의 주변 환경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고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자원을 쓰고 있고, 그러한 자원은 대부분 자연으로부터 오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이 주제에서는 우리 생활이 현대적으로 변화되면서 전통사회에 비해 삶의 편리를 위해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환경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 유의 사항

일상생활에서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하되 이러한 영향 중 많은 부분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변화가능하다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게 한다.

② 경제 활동 및 도시화 등과 환경의 변화

우리의 경제 활동과 교통수단의 이용 등이 환경 문제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이해하고,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갖는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앞 주제인 인간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습을 좀 더 발전시키고 추상화시켜, 일반적으로 인간의 경제활동, 즉 재화와 용역을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인식시키는 데 내용의 중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눈에 자주 보이지 않으므로 쉽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인간의 경제 활동, 특히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농업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거나 그것을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환경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교통 체계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거시적 수준에서 내용을 다룬다. 현대사회는 도시화와 교통의 발달이 진행되며, 이러한 변화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 유의 사항

상품 생산이 환경 문제를 발생하게 하므로 상품생산 자체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상품들의 생산과 공급은 인간의 생존을 가능하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

래서 이 주제에서는 경제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줌으로써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만, 주의 깊게 배려한다면 환경 보전이 가능하다는 균형 있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올바른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나) 환경 친화적 가치관과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이 영역은 환경을 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념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생활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이 영역에서는 환경과 환경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탐구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환경과 환경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는 것을 사례와 환경쟁점에 대한 조사 탐구를 바탕으로 토론을 통하여 이해하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가치관을 탐색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례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지속가능발전이 인류가 현재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아 이를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를 함양한다.

①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환경과 인간의 상호 작용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가 갖춰야 할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인간이 환경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간과 환경이 건강하게 조화되는 환경 가치관에 대한 개념과 안목을 가지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사람이 환경에 대해 가지는 관점은 다양하며, 그것이 환경 문제의 원인과 관련된다. 인간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환경을 이용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환경 또는 동·식물 자체를 인간의 이용을 위해 희생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존재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현대의 발전된 과학 기술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거기에 매우 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이 주제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그러한 관점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관점을 탐색하여 바람직한 환경의 친환경적 가치관을 깨닫고 심화시키도록 한다.

◎ 유의 사항

여기에서는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 사례를 조사하고, 환경 문제와 환경 쟁점을 구별하여, 사

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드러나는 환경 쟁점이 환경 가치관과 관련됨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학생 스스로 탐색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의 역할과 가치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며, 가능한 한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며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한다.

②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이를 위한 생활양식

유엔 등에서 강조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구현하려는 자세를 기른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과 관련한 중요한 이념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고자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것으로 삶의 질과 환경 보전이 균형 있게 조화되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을 보는 중요한 개념이며 인류의 미래를 가치 있게 창조하고자 하는 큰 방향이다. 특히 새 교육과정에는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단순히 개념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위협되는 현대 문명의 사례를 들고 또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토론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에 관한 바람직한 자세를 기른다.

◎ 유의 사항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은 환경 과목의 전체 영역에서 상황에 맞게 구현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용어와 의미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정도만 다루어서, 이후 이 교과와 내용 전개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도입·안내 성격을 가진다. 즉, 여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중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간단히 안내하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중영역인 ‘13) 환경 보전의 실천’에서 소개하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도록 한다.

(3)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가) 맑고 상쾌한 공기

이 영역은 우리 주위에 있는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기의 환경적 의미를 인식하며, 소중한 공기가 오염되는 현상을 인간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기 환경의 보전

방법과 가치관 및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 영역에서는 먼저 공기의 역할을 파악하여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과 공기의 관계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여 공기의 환경적 의미를 깨닫게 한다. 이어 공기 오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공기 오염과 인간 활동의 관련성을 이해하며, 공기를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맑고 상쾌한 공기 보전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올바른 자세를 가지게 한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자연적인 건강한 공기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게 하고, 핵심적인 개념을 통해 공기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안목을 형성하게 하며, 공기 보전을 위한 방법을 익히고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소중한 공기

환경 요소로서 공기의 구실과 소중함을 알고, 공기와 인간 및 생물의 관계를 이해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환경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기의 역할을 깨닫고, 공기와 인간 및 생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 내용의 중점이 있다. 이를 통해 공기의 환경적 의미를 깨닫게 한다. 이 주제에서는 공기의 구성, 생물과의 관계, 물 환경 및 흙 환경과의 관계 등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또한 지구 역사에서 대기의 형성, 대기권의 구성, 물질 순환과 대기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 교육에 적합하게 내용을 구성하며, 공기가 소중한 자원으로 부각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공기의 중요성을 알고 보전에 관심을 기르게 한다.

◎ 유의 사항

특히 여기에서는 공기의 환경적 의미에 대해 자연 과학적인 부분과 인문 사회적인 부분을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며, 공기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함양하게 한다.

② 공기와 인간 및 생물과의 관계

공기 오염의 여러 현상을 조사하여, 공기 오염의 원인과 과정 및 영향을 인간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주변에 있는 공기 오염의 여러 현상을 조사하고 인간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연적인 공기 오염 현상과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공기 오염 현상을 대비

하여, 주로 공기 오염이 인간 활동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게 한다. 이 주제에서는 공기 오염의 원인과 과정 및 영향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1차 대기 오염 물질과 2차 대기 오염 물질의 개념을 쉽게 풀이하여 소개하고, 도시 공기 오염 현상으로는 오존 오염 등을 일상생활과 연관 지워 다룬다. 또한 공기 오염이 사람이나 동식물 또는 무생물에 끼치는 영향을 소개한다.

◎ 유의 사항

여기에서는 특히 공기 오염이 에너지 사용과 관련이 크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③ 공기의 오염과 보전

맑고 상쾌한 공기에 대한 감수성과 가치를 함양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고 실천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조사 활동을 통해 공기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여 이해하고, 공기를 보전하고자 하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내용의 중점이 있다. 공기를 보전하는 과학 기술적 방법과 사회 정책적인 방법을 함께 다룬다. 이를 통해 건강한 공기에 대한 감수성과 가치를 함양하게 한다.

이 주제에서는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연료 사용 등 에너지 관련 대책, 굴뚝에서 오염 물질 배출을 처리하는 기술과 자전거나 대중교통 수단 이용, 정책적인 방법 등을 간단히 소개한다. 그리고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내용도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다룬다.

◎ 유의 사항

여기에서는 특히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공기 오염에 대한 대책을 탐색하고 그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공기 보전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 한다.

(나) 깨끗하고 풍부한 물

이 영역은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물의 의미를 인식하며, 물 문제로서 물 오염과 물 부족 문제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물을 보전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 영역에서는 먼저 지구상의 물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물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인식하게 하고, 인간과 물의 관계를 탐구하여 물의 환경적 의미를 깨닫게 한다. 이어 인간 활동과 물 오염 및 물 부족 문제와의 관련을 탐구하고, 물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물 보전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한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자연적인 건강한 물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게 하고, 핵심적인 개념을 통해 물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안목을 형성하게 하며, 물 보전을 위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① 소중한 물

환경 요소로서 물의 구실과 소중함을 알고, 물과 인간 및 생물의 관계를 이해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환경의 주요 구성 요소인 물의 역할을 깨닫고, 물과 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 내용의 중점이 있으며, 물의 환경적 의미를 깨닫게 한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지구 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자원이 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함을 다룬다. 이 주제에서는 물의 순환 개념을 다루되 자연 과학적인 물의 순환과 함께 인간 사회와의 관계를 함께 포함한다. 물이 하천, 호수, 습지, 지하수 등 다양한 환경을 이루며 순환하는 과정에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이용되며, 인간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되는지 이해한다. 이를 통해 물이 지구상에서 매우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 유의 사항

특히 여기에서는 물의 환경적 의미에 대해 자연 과학적인 부분과 인문 사회적인 부분을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며, 건강한 물로 이루어진 환경과 그 속에서의 삶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자연 친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게 한다.

② 물과 인간 및 생물과의 관계

물의 오염과 부족 현상을 조사하여, 그 원인과 과정 및 영향을 인간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대표적인 물 문제로서 물의 오염과 부족 문제를 인간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데 내용의 중점이 있다. 즉 물 문제를 물만으로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인간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 오염 문제와 물 부족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 주제에서는 수질 오염원으로서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의 개념과 환경적 특성을 다루며,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깊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간이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학교 인근 지역의 하천과 수질 오염원을 조사하고, 하천 유역에서의 인간 활동이 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과학적인 측정 자료 수집 및 해석과 육안 관찰 및 평가 활동, 그리고 추상적 개념을 통해 구체적 현상을 보게 하는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다.

◎ 유의 사항

여기에서는 특히 수질 오염에 대해 과학적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사고와 통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인간 활동이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 화학적·물리적 수질 오염원, 하천의 물이 모여드는 유역(watershed)의 지리적 위치와 오염,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적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③ 물의 오염과 보전

건강한 물에 대한 감수성과 가치를 함양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고 실천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조사 활동을 통해 물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여 이해하고, 물을 보전하고자 하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이 있다. 물을 보전하는 과학 기술적 방법과 사회 정책적인 방법을 함께 다룬다. 이를 통해 건강한 물에 대한 감수성과 가치를 함양한다.

이 주제에서는 수돗물의 근원인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 하수 처리 등의 개념을 다루며, 특히 최근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주거 생활 및 산업 활동에 의한 비점 오염원으로부터의 수질 보전 대책, 그리고 물 부족 문제의 대책 등을 사례 조사와 토론 활동을 통해 학습하도록 한다. 특히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과 의미를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물 보전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 한다.

◎ 유의 사항

여기에서는 특히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물의 오염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과 의미를 이해하고 대책을 탐색함으로써 물 보전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다) 생명의 터전인 흙

이 영역은 생명의 터전이 되는 흙의 소중함, 흙의 환경적 의미를 인식하고, 흙의 오염과 유실 문제를 이해하며, 지속가능한 흙 환경을 보전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 영역에서는 먼저 지구에서 흙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과 흙의 관계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여 흙의 환경적 의미를 깨닫게 한다. 이어 다양한 인간 활동으로 흙의 오염과 유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흙 환경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흙 환경 보전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한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자연적인 건강한 흙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흙 환경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안목을 형성하게 하고 흙 환경 보전을 위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① 소중한 흙

환경 요소로서의 흙의 구실과 소중함을 알고, 흙과 인간 및 생물의 관계를 이해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환경의 주요 구성요소인 흙의 역할을 깨닫고, 흙과 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 내용의 중점이 있다. 이를 통해 흙의 환경적 의미를 깨닫게 한다. 흙은 생명의 바탕이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이다. 또한 인간의 삶에 다양하게 필요한 자원이 되는 등의 역할을 함을 다룬다. 이 주제에서는 흙의 환경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고, 흙과 인간과 생물이 상호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흙이 지구상에서 매우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 유의 사항

특히 여기에서는 흙의 환경적 의미에 대해 자연 과학적인 부분과 인문 사회적인 부분을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며, 흙 환경의 건강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한다.

② 흙과 인간 및 생물과의 관계

흙 오염 및 유실의 여러 현상을 조사하여, 이들의 원인과 과정 및 영향을 인간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대표적인 흙 환경 문제로서 흙의 오염과 유실 문제를 인간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데 내용의 중점이 있다. 즉 흙 환경 문제를 흙만으로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인간 활동과 관련하여 흙의 오염문제와 유실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 주제에서는 흙과 공기 및 물 오염이 관련됨을 이해하게 하고, 흙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을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한다.

◎ 유의 사항

여기에서는 특히 흙 오염에 대해 과학적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사고와 통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지도하도록 한다. 흙 오염과 유실에 대해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관점의 기초를 가지게 한다.

③ 흙의 오염과 보전

건강한 흙에 대한 감수성과 가치를 함양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고 실천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조사 활동을 통해 흙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여 이해하고, 흙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내용의 중점이 있다. 흙 환경을 보전하는 과학기술적 방법과 사회 정책적인 방법을 함께 다룬다. 이를 통해 건강한 흙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 유의 사항

여기에서는 특히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흙 오염에 대한 대책과 의미를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흙 환경 보전에 대한 가치 내면화와 실천력을 기르게 한다.

(4) 자원과 에너지

(가) 우리 생활과 자원 및 에너지

이 영역은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자원과 에너지 현황을 이해하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서

비롯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과 대책을 이해하여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과 실천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즉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며, 과도한 자원과 에너지 이용으로 인하여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깨달아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원과 에너지 문제를 학습자의 경험 사례를 통해 이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 문제가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자원과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사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환경 친화적인 자원의 이용과 개발 방법 등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자원 및 에너지 이용에 대해 이해한다.

① 자원 및 에너지의 의미와 문제

자원의 의미와 종류를 조사하여 자원의 필요성과 유한성을 이해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원이용과 개발 방법 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자원의 의미를 알고, 자원의 종류를 조사하여 자원의 필요성과 유한성을 이해하고, 과도한 자원 개발과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자원 고갈 문제와 생태계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자원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자원의 의미와 종류, 자원의 필요성과 유한성, 환경 친화적인 자원 이용과 개발 방법 등을 다루되, 자원의 지역적 편중, 재생가능 자원과 재생 불가능 자원의 이용과 개발, 자원의 관리 등에 중점을 둔다.

이 주제의 학습에서는 재생 가능 자원과 재생 불가능 자원의 개발과 유지 관리의 비교, 자원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문제,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 사용 증가, 과도한 자원의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고갈 문제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다룰 수 있다.

◎ 유의 사항

이 주제에서는 자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하고,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자원의 의미와 필요성, 에너지 자원의 종류와 이용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자원 이용과 개발 방법 등은 사례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여, ‘에너지의 미래와 환경 친화적 이용’ 단원에서 다루는 환경 친화적인 자원의 이용과 개발 방법에 대한 조사와는 구분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② 에너지의 미래와 환경 친화적 이용

- 에너지 자원의 특성과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등 대책을 조사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자원의 이용과 개발 방법 등을 조사하고, 이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의 특성과 자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환경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의 필요성을 조사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 함양과 태도 및 실천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종류, 에너지 자원과 환경 문제, 신재생 에너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자원의 이용과 개발 등을 다루되,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학습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각 에너지 사용에 따른 장·단점을 조사한다. 아울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올바르게 알고 실천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습관을 조사, 토의하도록 하여 나의 에너지 절약이 미래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실천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 유의 사항

에너지 자원의 특성과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의 발생에는 과학·기술·사회·환경적 측면이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력을 기르도록 한다.

(나) 다시 사용하는 쓰레기

이 영역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조사함으로써 쓰레기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 자원으로서의 쓰레기 이용 방법과 경제성을 파악함으로써 쓰레기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실천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즉 일회용품의 사용량 증가와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는 한정된 자원의 고갈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쓰레기 처리 비용의 증가와 함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쓰레기의 자원화 방안에 대한 탐구와 쓰레기의 처리 방법과 대책에 관한 통합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자원과 에너지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쓰레기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문제로서 쓰레기 발생의 주체이자 쓰레기 문제 해결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 집과 학교, 지역 사회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및 자원 재생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① 쓰레기의 발생 원인과 문제

주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쓰레기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을 이해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고 비교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발생에 대한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이해하고, 쓰레기 조사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의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쓰레기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을 이해하되, 쓰레기가 단지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환경 미관을 훼손시키는 불결하고 불쾌한 존재만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곧 쓰레기 문제를 줄이는 길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주제의 학습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유리병, 플라스틱, 고철 등의 쓰레기와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학급의 구성원 및 다른 학급과 비교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 유의 사항

쓰레기 발생에 따른 문제들은 가능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쓰레기 처리장 견학 및 주위의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험과 사례 조사를 활용한다.

② 쓰레기의 재활용과 자원화

- 쓰레기 처리 방법을 조사하여 자원으로서의 이용 방법과 경제성을 파악한다.
- 쓰레기 처리 방법과 대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개인과 가정 및 학교, 그리고 공동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며 이에 대한 실천 자세를 갖는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쓰레기의 처리 방법을 조사하여 쓰레기의 자원화 가능성과 경제성을 파악하고 개인,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설정하였다.

쓰레기 처리 방법의 종류와 특징, 쓰레기의 자원화와 재활용, 쓰레기 감소를 위한 방안과 실천 등을 다루되, 사례 조사를 통해 개인, 지역 사회, 국가마다 쓰레기 처리, 재활용 및 자원화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아울러 쓰레기장 건설 등 지역 이기주의 문제의 파악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탐색해 본다.

이 주제의 학습에서는 주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및 자원화가 가능한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거나 재활용품 만들기와 같은 실습 과제 수행을 통하여 실천 방안의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유의 사항

쓰레기 재활용과 자원화는 각 가정과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재활용 처리 시설을 방문하거나 학교에서 중고 물품 교환 시장 등을 통하여 재활용과 자원화에 대한 체험과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5)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가) 지역 사회의 환경

이 영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의 원인과 현상 및 대책을 이해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즉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는 도시, 농촌, 어촌, 공업 지역이 지닌 환경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환경 문제의 대책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 함을 인식한다.

여기에서는 지역 사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환경 변화, 환경 문제의 원인과 현상 및 대책, 환경 문제의 해결 노력 등에 관하여 사례 조사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별 과제나 프로젝트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주제의 학습에서는 다른 지역사회 환경의 특징, 환경 문제의 원인과 현상 및 대책,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와 어떻게 다른지, 또 공통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비교 학습을 통해 다른 지역 사회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① 자기 지역의 환경 문제와 해결 노력

- 내가 사는 지역 사회 환경의 특징을 조사하고 지역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자기 지역의 여러 환경 문제의 원인과 현상 및 대책을 사례 중심으로 조사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환경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지역 사회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지역 사회의 환경을 보전하는 데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내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여기에서는 사례 제시를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역 사회의 환경 변화를 관찰하게 하거나 (1) ‘환경과 나’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관련지어 지역 사회의 환경 중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내가 사는 지역 사회 환경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고, 지역 사회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내가 사는 지역 사회 환경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의 원인과 현상 및 대책을 사례 중심으로 다루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주제의 학습에서는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게임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에 대한 원인과 현상 및 대책을 지역 사회의 생활양식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유의 사항

지역 사회 환경의 특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환경적 특징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징 등의 통합적 측면에서 지역 사회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지역별 환경 문제와 대책

도시, 농어촌, 공업 지역 등의 환경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조사하여 지역별 환경 문제와 대책을 제시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내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를 사례 조사를 통하여 이해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또한 지역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도시, 농촌, 어촌, 공업 지역 등 내가 사는 지역과는 다른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후 해당 지역사회 환경의 특징, 환경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조사하도록 하되,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상호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상호 의존되어 있음을 발견하도록 한다. 각종 시청각 자료와 신문 자료,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게임, 의사결정, 토의 학습 등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지역사회 환경의 특징을 이해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유의 사항

다른 지역 사회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의 개인적 경험과 사례를 이용하는 한편 해당 지역사회의 환경 전문가 또는 시민 활동가 등을 초청하거나 학교 간 교류를 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나) 지구 환경

이 영역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내분비계 장애물질, 숲의 감소와 사막화 등 인간 활동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지구적인 환경 문제의 원인과 현상 및 대책을 파악함으로써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문제 해결 노력에의 참여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 영역에서는 지구 환경 문제로 대두된 다양한 환경 문제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구 환경 문제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나의 활동을 출발점으로 지역 사회, 국가,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까지 연결됨을 이해한다.

여기에서는 인간 활동의 증가로 지구환경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지구환경 문제의 증가는 다시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데 중점을 둔다. 즉 나를 포함한 모든 생태계 구성원의 삶의 터전인 지구환경 보전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으며,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내가 사는 지역과 일상생활에서의 환경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함을 깨닫고 실천하게 한다.

① 여러 가지 지구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내분비계 장애물질, 숲의 감소와 사막화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그 원인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지구환경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조사하여 지구환경 문제가 지구 전체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구환경 문제의 발생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내분비계 장애물질, 사막화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지구환경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다루어 내가 사는 지구가 과거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음을 인식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주제의 학습에서는 시청각 자료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 문제의 특성에 따른 원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간의 관점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구성원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의 사항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은 현상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입각하여 제시하되,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 가능한 현상 위주의 사례 조사에 중점을 둔다. 또한 고등학교 환경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구환경 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구환경 위기의 극복 노력

- 지구환경 문제는 지역적인 인간 활동의 결과가 누적되어 발생하며, 그 영향이 점차 심각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 대책을 제시한다.
- 일상생활이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됨을 알고, 지역과 지구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는 지구환경 문제가 산업혁명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인간 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사례 조사를 통하여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지구환경 문제 발생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해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지역과 지구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 주제의 학습에서는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상에서의 실천 사항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자원과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 지역 사회에서의 환경 보전 실천과 문제 해결의 참여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임을 이해하고 그의 실천 노력에 참여하는 자세를 기르게 한다.

◎ 유의 사항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지역 사회 환경 문제와는 달리 중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나의 실천이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

(6) 환경 보전의 실천

(가) 생태 공간의 회복

이 영역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 공간 회복의 가치를 깨달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적인 태도를 갖도록 설정되었다. 이 영역에서는 먼저 공간적인 측면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특성에 대해 탐색하고, 이어 환경 문제가 야기된 공간을 회

복시켜 보다 건강한 생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그리고 건강한 생태 공간으로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노력들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하며, 건강한 생태 공간 회복을 위한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환경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게 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와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① 생태 공간 회복의 의미

공간과 장소에 따른 건강하고 쾌적한 생태 환경의 조건과 생태 공간 회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태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훼손된 생태계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 내용의 중점이 있다. 이 주제에서는 건강하고 좋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을 기르게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에 의해 훼손된 생태계 공간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공간 회복을 위한 노력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훼손된 환경과 복원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사진 자료, 시사 자료 등을 수집하여 토의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 과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진다.

◎ 유의 사항

인간의 가치 추구와 의지에 의해 환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게 한다. 좋은 환경과 인간 활동에 의해 훼손된 환경을 비교하여 탐색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가지도록 하여, 환경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목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② 생태 공간의 회복과 보전 노력

생태 공간의 회복 사례와 방법을 조사하고, 회복된 생태계의 보전 활동에 참여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생태 공간의 회복 사례에 대한 조사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에 대한 가치 함양

과 실천 자세를 높이는데 내용의 중점이 있다. 이 주제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 하천 복원 등 자연 환경의 복원 사례 또는 생태도시 형성을 위한 노력을 조사해 봄으로써 생태 공간 회복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며,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기른다.

◎ 유의 사항

환경 복원이 환경 보전의 적극적 실천 방법의 일환임을 알고, 환경 복원에 관한 사례 학습을 통하여 과학 기술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조사하며,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 과학이 환경적 가치와 결합하여, 건강하고 좋은 환경의 창출과 회복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미래 전망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 환경 보전의 실천

이 영역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 환경 보전을 위한 개인·사회적 노력, 국가적·국제적인 다양한 노력들을 깨달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지를 갖고 노력하며 실천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 영역은 환경 과목의 종합적인 정리 및 실천·태도 확인을 위한 부분으로서 의의가 있다.

먼저 이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환경 친화적인 도구 사용을 모색하여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그리고 환경 보전을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하는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조사 활동을 하며 실천적 가치관과 태도를 갖게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적인 의지와 태도를 가진, 보다 균형 있고, 소양 있는 성숙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① 일상생활 제품의 환경 친화적 이용

일상생활의 여러 제품과 기구, 화학 물질 등의 환경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알고, 환경 친화적인 사용 방법을 찾아 실천한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제품의 환경적 의미를 탐색하여 환경 보전의 실천적 자세를 함양하는 데에 내용의 중점이 있다. 즉 도구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게 하여 환경 보전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 하도록 한다. 도구를 만드는 과정, 도구의 선택과 사용 및 폐기 등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우리의 생활 가운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게 한다.

◎ 유의 사항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음식, 자동차, 텔레비전, 가구, 의류, 컴퓨터 등 각각에 대해 학생 조사 활동과 발표 토의의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고,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 대한 조사 활동도 할 수 있다.

② 세계 시민으로서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의 참여

개인과 단체 및 지역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전 방법을 조사하고, 국가 및 국제기구 차원의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에 노력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는다.

◎ 핵심 내용

이 주제에서는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개인적 사회적 노력을 탐색하여 가치를 내면화하고 의지와 실천력을 함양하는 데 내용의 중점이 있다. 환경 보전의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 토론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적 국제적 동향을 접하게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환경적 소양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의 사항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큰 인류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기초적인 자세와 태도를 기르게 한다.

4. 교수·학습 방법

환경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은 크게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항은 연간 수업 및 학교 실정에 맞는 환경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재구성에 대하여, ‘나’항은 환경 과목 교육 목표의 세부 목표와 인지적 정의적 목표 간 균형 있는 접근에 대하여, ‘다’항은 과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환경 탐구의 방법으로 간학문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라’항은 환경에 대한 통합적 사고와 이해, 각종 통계와 시사 자료, 시청각 자료 및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등 다양한 환경 교육 교수·학습 매체의 사용과 체험 학습에 대하여, ‘마’항은 환경 교육의 소재에 대하여, ‘바’항은 학교 환경 교육과 사회 환경 교육의 관계에 대하여, ‘사’항은 학교 여건과 특별 활동과의 연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학교 ‘환경’과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학년은 1개 학년에서 3개 학년까지, 연간 수업 시수는 34차시에서 102차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므로, 학교 여건에 맞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중 일부를 선택하거나 재구성하여 수업한다.

중학교 ‘환경’과는 교과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군에 편성되어 있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 1~3학
년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다.

연간 수업 시수는 최소 34차시에서 최대 102차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므로, 1개 학년에서 주당
1~3시간을 수업하거나, 3개 학년에 걸쳐 주당 1~3시간을 편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환경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증감하여 운영한다.

나. 학습 목표와 내용은 지속가능한 삶의 구현에 필요한 환경 지식과 기능 습득, 환경 감수성 및 환경
친화적 태도와 실천력 함양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목표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중학교 ‘환경’과의 목표는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삶을 이해하고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
를 위한 세부 목표로서 환경지식, 기능, 환경 감수성 및 환경 친화적 태도, 실천력 함양을 제시하
고 있다.

지속가능한 삶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삶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법(2007. 8. 3. 법률 제8612호로 공포)’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
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
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이 개념 속에
는 지구가 단일한 세계로 통합되어 있는 공간적 개념과, 동시에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를 통합하
고 있는 시간적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세대가 미래 가치를 인식하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 가치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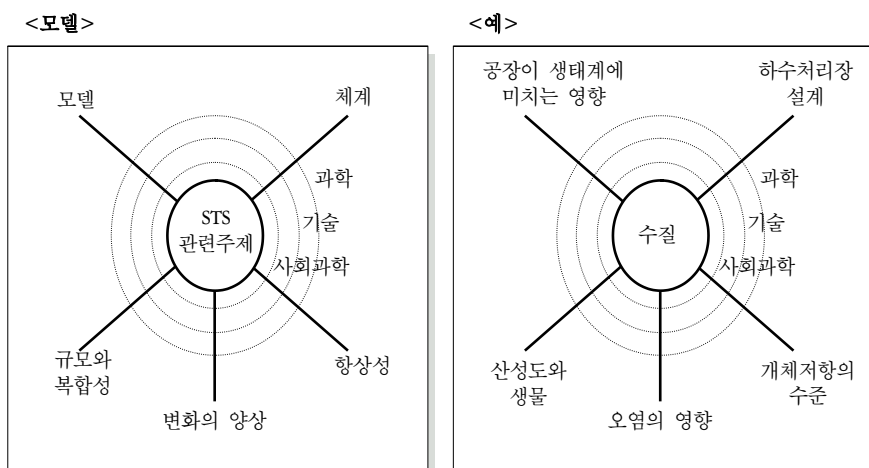
환경 지식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와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며, 기능은 환경 지식을 이해하
기 위한 탐구 방법이며, 환경 감수성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 능력을 말하며 이를 위
해서는 환경에 대한 배려의 태도가 필요하며, 인간의 환경에 대한 관점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
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 ‘환경’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
의 파악에 의의를 두고, 이를 너무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처럼 환경 교육은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세부 목표들은 지식, 기능 등 인지적 영역
과 환경 감수성 및 태도 등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합한 것이 실천 영역이
라 할 수 있다.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은 전인 교육의 지향과 부합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중학교 ‘환경’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과목임에 유의하여 개인의 경험과 주위의 사려
를 중심으로 환경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균형 있게 접근하고 간학문적
탐구 방법을 활용한다.

중학교 ‘환경’과는 환경 교육의 기본적 성격인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이라는 뜻은, 학습자 개인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개인과 환경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경험 속에는 모든 환경 현상이 종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 교육은 개인의 경험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각자의 삶과 환경과의 연속선상에서 탐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개인의 경험은 분절되어 있지 않다. 경험은 다양한 환경 요소들과 다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으로 환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험과 관련된 환경 현상에 대하여 물음을 제기하고 물음에 대한 답에 연속적인 물음을 제기하여 개인의 경험과 환경 세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학문 세계를 뛰어넘게 되기 때문에 간학문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간학문적 접근법은 교과목 사이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접근법으로 모델과 예는 [그림 1]과 같다. 다양한 환경 관련 이슈는 간학문적인 방법을 통해 그 접근이 가능하며, 에너지, 인구와 식량, 인간 공학, 대기와 수질, 자연 자원의 활용, 건강 등과 같이 과학-기술-사회(Science-Technology-Society; STS)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는 주제들은 통합적 접근의 대표적 예이다. [그림 1]에서 ‘모델’은 STS 관련 주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할 때 관련 교과목에서 체계, 항상성, 변화의 양상, 규모와 복잡성, 사회과학, 기술, 과학, 모델 등과 같이 환경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 교육 및 다른 교육과정에서도 유용한 개념들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간학문적 접근

라. 환경 관련 주제 및 쟁점 중심의 학습을 통해 환경에 대한 통합적 사고와 이해가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 태도와 자기 주도적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도록 한다. 다양한 환경 체험 학습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며, 강의, 조사, 토론, 의사 결정, 가치 탐구, 실험 실습, 인터넷 활용, 드라마, 역할 놀이, 모의 놀이, 사례 연구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환경 관련 주제 및 쟁점 중심의 학습은 환경 현상의 총체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방법이다. 북미 환경 교육 협회(NAAEE)에서도 4대 환경 교육의 목표 중에 ‘환경 쟁점들을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는데 요구되는 기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하위 요소로 ① 쟁점 확인과 조사, ② 쟁점 결과의 구분, ③ 대안적인 해결책과 행동 과정의 확인과 평가, ④ 융통성, 창의성, 개방성을 수반하는 작업 등을 제시하였다.

환경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고, 그 공간적 범위가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경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해석이 개입하고 인식과 대처 방법이 각각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주제화하거나 쟁점을 들추어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갈등을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학습자는 이 과정에서 환경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합리적인 해결력을 갖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가치를 지향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인간에게만 이익이 되는 편향된 가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익이 되는 환경에 대한 가치이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인 태도로 가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환경 체험 학습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까닭은 환경 현상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이 그 현상이 드러나는 시공간 속에 위치하는 데에서부터 학습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 교육에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교육의 목표 및 내용, 방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의 특징을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강의는 교사 중심으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다. 이러한 강의법은 장·단점이 있으니 유의점을 파악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조사 학습은 학생 중심으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 활동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회 과학적인 여러 방법에 기원을 두므로 교사의 준비가 필요한 학습 방법이다. 학생들은 문헌 조사 방법과 현장 조사 방법 그리고 면담 조사 방법을 기반으로 조사 학습을 할 수 있다.(박태운 외 5인, 2001).

토의·토론 학습은 환경의 요소와 요소들 간의 관계, 일상생활 장면에서의 환경 문제의 의미와 그 심각성, 해결 방안 및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쟁점들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려는 교수·학습 방법이다(남상준 외 2인, 1994). 토론은 환경 문제나 쟁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드러내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가치가 개입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의사 결정(decision making) 학습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하는 것으로 과학적 지식과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다.

의사 결정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사실과 가치의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재된 가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이 설정되어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김정호 외 2인, 1998).

가치 탐구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 보다 상위의 가치를 이해하여 개인만의 이익이 아닌 공공과 생태계 전체에 이익이 되는 가치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가치를 기준에 따라 조절하고 잘 결정하는 것이 가치 탐구이며, 가치 탐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치 탐구 학습이다. 가치 탐구 학습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여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 결정과 가치 탐구는 엄격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실험·실습 학습은 조건에 대한 통제를 통해 현상의 규칙성을 규명하여 개별적인 환경 현상을 과학적 원리로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실험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미 알려진 지식을 예증하기 위한 활동이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조작이다(김찬중 외 2인, 1999). 실험은 자연 과학적인 탐구 방법이며,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 방법이다. 실험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실험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 및 어떤 것을 만들어 보거나 실제로 해봄으로써 조작의 기능을 기르고 성취감을 맛보게 하려는 교수·학습 방법이다(남상준 외 2인, 1994).

실험은 연구의 대상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을 전제로 수행되며, 조건의 조작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실험에는 도구와 기구가 사용되므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다. 실험에 요구되는 기술은 실험 기구를 다룰 줄 아는 조작적인 기술과 실험을 설계하고 자료를 분석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사고 기술로 대별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기술의 활용은 자기 주도적 학습, 즉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생의 능력에 맞추어 적용해 보는 상황 학습이나 같은 주제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환경 교육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상황학습을 협동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역할 놀이, 모의 놀이, 드라마는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연출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경험해 보거나, 감정을 이입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공공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자기화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

시뮬레이션 게임(simulation game)은 일반적으로 ‘모의 놀이’라고 하는데 모의 학습, 모의법, 모

의 게임, 모의 역할 학습, 가상 실연 학습이라고도 있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역할(role playing) 학습과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학습을 혼합한 것이며, 극화 학습을 약간 변형시킨 방법으로, 시뮬레이션(simulation)과 게임(game)이 합쳐진 것이다. 흔히 시뮬레이션과 게임, 역할극, 사례 연구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상의 학습 방법들이 참가자들이 상호 관련을 맺으며 실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례 연구는 환경 문제가 추상적인 이론의 형태로 제시되는 데 비해 사례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이 그 문제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의 순환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에 대한 사례로서 미나마타병과 같은 사례를 연구하면 그 구체적 맥락을 확인 할 수 있다.

마.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보편적 소재를 선택하고, 언론 보도 자료, 다큐멘터리, 각종 홍보물, 인터넷 정보, 도서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다.

환경 교육은 환경 현상의 객관성을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과 연관되어 있음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현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적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경 친화적 태도를 기르는데 특정한 편향된 가치가 아닌 인류 공영과 생태계의 안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 보도 자료는 자료의 신속성에서는 좋은 편이나 언론사에 따라 고유의 해석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큐멘터리는 환경 현상에 대한 의도된 기록물의 성격을 갖는데 직접적으로 접할 수 없는 다른 시·공간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것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건에 대하여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는 구조화된 기록물이고, 그 사건에 대한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채로 기록되는 한계가 있다.

각종 홍보물은 홍보라는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목적과 내용간의 관계를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는 누구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지만 정보의 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보의 수준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로 하게 된다.

도서는 비교적 목적이 뚜렷하고 반복적인 퇴고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질은 우수한 경우가 많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들고 시간적으로 과거의 사실들로 이루어져 현재의 사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생활 소재를 교육의 소재로 삼는 것은 듀이의 반성적 탐구에서 기원한다. 이는 첫째, 탐구

대상은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명백히 감지되는 문제적 사항이라는 점이고, 둘째, 탐구는 학생들이 문제를 한층 더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생각하게 하는 확장적 사고라는 점이며, 셋째, 탐구가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법’에서 나온 기준을 해당 문제에 적용해 판단하는 체계적 사고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 중에 교육적 소재로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생활은 개인의 실존과 연관된 것이기에 개인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출발점이 된다. 실생활을 선택하고 그 생활의 장면, 즉 학습자의 행동과 행동가능성을 열어주는 여건에 대한 연관을 탐색하여 개인의 행동과 지구적 사건이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이 과목은 다른 교과목의 환경 관련 내용 또는 사회 환경 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종합하여 학습하는 과목으로, 학생 수준과 지역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환경 및 환경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와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목표와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하고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학습이 되도록 한다.

중학교 환경 과목은 초등학교 수준의 교과 지식 및 기능, 가치 태도를 갖추고 있다는 가정에서 모든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는 단원 및 주제별 학습을 준비할 때 초등학교 교과 수준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출발점 행동 진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각종 청소년 활동 및 시민 사회 단체의 사회 환경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및 기능, 가치 태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 교육 및 사회 환경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수준은 지역별로 또는 학교 및 학급별로 차이를 보이므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 수준에서 경험되는 환경 현상을 수업의 상황에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및 환경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주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학생 및 학교의 제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 및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수 설계를 해야 한다.

사. 교수·학습 방법의 일환으로 학교 및 주위 환경을 이용하고, 특별 활동에 있어서 환경 동아리 활동과 환경관련 전시회, 지역의 환경 행사 및 실천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환경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학교 및 주위 환경은 학생이 환경 현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그 환경은 지구적으로 연관된 환경이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지구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책이 있다고 할 때, 그 공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책 공장이 있어야 하고, 원료는 열대 숲에서 얻고, 열대 숲의 나무는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따라서 공책을 낭비하게 되면 열대 숲이 줄어들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환경 교육의 목표 달성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의 특별실과 학교 숲, 연못, 화단, 운동장, 급식실 등 환경 교육의 장이 되는 모든 공간을 교육의 목표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의 환경 교육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 활동의 행사 활동 및 단체 활동은 학생에게 환경 실천의 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는 환경 교육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여 학교 교육과 지역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학교 환경 교육과 사회 환경 교육이 통합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5. 평 가

평가는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목표 영역별 일관성, 과정과 결과의 평가, 학습 방법과 다양한 평가, 실천성과 평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에서는 지식, 이해, 기능 등 인지적 목표와 관련된 평가 및 가치, 태도, 참여 등 정의적 영역의 목표와 관련된 평가를 고르게 하여 목표와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지속가능발전 및 개인의 심성 계발에 기여하는 환경 과목에서는 환경과 환경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문제 해결의 기능 습득과 관련된 인지적 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환경 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 태도 함양 및 나아가 행동력 제고 등의 정의적 영역의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인지적 목표와 정의적 목표가 균형 있게 달성되도록 한다. 중학교 학생은 발달 심리적 관점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며,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이 골고루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환경 과목의 평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고르게 반영하여 평가하며, 목표와 내용,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다. 환경교육 목표의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지식 :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과정, 인간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과 상호의존 관계, 과거와 현재의 여러 환경, 각종 환경문제와 갈등, 환경보전 대책과 방식과 그 중요성 등

- 기능 : 환경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여러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의사소통 기능, 여러 출처로부터 학습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 평가하는 학습 기능, 환경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고 균형적인 판단을 하는 문제 해결 기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협동 및 참여하는 개인적·사회적 기능 등
- 가치와 태도 : 환경과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존중 및 보호, 환경에 대한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구적 자세와 열정, 환경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올바른 사고, 다른 사람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견과 합리적 주장과 신념을 수용하려는 마음가짐과 이들에 대한 존중심, 관용과 열린 마음,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개인적 사고와 행동 방식을 검토하고 변화시키려는 마음가짐과 타인과의 협력 등

나. 환경 교육의 평가는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습 활동의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를 한다.

환경 과목은 인지적 목표보다는 궁극적으로 가치, 태도 및 행동 지향의 정의적 목표 달성을 강조함으로 학습자의 태도 변화와 참여 활동 등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학생의 참여와 태도 변화를 파악하는 교수·학습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즉,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자료 수집과 해석 및 평가 능력과 태도, 토론 수업에서의 발표 내용과 태도, 역할놀이 때의 내용 준비와 태도, 환경 일기나 글짓기 내용,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변화 과정 파악, 환경 보전 활동 참여 자세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법과 항목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과목의 평가는 지식 평가보다는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 환경 보전 활동에의 참여 등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가 의미가 있다.

환경 교육의 여러 영역을 고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간 지도 계획과 평가 계획 수립 시에 인식, 지식, 태도 기능, 참여 등 목표별 내용 선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 방법 선정과 활동, 그리고 각 단계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의 환류(feedback) 등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류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위 학습 목표마다 성취 정도를 확인하도록 하여 학습자가 학습의 목표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다. 지필 검사를 비롯하여 관찰, 면담, 점검표를 이용한 평가 등을 활용하고, 평가 자료는 지필검사 결과, 보고서, 실험 실습, 프로젝트 결과물, 토의 및 토론 참여도, 상호평가와 자기평가 등 학습 참여 태도 및 교수·학습 과정의 다양한 산출물을 이용한다.

환경 과목의 실제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인지적 목표 달성은 지필 검사로, 기능과 정의적 목표 달성 정도는 면담, 점검표를 이용한 평가, 상호 평가, 자기 평가, 일기 쓰기, 보고서 평가, 관찰 등으로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실습 등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방법에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실시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유의한다. 특히 정의적 평가의 자료는 다양한 평가 결과물과 교수·학습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이용한다.

<표 1>교수·학습 방법에 사용 가능한 평가 방법 (최석진, 1999)

| 교수·학습 방법 | | 토의 토론 | 조사 관찰 | 실험 실습 | 놀이·게임·표현 | 역할놀이·모의 사태놀이 | 탐구 |
|----------|----------|-------|-------|-------|----------|--------------|----------|
| 평가 유형 | 평가 방법 | | | | | | |
| 지필 평가 | 검사지법 | 지식 | 지식 | 기능 | | | 지식·기능 |
| | 질문지 평가 | 지식 | 태도·행동 | 태도 | 태도·행동 | 지식·태도 | |
| 관찰 평가 | 면담 평가 | | | | | 기능·태도 | 지식 |
| | 비참견적 측정 | 태도·행동 | 태도 | 기능·태도 | 태도·행동 | | 기능·태도·행동 |
| | 실험·실습 평가 | | | 기능 | 태도·행동 | | 기능 |
| | 자기 평가 | 태도 | 태도·행동 | | 태도 | 태도 | 태도 |
| | 상호 평가 | 태도 | 태도·행동 | | 태도·행동 | 행동 | 지식 |
| 과제물 평가 | 보고서 평가 | | 지식·태도 | 기능·태도 | | | 지식·태도 |
| | 과제제작 평가 | | 태도 | 기능 | 태도·행동 | | 기능·태도 |

라. 환경 교육의 참여 목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환경 보전 실천 성과와 효과를 분석·평가한다.

환경 교육의 정의적 목표인 가치, 태도 및 참여 등 행동 목표 달성 정도의 평가는, 이를 위한 지적 기능이 갖추어졌는지를 평가하고 행동의 반복성 및 지속성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목표 달성의 평가 방법은 앞서서도 강조한 과정 중심의 평가와 참여 행동의 배경이 되는 지식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의견, 주장, 신념 및 실천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용품 아껴 쓰기,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의 노력이나 점검표, 이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료를 수집 및 개발하려는 노력, 생명 지킴이와 이웃돕기의 실천 정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 환경 과목의 평가 결과는 교육 평가의 고유한 의도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환경 과목 신·구 교육과정 비교

| 항목 | 제 7차 교육과정 (1997)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
| 체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 좌동 |
| 성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목의 정의 : 생태계에 대한 이해, 환경 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치 탐구와 태도 변화에 비중을 두는 과목 2. 내용의 범위와 주제 및 소재 : 중영역 내용제시 3. 환경 교육의 목표 : 이해, 기능, 가치·태도, 참여 4. 과목연계성 : 고등학교 ‘생태와 환경’ 5. 학습지도 : 발달수준고려, 실제적 활동 및 실생활에서의 환경 친화적 행동 강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목의 정의 :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와 인간에 의한 환경문제이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인식,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식과 기능 습득, 환경친화적 사고와 태도를 함양하는 과목 2. 과목의 특징 : 인식, 감수성, 소양, 자연과 생명에 대한 태도, 환경친화적 사고, 책임 있는 건강한 시민육성 3. 핵심내용 : 대영역 내용을 중심으로 상술 4. 교수학습방법 : 지역사회와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관련 주제 및 쟁점을 중심 통합적 학습, 환경문제의 합리적 의사결정·해결력, 가치내면화와 실천력 향상 5. 목표지향적 평가 6. 운영 : 초등학교 고등학교 환경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에 연계됨. 학생의 인지 수준 및 발달단계, 지역적 특성,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고려한 학습 내용과 방법의 차별화 |
| 목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괄목표 : 이해, 가치관, 감수성, 태도, 탐구, 참여 2. 하위목표 3개 : 1) 환경 및 환경과 인간의 관계 이해 및 환경문제 인식 2) 조사 및 관찰과정과 감수성 및 문제해결 기초기능 3) 가치관 및 환경친화적 태도와 환경보전에 참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괄목표 : 환경 감수성과 인식, 환경과 인간의 관계 이해, 지식의 탐구와 문제 해결능력과 기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사결정력과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함양,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 및 실천. 2. 하위목표 4개 : 1) 환경감수성과 인식을 길러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 2) 좌동,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사 결정력과 환경 친화적 가치관 함양, 4)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 |

| 항목 | 제 7차 교육과정 (1997)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
| 내용 체계 및 내용 진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대영역, 7개 중영역, 17개 내용 대영역 : 인간과 환경, 환경 문제와 그 대책, 환경 보전 중영역 : 인간과 환경, 환경의 변화, 자원은 생활의 원동력, 지켜야 할 생활 환경, 지구의 환경 문제, 환경 보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 쾌적한 환경 만들기 내용진술의 형식 : 대영역 이름 - 대영역 목표 - 중영역 이름 - 중영역 내용 목표진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대영역, 13개 중영역, 31개 내용, 영역 내 숫자 삭제 대영역 : 환경과 나, 환경의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자원과 에너지, 지역 환경과 지구환경, 환경보전의 실천 중영역 : 환경과 나의 관계, 생태계 속의 나, 우리 활동과 환경의 변화, 환경 친화적 가치관과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맑고 상쾌한 공기, 깨끗하고 풍부한 물, 생명의 터진인 흙, 우리 생활과 자원 및 에너지, 다시 사용하는 쓰레기, 지역사회의 환경, 지구환경, 생태 공간의 회복, 환경 보전의 실천 내용 진술의 형식 : 대영역 이름 - 대영역 목표 - 중영역 이름 - 중영역 내용 목표진술(행동 중심의 동사 및 상세한 진술) |
| 교수·학습 방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항목 지역의 성격을 반영한 선택적 학습 통합적 성격으로서 간학문적, 다학문적, 인문·사회 과학적 접근에 비중을 둔다 대중매체와 각 기관의 홍보자료 등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이용, 실생활 중심 사회, 과학, 가정, 기술, 도덕 등 교과 간연계,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의 연계 고려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사용, 지식 및 경험의 유형에 근거한 다양한 수업 방법 지식중심의 지양과 활동중심의 지향, 인지적·정의적 목표 균형 있게 반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 항목 수업 시수 : 3개 학년 중 34~102차시, 선택 및 재구성 수업 학습목표와 내용 :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지식, 기능, 감수성 및 친화적 태도와 실천력 함양, 인지적 정의적 목표의 균형 유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의 과목이므로 개인의 경험과 주위 사례를 중심으로 간학문적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환경과 삶의 연관을 균형 있게 파악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주제 및 쟁점중심 학습으로 통합적 사고와 이해증진, 환경 친화적 태도와 자기주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력 신장. 체험학습과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활용 이해, 감수성, 태도 신장을 위한 보편적 소재 선택, 다큐멘터리 활용 추가 학교 및 주위 환경의 적극적 이용, 특별활동과의 연계 실천, 지역사회와의 환경 활동에 관심 |
| 평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항목 인지적, 정의적 항목에 대한 균형평가 활동전반의 과정중심 평가 지필검사와 다양한 평가 참여목표의 평가는 실천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평가함 목표와 일관된 내용의 전개와 평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항목 인지적, 정의적 항목에 대한 균형평가, 목표와 일관된 내용의 전개와 평가 학습활동의 과정평가와 결과 평가의 균형을 통한 전인적 평가 지필검사와 다양한 평가, 학습 참여도와 교수학습과정의 다양한 산출물 이용 참여목표의 평가는 실천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평가함 |

참고 문헌

- 김정호, 이동엽, 최석진(1998). **열린교육과 환경교육**.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김찬중, 채동현, 임채성(1999). **과학교육학개론**. 북스힐.
- 남상준, 김영란, 박상우(1994). **중학교 ‘환경’ 교과 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태윤, 정완호, 최석진, 최돈형, 이동엽, 노경임(2001). **환경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최석진(1999). 환경교육 평가 방법, **환경교육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한국해양연구원.
- 최석진, 김주훈, 김태경, 이동엽, 이용순(2006). **새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환경부.
- UNCED (1992). *Agenda 21: Programme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Rio de Janeiro, Brazil.
- UNESCO (2005).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Draft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UNESCO, Paris.

생활 외국어

조성연 (교육과학기술부)
김영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영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손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용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손성태 (배재대학교)
조희선 (명지대학교)

- I. 생활 외국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II. 생활 외국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III. 생활 외국어 과목의 성격과 특징
- IV. 생활 외국어 과목의 목표
- V. 생활 외국어 과목의 내용
- VI. 생활 외국어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 VII. 생활 외국어 과목의 평가
- VIII. 생활 외국어 과목의 신·구 교육과정 비교

I. 생활 외국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와 사회 각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은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등을 그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정 생활 외국어 과목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식정보화, 다매체·다문화 중시 경향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어 교육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21세기에는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 추세에 맞추어 상이한 언어의 공존을 의미하는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국어 이외에 다양한 언어를 구사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유럽 통합을 시발점으로 하여 지구촌은 동남 아시아권, 중앙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라틴 아메리카권 등 여러 국가의 생활 공간을 하나로 엮은 지역별 통합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화자 간에 친밀도와 신뢰도를 높여주고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또한 이 지역 사람들의 사고 및 행동 방식에 맞게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일상 생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학교에 독일어, 프랑스 어, 스페인 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어, 아랍 어로 구성된 생활 외국어 과목을 설치하여 다양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세계화를 선도할 국가적 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미가 매우 크다. 다양한 외국어와 외국의 문화를 조기에 접하는 것은 언어 학습의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범위가 넓어져 열린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단계의 외국어 교육을 통해 성숙된 시민 의식과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배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토대 위에 개정 생활 외국어 과목 교육과정은 기초적이고 실제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더욱 강조하고, 각국의 문화 이해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 등을 요지로 하여 개발하였다

II. 생활 외국어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생활 외국어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외국어 교육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였다.

1.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

외국어를 배우는 근본 목적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획득이란 외국어 학습자가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화 및 의사소통의 사회적 맥락 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학교 생활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외국어 교육의 핵심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분되는 네 가지 언어 기능을 고루 길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언어 기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실현되는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의사소통의 네 가지 하위 범주 중 언어의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체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문법적 능력과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구두 및 문자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 언어적 능력이 중학교 생활 외국어 교육의 범위라 할 수 있다. 개정된 생활 외국어 교육과정에서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할 것을 제안하였다.

2. 문화 교육의 중시

제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를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이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개정된 보통교과 외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일상생활 문화와 사회 문화로 크게 구분하였고, 중학교 생활 외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활 문화 위주로 제한하였다. 문화적 내용으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되고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내용을 소재로 하였고, 외국인의 일상생활 문화를 폭넓게 다루고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하여 우리 문화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문화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언어 교육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에 있다고 볼 때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 지식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일상생활 문화에 대한 지식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는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이해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3.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활동의 강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강조하였다. 학습자가 집단 활동과 체험 활동을 통하여 외국어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게임, 역할 놀이, 과제 수행 등의 학습 활동을 제안하였다. 이는 외국어 자체를 교수·학습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외국어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직접 활발한 의사소통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주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오류를 수정해 주는 모니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사는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을 관찰할 수 있고,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4. 내용 선택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조

제7차 교육과정 생활 외국어는 사용 어휘 수를 200 낱말 내외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68시간 수업에 적합한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최대 102 시간 편성을 전제로 사용 어휘 수를 300 낱말 내외로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재량활동의 연간 수업 시수는 102시간이며, 생활 외국어를 포함하여 컴퓨터, 환경 및 기타 선택 과목 학습 시간에 중점을 두어 활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 외국어도 학습자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적인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이수 시간 수에 따라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기준에 따라 교과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생활 외국어 과목의 성격과 특징

1. 성격 설정의 기본 방향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상이함은 소리나 기호의 상이함이라기보다는 세계관 자체의 다양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세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모국어라는 특정 언어의 지평에서 세계를 파악하게 되고 모국어를 통해 고유한 삶의 태도와 정서 그리고 정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모국어 이외의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언어에도 자신과 연결짓고자 하는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와는 다른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다. 따라서 외국어를 배우는 교육적 의미는 이제까지 지녔던 세계관에 다른 관점을 새로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생활 외국어의 성격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우선,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의 발달로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국가나, 정치·경제적으로 우리와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가급적 조기에 배워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외국어 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생활 외국어 학습을 통해서 단순히 새로운 언어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의 문화, 가치관 등을 접하게 됨으로써 학습자의 마음 속에 풍부하고 다양한 정신적 자양분이 축적될 수 있다. 외국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기르고, 나아가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손색 없는 행동 양식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다양한 외국어를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생활 외국어의 성격과 특징

21세기는 국제화, 정보화 사회로 세계가 한 울타리 안에서 공존하는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 특히 교통수단 및 컴퓨터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국가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 간의 교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국가나, 정치·경제적으로 우리와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21세기의 세계는 개인이나 국가 간의 직접적인 교류 뿐 아니라 위성을 통한 화상 교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입수 및 교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화, 정보화의 추세는 앞으로 더욱 더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계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외국어가 필수적이고,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어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국제 공용어의 지위를 갖고 있기는 하나, 영어권 이외의 국민들과의 교류에서는 해당 지역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서로 간의 친밀도, 이해도 증진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생활 외국어 과목을 통해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 연합(EU)국가, 아랍어권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서 세계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생활 외국어’를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가운데 하나로 편성하여 중학교 수준에서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더구나 ‘생활 외국어’는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모국어 또는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언어인 ‘독일어’, ‘프랑스 어’, ‘스페인 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어’, ‘아랍 어’의 7개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 그 실용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시작 시기를 앞당겨 초등 학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중학교에 생활 외국어 과목을 두어 학습자들에게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생활 외국어에서 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독일어, 프랑스 어, 스페인 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어, 아랍 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수십억이며,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를 포함하면 지구상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언어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어는 근대 이후 인문·사회 과학은 물론 자연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매우 큰 업적을 이룩하였고, 오늘날에도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지에서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어는 국제 사회에서, 그리고 유럽연합 내에서 중요한 언어이고 프랑스를 비롯하여 캐나다의 퀘벡주, 벨기에, 스위스, 모로코, 튀니지 등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나 제2언어로 사용하는 유용성과 실용성이 높은 언어이다. 스페인 어는 스페인을 비롯하여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 거의 전역에서 약 4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22개국 이상에서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다. 특히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도 영어와 동시에 통용되고 있으며,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주요

국제어이다. 중국어는 세계적으로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세계 10대 언어이며, 국제연합에서 사용되는 국제 공용어 중 하나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제 공용어로서 중국어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본어는 현재에도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용적 가치가 높은 언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어는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모국어 또는 중요 외국어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다. 아랍어는 아라비아 반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아랍 연맹(Arab Union)에 속한 22개 아랍 국가 약 3억의 인구가 모국어나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16억 무슬림들의 종교어이다. 또한 중세 시대의 문명어로서 아랍어권 지역의 문화 발달을 이끈 언어이며, 서구 사회의 르네상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언어이기도 하다.

외국어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실용적 가치 이외에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언어란 문화를 비추는 거울로서, 특정 문화는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다양한 외국어를 교육한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에 ‘생활 외국어’ 학습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질적인 외국의 문화, 가치관 등은 청소년의 마음속에 풍부하고 다양한 정신적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다.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은 외국인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작업일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세계관을 접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고유함을 깨닫게 해 주는 자기 이해의 과정이기도 하다. 외국어 교육을 통해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학습자들이 외국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 국제적 안목을 가진 세계인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 외국어 교육에서는 그 기초 단계로 학습자들에게 외국인의 일상 생활과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세계인의 의식과 행동 양식을 기를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생활 외국어’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초급 수준의 외국어를 익혀 해당 외국어 사용자와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아울러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해당 외국어를 계속 학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또, 외국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생활 양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기르고, 나아가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손색없는 행동 양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휘, 문법 및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어 사용 국민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능력을 의미한다.

생활 외국어는 해당 외국어를 최초로 배우는 입문 과목이다.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인상은 학습자가 장차 외국어 전문가나 국제 관련 업무 전문가로서의 꿈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외국어와 외국 문화의 학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시민 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 인류애, 세계 평화 등의 의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IV. 생활 외국어 과목의 목표

일상생활에 관해 간단한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고, 외국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 사회로 향해 가는 미래 사회에서 다양한 외국어를 조기에 학습할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중학교 생활 외국어를 통하여 비교적 조기에 다양한 외국어를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활 외국어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처음 접하는 외국어에 흥미를 가지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생활’ 외국어라는 명칭 자체가 해당 외국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표현을 위주로 외국어 학습을 시작한다면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외국어를 학습하는 일은 새로 학습하는 언어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와 세계관을 접하는 것이다. 언어 자체가 곧 문화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생활’ 외국어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표현을 익힐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화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 외국어를 학습하는 시기에는 문화적 요소를 통하여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1. 언어 기능

가. 듣기

(가) 발음의 차이를 구별하여 듣는다.

외국어 학습의 첫걸음은 발음에서 시작한다. 이 때 발음의 차이란 외국어와 우리말 발음의 차이를 말한다. 새로운 발음을 학습할 때 우리말에 있는 발음은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지만, 우리말에 없는 발음은 쉽지 않다. 듣기 연습을 할 때 우리말에 없는 발음은 해당 발음의 특성을 살려 집중적으로 연습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말과 유사한 발음의 경우에는 그 발음이 우리말의 발음과 똑같지 않은 이상 미세한 발음 차이에 유의하여야 모국어의 간섭에서 벗어나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간단한 낱말을 듣고 이해한다.

개별 음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낱말 위주로 듣기 활동을 한다. 발음 체계에서 발음 하나하나를 듣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의미의 최소 단위인 낱말로 듣기 연습을 하는 것이 개별 음을 구별하여 듣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의사소통 활동에서 활용하기도 쉽다. 이때 간단한 낱말이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의 명칭이나 용어를 가리킨다.

(다)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간단한 문장이란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나온 문장을 위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나 기본적인 문형을 말한다. 이러한 문장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여 대답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어 보는 연습을 한다. 이 때 들려주는 문장의 속도는 가급적 실제 발화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좋다. 실제 발화 속도와 비슷한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문장의 억양에 따라 달라지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등을 구별하여 듣는 활동도 병행한다.

(라)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발음 뿐 아니라 억양, 강세, 리듬 등에 유의하여 간단한 대화를 듣고 맥락 속에서 대화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한다. 이때 들려주는 대화는 실제 발화 속도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표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나타나 있는 인사, 소개, 시간이나 장소 묻기, 물건 사기 등이 그 예이다.

(마) 간단한 말을 듣고 행동한다.

듣기 활동은 학습자의 수동적인 참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반응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지시나 명령, 부탁이나 요청 등과 관련된 표현은 수업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학습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표현이므로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학습자가 듣고 행동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듣기 활동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된다.

나. 말하기

(가) 발음을 듣고 정확히 따라 한다.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발음부터 시작한다.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음을 듣고 이를 흉내 내어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 간단한 낱말을 듣고 따라 말한다.

따라 말하기는 정확한 발음을 익히기 위한 연습인데, 개별 발음 따라하기에서 시작하여 간단한 낱말, 간단한 문장, 대화 등으로 단위를 확대하여 연습한다. 따라 말하는 단위가 커질수록 발음 뿐 아니라 강세, 억양, 리듬 등도 정확히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간단한 낱말이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낱말로써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나타난 낱말 등을 가리킨다.

(다) 간단한 문장으로 대화를 한다.

간단한 문장이란 인사나 안부, 소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가리킨다. 간단한 문장으로 질문이나 대답을 함으로써 실제 대화하듯이 연습하도록 한다. 이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 문장의 억양과 어조에 유의하며 실제 대화하는 속도로 말하는 연습을 한다.

(라) 간단한 말로 사물이나 상황을 설명한다.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이나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한다. 이미 배운 낱말을 활용하고,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대화의 소재를 다룸으로써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말하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마) 간단한 말로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한다.

감정이나 의사에 관한 표현으로는 예를 들어 감사나 사과의 표현, 좋거나 싫은 것에 대한 표현, 희로애락을 나타내는 표현 등을 들 수 있다. 감정이나 의사에 대한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있는 표현을 응용하여 상황이나

문맥에 맞추어 자주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읽기

(가) 소리와 글자의 상관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발음한다.

외국어마다 글자와 소리의 관계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소리와 글자의 상관관계라 함은 이를 일컫는다. 이 규칙성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글자(철자, 문자)를 읽고 발음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나) 강세를 포함하여 올바른 발음으로 낱말을 읽고 이해한다.

낱말을 올바른 발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개별 글자와 개별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낱말 단위로 확장하여 낱말에 구현되는 강세 등의 사항까지 유의하면서 낱말의 발음을 정확하게 읽는 것을 말한다.

(다) 억양을 포함하여 올바른 발음으로 문장을 읽고 이해한다.

올바른 발음으로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읽기의 단위를 문장으로 확장하여 문장에 구현되는 억양이나 끊어 읽기 등의 사항까지 유의하면서 문장을 소리 내어 정확하게 읽는 것을 말한다. 특히 외국어 학습 초기 단계이므로 읽기 활동은 독해보다는 소리 내어 읽는 연습, 즉 낭독이 위주가 될 것이다.

(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고 쉬운 글을 읽고 소재 및 주제를 파악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고 쉬운 글이란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나타난 상황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짧은 문단의 글이며, 기본 어휘를 위주로 쉽고 자주 사용되는 어휘로 구성된 글을 말한다. 이러한 글이 어떠한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어떤 주제를 나타내고자 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읽기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때 글의 내용이 학습자와 친숙한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야 쉽게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쓰기

(가) 철자 부호에 유의하면서 낱말을 정확히 쓴다.

의미나 발음에 따라 낱말을 정확하게 쓴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지 않는 낱말의 경우 철자에 더욱 유의하여 쓴다. 이때 낱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기본적인 낱말을 선정한다.

(나) 간단한 문장의 빈 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한다.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낱말이나 표현에 빈칸을 두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 넣는 연습을 한다. 이것은 문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낱말의 의미나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이며, 낱말에서 문장으로 쓰기 단위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작문 연습이다.

(다) 간단한 문단 단위의 글을 듣고 받아쓴다.

받아쓰기는 듣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동시에 배양하는 통합적인 활동이다. 간단한 문단 단위의 글이란 일상생활의 친숙한 소재를 다룬 짧은 문단의 글을 가리킨다.

(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고 쉬운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간단한 메모, 편지, 서식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글을 짧게 써 본다. 또한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짧은 글을 이미 학습한 낱말이나 표현, 문장 등을 활용하여 쓴다.

2. 문 와

(1) 외국어 학습을 통해 해당 외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한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생활, 문화 등을 나타내는 수단이자 이를 반영한 총체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익힘으로써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상황과 문맥에 맞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

(2) 외국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일상생활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해당 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해당 외국어의 의사소통 능력도 함께 심화시킬 수 있다. 일상생활 문화는 해당 국가나 지역만의 특징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3) 외국 문화 이해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경우 상황과 문맥에 알맞은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 또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의사소통 및 상호 교류에 있어서 흥미롭고 다양한 소재가 된다. 그러므로 문화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의사소통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4) 외국 문화와 우리 문화의 비교를 통해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한다.

외국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각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게 된다. 외국 문화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여 외국인과의 상호 교류하고, 외국에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3. 태 도

(1)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해 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외국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흥미와 동시에 두려움도 생길 수 있다. 처음부터 정확하고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는 없으므로,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외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2) 외국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보려는 태도를 가진다.

적극적 관심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외국 문화에 대한 교사의 일방적인 소개보다는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다.

새로운 언어 학습은 곧 새로운 문화와 세계관을 접하는 길이다. 새롭게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와 비교를 하게 되고, 우리 문화의 가치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외국 문화와 우리 문화에 대한 비교와 이해를 통하여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고 포용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V. 생활 외국어 과목의 내용

1. 내용 체계

중학교 생활 외국어의 내용 체계는 각 과목별로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언어적 내용은 외국어 교육의 핵심 내용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과 언어 재료인 발음 및 철자(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적 내용은 목표 언어권의 일상생활 문화, 사회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영역 | 내용 | |
|--------|--|---|
| 언어적 내용 | 언어 기능 |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을 균형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내용 제시 |
| | 언어 재료 | · 발음 및 철자(문자) : 발음과 철자(문자)에 관한 내용 제시 · 어휘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중 300 낱말 내외를 이수 · 문법 :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사용된 문법 사항 참고 · 의사소통 기본 표현 : 중학교 수준에 적절한 내용 |
| 문화적 내용 | · 목표 언어권의 일상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 · 목표 언어권의 사회 문화와 관련된 내용 | |

2. 교과별 내용

【독일어】

(1) 언어적 내용

(가) 언어 기능

- 듣기 -

① 발음의 차이를 구별하여 듣는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도구이며, 일차적으로 소리를 통해서 표출된다. 따라서 언어에 사용되는 발음의 기능적 차이를 이해해야만 언어가 담고 있는 내용도 이해할 수 있다.

발음은 일정한 조음 방식에 따라 형성된 소리로 의미를 구분해 주는 기능에 따라서 음소로 분류된다. 따라서 의미를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인 음소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나아가 강세, 억양, 리듬과 같은 초분절 음소적 특징도 함께 익힌다.

발음을 연습할 때는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기본 낱말이나 간단한 인사말과 같은 기본 표현, 또는 잘 알려진 독일어권의 인명, 지명,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익힌다.

② 사물의 명칭을 듣고 이해한다.

언어기호는 소리와 의미의 결합체이며, 외국어 학습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학습해야 한다. 의미의 단위가 언어마다 다르고, 때때로 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물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학습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가리키면서 그 명칭을 듣게 하면 학습자는 이미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소리와 의미를 결합할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교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가 크다.

③ 인사, 감정 및 의사 표현 등을 듣고 이해한다.

인사는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이다. 이런 관습적인 행동 양식과 결합된 언어 행위도 비교적 쉽게 그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인사말 듣기 활동을 통하여 그 표현을 익힌다. 이런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개별 음과 낱말의 단위를 넘어서 구와 절의 형태까지도 듣고 이해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기본 감정이나 기초적인 의사 표현들도 나타내는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듣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데 유용하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실제 소리가 자연스럽게 직접 청각 영상으로 각인될 수 있다.

④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듣고 이해한다.

듣고 이해하는 소리의 양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되, 청각 영상으로는 이해했어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담겨 있는 문장들을 사용한다. 아울러 실제 대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이 되도록, 가급적 실제 언어 사용 속도와 억양으로 실현된 비교적 짧은 문장들을 사용한다.

⑤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 내용을 듣고 이해한다.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음, 낱말, 문장에 대한 단계적인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추가로 습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소재를 중심으로 간단한 대화문을 사용한다.

- 말하기 -

① 정확한 발음을 익힌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삼고 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음이 정확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발음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개별 음의 정확한 조음 방식을 익혀야 하고, 낱말 강세, 문장 억양 및 리듬 등도 익혀야 한다. 처음 독일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독일어권의 지명, 인명, 상호 등을 사용하면 한국어와 독일어 발음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올바른 발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한다.

본격적인 발음 연습을 위해서는 개별 음소들의 변별 자질을 설명하고, 가급적 최소 대립 쌍을 예로 들어 유사한 음소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학습자가 외국어 음소들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의 모국어 음소 체계에 머물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발음을 구별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개별 음을 연습할 때에는 흔히 한국어에 없는 생소한 발음(예: [ç], [x], [f], [v], [ʃ], [ʒ] 등)만을 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으나, 모국어의 발음과 유사하지만 음성학 및 음운론적으로 차이가 있는 발음(예: [y:], [ø:], [e:], [ɛ] 등)들도 학습 초기부터 충분히 연습한다.

② 사물과 개념의 명칭을 말한다.

개별음의 차원을 넘어서 낱말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낱말 차원의 발음 연습에서는 특히 강세도 올바르게 익혀야 한다. 강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낱말이 제대로 인식될 수 없고,

때로는 잘못된 낱말로 오인될 수도 있다. 정확히 발음하는 말하기 연습에는 책상, 의자, 책, 창문, 문, 필기도구, 그림 등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컴퓨터, 버스, 지하철, 가방 등 학습자에게 친숙한 사물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교과목 명칭, 방학, 취미 활동 등의 개념 명칭도 좋은 연습 자료가 될 수 있다.

③ 간단한 인사, 감정 및 의사 표현을 한다.

기본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문장 단위의 말하기 연습에서는 우선 적절한 억양을 습득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 의사 표현이 사용되는 의사소통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모든 대화는 일상적인 만남에서 교환하는 인사, 소개, 감정 및 의사를 나타내는 간단한 대화에서 출발한다.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인사, 이름 묻고 대답하기, 주변 사물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면서 그와 관련된 말하기 기능을 습득한다.

④ 간단한 말로 사람과 사물에 대해 묻고 답한다.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대답 등의 간단한 소재를 중심으로 다룬다. 주변 사람 또는 유명인의 사진을 보면서 직업, 국적, 외모 등에 대하여 간단히 표현하고, 사물의 모양, 위치, 색깔, 크기, 용도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한다.

⑤ 간단한 말로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앞 단계에서 익힌 발음과 상황 맥락에 어울리는 언어 사용 능력을 바탕으로 간단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낱말이나 문장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습을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대화 상황에서처럼 표정과 제스처도 함께 하도록 한다.

- 읽기 -

① 글자와 발음의 상관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읽는다.

읽기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소리 내어 읽기’와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소리를 내지 않는) 읽기’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소리 내어 읽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자와 소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영어 학습 다음에 독일어를 배우게 되는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같은 모양이지만 영어와 다르게 발음되는 철자에 유의해야 한다(예: ‘v’-[f], ‘w’-[v], ‘z’-[ts], ‘sch’-[ʃ], ‘th’-[t]). 또한 ‘p’, ‘t’ 앞에 오는 ‘s’나 음절 끝소리에 오는 ‘d’, ‘g’처럼 음운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리 실현되는 철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습해야 한다.

독일어에서 온 외래어, 상표, 약칭, 또는 유명한 인명이나 지명 등을 이용하여 독일어의 글자와 발음의 상관관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② 강세를 포함하여 올바른 발음으로 낱말을 읽고 이해한다.

낱말은 강세 위치와 함께 익힌다. 이를 올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 연습을 하고, 동시에 그 의미를 익힌다. 간단한 구조의 낱말부터 점차 복잡한 구조의 낱말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③ 억양을 포함하여 올바른 발음으로 문장을 읽고 이해한다.

문장을 읽을 때에는 문맥에 맞는 억양을 함께 익힌다. 문장 단위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실제 그 의미를 파악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용구를 중심으로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발음과 억양을 익힌다.

④ 간단한 대화문을 읽고 문맥에 맞게 이해한다.

간단한 대화문을 소리 내어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대화문을 선정하여 질문과 대답의 의미적 관계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사용법을 익힌다.

⑤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간단한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한다. 처음에는 전체를 읽으면서 대강의 뜻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글의 소재, 주제, 대의 등을 파악한다.

- 쓰기 -

① 독일어의 알파벳을 올바르게 쓴다.

독일어는 영어와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지만, 독일어에만 사용하는 글자가 있다(예 : ä, ö, ü, ß).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독일어, 예컨대 아르바이트(Arbeit), 베를린(Berlin), 모차르트(Mozart) 등과 같은 낱말을 독일어로 적음으로써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익힌다.

② 정서법에 맞게 낱말을 쓴다.

독일어의 알파벳 체계에서는 모든 낱말을 소리 나는 그대로 표기하지는 않는다. 독일어 정서법은 소리를 음성(학)의 차원에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운(론)의 차원에서 표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형태소 보존 원칙으로 동일한 형태소는 항상 똑같이 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das Rad'의 'd'는 [t]로 발음되지만 'Rat'로 적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리와 표기법이 반드시 1:1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③ 어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문장은 낱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낱말과 낱말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형태·의미적으로 호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굴절어인 독일에 사용되는 형태 변화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장을 구성하는 낱말의 배열 순서도 의미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평서문에서 동사가 문장의 두 번째 성분이 되는 것이나, 조동사가 사용되면 본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가는 것과 같은 기본 사항들을 익힌다.

④ 간단한 대화문을 상황에 맞게 작성한다.

대화문은 기본적으로 질문과 대답, 또는 의사 표현과 대응으로 구성된다. 대화문을 상황에 맞게 작성하려면, 문장 표현의 문맥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단한 대화 상황을 선정하여, 이를 독일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점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⑤ 간단한 글을 문맥에 맞게 작성한다.

간단한 문장을 어법에 맞게 작성하는 연습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차원의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생각을 정리해서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너무 무거운 주제는 글에 담을 내용을 정리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 정작 외국어로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문장 및 텍스트 구성 연습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급 단계의 외국어 학습에서는 가급적 간단한 주제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기본 텍스트를 읽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틀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쓰는 통제 작문 연습부터 시작해서 자유 작문 연습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나) 언어 재료

- 발음 및 철자 -

① 발음은 현대 독일어의 표준 발음으로 한다.

올바른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배워야 하는 발음은 무대 발음(die Bühnenaussprache)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발음이다. 그러므로 모음화되거나 약화되는 발음들을 올바르게 익힘으로써 인위적인 발음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철자는 현대 독일어의 표준 정서법을 사용한다.

1901년 제2차 정서법 회의에서 제정된 독일어 정서법이 1996년에 개정되었다. 이 새 정서법은 이후 많은 논란을 거쳐서 2004년과 2006년에 부분 수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정서법을 표준으로 삼는다.

- 어휘 -

일반계 고등학교 독일어 교육과정 [별표 II]에 제시된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300낱말 내외를 사용한다.

낱말의 수와 내용은 외국어 학습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 중에서 300 낱말 내외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학습의 내용을 일상생활의 기본 대화로 한정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필수 어휘를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 어휘는 사용 빈도, 사용 범위, 학습 난이도, 학습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독일어에는 조어(die Wortbildung) 규칙에 따른 복합어가 많으므로 기본적인 조어 규칙 체계를 시각적 방식이나 게임 방식 등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어휘 학습을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문법 -

문법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쉬운 기본 문법 사항만을 다룬다.

문법은 학습해야 할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다루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문법을 전면에 내세워 다루지는 않는다. 즉, 문법 사항을 앞세우고 예문을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입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중심으로 유사한 표현들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규칙성을 밝혀내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귀납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주제나 문맥상 부득이 어려운 문법 구조를 갖춘 표현이 일부 도입되었을 경우에도 지나치게 문법 구조 분석에 얽매이지 말고, 이를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하나의 표현으로 다루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 의사소통 기본 표현 -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다룬다.

‘생활 독일어’ 과목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학교 독일어 초급 단계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것은 ‘생활 독일어’ 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8개의 주제 및 상황이며, 그 의사소통 목적과 표현들은 교과서 개발과 교수·학습 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

- 다음은 생활 독일어 교육과정에서 이수를 권장하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다.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주제 및 상황, 그리고 기본 표현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
- 다음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생활 독일어 교육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장의 구조, 문장의 종류, 기타 문법 사항 등을 선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1. 인사

가. 만남 인사하기

Hallo!

Guten Tag!

나. 작별 인사하기

Auf Wiedersehen!

Tschüs!

2. 감정 및 의사 표현

가. 감사 표명하기

Danke! / Vielen Dank! / Danke schön!

나. 사과 표명하기

Entschuldigung! / Entschuldigen Sie!

다. 유감 표명하기

Schade.

(Es) Tut mir Leid.

라. 입장 표명하기

Ja. / Nein. / Doch.

Das ist richtig / falsch. Das stimmt!

3. 인적 사항

가. 이름 묻고 말하기
나. 나이 묻고 말하기
다. 국적 묻고 말하기
라. 연락처 묻고 말하기

Wie heißt du? Wie ist dein Name?
Wie alt bist du?
Woher kommst du?
Wo wohnst du? Wie ist deine Adresse?
Wie ist deine Telefonnummer / deine
E-Mail-Adresse?

4. 묘사

가. 성격 묘사하기
나. 외모 묘사하기

Er ist nett / freundlich / fleißig ...
Sie ist groß / klein / hübsch / schön ...
Sie hat lange Haare.

5. 안부와 건강

가. 안부 묻고 답하기

나. 몸의 상태 표현하기
다. 통증 표현하기

Wie geht es dir? Danke, gut. Und dir?
Gut. / Nicht (so) gut.
Ich bin müde / krank / gesund.
Ich habe Kopfschmerzen.

6. 문의

가. 사람 묻고 답하기
나. 사물 묻고 답하기
다. 길/위치 묻고 답하기

라. 시간 묻고 답하기
마. 날씨 묻고 답하기

바. 가격 묻고 답하기
사. 허락 묻고 답하기
아. 요청 (가능성) 말하기

Wer ist das?
Was ist das?
Wo ist die Toilette?
Gehen Sie geradeaus / links / rechts!
Wie spät ist es?
Wie viel Uhr ist es?
Wie ist das Wetter heute?
Es ist schön / heiß / warm.
Es regnet. Was / Wie viel kostet das?
Das kostet ... Euro.
Das ist billig / teuer.
Darf ich ins Kino gehen? Kannst du mir bitte helfen?

7. 선호도

가. 호감 말하기
나. 기호 말하기
다. 취미 말하기

Ich habe sie gern. Ich liebe meine Eltern.
Ich trinke gern ... Ich esse gern ...
Hast du ein Hobby? Was ist dein Hobby?
Ich spiele gern Fußball.

8. 초대

| | |
|---------|---|
| 가. 초대하기 | Ich möchte Sie zum Essen einladen. Darf ich dich ins Kino einladen? |
| 나. 수락하기 | Ja, gern. Vielen Dank für die Einladung. |
| 다. 거절하기 | Tut mir Leid. Ich habe leider keine Zeit. |
| 라. 약속하기 | Wann treffen wir uns? - Freitagabend um 8 Uhr. Wo treffen wir uns? - Vor dem Kino. |

(2) 문화적 내용

(가) 일상생활의 소재 가운데 친근하고 흥미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한다.

생활 독일어의 문화적 내용은 문학·예술 등과 같은 정제된 형식의 문화가 아니라 언어 사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상생활 문화를 말한다. 즉, 독일어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관습화된 삶의 방식·행동양식·기본예절 등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문화는 보통 언어 속에도 녹아들어 있어 관용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양식이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상생활 문화는 해당 언어생활 공동체의 독특함을 표출하는 것으로 모국어의 경우와 대조하여 제시하면 학습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한다.

①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이란 주변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상적인 사항들을 의미한다. 즉, 자기 소개, 가족 관계, 주변 친구 등을 중심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의 범주와 형태를 묻고 답할 수 있는 내용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대화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간단한 독일어로 자신의 모습을 재조명해 보고, 비교적 가볍게 독일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

학습자들의 일상생활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은 내용상으로도 흥미로울 수 있으며, 실제로도 학습자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서 교육 내용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는 독일어권 학습자들의 학교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실정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일상생활의 일부를 독일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③ 취미, 오락, 운동, 여행 등에 관한 내용

학습자들의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취미, 오락, 운동, 여행 등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삼아서 독일어권 사회의 생활상과 일상 문화를 이해한다.

④ 독일어권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앞의 3개 항에서 언급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일상생활의 기본적 소재들을 소개한다. 축하, 초대 등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활동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⑤ 한국 문화와 독일어권 문화의 차이점을 보여 줄 수 있는 내용

일상생활 문화 중에서 한국과 독일어권의 차이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의사소통 기본 표현들이 적절한 맥락 속에서 활용되도록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 사용자의 행위 의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소통에서 적절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언어적 표현이 행위 의도가 표출되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어를 학습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사용되며, 그 언어적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할 언어의 기본 표현들은 항상 문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 속에서 제시되고 숙달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흥미, 필요,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학습 내용은 가급적 흥미롭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학습 내용으로 설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의 시각적 자료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가급적 실용적인 내용을 재미있게 구성한다.

가급적 실제적인 상황을 설정하되, 학습자들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학습자들의 시각에서 대화 및 글을 구성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프랑스 어】

(1) 언어적 내용

(가) 언어 기능

- 듣기 -

① 프랑스 어 표준 발음을 듣는다.

단어를 통해 프랑스 어의 자음, 모음, 비음의 음가를 익히고, 기본적인 연음 현상을 지각하며, 보통의 속도로 발음되는 일상적인 단어, 호칭, 간단한 인사말, 의례적인 표현들을 들어 봄으로써 프랑스 어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

② 발음과 문자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철자 두 개 혹은 세 개가 모여 하나의 음소로 실현되는 경우와 하나의 철자가 문맥에 따라 다른 음가를 갖는 경우에 유의한다. 또한 단어 중간에서 발음되지 않는 자음이 있음에 유의하고, 단어 끝의 자음은 거의 대부분 발음되지 않음에 주목한다.

③ 억양을 듣고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의 억양을 숙지하여 대화 상대방의 말이 단순한 진술인지, 질문인지, 감탄인지, 명령인지 구별한다.

④ 간단한 교실 프랑스어를 듣고 반응한다.

수업 시 자주 반복되는 행위나 활동을 지시하는 간단한 프랑스어를 숙지하여 이에 따라 반응한다.

⑤ 사물의 명칭을 듣고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안다.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사물들,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물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접하는 사물들의 명칭을 익힌다.

⑥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듣고 이해한다.

사람의 이름, 학년, 나이, 외형적 특징, 직업, 거주지 등에 대해 주어지는 간단한 정보나 사물의 색깔, 모양, 크기, 가격 등에 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⑦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 내용을 듣고 이해한다.

인사, 안부 묻고 답하기, 감사와 사과와 같은 의례적인 대화나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대화를 듣고, 대화자들의 수, 대화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 대화자 간의 관계, 대화의 주제 등을 파악하며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또한, 대화자들 간의 호응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응수하는 방법을 익힌다.

- 말하기 -

① 낱말이나 간단한 표현을 듣고 따라한다.

새로운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확히 반복한 후, 완전한 문장을 듣고 따라 하는 연습을 한다.

② 억양에 유의하며 문장을 듣고 따라한다.

문맥 없이 주어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을 문장의 억양에 유의하며 보통의 속도로 따라한다. 억양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대화 중에 사용된 자연스러운 강세나 운율이 들어 있는 문장을 하나씩 따라한다.

③ 주변 사물이나 그림 속의 사물을 보고 그 명칭을 말한다.

자율적인 의사 표현의 출발점으로 주변에 있는 친숙한 사물이나, 그림, 사진 속의 사물들을 보고 명칭을 말한다.

④ 인사와 안부를 묻고 답한다.

인사와 안부는 일상적 만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기능이다.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말하는 시간 및 상대방의 친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인사말을 하고 답한다.

⑤ 자신이나 타인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프랑스인 친구와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름, 국적, 출신지, 거주지, 학교 이름과 학년을 말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⑥ 사람과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간단한 말로 묻거나 제공한다.

사람의 직업, 나이, 신체적 특징, 외모, 관계, 사물의 외양이나 색깔 등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교환한다.

⑦ 간단한 프랑스 어 노래를 따라 부른다.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고, 간단하면서도 청소년들의 감각에 맞는 노래를 선정하여 함께 불러 봄으로써, 학습한 내용의 반복 연습과 아울러 프랑스 어로 말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 읽기 -

① 철자를 소리 내어 읽어본다.

프랑스 어 알파벳을 큰 소리로, 때로는 리듬에 맞춰 읽거나, 혹은 알파벳 노래를 불러 본다. 또한 약자로 표현된 사물, 기관, 상품 등의 명칭을 보고 철자를 읽는다.

② 낱말과 간단한 표현이나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

읽기의 본질은 글자로 표현된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단어와 관용적이거나 의례적인 간단한 표현을 소리 내어 혹은 눈으로 읽으면서 번역을 거치지 않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습관을 기른다. 나아가 한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③ 간단한 대화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한다.

대화문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대화의 핵심적인 주제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대화자들의 의사소통 의도를 파악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④ 간단한 지시문을 읽고 행동한다.

짧고 쉽게 쓰여진 여러 종류의 지시문을 읽고 이에 맞게 행동한다. 학습 초기에는 한 문장으로 된 지시문에 따라 하나의 행동을 수행하고,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연속되는 서너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지시문을 읽고 의사소통 의도를 이해하며 일련의 행동을 수행한다.

⑤ 간단한 메모, 엽서, 편지, 전자 우편, 초대장, 광고문, 안내문 등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접할 가능성이 많은 사실 자료에 가까운 다양한 종류의 간단한 실용적인 글을 읽고, 각 글의 의사소통 의도, 주제, 내용을 이해한다. 나아가 각 글의 구성 양식에도 유의한다.

- 쓰기 -

① 철자 부호(accent)에 유의하며 낱말을 써 본다.

친숙한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나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통해 프랑스어에 고유한 철자 부호(accent)를 정확히 붙이는 습관을 기르고, 소리 나지 않는 철자들을 빠뜨리지 않고 쓰는 연습을 한다.

② 학습한 낱말과 간단한 표현이나 문장을 듣고 받아쓴다.

듣기와 읽기를 통하여 이미 학습한 단어, 간단한 표현, 문장을 듣고 받아쓴다. 문장 받아쓰기의 경우, 처음에는 학습한 과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연습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앞서 배운 단어나 표현을 활용하여 만든 문장을 받아쓰는 연습을 한다.

③ 간단한 서식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관한 신상 정보를 채워 넣는다.

빈칸에 단어나 표현을 채워 넣는 연습은 창조적인 글쓰기에 이르기 위한 첫 단계이다. 문법 연습에 치중된 고전적인 빈칸 매우기와 달리,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 서식의 내용을 읽어 가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관한 신상 정보를 채워 넣는 연습은 의사소통 관점에서 볼 때 언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 실제 상황과 같은 느낌을 주는 쓰기 의사소통 연습이 될 수 있다.

④ 가까운 사람에게 간단한 메모, 엽서, 편지, 전자 우편, 초대장 등을 쓴다.

대체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글을 써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글을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쓰게 된다. 배운 표현을 활용하여 친구에게 남기는 간단한 메모의 작성, 짧은 서신의 교환, 간단한 초대장의 글 작성 등은 실제적 상황에 기반한 쓰기 연습으로서 초보 학습자들에게도 가능하다.

⑤ 학교 활동에 관한 간단한 광고문이나 안내문 등을 작성한다.

학교에서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활동에 대한 광고나 안내문을 여럿이 함께 그림이나 사진을 곁들여 간단한 단어나 표현,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 광고문이나 안내문 작성은 단어나 간단한 표현만으로도 가능하다. 이 쓰기 활동은 배운 단어와 표현을 창조적으로 배열한다는 점에서 창조적 쓰기이며, 여럿이 함께 내용을 재미있게 구성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유희적인 성격을 띤다.

(나) 언어 재료

- 발음 및 철자 -

① 발음은 현대 프랑스어의 표준 발음으로 한다.

친밀한 사람들과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되는 언어의 발음은 많은 변형이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발음이 프랑스어의 현재성, 실재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나 매우 어려우므로 초보 단계에서는 이러한 변형이 없고, 지역적인 특성이 배제된 표준 발음을 사용한다.

② 철자는 현대 프랑스어의 표준 정서법을 사용한다.

프랑스어 단어를 구성하는 철자는 묵음 현상, 소리와 철자 간의 불일치, 고유 철자 부호

(accent과 cedille)로 인해 글을 쓸 때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학습 초기 단계인 만큼 프랑스 어 정서법에 따라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어휘 -

고등학교 보통 교과 프랑스 어 교육과정 [별표 II]의 기본 어휘 중 300 낱말 내외를 사용한다.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 위에 제시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보통 교과 프랑스 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중 300 낱말 내외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 문법 -

간단하고 쉬운 문법으로 하며, 법과 시제로는 직설법 현재, 명령법 현재, 근접 미래, 공손한 표현법으로서의 조건법으로 국한할 것을 권장한다.

생활 프랑스 어 교육의 총괄 목표 중 하나는 의사소통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므로 문법은 이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문법 학습은 구어 프랑스 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간단하고 쉬운 문법으로 하며, 법과 시제로는 직설법 현재, 명령법 현재, 근접 미래, 공손한 표현법으로서의 조건법 등의 문법 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활동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의사소통 기본 표현 -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예시문을 중심으로 다룬다.

의사소통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첫 단계는 의사소통 의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프랑스 어로 익히는 것이다. 사실 어떤 의사소통 의도에 고유한 발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 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각각의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하여 다소간 관계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표현들을 선정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이런 의도에서 선정된 것으로서, 학습자의 학습 속도나 학습 여건에 따라서는 아래 제시된 것 이외의 다른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

- 다음은 참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다.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과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 여기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는 문장의 구조, 문장의 종류 및 기타 문법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1. 인사

가. 인사 나누기

1) 만날 때

Bonjour! / Bonsoir! / Salut!

2) 헤어질 때

Au revoir! / Bonsoir! / Salut! /A demain!

3) 처음 만났을 때

Enchanté(e).

나. 안부를 묻고 답하기

Ça va? - Ça va (bien, très bien).

2. 소개

가. 이름

Je m'appelle Pascal Duval. Et toi/vous?

- Moi, Jeanne Lamour.

나. 국적

Tu es français(e)? - Non, je suis coréen(ne).

다. 나이

Tu as quel âge? - J'ai seize ans.

라. 직업

Ton père, qu'est-ce qu'il fait?

- Il est professeur.

마. 다른 사람 소개하기

Voilà M. Kim. C'est mon frère.

3. 감사, 사과와 유감

가. 감사

Merci (beaucoup)! - De rien.

나. 사과

Pardon. Excusez-moi.

다. 사과에 답하기

Ce n'est rien.

라. 유감 표현하기

(Je suis) désolé(e).

4. 묘사

가. 사람

Il est comment? - Il est grand / blond.

나. 사물

C'est une table ronde.

5. 시간과 날씨

가. 시간 묻고 답하기

Quelle heure est-il? - Il est six heures.

나. 요일 묻고 답하기

On est quel jour? - On est samedi.

다. 날짜 묻고 답하기

On est le combien? - On est le 15.

라. 날씨 묻고 답하기

Quel temps fait-il? - Il fait beau / mauvais.

- Il pleut.

- Il neige.

6. 장소와 교통수단

가. 장소 말하기

Où est mon sac?

- Il est sur la chaise.

| | |
|-----------------------|--|
| 나. 길 묻고 알려주기 | (Où est) la gare, s'il vous plaît? |
| 다. 교통수단 말하기 | - Allez tout droit et tournez à gauche / à droite. Je vais à l'école à pied / en bus / en train / en vélo. |
| 7. 구매 | |
| 가. 물건 요청 | Un cahier, s'il vous plaît! |
| 나. 가격 묻기 | C'est combien? |
| 다. 지불액 묻기 | Ça fait combien? |
| 8. 만남 | |
| 가. 약속 정하기 | Tu es libre ce soir? A 11 heures, ça te va? |
| 나. 전화하기 | Allô, c'est Jeanne? Jean est là? - Non, il n'est pas là Ne quittez pas. |
| 9. 기호 | |
| 가. 좋거나 싫다고 말하기 | J'aime beaucoup la musique. Je n'aime pas le sport. |
| 나. 선호하는 것 말하기 | Je préfère ce film. |
| 10. 초대 | |
| 가. 초대하기 | Tu peux venir chez moi ce soir? |
| 나. 제안하기 | On va au cinéma? |
| 다. 승낙하기 | D'accord. C'est une bonne idée |
| 라. 거절하기 | Non merci. Je ne suis pas libre. |
| 11. 요청, 의무, 지시 | |
| 가. 부탁이나 요청하기 | Pouvez-vous répéter, s'il vous plaît? Encore une fois, s'il vous plaît. |
| 나. 의무나 지시하기 | Il faut partir tout de suite. Tu dois rester à la maison. J'ai des devoirs à faire. |
| 12. 축하, 기원, 칭찬 | |
| 가. 축하하기 | Bon anniversaire! Bravo! |
| 나. 기원이나 격려하기 | Joyeux Noël et bonne année! Bon courage! |
| 다. 칭찬하기 | Très bien. Vous travaillez vraiment bien. |
| 13. 감정 | |
| 가. 감탄이나 놀라움 표현하기 | Super! Génial! C'est formidable! |
| 14. 편지 쓰기 | |
| 가. 시작하는 말 | Cher Paul Mon cher ami |
| 나. 끝맺는 말 | Bien à toi. |

(2) 문화적 내용

(가) 문화는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선택하되,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되는 소재로 한다.

생활 프랑스 어에서 다루는 문화는 지식 문화 혹은 문명적 문화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이다. 일상생활 문화는 프랑스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배어 있는 것으로, 일상 언어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위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화적 소재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단순한 암기와 기계적인 사용을 넘어 표현 그 자체와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함의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①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개인의 일상적인 습관, 특히 같은 나이 또래의 프랑스 학습자들이 하루를 보내는 방식, 가정에서의 생활 등 개인 생활과 관련된 소재들을 다룬다.

②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

예를 들어, 학교의 개학과 방학, 학년 표시 방법, 학교의 교과목과 주 당 수업 시간 수, 점수 표기 방법과 같은 공적인 정보는 물론,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외 활동 등 학교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들의 모든 행위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여가 활동에 관한 내용

프랑스인들, 특히 또래의 프랑스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다양한 문화적 소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 오락, 운동, 여행 등을 구체적인 소재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④ 주변 생활 및 자연환경 등에 관한 내용

프랑스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나아가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대한 이해는 의

사소통을 하는 데 기본적인 배경이 되므로 이와 관련된 소재를 선별하여 제시한다.

⑤ 프랑스 인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일반적인 프랑스인들의 하루 일과,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습관, 직장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 사회생활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관습적인 것 등을 이해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소재가 된다.

⑥ 우리 문화와 프랑스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

문화적 소재는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공평한 비교와 이해가 가능한 것을 선정함으로써 양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학생들의 흥미, 필요,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자신들의 나이나 지적 수준에 맞지 않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문화 소재로 내용을 구성할 경우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내용은 학습자들의 흥미, 관심사, 사고 수준, 미래의 필요성, 이해 능력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일방적인 설명 방식을 지양하고 탐구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되도록 선정된 주제에 대해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소집단별로 탐구하여 그 내용을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③ 내용은 실용적인 것으로 한다.

내용은 실용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설명함으로써 의사소통 시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스페인 어】

(1) 언어적 내용

(가) 언어 기능

- 듣기 -

① 정확한 스페인 어 표준 발음을 듣고 이해한다.

단어의 발음을 듣고서 스페인 어의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익히고, 기본적인 강세와 억양을 이해한다. 일상생활의 기초적이며 쉬운 단어, 호칭, 간단한 인사말 등 의례적인 표현과 스페인 어권의 유명 인사들의 이름, 지명, 사물 명칭 등을 듣고 스페인 어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

② 소리를 듣고 스페인 어 발음과 우리말 발음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스페인 어 발음과 우리말 발음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한다. 특히 자음 'l', 'r', 'rr', 'j', 's' 등의 발음에 유의하여 듣는다.

③ 발음과 문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억양에 유의하여 듣는다.

발음과 문자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스페인 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간단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의 억양을 숙지하여, 대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단순한 진술인지, 질문인지, 감탄인지, 명령인지를 구별한다.

④ 사물의 명칭을 듣고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안다.

수업 중에 응용할 수 있는 교실 안의 다양한 사물들, 학생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들의 명칭을 듣고, 그 대상을 안다.

⑤ 인사와 안부, 소개하는 말을 듣고 이해한다.

인사, 안부 묻고 답하기, 자기 자신이나 친구의 소개, 감사와 사과 등 가장 기초적인 대인 관계와 관련된 대화를 듣고, 대화와 연관된 시간, 장소, 인물, 대화 주제 등을 파악하여 대화의 상황을 이해한다.

⑥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듣고 이해한다.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사물의 외모, 성격, 이름, 학년, 나이, 색깔, 크기, 위치, 가격 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듣고 이해한다.

⑦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 내용을 듣고 이해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사물, 주변 환경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에 대한 대화와 책, 컴퓨터, 공부에 대한 대화, 학교, 시장, 집 등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 말하기 -

① 정확한 발음을 익힌다.

스페인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문장보다는 주변 환경 속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의 명칭, 스페인어권 국가와 유명한 지명, 인물들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먼저 기본적인 발음을 익힌 후, 점차 간단한 대화를 한다.

② 사물의 명칭을 듣고 따라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 즉 책상, 의자, 책, 필기도구, 가방, 컴퓨터, 창문, 문, 버스, 지하철 등의 명칭을 정확하게 듣고 따라 말한다.

③ 사물의 그림이나 주변 사물을 보고 그 명칭을 말한다.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다양한 사물이나 그림을 보고서 자유롭게 그 명칭을 말한다.

④ 자연스러운 속도로 억양에 유의하며 말한다.

다양한 문장의 종류 즉,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을 억양에 유의하여 말한다. 각 문장은 고유의 억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초적인 대화를 습득 한다. 이때 단어의 강세도 함께 유의하여 말한다.

⑤ 간단한 인사, 소개, 묻고 대답하기 등의 표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화는 일상적인 만남에서 교환하는 인사, 소개, 주변 사물에 대한 묻고 답하기에서 출발한다. 만날 때 인사와 헤어질 때 인사, 이름 묻고 대답하기, 주변 사물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통하여 흥미를 갖고 말하기 기능을 습득한다.

⑥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묻거나 대답한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또는 유명한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직업, 국적, 외모, 신체적 특징 등에 대하여 간단히 표현하고, 사물의 모양, 위치, 색깔, 크기, 용도 등을 간단히 말한다.

⑦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간단히 대화한다.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대화할 때 다양한 제스처를 사용한다. 감탄할 때, 질문하고 대답할 때, 인사하거나 누군가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제스처를 말할 때 함께 사용한다.

⑧ 재미있는 스페인 어 노래를 따라 부른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스페인 어 노래를 듣고 따라 부름으로써 발음을 익힌다.

- 읽기 -

① 철자를 정확하게 읽는다.

단어의 음절들을 하나하나 큰소리로 강세에 유의하여 읽는다. 처음에는 보통보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고, 나중에는 보통 속도로 읽는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 널리 알려진 사물의 명칭,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소의 명칭이나 널리 알려진 노래 가사를 이용한다.

② 낱말을 소리 내어 읽고 그 뜻을 이해한다.

읽기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첫 단계는 주변 사람과 사물의 명칭을 소리 내어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있다. 처음에는 짧고 간단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고, 점차 긴 단어나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된 구를 읽는다.

③ 간단한 문장을 표준 발음과 억양으로 읽는다.

스페인 어에서는 문자와 발음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읽기 능력은 곧 말하기 능력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다양한 문장들을 그 종류에 맞는 억양과 표준 발음으로 반복적으로 읽는다.

④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짧고 쉬운 여러 종류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지시문을 읽은 후 그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고, 대화문은 대화 당사자처럼 반응을 보이며 읽는다. 간단한 메모, 편지, 초대장, 광고문 등은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다.

⑤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체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며 읽는다.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간단한 대화체 문장을 중심으로 강세와 억양에 유의하면서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보통 속도로 읽는다. 특히 일정한 주제 또는 대화 상황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대화문을 대화하듯이 억양과 표정,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읽는다.

- 쓰기 -

① 스페인 어 낱말을 듣고 쓴다.

스페인 어는 발음과 철자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따라서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듣고 쓴다. 강세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붙이는 습관을 기르고, 묵음 ‘h’는 발음되지 않으므로 특히 유의한다.

② 사물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그 명칭을 쓴다.

학교, 집, 시장, 거리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물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나서 그 명칭을 쓰거나, 유명한 사람의 사진 또는 하는 일의 그림을 보고 그의 직업을 쓴다. 나아가 이에 대한 외모, 특징, 색깔 등을 쓸 수도 있다.

③ 간단한 문장을 듣고 받아쓴다.

앞서 배운 내용이나 문장을 테이프, CD, 또는 육성으로 듣고 받아쓴다. 특히 이미 배운 문장의 경우 처음에는 그 내용을 듣고 그대로 받아쓰는 연습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배운 단어와 표현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문장을 듣고 받아쓴다.

④ 간단한 질문과 답을 글로 쓴다.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몇 개의 대화문을 듣거나 읽은 후,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자유롭게 쓰거나,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쓴다.

⑤ 일상적인 간단한 실용 회화 문장을 쓴다.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표현을 중심으로 쓰기 활동을 한다.

⑥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히 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학교, 집, 거리, 지하철, 병원, 스포츠 등에 관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그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한 글로 쓴다. 창조적 생각을 간단한 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초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나) 언어 재료

- 발음 및 철자 -

① 발음은 현대 스페인 어의 표준 발음으로 한다.

스페인과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페인 어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역사, 사회, 문화적 환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조금씩 다르게 발음된다. 따라서 초보 학습자들은 대부분의 스페인 어권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준 발음을 익혀야 한다.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의 중산층이 사용하는 스페인 어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규정한다.

② 철자는 현대 스페인 어의 표준 정서법을 사용한다.

스페인 어 단어를 구성하는 철자는 묵음 'h'를 제외하고 모든 철자가 발음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동사의 경우 악센트 부호에 따라 시제와 인칭의 변화가 심하므로, 초보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정서법을 배우도록 한다.

- 어휘 -

고등학교 보통 교과 스페인 어 교육과정 [별표II]의 기본 어휘 중 300 낱말 내외를 사용한다.

고등학교 보통 교과 스페인 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낱말 중에서,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초보 학습자들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의 습득을 고려하여 가장 쉽고 필요한 기초 어휘를 중심으로 300 낱말 내외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 문법 -

①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해당 사항을 참고한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표현을 초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와 관련된 문법 중 최소한의 내용만 제시한다.

② 가능한 한 쉬운 사항만 다룬다.

문법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의사소통 기능의 습득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초보 학습자들이 언어 4기능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쉬운 문법만 다룬다.

③ 시제는 직설법 현재에 국한시킨다.

초보 학습자들이 제한된 단어와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제가 직설법 현재이다. 따라서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설법 현재만을 다룬다.

- 의사소통 기본 표현 -

[의사소통 기본 표현]

- 다음은 참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기본 표현이다.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과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 여기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는 문장의 구조, 문장의 종류 및 기타 문법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1. 인사

| | |
|---------|--|
| 가. 인사 | ¡Hola! ¡Hola!, ¿Qué tal? ¿Cómo estás? ¡Buenos días! ¡Buenas tardes! ¡Buenas noches! |
| 나. 작별인사 | Adiós. Hasta mañana. Hasta luego. |

2. 인적 사항

| | | |
|------------------|---|--|
| 가. 이름 | ¿Cómo te llamas? ¿Tu nombre, por favor? | Me llamo Minsu. Mi nombre es Minsu. |
| 나. 직업, 국적, 인적 관계 | ¿Qué es ella? ¿Qué son ellos? ¿De dónde eres? Soy de Corea. ¿Quién es el señor? Es mi padre. | Es mi profesora. Son estudiantes. Soy de Seúl. Es mi amigo. |
| 다. 나이 | ¿Cuántos años tienes? | Tengo quince años. |

3. 사물 관련 표현

| | | |
|---------------|---|---|
| 가. 명칭 | ¿Qué es esto? ¿Qué es eso? | Es un libro. Es un bolígrafo. |
| 나. 위치 | ¿Dónde están los libros? ¿Dónde está tu casa? Está cerca. | Están en la mesa. Está en Seúl. Está lejos. |
| 다. 색깔, 크기, 모양 | ¿De qué color es la rosa? ¿Es grande? ¿Es bonita la flor? | Es roja. No, no es grande. Es pequeña. Sí, es muy bonita. |
| 라. 매매, 가격 | ¿Qué deseas? ¿Cuánto vale? | Deseo un cuaderno. Vale dos euros. |
| 마. 날씨 | ¿Qué tiempo hace hoy? Hace sol. Hace calor. | Hace frío. |

4. 대인 관계적 표현

| | | |
|-----------|--|---|
| 가. 주소 | ¿Dónde vive Ud.? | Vivo en Jeonju. |
| 나. 외모, 성격 | ¿Cómo es tu maestra? ¿Es simpática? | Es alta y bonita. Sí, ella es muy simpática. |
| 다. 소개 | Éste es mi amigo Juan. Mucho gusto. | Encantado. |

| | | | |
|---------------|---------------------------------|---------------|---------------------|
| 라. 감사 | Muchas gracias. | De nada. | |
| 마. 사과 | ¡Lo siento! | ¡Perdón! | ¡Disculpe! |
| 바. 축하, 격려, 칭찬 | ¡Felicidades! | ¡Ánimo! | ¡Qué bonita! |
| 사. 안부 | ¿Cómo está tu hermana? | | |
| | Está bien. | Está mal. | Está enferma. |
| 아. 취미 | Me gusta. | | Me gusta el fútbol. |
| | No me gusta nadar. | | |
| 자. 주의 | ¡Cuidado! | | |
| 차. 허락, 금지 | ¿Puedo abrir la ventana? | | |
| | Sí, puedes abrir la ventana. | | |
| | No, no puedes abrir la ventana. | | |
| 카. 행선지 | ¿Adónde vas? | | Voy a la escuela. |
| | ¿Adónde van Uds.? | | Vamos a casa. |
| 타. 시간 | ¿Qué hora es? | | Son las dos. |
| 파. 의무, 원인, 이유 | Tengo que estudiar. | | |
| | ¿Por qué estudias el español? | | |
| | Porque tengo examen mañana. | | |
| 하. 감정 | Estoy alegre. | Estás triste. | Ella está enfadada. |

(2) 문화적 내용

(가)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가운데 기본적인 스페인 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문화를 소재로 사용하되, 우리말로 제시할 수 있다.

생활 스페인 어에서 다루는 내용은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그들의 역사, 지리, 예술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며, 이것들은 일상 언어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화적 소재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단순한 암기와 기계적인 사용을 넘어 표현 그 자체와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함의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그리스, 켈트, 로마, 게르만, 아랍 등의 침략과 정복의 결과 필연적으로 다원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는 스페인의 역사, 아스테카, 마야, 잉카 등의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의 역사, 스페인에 의한 라틴 아메리카의 정복, 식민, 독립 등의 역사에 대하여 이해한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스페인 어권 문명의 특징인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② 신대륙 발견의 역사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당시의 스페인 및 유럽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신대륙 발견이 유럽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1492년의 신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에 의한 라틴아메리카 정복의 역사 및 마야, 아스테카, 잉카 등의 인디오 문명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③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 과정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은 원주민이었던 인디오나 이들과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소 등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본국과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된 라틴아메리카 태생 백인들이 주도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독립의 배경이 된 유럽의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및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에 대하여 알아보고,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각기 다른 독립 후의 역사적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④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 환경

스페인 어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브라질을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 및 미국의 남서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도와 다양한 시청각 및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한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지리적 넓이만큼 자연환경도 지역별로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남미의 여러 나라를 지나며 흐르는 아마존 강과 정글 지역, 아르헨티나와 칠레 남단에 위치한 남극 지역, 페루, 볼리비아 등에 걸쳐 있는 티티카카 호수 등과 같이 열대, 온대, 한대의 다양한 기후가 공존한다.

⑤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풍습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일상적인 습관, 하루를 보내는 방식, 가정에서의 생활, 학교에서의 생활, 영미 문화권과는 다른 고유한 풍습 등에 관련한 소재들을 다룬다. 예를 들어 점심은 오래 먹고 저녁은 매우 늦게 먹는 식사 문화, 낮잠 자는 ‘시에스타’ 문화, 결혼 풍습, 마야와 아스텍 문명, 잉카 문명 등을 이해한다.

⑥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여가 활동과 운동 등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특히 또래의 학습자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다

양한 문화적 소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미, 운동, 여행 등을 구체적인 소재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⑦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음식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별로 다양한 음식 문화를 알아봄으로써 다른 문화권과 구별되는 이들 문화권만의 독특한 점을 이해한다. 특히 아랍 음식 문화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 남부 지역의 음식 문화, 인디오 음식 문화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 음식 문화 등을 비교함으로써 스페인 어권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⑧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 미술, 춤 등

스페인의 플라멩코, 라틴 아메리카의 살사, 메렝게, 차차, 룸바, 탱고 등의 다양한 음악과 춤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벨라스케스, 고야, 피카소, 달리, 프리다 칼로, 디에고 리베라 등의 스페인 어권 미술가 및 미술 작품을 화보, 영화 등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접하도록 한다.

(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의사소통 기본 표현들이 적절한 맥락 속에서 활용되도록 한다.

제시된 문화 내용을 반영한 간단한 스페인 어 단어 또는 문장을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말하기, 쓰기 등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 개인별 또는 소집단별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자유롭게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말과 스페인 어 단어를 섞어서 발표한다.

② 학생의 흥미, 필요,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문화적 내용은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흥미, 관심사, 사고 수준, 미래의 필요성, 이해 능력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어】

(1) 언어적 내용

(가) 언어 기능

- 듣기 -

① 발음을 듣고 한어병음과 성조를 변별한다.

한어병음은 한자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중국어 발음 표기법이다. 중국어 단어의 발음을 듣고 한어병음의 성모와 운모를 구별한다. 이때 1음절에서 시작하여 음절 수를 늘려간다. ‘bi : pi’, ‘dan : tan’ 등의 최소변별쌍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한어병음은 같지만 성조가 다른 최소변별쌍을 이용하여 성조의 차이점을 인식한다.

② 인사, 소개하는 말을 듣고 이해한다.

인사와 소개에 관한 표현은 모든 외국어 학습의 기본이다. 간단한 인사, 안부 묻고 답하기, 소개에 관한 표현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

③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듣고 이해한다.

사람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학년, 거주지, 직업 등에 대한 간단한 정보나 사물의 모양, 크기, 색깔 등에 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④ 교실에서 사용되는 간단한 중국어를 듣고 행동한다.

교실에서 자주 반복되는 행위나 활동을 지시하는 간단한 중국어 표현을 숙지하여 이를 듣고 행동한다.

⑤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감사, 사과, 축하, 초대 등의 표현과 물건 사기, 전화, 날씨, 길묻기, 학교생활 등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듣고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또한 대화자 간의 대응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응하는 방법을 익힌다.

- 말하기 -

- ① 한어병음과 성조에 유의하여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한다.

문장을 듣고 따라 하기 전 새로 나온 단어나 간단한 표현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확히 말하는 연습을 반복한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즉각적인 오류의 지적을 가능한 자제한다.

- ② 인사와 안부를 묻고 답한다.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또 말하는 시간에 따라 인사말을 하고, 안부를 묻고 답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한다.

- ③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묻거나 답한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또는 유명한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이름, 나이, 국적, 외모 등에 대하여 간단히 표현하고, 사물의 모양, 크기, 색깔 등에 대한 간단한 사항을 묻고 답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한다.

- ④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표현한다.

감사, 사과, 축하, 초대 등의 표현과 물건 사기, 전화, 날씨, 길묻기, 학교생활 등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가능한 정확한 발음과 억양으로 말한다.

- 읽기 -

- ① 한어병음으로 표기된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낭독한다.

초기의 읽기 활동은 정확한 발음을 학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한자를 제시하지 않고 한어병음만을 보고 연습한다. 가능한 한 큰 소리로 따라 읽고, 때로는 한어병음으로 제시된 동요나 비교적 쉬운 绕口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한어병음과 성조를 정확하게 읽되, 즉각적인 오류 지적은 삼가고 정확한 발음을 따라 하도록 하여 발음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② 기본 어휘의 낱말을 바르게 읽는다.

한자 없이 한어병음만을 보고 읽는 것은 발음 연습을 위한 초기 단계의 전략이다. 궁극적으로는 한자를 보고 정확히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새로 나온 어휘의 한자를 보면서 정확하게 발음한다.

③ 간단한 문장을 발음, 억양에 유의하여 읽는다.

문맥 없이 주어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의 간단한 문장을 발음과 억양에 유의하며 보통의 속도로 따라 읽는다.

④ 간단한 지시문, 안내문, 메모, 전자 우편 등을 읽는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접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표현들을 정확하게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 쓰기 -

① 한어병음으로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받아 적는다.

한어병음도 의미를 나타내는 표기 방법이므로 한어병음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어 발음을 한어병음으로 표기할 수 있어야 한어병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한어병음으로 받아 적고, 아울러 의미를 듣고 한어병음으로 적을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 때 빈칸 채워 넣기, 퍼즐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한자쓰기 규칙을 이해하고 바르게 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며, 위에서 아래로 쓰는 등의 한자 쓰기 규칙을 이해하여 한자를 바르게 쓴다. 또한 우리나라 한자 표기와 다른 중국의 간화자(簡化字)를 자주 사용하는 기본 한자 위주로 확순에 맞게 익힌다.

③ 간단한 메모, 엽서, 편지, 전자 우편 등을 작성한다.

배운 표현을 활용하여 간단한 메모, 짧은 서신의 교환, 간단한 초대 의 글 등을 한어병음 및 간단한 한자로 작성하고 그에 대한 답장을 쓴다.

④ 간단한 서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 서식의 내용을 읽어 가면서 이름, 나이, 생년월일, 국적 등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관한 신상 정보를 채워 넣는 연습은 실제 상황과 같은 느낌을 주는 쓰기 의사소통 연습이 될 수 있다. 지면 뿐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직접 한어병음을 입력해서 한자로 변환하는 연습도 해 본다.

(나) 언어 재료

- 발음 및 문자 -

① 발음은 현대 중국어의 표준 발음으로 하며, 표기는 한어 병음 방안을 따른다.

중국은 방언이 상당히 많아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발음이 상이하므로 표준 발음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표준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드시 현재 중국의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발음 표기의 기준이 되는 한어 병음 방안을 숙지하여 발음을 그 기준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② 문자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로 한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를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한다. 이 한자에는 간화자가 포함되어 있어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전체 한자가 모두 간화된 것이 아니라 일부 한자만 간략화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한자가 간략화 되는 규칙을 간단히 설명해 줌으로써 학습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다.

- 어휘 -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국어 교육과정 [별표Ⅱ]의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300낱말 내외를 사용한다.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국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중 300 낱말 내외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 문법 -

문법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쉬운 기본 문법 사항을 다룬다.

중학교 과정에서 문법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한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쉬운 문법 사항만을 다루되, 문법에 관한 설명은 가급적 피한다.

- 의사소통 기본 표현 -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다룬다.

가능한 한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의사소통 의도에 고유한 발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는 간단하고 쉬운 표현을 위주로 하고, 다소간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학습자의 학습 수준이나 조건에 따라서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것 이외의 다른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

- 다음은 생활 중국어 교육과정에서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다.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기능 항목도 사용할 수 있다.
- 여기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문장의 구조, 문장의 종류 및 기타 문법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대인 관계 표현

| | | | |
|------------|------------|---------|-----------|
| 가. 인사 | 你好! | 好久不见。 | 最近怎么样? |
| 나. 소개 | 这位是张老师。 | 我家有四口人。 | |
| 다. 대화의 끝맺음 | 好, 就这样吧。 | 明天再说吧。 | |
| 라. 작별 | 再见! | 以后再联系。 | 慢走。 |
| 마. 이름 | 你叫什么名字? | 您贵姓? | 我姓○, 叫○○。 |
| 바. 나이 | 你多大了? | 你弟弟几岁? | |
| 사. 생년월일 | 你的生日是几月几号? | | |
| 아. 연락처 | 你的电话号码是多少? | | |
| 자. 국적 | 你是哪国人? | 我是韩国人。 | |

차. 초대

카. 취미

타. 건강

2. 감정 및 의사 표현

가. 감사

나. 사과

다. 회로애락

라. 희망

마. 축하

바. 찬반

사. 칭찬

아. 격려

자. 상의

차. 의무

3. 묘사 및 설명 표현

가. 외모

나. 사물

다. 사실

라. 경험

마. 비교

바. 능력

사. 이유

4. 지시 및 명령 표현

가. 명령

나. 경고

다. 허락/금지

라. 부탁

마. 충고

바. 제촉

5. 생활 관련 표현

가. 물건 사기

나. 전화

다. 날씨

星期日到我家来玩儿吧。

你喜欢做什么？

你哪儿不舒服？ 我感冒了。 去医院看看吧。

谢谢！

对不起，我来晚了。

太好了！ 今天我很高兴。 真讨厌！

我要去北京。 我想当医生。

祝你生日快乐！ 恭喜恭喜！

我完全同意你的意见。 我不这样想。

你汉语说得真好！ 他是个好学生。

加油！

去中国旅游，怎么样？ 我们一起去看电影，好吗？

学生应该努力学习。

她长得很漂亮。 她眼睛很大。

这是什么？ 这种香蕉又便宜又好吃。

现在三点半。 教室里有很多人。

你去过北京吗？

哪个更贵？ 姐姐比我大一岁。

我会开车。

你为什么不来上课？

起来！

请注意！ 小心，别跑！

今天你可以回家休息。 请不要大声说话。

请再说一遍！ 麻烦您，帮我一下。

我看，这种颜色不错。

快点儿！

这个多少钱？ 多少钱一个？ 便宜点儿吧。

喂！ ○○中学吗？ 请等一下。 我就是。

您是哪一位？ 你打错了。

今天天气怎么样？ 今天有点儿冷。

| | |
|----------|---------------------------------------|
| 라. 하루 일과 | 我每天早上六点起床。 你早上几点上学？ 我昨天九点就睡了。 |
| 마. 길묻기 | 请问一下，北京站怎么走？ 车站在哪儿？ 一直往前走。 |
| 바. 교통 | 要多长时间？ 去北京大学坐几路车？ 在哪儿换车？ |
| 사. 학교 생활 | 明天有几节课？ 谁教你们汉语？ |
| 아. 식사 | 你吃饭了没有？ 我吃好了。 你想吃什么菜？ |
| 자. 인터넷 | 你给他发电子邮件了吗？ 你上网查查。 |

(2) 문화적 내용

(가) 중국인의 일상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문화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문화는 제도, 지식, 예술, 도덕, 법률, 관습, 신앙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관습의 총체를 말한다. 그러나 생활 중국어에서 다루는 문화는 이러한 광범위한 문화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다룬다. 일상생활 문화는 중국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 배어 있는 문화로, 이 문화 형태는 일상 언어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① 인사와 소개에 관한 내용

중국어가 한국어에 비해 존대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인사할 때와 소개할 때 지켜야 하는 언어상의 예의범절이 있다. 예를 들면 “您贵姓?”처럼 처음 만나는 상대를 ‘您’으로 지칭하거나, 사람을 소개할 때 양사 ‘个’를 쓰지 않고 ‘位’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

② 취미와 여가 활동에 관한 내용

중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같은 나이 또래의 중국 학습자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소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 오락 등을 구체적인 소재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③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및 예절에 관한 내용

모든 나라가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및 예절

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국 가정은 남성이 대부분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거나 여자도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면에 있어서의 중국적인 특징이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④ 의식주에 관한 내용

중국은 우리와 인접해 있고 유가 사상의 영향으로 많은 면에서 유사한 면을 보이지만, 또한 많은 면에서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음식은 중국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화 소재이다.

⑤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

생활 중국어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명절이나 유적지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전통문화가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거나 우리의 선조들과 관련된 유적지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한다.

자신들의 나이나 지적 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문화 소재로 내용을 구성할 경우 학습자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 언어 학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내용은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학습 의욕이 생기도록 흥미, 관심사, 사고 수준, 미래의 필요성, 이해 능력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적절한 맥락 속에서 활용되도록 한다.

문화는 언어적 맥락과 연관 지어져야 한다. 단순히 문화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소개하면서 그 상황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학습한다. 예를 들어, 새해에 대한 문화를 학습하면서 중국인들의 인사법인 “恭喜恭喜!”를 익히거나, 중국인의 인사법을 학습하면서 “你吃饭了没有?”도 인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이해한다.

③ 내용은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문화적 내용을 실용적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의사소통 시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어】

(1) 언어적 내용

(가) 언어 기능

- 듣기 -

① 청탁음, 장단음, 축음, 발음, 요음에 유의하여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는다.

낱말을 통해 일본어의 청탁음, 장단음, 축음, 발음, 요음의 음가를 정확히 익힌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구별해 주는 기능을 가진 음소의 특성을 인식하여 발음해야 한다. 나아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낱말, 호칭, 간단한 인사말, 의례적인 표현들을 보통의 속도로 들어 봄으로써 일본어에 대한 듣기 감각을 익힌다.

② 간단한 교수용 일본어를 듣고 행동한다.

수업 시 자주 사용하는 지시어나 인사말과 같이 반복되는 용어는 간단한 일본어를 사용한다. 학습자들은 일본어를 듣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여 자연스럽게 대처한다.

③ 인사, 소개 등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듣는다.

인사, 안부 묻고 답하기, 소개 등과 같은 의례적인 대화나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아울러 대화자 간의 대응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감사, 사과, 칭찬, 승낙 등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듣는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감사, 사과, 칭찬, 승낙 등의 표현을 듣고 이해하여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정보 요구, 비교, 선택, 경험 등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듣는다.

사람의 이름, 학년, 나이, 가족, 거주지 등과 관련된 간단한 정보나 사물의 비교, 선택, 경험 등과 관련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⑥ 의뢰, 권유 등과 관련된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는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자주 쓰이는 의뢰와 권유 등에 관련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말하기 -

① 청탁음, 장단음, 축음, 발음, 요음에 유의하여 들은 문장을 따라 한다.

낱말이나 문장 속에 나오는 청탁음, 장단음, 축음, 발음, 요음에 유의하여 듣고 각 음의 차이를 안다. 또한 어두나 어중에서의 청탁음, 장단음, 축음, 발음, 요음이 포함된 문장을 자연스러운 속도로 정확히 발음한다.

② 인사, 소개 등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한다.

인사와 소개는 일상적 만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만날 때, 헤어질 때, 대화 상대방의 친밀도에 따른 인사말과 소개를 할 수 있다.

③ 감사, 사과, 칭찬, 승낙 등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감사, 사과, 칭찬, 승낙 등의 표현을 듣고 이해하여 상대방과 간단한 대화를 한다.

④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나, 의뢰·장소·내용·상황 등에 알맞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중심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말한다.

⑤ 정보 요구, 비교, 선택, 경험 등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한다.

사람의 이름, 학년, 나이, 가족, 거주지 등과 관련된 간단한 정보를 묻고, 사물의 비교, 선택, 경험 등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한다.

⑥ 의뢰, 권유 등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한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자주 쓰이는 의뢰와 권유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말한다.

⑦ 간단한 맞장구 등을 넣어 대화를 한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간단한 맞장구를 넣어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 읽기 -

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바르게 읽는다.

일본어 오십음도 순으로 크게 읽어보거나, 리듬에 맞춰 읽어 본다. 또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쓰인 사물, 기관, 상품 등의 명칭을 보고 바르게 읽는다.

② 청탁음, 장단음, 축음, 발음, 요음에 유의하여 문장을 읽는다.

일본어는 청탁음, 장단음, 축음, 발음, 요음이 들어있는 낱말이나 문장을 바르게 읽지 못하면 의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음에 유의해서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③ 메모, 엽서, 카드 등의 간단한 글을 읽는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간단한 메모, 엽서, 카드 등의 실용적인 글들을 읽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④ 인터넷에서 쉽고 간단한 글을 찾아 읽는다.

인터넷을 통해 일본어 입력을 할 줄 알며, 일본이나 일본 문화에 관련된 쉽고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⑤ 일본 문화와 관련된 쉽고 간단한 글을 읽는다.

일본인의 일상적인 인간관계, 의식주와 연중행사, 학교생활, 교통수단의 활용, 물건 사기, 길 찾아가기 등과 같은 일본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쉽고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 쓰기 -

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올바르게 쓴다.

일본어의 문자는 획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히라가나와 가타가나의 획순을 올바르게 쓰는 연습을 한다.

② 학습용 한자를 올바르게 쓴다.

일본어의 문장을 쓸 때는 주로 가나를 사용하나, 최소한의 한자를 학습할 필요도 있다. 학습용 한자의 획순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다.

③ 학습한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쓴다.

학습한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쓰는 연습을 할 때는 자칫 지루할 수 있으므로 빈칸 채워 넣기, 퍼즐 등 다양한 형태의 쓰기 활동을 한다.

④ 간단한 메모, 엽서, 전자 우편 등을 작성한다.

배운 표현을 활용하여 친구나 가족에게 남기는 간단한 메모, 짧은 엽서의 교환, 전자우편의 글 작성 등 실제적 상황에 기반을 둔 쓰기 연습을 한다.

⑤ 일상생활과 관련된 쉽고 간단한 글을 쓴다.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표현을 중심으로 쓰기 활동을 한다.

(나) 언어 재료

- 발음 및 철자 -

① 발음은 현대 일본어의 표준 발음을 기본으로 한다.

지역적인 특성이 배제된 일본어 표준 발음을 기본으로 한다.

② 가나의 표기는 ‘현대 가나 표기법’에 따른다.

가나는 현대어의 음운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된 ‘현대 가나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③ 한자 표기는 고등학교 보통 교과 일본어 교육과정 [별표II]에 제시된 학습용 한자를 사용하되 가능한 한 가나로 표기한다.

학습 초기 단계인 만큼 가능한 한 가나로 표기하되, 한자를 표기할 때는 고등학교 보통 교과 일본어 교육과정 [별표II]에 제시된 학습용 한자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 어휘 -

고등학교 보통 교과 일본어 교육과정 [별표II]에 제시된 기본 어휘 중 300낱말 내외를 사용한다.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 언어 기능에 제시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보통 교과 일본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중 300 낱말 내외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 문법 -

문법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사용된 문법 사항을 다루되, 고등학교 보통 교과 일본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벗어난 문법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생활 일본어 교육의 총괄 목표 중 하나는 일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므로 문법은 이에 필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문법 학습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의사소통 기본 표현 -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의사소통 능력을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다음에 제시된 기본 표현을 적극 활용한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첫 단계는 의사소통 의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을 일본어로 익히는 것이다. 사실 어떤 의사소통 의도에 고유한 발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는 각각의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하여 다소간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표현들을 선정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

- 다음은 참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다.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과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 여기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는 문장의 구조, 문장의 종류 및 기타 문법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1. 인사

| | |
|--------|---|
| 가. 만남 | おはよう。 /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こんにちは。 こんばんは。 ひさしぶり。 / おひさしぶりです。 |
| 나. 헤어짐 | じゃあね。 また あした。 では、また。 バイバイ。 さよ(う)なら。 げんきでね。 / おげんきで。 きをつけてね。 / おきをつけて。 では、しつれいします。 おやすみ。 / おやすみなさい。 |
| 다. 외출 | いって きます。 いって(い)らっしゃい。 ただいま。 おかえり。 / おかえりなさい。 |
| 라. 식사 | いただきます。 ごちそうさまでした。 |
| 마. 방문 | ごめんください。 おじゃまします。 しつれいします。 |
| 바. 축하 | たんじょうび、おめでとう。 |
| 사. 안부 | げんき? / おげんきですか。 |

2. 소개

| | |
|---------|--|
| 가. 자기소개 | はじめまして。 キム・ボラです(と もうします)。 かんこくから きました。 こちらこそ どうぞ よろしくおねがいします。 わたしの でんわばんごうは 317-9238です。 |
| 나. 가족소개 | ははです。 おとうとは ちゅうがくせいです。 |
| 다. 타인소개 | こちらは たなかさんです。 ともだちの キムです。 |

3. 배려 및 태도 전달

| | |
|-------|--|
| 가. 감사 | どうも。 / ありがとう。 /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かげさまで。 |
| 나. 사과 | すみません。 ごめん。 / ごめんなさい。 |
| 다. 칭찬 | にほんごが おじょうずですね。 すごいですね。 よく できました。 |

| | |
|------------|---|
| 라. 승낙 · 동의 | ええ、いいですね。 ええ、もちろんです。 はい、どうぞ。 はい、わかりました。 そうしましょう。 |
| 마. 사양 | いえ、けっこうです。 もう いいです。 |
| 바. 유감 | さんねんですね。 |
| 사. 격려 · 위로 | がんばれ。 / がんばってね。 / がんばって ください。 なかむらさんなら できますよ。 たいへんですね。 だいじょうぶですか。 |

4. 정보 교환

| | |
|----------|--|
| 가. 정보 요구 | なにに しますか。 なんにん かぞくですか。 しゅみは なんですか。 にほんの しんぶんを よむ ことが できますか。 たんじょうびは いつですか。 トイレは どこですか。 どんな スポーツが すきですか。 いま、なんじですか。 テストは なんじから なんじまでですか。 스포츠의 なかでなにが いちばん すきですか。 ジュースと おちゃと どちらが いいですか。 バスより でんしゃの ほうが はやいです。 サッカーは できますが、スキーは できません。 にほんごは はなせますが、えいごは はなせません。 ぼくは おちゃに します。 にほんへ いった ことが あります。 にほんの アニメを みた ことが ありますか。 だいぶ さむく になりましたね。 |
| 나. 비교 | |
| 다. 선택 | |
| 라. 경험 | |
| 마. 확인 | |

5. 행위 요구

| | |
|----------|---|
| 가. 의뢰 | ちょっと まって ください。 その ほん、かして くれる。 |
| 나. 권유 | アイスクリームは どうですか。 あした えいがを みに いきませんか。 きょうは おうちで たべましょう。 よかったら いっしょに いかない。 おちゃ、どうぞ。 ハングルで かいても いいですか。 あそんでは だめです。 あそんでは いけません。 |
| 다. 허가 요구 | |
| 라. 금지 | |

6. 대화 진행

| | |
|---------|---------------------------------------|
| 가. 말 걸기 | あのう。 すみません。 しつれいですが。 |
| 나. 머뭇거림 | ええと。 ああ、どうしよう。 |
| 다. 맞장구 | あ、そうですか。 やっぱり。 そうですね。 ほんとう？ なに？ |
| 라. 되묻기 | |

(2) 문화적 내용

(가)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관련된 일본인의 언어 행동 문화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아래에 제시한 내용은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다.

문화의 범위는 무척 광범위하다. 생활 일본어에서 다루는 문화는 지식 문화 혹은 전통적 문화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이다. 일상생활 문화는 일본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배어 있는 문화로, 이 문화 형태는 일상 언어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화적 소재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단순한 암기와 기계적인 사용을 넘어 표현 그 자체와 일본인의 언어 행동 문화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① 언어 행동에 관한 내용(표현적 특성, 맞장구 등)

일본인의 언어 행동은 우리의 의사 표현과는 달리 자기의 의사를 강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맞장구에 있어서도 감사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한다든지, 부정의 말은 말꼬리를 흐린다든지 하여 우리의 언어 행동과는 다른 점을 유의하며 이에 관련된 소재들을 다룬다.

② 비언어 행동에 관한 내용(몸짓, 손짓 등)

일본인의 비언어 행동에는 일일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짓, 손짓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비언어 행동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알맞게 사용한다.

(나) 일본인의 일상생활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다. 아래에 제시한 내용은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일본인들의 하루 일과,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습관, 직장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된 관습적인 것 등을 이해하는 것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 (인사, 방문 예절, 가정 내 생활 문화 등)

일본의 일반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필요한 방문 시의 인사 예절,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두는 예절, 목욕 예절, 화장실 사용 예절 등 가정 내의 생활 문화 전반을 이해한다.

②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 (동아리 활동 등)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외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학교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들의 모든 행위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의복 문화에 관한 내용 (의복의 종류 등)

문화적 내용은 이론보다 실용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설명함으로써 의사소통 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일부 연중행사 때에 입는 기모노(着物), 유카타(浴衣) 등 의복의 종류를 설명하고 체험해 본다.

④ 음식문화에 관한 내용 (음식의 종류, 식사 예절 등)

일본인의 음식 문화를 통해 우리의 음식과 비교하며 우리와 비슷한 음식과 다른 음식이 무엇인지 음식의 종류를 살펴본다. 또한 식사 예절로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으나 일본인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는 것 등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⑤ 주거문화에 관한 내용 (주택 사정 등)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와 비교해서, 일본의 주거 문화는 고층 아파트 생활보다는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본 주택 사정을 고려한 주거 문화에 관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 사진,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중에서 일본인과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다. 아래에 제시한 내용은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일본의 문화는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로 크게 양분된다.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일본인과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① 연중행사에 관한 내용 (마쓰리, 설, 히나마쓰리, 고이노보리, 오본, 시치고산 등)

일본의 연중행사에 관련된 마쓰리(まつり), 설(しょうがつ), 히나마쓰리(ひなまつり), 고이노보리(こいのぼり), 오본(おぼん), 시치고산(しちごさん) 등에 대해 우리의 연중행사와 비교해 특징적인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고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② 전통 예능에 관한 내용 (다도, 꽃꽂이 등)

일본 전통문화인 다도나 꽃꽂이에 대한 내용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해한다.

③ 놀이 문화에 관한 내용 (하나미, 하나비 등)

일본 사람들이 즐겨하는 놀이 문화인 하나미(はなみ)나 하나비(はなび)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놀이 문화의 성향을 알아본다.

④ 대중문화에 관한 내용 (만화, 애니메이션 등)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에 관한 내용은 학습자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이므로 활용한 다.

(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문화적 내용을 구성한다.

① 내용은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문화적 내용은 실용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설명함으로써 의사소통 시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근의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학습자의 흥미, 필요,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자신들의 나이나 지적 수준에 맞지 않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문화 소재로 내용을 구성할 경우 학습자들은 문화 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나아가 언어 학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내용은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흥미, 관심사, 사고 수준, 미래의 필요성, 이해 능력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언어 표현과 관련된 소재 영역은 위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 속의 항목들을 참고하여 이 표현들이 적절한 맥락 속에서 활용되도록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특정한 소재 영역과 관련된 적합한 표현 방식이 자연스럽게 습득되도록 한다.

문화적 내용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 속의 항목을 활용하여 수업 시 적절히 사용한다.

- ④ 문화 내용을 설명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 문화에 대한 내용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므로 일본어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말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⑤ 일본의 일상생활 및 사회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우리 문화와 비교하여 차이점 및 공통점을 인식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일본과 우리의 학교, 교통, 우체국, 물건 사기,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문화와 사회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함으로써 양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한다.

【러시아 어】

(1) 언어적 내용

(가) 언어 기능

- 듣기 -

- ①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이해한다.

비교적 짧고 쉬운 내용의 말이나 소리의 이해에 중점을 두되 강세에 따른 문자의 음가 변화를 이해한다.

- ② 간단한 교실 러시아어를 듣고 행동한다.

수업 시 자주 반복되는 활동을 지시하는 간단한 러시아어를 숙지하여 이에 따라 반응한다.

- ③ 인사와 안부, 소개하는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인사, 안부 묻고 답하기, 소개하기와 같은 의례적인 대화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④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듣고 이해한다.

사람의 이름, 학년, 나이, 외형적 특징, 직업, 거주지 등에 대한 정보나, 사물의 색깔, 모양, 크기, 가격 등에 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⑤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듣고 이해한다.

가정이나 학교생활 및 친교 활동 등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간단한 표현들을 듣고 이해한다.

⑥ 간단한 전화 내용을 듣고 이해한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전화 내용을 듣고 이해한다.

⑦ 감사, 사과, 유감, 축하, 기원, 격려, 초대, 제안, 승낙, 거절 등의 간단한 말을 구별하고 행동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감사, 사과, 유감, 축하, 기원, 격려, 초대, 제안, 승낙, 거절 등의 표현을 구별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적절히 행동한다.

- 말하기 -

① 발음과 억양에 유의하며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말한다.

음가의 변화 및 억양, 문장의 유형에 유의하여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말한다. 처음에는 단어 단위, 다음에는 구 단위, 마지막에는 문장 단위로 말한다.

② 인사와 안부를 묻고 답한다.

인사와 안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기능이다.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말하는 시간 및 상대방의 신분에 따른 인사말과 안부를 묻고 답한다.

③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러시아인 교사나 학생을 만날 때 자신의 이름, 국적, 출신지, 거주지,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을 말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소개한다.

④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묻거나 제공한다.

사람의 직업, 나이, 신체적 특징, 외모, 관계와 사물의 외양이나 색깔 등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교환한다.

⑤ 시간이나 공간 표현을 사용하여 간단한 정보를 묻거나 제공한다.

가정이나 학교생활 및 친교 활동 등에서 사용되는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간단한 정보를 교환한다.

⑥ 전화로 간단하게 통화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전화로 간단히 통화한다.

⑦ 감사, 사과, 유감, 축하, 기원, 격려 등의 의도가 담긴 간단한 말을 하거나 이에 답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감사, 사과, 유감, 축하, 기원, 격려 등의 표현을 구사하거나 그와 같은 표현에 대해 적절히 답한다.

⑧ 초대나 제안을 하거나 이에 대해 승낙 또는 거절의 말을 간단히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초대, 제안 등의 표현을 구사하거나 그와 같은 표현에 대해 적절히 승낙 또는 거절한다.

- 읽기 -

① 발음과 억양에 유의하며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강세의 위치에 따른 음가의 변화에 유의하고 억양에 유의하며 읽는다. 처음에는 단어 단위, 다음에는 구 단위, 나중에는 문장 단위로 읽는다.

② 간단한 시간표, 안내문, 광고문 등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교통수단, 공연, 전시회, 상업, 언론 매체 분야 등의 시간표, 안내문, 광고문 등을 읽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얻을 수 있다.

③ 간단한 메모, 엽서, 편지, 전자 우편 등을 읽고 이해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실용적인 글들, 예를 들면, 간단한 메모, 엽서, 편지, 전자우편 등을 읽고 그 글들의 의사소통 의도 및 주제, 내용 등을 이해한다.

④ 간단한 지시문을 읽고 행동한다.

짧고 쉽게 쓰인 여러 종류의 지시문을 읽고 그 내용에 맞게 행동한다. 처음에는 한 문장으로 된 간단한 지시문에 따라 하나의 행동을 수행하고, 나중에는 연속되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지시문을 읽고 그 내용에 맞게 일련의 행동을 수행한다.

⑤ 간단한 이야기, 대화를 읽고 소재, 주제, 대의를 파악한다.

이야기나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를 파악한다. 이어서 소재 및 대의 나아가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 쓰기 -

① 학습한 문장을 듣고 받아쓴다.

이미 학습한 단어나 간단한 표현, 문장을 교사가 읽거나 시청각 자료를 통해 들려주면 음가의 변화에 유의하여 듣고 철자에 유의하여 받아쓴다. 문장 받아쓰기의 경우, 처음에는 학습한 과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받아쓰게 하고 익숙해지면 앞서 배운 단어나 표현을 활용하여 만든 문장을 받아쓰는 연습을 한다.

② 간단한 메모, 엽서, 편지, 전자 우편을 작성한다.

수업 시간에 익힌 표현을 활용하여 러시아인 교사나 친구에게 간단한 메모, 짧은 엽서, 편지, 전자 우편 등을 작성한다.

③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관한 쉽고 간단한 글을 작성한다.

먼저 빈칸에 단어나 표현을 채워 넣는 연습을 통해 창조적인 글쓰기를 준비한다. 이에 익숙해지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에 관한 쉽고 간단한 글을 쓴다.

④ 간단한 서식에 필요한 정보를 채워 넣는다.

빈칸에 단어나 표현을 채워 넣는 연습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연습이 될 수 있다. 간단하게 만들어진 서식의 내용을 읽어가며 빈칸에 필요한 정보를 채워 넣는다.

⑤ 간단한 초대장이나 학교 활동에 관한 광고문, 안내문 등을 작성한다.

모임에 친구들을 초대하는 간단한 내용의 초대장을 작성한다. 또한 학교에서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활동에 대한 광고나 안내문을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필요시 그림이나 사진, 약도 등을 곁들여 만든다. 초대장이나 광고문 및 안내문 작성은 단어나 간단한 표현만으로도 가능하다.

(나) 언어 재료

- 발음 및 철자 -

① 발음은 현대 러시아 어의 표준 발음으로 한다.

현대 러시아 어의 표준 발음은 모스크바 지역에서 사용되는 발음을 일컫는 것으로, 강세의 위치에 따른 모음의 음가 변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② 철자는 현대 러시아 어의 정서법을 사용한다.

학습 초기에 쓰기 연습할 때 발음과 철자의 관계에 유의하여 현대 러시아 어의 정서법에 따라 정확히 쓴다.

- 어휘 -

고등학교 보통 교과 러시아 어 교육과정 [별표II]에 제시된 기본 어휘 중 300 낱말 내외를 사용한다.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보통 교과 러시아 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중 300 낱말 내외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 문법 -

문법에 관한 내용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예시문의 해당 사항을 참고로 한다. 가능한 한 쉬운 문법 사항만 다룬다.

생활 러시아 어 교육의 총괄 목표 중 하나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므로 문법은 이에 필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가능한 한 쉬운 문법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동사의 상’에 대해 개념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2, 3개 정도로 국한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문법 사항도 최소한의 설명에 그치도록 한다.

- 의사소통 기본 표현 -

의사소통 기능과 표현은 의사소통 능력을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표현을 활용한다.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첫 단계는 의사소통 의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러시아 어로 익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러시아 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각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하여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표현들을 선정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이런 취지에서 선정된 것으로서, 학습자의 학습 발전 속도나 학습 여건 또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서는 아래 제시된 것 이외의 다른 표현도 사용될 수 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

- 다음은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다.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주제 및 상황, 그리고 예시문도 필요하면 도입할 수 있다.
- 다음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생활러시아 어 교육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장의 구조, 문장의 종류, 기타 문법 사항 등을 선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1. 인사

| | | |
|--------------|----------------|-----------------|
| 가. 만났을 때 인사 | Здравствуйте! | Привет! |
| 나. 헤어질 때 인사 | До свидания! | Пока! |
| | Всего доброго! | Всего хорошего! |
| 다. 시간에 따른 인사 | Доброе утро! | Добрый день! |
| | Добрый вечер! | Спокойной ночи! |

2. 안부

가. 안부 묻고 답하기 A: Как дела? Б: Хорошо, спасибо.

3. 소개

가. 자기 소개 Меня зовут Лена.
나. 타인 소개 Это моя сестра, Таня.
다. 소개에 대한 응답 Очень приятно. Рад(Рада) вас видеть.

4. 감정

가. 감사와 응답 1) A: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Б: Пожалуйста.
 2) A: Благодарю вас! Б: Не за что.
 3) Спасибо за подарок.
나. 사과와 응답 A: Изви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Б: Ничего.
다. 칭찬과 격려 Очень хорошо ! Прекрасно !
 Отлично ! Молодец !
라. 기쁨 · 만족 Хорошо!
마. 유감 Как жаль !
바. 감탄 Как жарко!

5. 대인관계

가. 초대 Я хочу пригласить тебя.
 Ты не хочешь поехать со мной?
나. 축하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днём рождения!
 С Новым годом! С Рождеством!
다. 편지쓰기 Дорогой Иван! Дорогая Анна!
라. 전화대화 Алло. Можно Ивана ?
 Слушаю вас. Одну минуту.
 Извините, а кто говорит? Это Юнми.
 Его(Её) нет дома.
 Перед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что звонил Борис.
마. 약속 Когда встретимся? Где встретимся ?
 Договорились !
바. 환영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사. 진송할 때 Счастливого пути!
아. 식사할 때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자. 부탁과 요청 Дайте мне, пожалуйста, кофе.

| | |
|----------------|---|
| 차. 승낙 | Хорошо!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
| 카. 거절 | К сожалению, не могу. |
| 파. 주의, 경고, 금지 | Сергей, нет! Нельзя! |
| 하. 허용 | 1) А: Можно войти? Б: Да, пожалуйста. 2) А: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ваш журнал? Б: Конечно, можно. |
| 가. 권고, 충고 | Возьмите такси. Не беспокойтесь! |
| 나. 제안 | Пойдём! Давай! |
| 6. 개인의 느낌이나 생각 | |
| 가. 좋거나 싫은 것 | Я (не) люблю играть в футбол. Мне (не) нравится японский язык. |
| 나. 관심 | Я интересуюсь музыкой. |
| 다. 취미 | А: Что вы делаете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Б: Я люблю слушать музыку. |
| 라. 소망과 의지 | Я хочу изучать русский язык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Мне хочется пить кофе. |
| 마. 가능성 | Я могу. Возможно. |
| 바. 추측 |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это неправильно. |
| 사. 확신 | Конечно, можно! |
| 아. 기원 | Желаю вам счастья и здоровья! |
| 자. 의무 | Мне надо помогать маме. |
| 차. 필요성 | Что вам нужно? |
| 카. 건강상태 | У меня болит голова. Я болен(больна). |
| 타. 동의 | Я тоже так думаю. Согласен(Согласна). Конечно. |
| 파. 반대 | Нет! Нельзя! |
| 하. 의사표시 | Чай, пожалуйста.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не хорошо. |
| 가. 원인과 결과 | У меня каникулы, поэтому я сегодня дома. |
| 나. 음식 1) 기호 | Я люблю хлеб. |
| 2) 식사여부 | Вы обедали? |
| 3) 식사시간 | Когда вы ужинаете? |
| 4) 맛 | Вкусно. |
| 5) 주문 | Я хочу кофе с молоком. |

7. 정보와 의견교환

- 가. 긍정과 부정 A: Вы из России? B: Да.
 A: Это ручка? B: Нет, это карандаш.
- 나. 대상물기 A: Что это? B: Это мой словарь.
 A: Кто это? B: Это моя мать.
 A: Чьё это пальто? B: Это его пальто.
- 다. 인적사항 1) 이름 A: Как вас зовут? B: Меня зовут Таня.
 2) 국적 A: Откуда вы? B: Я из России.
 3) 나이 A: Сколько вам лет? B: Мне 18 лет.
 4) 거주지 A: Где вы живёте? B: Я живу в Сеуле.
 5) 가족관계 У меня есть брат и сестра.
 6) 직업 1) A: Кто он (по профессии)?
 B: Он инженер.
 2) A: Чем она занимается?
 B: Она учительниц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7) 고향 Я родился(родилась) в Сеуле.
- 라. 시각 1) A: Который час? B: Три часа.
 2) A: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B: Пять часов.
- 마. 가격 A: Сколько это стоит?
 B: 20 рублей.
- 바. 장소 A: Где он работает?
 B: Он работает в больнице.
- 사. 날씨 A: Какая сегодня погода?
 B: Сегодня идёт дождь.
- 아. 요일 A: Какой сегодня день?
 B: Сегоня суббота.
- 자. 장래희망 A: Кем вы хотите стать?
 B: Я хочу стать инженером.
- 차. 소유 У вас есть ручка?
- 카. 시작과 끝 A: Когда начинается(кончается) концерт?
 B: Концерт начинается(кончается) в 7(10) часов.
- 타. 교통수단 A: Как ты едешь в школу?
 B: На автобусе.
- 가. 행선지 A: Куда ты идёшь?
 B: Я иду в школу.

| | |
|--------------|--|
| 나. 이유 묻기 | A: Почему ты сегодня дома? |
| | Б: Потому что у меня каникулы. |
| 다. 의견묻기 | Вам чай или кофе? |
| | Как вы думаете? |
| |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б этом ? |
| 라. 물건사기 | У вас есть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й словарь? |
| | Сколько это стоит? |
| 마. 주문 · 예약하기 | Я хочу заказать номер. |
| 바. 길묻기, 길안내 | A: Где мгазин? |
| | Б: Идите прямо потом и направо. |
| 샤. 기분, 상태 | A: Как вы себя сегодня чувствуете? |
| | Б: Я чувсую себя лучше. |
| 야. 외모묘사 | У неё длинные волосы. |
| | Он носит очки. |
| 자. 행위표현 | Мой брат играет в теннис. |
| 차. 성격 | Он добрый и хороший. |
| 카. 설명 | У нас в Москве зима длинная. |
| 파. 외국어 | 1) 능력 2) 표현 |
| | Я хорошо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 Как по-русски ‘죄송합니다’? |
| 8. 기타 | |
| 가. 과거사실 | 1) A: Что вы делали вчера? Б: Я занимался(занималась) русским языком. |
| | 2) A: Кто был в театре вчера? Б: Анна была там. |
| 나. 경험 | Я был(была) в России. Мы ездили в Москву. |
| 다. 미래사실 | Я буду писать письмо бабушке. |
| 라. 비교 | Он моложе меня. |
| 마. 최상의 표현 | Россия – самая большая страна в мире. |
| 바. 문화 | Эрмитаж-это известный музей в Петербурге. |
| 샤. 자연환경 | Байкал- это самое большое озеро в России. |
| 아. 하루일과 | 1) 기상 2) 취침 3) 등교 4) 귀가 5) 여가생활 |
| | Я встаю в 7 часов утра. Я ложусь спать в 11 часов вечера. Я иду в школу в 8 часов. Я возвращаюсь домой в 4 часа. После ужина я смотрю телевизор. |

- 자. 학교생활 1) 수업 Урок кончается в 3 часа.
 2) 과목 Я люблю математику.
 3) 교사 У меня новая учительница.

(2) 문화적 내용

(가) 러시아의 일상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여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생활 러시아 어에서 다루는 일상생활 문화는 러시아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배어 있는 문화로서 그 형태는 일상 언어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위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화적 소재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단순한 암기와 기계적인 사용을 넘어 표현 그 자체와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소개 및 인사에 관한 내용(소개 방식, 바른 호칭법 등)

일상적인 만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개 및 인사와 관련하여 바른 소개 방식, 호칭 그리고 인사 방법과 관련된 소재들을 다룬다.

② 감정 및 견해 표현에 관한 내용(동의 및 반대 표시, 좋고 싫음 표시, 감사 및 유감 표시, 자신의 견해 표현 등)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느끼는 갖가지 감정과 견해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마련이다. 이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제시하는 것은 러시아인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좋고 싫음, 동의나 반대, 감사나 유감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적절한 소재를 선정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③ 취미와 여가활동에 관한 내용(여가 활동, 스포츠, 춤, 음악, 독서, 컴퓨터 게임, 여행 등)

러시아인들, 그중에서도 특히 같은 나이 또래의 러시아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소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 오락, 운동, 여행 등

을 구체적인 소재로 다룰 수 있다.

④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가족 관계, 가족 내 의사소통 등)

러시아인의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가족 관계, 가족 내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는 가정생활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소재들을 선별하여 제시한다.

⑤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친구, 교사와 학생 관계,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은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므로 학교에서의 수업과 생활은 문화 이해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개학과 방학, 학년 표시 방법, 학교의 교과목과 주당 수업 시간 수, 점수 표기 방법과 같은 공적인 정보는 물론,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외 활동 등 학교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들의 모든 행위는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⑥ 일상적인 사회생활 및 예절에 관한 내용(시간 준수, 선물, 의복, 식사, 작별 방식 등)

일반적인 러시아인의 하루 일과,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관습, 직장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 사회생활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관습적인 것 등을 이해하는 것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소재가 된다.

⑦ 통신에 관한 내용(전화, 편지, 인터넷, 전자 우편 등)

러시아인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화, 편지와 같은 통신 수단의 사용방법 그리고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된 인터넷과 전자 우편 등의 실제 사용 예를 들어 이들의 통신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⑧ 언어문화에 관한 내용(동화, 유머 등)

러시아 언어문화의 풍부한 유산을 가늠할 수 있는 동화나 유머와 같은 소재를 소개하여 러시아인의 의식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나) 러시아의 사회 문화적 현실과 문화유산을 잘 나타내고, 의사소통 상황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위에서 제시된 문화적 내용을 어떤 언어적 활동과 관련시켜 어떻게 조직하여 제시할 것인가는 러시아 어 교육의 두 목표인 언어적 목표와 문화적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문화적 내용은 아래 제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사회에 관한 내용(사회, 교육, 교통, 가치관 등)

문화적 내용에 러시아 사회 구조 및 교육 제도, 교통수단 등을 포함하고 러시아인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내용도 다룸으로써 러시아인의 사회생활을 이해한다.

② 환경에 관한 내용(자연환경, 환경관 등)

문화적 내용에 러시아의 광활하고 다양한 자연환경과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환경 문제 등을 포함하고 러시아인의 자연관 및 환경관도 다룸으로써 이들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③ 문명에 관한 내용(문화유적, 음악, 연극, 미술, 축제 등)

문화적 내용에 러시아의 풍부한 문화 유적, 음악, 연극, 미술, 축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습자들의 지적 호기심 및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문화적 내용을 구성한다.

① 내용은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문화적 내용은 실용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설명함으로써 그 내용을 의사소통할 때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구성하여 시대에 맞는 내용을 접하게 한다.

② 학습자의 흥미, 필요,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들의 나이나 지적 수준에 맞지 않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문화 소재로 내용을 구성할 경우 학습자들은 문화 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나아가 언어 학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내용은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흥미, 관심사, 사고 수준, 미래의 필요성, 이해 능력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언어 표현과 관련된 소재 영역은 위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 속의 항목들을 참고하여, 이 표현들이 적절한 맥락 속에서 활용되도록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특정한 소재 영역과 관련된 적합한 표현 방식이 자연스럽게 습득되도록 한다.

문화적 내용 중 언어 표현과 관련된 소재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 속의 항목들을 참고하여 이 표현들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의 이해를 증진하고 동시에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한다.

④ 문화 내용을 설명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다.

용어 등이 어려워 러시아어로 설명하기 힘들 경우에는 우리말로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⑤ 러시아의 일상생활 및 사회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우리 문화와 비교하여 차이점 및 공통점을 인식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러시아어 교육에서 문화를 학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 문화의 고유한 특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와 러시아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함이다. 따라서 문화적 소재는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비교와 이해가 가능한 것을 선정함으로써 양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아랍 어】

(1) 언어적 내용

(가) 언어 기능

- 듣기 -

① 자음의 발음과 모음의 장단 등에 따른 차이를 인지한다.

단어를 통해 아랍어의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익히고, 보통의 속도로 발음되는 일상적인 단어, 호칭, 간단한 인사말, 의례적인 표현들을 들어 봄으로써 아랍어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 태양문자와 월문자, 강세음과 비강세음의 차이와 단모음과 장모음의 구분에 중점을 둔다.

② 인사와 안부, 소개하는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인사, 안부 묻고 답하기, 자기 자신이나 친구의 소개, 감사와 사과 등 가장 기초적인 대인 관계와 관련된 대화를 듣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③ 간단한 교실 아랍어를 듣고 이에 맞게 행동한다.

수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행위나 활동을 지시하는 간단한 아랍어를 듣고 이에 맞게 행동한다.

④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듣고 이해한다.

대화와 연관된 시간, 장소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파악하여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듣고 이해한다.

사람의 이름, 학년, 나이, 직업, 국적, 거주지 등에 대한 간단한 정보나 사물의 모양, 색깔, 크기, 가격 등에 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⑥ 전화, 안내 방송의 간단한 내용을 듣고 이해한다.

전화나 안내 방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간단한 표현을 듣고 이해한다.

- 말하기 -

① 자음의 발음과 모음의 장단에 유의하여 들은 문장을 따라 말한다.

새로운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확히 반복한 후, 완전한 문장을 듣고 따라 하는 연습을 한다.

② 인사와 안부를 묻고 답한다.

인사와 안부는 아랍인과의 친교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기능이다.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시간에 따른 인사말과 안부를 묻고 답하는 말을 해 본다.

③ 간단한 전화 통화를 한다.

전화 통화 시에 사용되는 기본 표현을 익혀 말해 본다.

④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아랍인과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름, 나이, 국적, 거주지, 직업,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을 말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소개하는 연습을 한다.

⑤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묻거나 제공한다.

사람의 이름, 나이, 직업, 국적, 거주지 등이나 사물의 모양, 색깔, 크기 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교환한다.

- 읽기 -

①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다.

아랍 어 알파벳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비슷한 소리의 자음과 장단 모음에 유의하여 읽는다.

② 간단한 지시문을 읽고 이에 맞게 행동한다.

쉽고 간단한 유형의 지시문을 읽고 이해하여 이에 맞게 행동한다.

③ 간단한 안내문, 광고문, 시간표 등을 읽고 정보를 파악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간단한 안내문이나, 광고문 등 사실 자료에 가까운 다양한 종류의 실용적인 글을 읽고 글의 주제, 의도,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④ 간단한 이야기나 설명문을 읽고 상황 및 대의를 이해한다.

쉽고 간단한 이야기나 설명문을 읽고 글의 의도, 상황, 대의를 이해한다. 이때 단어의 의미만 독립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상황과 연계해서 뜻을 이해한다.

⑤ 간단한 메모, 엽서, 편지, 전자 우편 등을 읽고 이해한다.

간단한 메모, 엽서, 편지, 전자 우편 등의 일상적인 글을 읽고 글의 주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 쓰기 -

① 학습한 단어나 문장을 듣고 받아쓴다.

학습을 통해 의미를 알고 있는 단어, 간단한 표현이나 문장을 듣고 받아쓴다. 문장 받아쓰기의 경우, 처음에는 학습한 문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연습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앞서 배운 단어나 표현을 활용하여 만든 문장을 받아쓰는 연습을 한다.

② 그림의 상황에 맞는 간단한 글을 작성한다.

학교, 집, 시장, 거리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물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나서 그 명칭을 쓰거나, 인물의 사진 또는 상황을 담은 그림을 보고 그와 관련하여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간단한 글을 쓴다.

③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관한 간단한 글을 작성한다.

자기 소개, 주변 인물의 외모나 특징의 묘사, 일기 등의 간단한 글을 쓴다.

④ 간단한 서식에 필요한 정보를 채워 넣는다.

창조적인 글쓰기를 위한 준비 단계로 간단하게 만들어진 서식의 빈칸에 정확한 단어나 표현을 채워 넣는 연습을 한다.

⑤ 간단한 메모, 엽서, 편지, 전자 우편 등을 작성한다.

이미 익힌 표현을 사용하여 친구나 가족에게 보내는 간단한 메모, 서신, 전자우편 작성 등 실제적 상황에 기반을 둔 글쓰기를 연습한다.

(나) 언어 재료

- 발음 및 철자 -

현대 문어체 아랍 어(Modern Written Arabic)의 표준 발음과 정서법으로 한다.

현재 아랍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아랍 어는 문어체 아랍 어와 구어체 아랍 어로 나뉘는데 생활 아랍 어에서는 현대 문어체 아랍 어의 표준 발음과 정서법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 아랍 어 단계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음가를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랍 어는 우리말이나 영어와는 다른 독특한 음성 체계를 가지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조음점을 알고 발음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정확한 아랍 어 문자 식별을 위해 아랍 어의 여러 서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기본 서체인 나스크체를 익힌다.

- 어휘 -

일반계 고등학교 아랍 어 교육과정 [별표 II]의 기본 어휘 중 300 낱말 내외를 사용한다.

아랍인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와 위에 제시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보통 교과 아랍 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중 300 낱말 내외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어휘는 그림이나 사진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용 회화를 통한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낱말을 익히는 데에 중점을 둔다.

- 문법 -

① 문법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간단하고 단순한 기본 문법 사항만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 아랍 어는 기초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므로 기본적인 간단한 문법 사항을 최소한으로 다룬다. 먼저 기본 문형의 구조를 설명하고 문형에 나타난 문법 사항들을 알기 쉽게 지도한다.

② 어휘는 단수와 복수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 아랍 어에서는 기본적인 간단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므로 아랍 어 어휘에서 난해한 쌍수는 제외하고 단수와 복수만을 사용한다.

③ 문장은 주로 명사문을 사용하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사문을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장은 복잡한 인칭 변화를 가진 동사문 대신 가급적 쉬운 명사문 위주로 사용한다.

④ 동사의 경우 중자음 동사나 약동사, 함자 동사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사 변화 규칙이 난해하고 복잡한 중자음 동사나 약동사, 함자 동사의 경우는 학습자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의사소통 기본 표현 -

①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명사문을 사용한다.

아랍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표현을 학습한다. 동사변화 규칙이 난해하고 복잡한 동사문보다는 쉽고 간단한 명사문을 사용한다.

② 아랍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부 구어체아랍 어의 어휘 및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현대 문어체 아랍 어를 학습하되, 아랍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구어체 아랍 어 어휘나 표현도 일부 학습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인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

- 다음은 생활 아랍 어 교육과정에서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다.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주제 및 상황 그리고 기본 표현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
- 다음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생활 아랍 어’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표현 및 문장, 기타 문법 사항 등을 선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1. 개인의 생각

가. 가능성, 추측

مُمْكِنٌ.

رُبَّمَا.

나. 확신

أَكِيدُ.

مُتَأَكِّدٌ.

2. 개인의 느낌

가. 희로애락

عَجِيبٌ.

الْحَمْدُ لِلَّهِ.

مَا شَاءَ اللَّهُ.

أَنَا سَعِيدٌ.

나. 감각적 느낌

أَنَا جَوْعَانٌ.

أَنَا عَطْشَانٌ.

أَنَا شَبْعَانٌ.

3. 친교 활동

가. 인사

السَّلَامُ عَلَيْكُمْ.

صَبَاحَ الْخَيْرِ.

مَسَاءَ الْخَيْرِ.

مَرْحَبًا.

إِلَى اللِّقَاءِ.

مَعَ السَّلَامَةِ.

كَيْفَ الْحَالُ؟

فُرْصَةٌ سَعِيدَةٌ.

كُلُّ عَامٍ وَأَنْتُمْ بِخَيْرٍ.

나. 칭찬, 축하

مُمْتَنَانٌ!
حَسَنٌ.
طَيِّبٌ.
مَبْرُوكٌ!

4. 대인 관계

가. 소개

هَذَا صَدِيقِي.
هَذَا أَخِي.
هَذِهِ أُخْتِي.
مَا اسْمُكَ؟
أَنَا كُورِيٌّ.
هَلْ أَنْتَ طَالِبٌ؟

나. 전화

أَلُو.
هَلْ مَرِيَمٌ فِي الْبَيْتِ؟
لَحْظَةً.
دَقِيقَةً (وَاحِدَةً).
أَنْتَظِرُ قَلِيلًا.

다. 감사

شُكْرًا.

라. 사과와 양해

عَفْوًا.
أَسِيفٌ.
لَوْ سَمَحْتَ.

마. 위로

لَا بَأْسَ.

5. 권유와 부탁

가. 권유

هَلْ تَذْهَبُ مَعِي؟
هَيَّا يَنَّا.
تَفَضَّلْ.
مِنْ فَضْلِكَ.

나. 승낙과 거절

طَيِّبٌ.
إِنْ شَاءَ اللَّهُ.
لا، شُكْرًا.

6. 지시와 명령

가. 허락이나 금지

مَمْنُوعُ الدُّخُولِ.

حَرَامٌ.

تَقْضَى.

나. 의무

هَذَا وَاجِبٌ.

لَازِمٌ.

7. 정보 교환

가. 사실 확인

هَلْ أَنْتَ طَالِبٌ؟

هَلْ هَذَا قَلَمُكَ؟

나. 묘사

الْجَوُّ لَطِيفٌ.

هَذَا كَبِيرٌ.

8. 의견 교환

가. 의견 묻기, 발표

مَا رَأَيْكَ؟

هَذَا جَمِيلٌ جِدًّا.

나. 동의나 반대

نَعَمْ.

صَحِيحٌ.

لَسْتُ مَعَكَ.

غَيْرُ مَعْقُولٍ.

9. 문제 해결

가. 물건사기

هَلْ عِنْدَكَ بُرْتُقَالٌ؟

بِكَمْ هَذَا؟

나. 길 안내

إِلَى الْأَمَامِ.

إِلَى الْيَمِينِ.

إِلَى الْيَسَارِ.

عَلَى الطُّوْلِ.

الْمَتَحَفُّ بَعِيدٌ.

الْمَدْرَسَةُ قَرِيبَةٌ.

10. 창조적 활동

가. 편지 쓰기

عَزِيزِي.
صَدِيقِي.
المُحَلِّصُ.

(2) 문화적 내용

(가) 아랍 어권 국가의 일상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생활 아랍 어에서 다루는 문화는 아랍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이다. 아랍인의 일상생활 문화는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상 언어에는 종교적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일상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문화적 소재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단순한 암기와 기계적 사용을 넘어서 표현 속에 내재된 문화적 함의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

①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개인의 일상생활, 특히 같은 나이 또래의 아랍 학생들의 일과와 가정 생활 등 개인 생활과 관련된 소재들을 다룬다.

② 학교 생활에 관한 내용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생활과 수업 등은 문화 이해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학교 친구들이나 교사와의 관계, 학업 활동을 비롯하여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모든 행위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다룬다.

③ 취미, 오락, 운동, 여행 등 여가 선행에 관한 내용

아랍인들, 그 중에서도 같은 나이 또래의 아랍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소재가 될 수 있다. 취미 활동, 오락, 운동, 여행 등을 구체적인 소재로 다룰 수 있다.

④ 주변 생활 및 자연 환경 등에 관한 내용

아랍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대한 이해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기본적인 배경이 되므로 이와 관련된 소재들을 선별하여 다룬다.

⑤ 아랍인의 생활과 아랍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

아랍인의 일상생활, 기본적 의식주와 관련된 관습이나 특징, 독특한 아랍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나) 아랍 어권 국가의 사회 문화적 현실과 유산에 관련된 것으로 한다.

아랍 어 교육에서 문화를 학습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여 개 아랍 국가들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아랍 어와 아랍 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① 사회에 관한 내용

아랍 국가들의 사회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관습, 전통 등의 소재를 다룬다.

② 환경에 관한 내용

사막, 석유, 오아시스 등 아랍 국가들의 다양한 환경을 다룰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한다.

③ 문명에 관한 내용

파라오, 메소포타미아, 이슬람 문명 등 아랍권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명을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룬다.

④ 종교에 관한 내용

아랍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슬람 종교의 예배, 단식, 순례 등의 소재를 다룬다.

(다) 문화 내용의 효율적 구성과 교육을 위해 다음에 유의한다.

①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한다.

문화의 내용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흥미, 관심사, 사고 수준, 이해 능력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아랍 어권 국가의 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을 위주로 한다.

다양한 아랍 국가들 가운데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랍 어권 국가의 문화를 구성한다.

③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표현을 적극 활용한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다양한 문화 소재를 발굴하여 의사소통 표현상의 문화적 의미를 이해시키도록 한다.

④ 내용은 실제 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 실용적인 내용을 재미있게 구성한다.

문화적 내용은 이론적인 관점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설명함으로써 쉽고 흥미 있게 구성한다.

⑤ 아랍 어 권의 사회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우리 문화와 비교하여 차이점 및 공통점을 파악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우리 문화와 아랍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함이다. 따라서 문화적 소재는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⑥ 문화 내용 설명 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보통 교과 [별표 III]의 기본 어휘로 문화 내용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우리말을 사용하여 문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VI. 생활 외국어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1. 일반 지침

- (1) 교수·학습의 최종 목표가 언어 형태 학습이 아니라 의사소통기능 학습이 되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하나의 지식으로 언어 형태를 암기시키거나 언어 형태의 목록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설정하여 그 상황에 잘 대처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 (2) 새로운 내용의 이해와 습득, 적용이 용이하도록 수업을 단계별로 조직한다.
(예: 학습 준비 단계, 학습 단계, 학습 후 활동 단계)

수업은 학습자들의 이해와 습득, 적용이 용이하도록 단계별로 구성해야 하는데 크게는 학습 준비 단계 - 학습 단계 - 학습 후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학습 준비 단계에는 학습 단계에 이루어질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한다. 학습 단계에는 과제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학습해야 할 내용을 쉽게 습득하게 하고, 학습 후 단계에는 새로이 학습한 내용과 이미 학습한 내용을 통합하는 활동, 다른 언어기능과 연계된 활동을 한다.

- (3) 학습자의 필요와 지적 발달을 고려하여 나선형으로 학습 진도를 구성한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기능을 한 번 다루고 말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반복 학습이 되도록 한다. 학습자의 필요와 지적 발달을 고려하여, 수준을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확장하여 가르치도록 학습 진도를 구성한다.

- (4) 언어의 4 기능 중 되도록이면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연계시켜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종합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학습 초기부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기능을 연계하여 익힐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단어나 표

현을 듣고 따라 말하기, 글을 읽고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기와 같이 입체적으로 언어를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5)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면 오류의 즉각적인 수정은 피하고 차후 활동 시 교정한다.

의사소통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 한 학습자의 오류를 즉각적으로 수정하여 학습자의 자신감과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오류를 인식하여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학습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는 전체적인 지도를 통하여 수정해 준다.

(6) 필요에 따라서는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대적 변화와 학습자의 수준 및 흥미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 및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다.

교실 수업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목표와 내용에 따라 시청각 자료 및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8)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역할 놀이, 게임, 모의 놀이, 노래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다.

학습 초기에는 감각적인 동기 유발 방법이 많이 사용되며, 이후에는 성취 동기 유발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게임, 역할극 등 흥미 중심의 학습 활동을 많이 사용하며, 점차로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9) 문화적 내용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시청각 자료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것이므로, 문화적 내용은 가급적 그림,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2. 언어 기능

(1) 듣기

(가) 간단한 문장을 듣고, 지시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 보게 한다.

배운 표현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간단한 문장을 듣고 행동을 해 보는 것이다.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간단한 표현이나 학습한 내용을 듣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성취감과 흥미를 줄 수 있다.

(나) 낱말 및 간단한 표현 듣기에서 한 문장 듣기, 대화 듣기로 확장한다.

학습 초기 단계에는 단어를 듣고 그림 카드를 선택하거나 간단한 표현을 듣고 빠진 단어를 찾거나 단어 배열하기 등의 활동을 한다. 단어 및 간단한 표현을 습득한 후에는 한 문장 듣기, 대화 듣기로 확장하여 듣기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다) 주제어나 핵심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의도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대화에서 주제어, 핵심어를 찾아 전반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활동에는 문장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을 고르거나, 대화를 듣고 여러 개의 그림 카드 중 바탕 그림이 대화의 내용과 어울리는 것을 고르도록 하는 활동 등이 있다.

(2) 말하기

(가)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정확히 따라 하도록 한다.

학습 초기 단계에는 CD나 동영상으로 구성된 학습 자료의 원어민의 발음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발음을 따라하게 한다. 한국어에 없는 발음을 따라할 때는 틀리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입 모양 등을 보여 주면서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자주 사용하도록 한다.

인사와 소개하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간단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실제 상황을 설정하여 말하도록 한다. 간단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학습한 후에는 그림활동,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기, 두 그림의 차이점 찾아 말하기, 그림의 순서를 찾고 그 줄거리 말하기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 역할 놀이, 게임, 모의 놀이 등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한다.

역할 놀이, 게임, 모의 놀이 학습은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활동이며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3) 읽기

(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나 대화문을 발음, 강세, 억양 등에 유의하면서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학습 초기 단계에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은 학습자의 발음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므로 인사, 소개, 감사, 사과와 같은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내용의 글이나 대화문을 발음, 강세, 억양 등에 유의하면서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나) 간단한 글이나 대화문을 읽고 주제, 요지, 대의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간단한 글이나 대화문을 읽고 주제어 찾기, 필요한 정보 찾기 등을 통해서 글의 주제, 요지, 대의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내용을 담은 광고문, 포스터, 도로 표지, 공공 안내문 등을 읽고 의미나 요지를 파악하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다양한 종류의 실용적인 글로 구성된 광고문, 포스터, 도로 표지, 공공 안내문 등의 실제 자료를 제공하여 읽어 보게 하고 그 의미나 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서는 모둠별로 광고문 만들기 등을 해본다.

(4) 쓰기

(가) 듣고 받아쓰는 연습을 가능한 한 자주 하도록 한다.

발음이나 억양, 강세, 리듬의 차이로 구분하기 힘든 단어를 듣고 써 보거나 간단한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써보도록 한다. 또는 간단한 대화를 듣고 빈칸 채우기 활동을 통해 쓰기 활동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나 대화문을 철자, 구두점 등에 유의하며 써보도록 한다.

문자를 익힌 후에는 그림 카드를 사용하거나 게임 등을 통하여 철자나 구두점을 흥미있게 익힌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며 아울러 구두 언어로 배운 단어를 써 보는 기회도 줄 수 있다. 학습 초기에는 빈칸 채우기와 같은 통제 작문이나 유도 작문 연습으로부터 시작한다.

(다) 일기나 편지 형식으로 자신에 관한 글을 써보도록 한다.

교사는 외국어로 일기나 편지를 쓰게 할 때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 자유롭게 써 나가도록 지도한다. 일기나 편지 쓰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 뿐 아니라 흥미 있고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해 쓸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어로 글을 쓰는 일에 친숙하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사는 일기나 편지 쓰기를 지도할 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인상적이었던 일에 대해 쓰도록 함으로써 똑같은 내용과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라) 카드, 전자 우편 등을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작성하도록 한다.

카드, 전자우편과 같은 형식은 글을 통해 원어민과 의사소통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형식이다. 생일 카드를 쓸 경우, 현실감이 있도록 실제로 카드를 작성하여 본다. 전자 우편의 경우, 외국인들이 직접 제작한 전자우편의 예들을 인터넷을 통해 살펴본다면 전자우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문 화

(1) 우리 문화와 각 언어권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외국어라는 창을 통하여 외국의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는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언어문화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문화에 관한 내용은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너무 전문적이 아닌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문화를 소개할 때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만 강조하지 말고 공통점도 함께 찾아가면서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2) 고정관념이나 지식 중심의 학습보다는 문화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고정관념이나 지식 중심의 학습보다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은 젓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지만, 서양 사람은 포크와 나이프를 쓰고, 인도인은 도구 대신 오른손을 이용해 음식을 먹는다. 이는 서로의 음식 종류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3) 현장감 있는 다양한 자료(그림, 사진, 동영상 등)를 활용하여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한다.

언어를 습득할 때에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중요함으로 학습자에게 현장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직접 접하도록 한다.

(4)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수업에서 다루어질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학습자 스스로가 실물 자료나 사진 자료를 준비하여 보여 주거나, 비디오 등의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한다. 발표할 때, 모둠원 전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모둠의 학습자들은 미리 책이나 인터넷의 내용을 읽어 보고 와서 발표를 듣고 질문을 한다. 교사는 개인별, 모둠별 조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을 도울 수 있고, 발표 준비, 내용, 태도를 종합하여 약간의 차별을 두고 간단한 보상을 함으로써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VII. 생활 외국어 과목의 평가

1. 평가 지침

(1) 언어 재료와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기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평가한다.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타당도이다. 학습 목표는 각 단원 혹은 차시에서 다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이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교수·학습 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중학교 생활 외국어 각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인 ‘언어 재료’에 규정되어 있는 발음 및 철자, 어휘, 문법 내용을 비롯하여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되어 있는 기능, 상황별 기본 표현 등은 교수·학습 내용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요소들로 이들 가운데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고르게 평가한다.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기능을 균형 있게 기르는 것이다.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네 기능을 고루 평가하지 않는다면 평가의 타당도가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듣기 평가는 외국어 음소를 식별하는 것에서부터 단어, 개별 문장의 이해, 문장 간의 조직 및 순서 등을 이해하는지를 점검한다. 말하기 평가는 단어, 구, 문장을 강세 및 억양에 맞게 말하였는지, 의사소통 상황에 알맞게 대화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읽기 평가는 단어, 구, 문장을 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짧은 글을 읽고 소재, 주제, 대의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쓰기 평가는 철자, 단어, 문장 쓰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짧은 글을 쓸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처럼 각 기능별로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 등과 같이 두 기능 이상이 통합된 통합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통합적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지엽적이고 예외적인 사항의 평가보다 언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과거 전통적인 교수 방법에 의한 분리 평가 방식에서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이거나 예외적인 사항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아보게

한다든지, 문항 개발과 채점 등 시험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실제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언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리 평가보다는 두개 이상의 언어 기능을 동시에 평가하는 통합 평가가 효율적일 것이다. 통합 평가 유형으로는 구술 면접, 빈칸 메우기, 받아쓰기 등이 있다.

(4) 단순한 암기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이해와 활용 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단편적이거나 지엽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분리 평가에서는 외국어 지식을 암기하여 답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면, 통합 평가에서는 단순히 암기한 지식을 평가하기 보다는 외국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학습된 지식은 활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산지식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초기 학습 단계에서는 암기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암기된 지식에서 출발하여 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어 이해와 활용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5) 문화 부분에 대한 평가는 단편적인 지식을 측정하기보다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관련된 문화의 이해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문화 부분에 대한 평가는 문화적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 학습 소재를 참조하여 평가하되, 각 소재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문화 부분을 평가할 때는 각 외국어에서 다루어야 할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담겨있는 문화적 내용, 표현 양식, 문화적 함의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평가 방법

다음에 제시된 방법 이외에 교사가 자율적으로 평가 방법을 고안, 운영할 수 있다.

(1) 듣기

- (가) 기본 어휘나 간단한 표현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나) 간단한 글이나 대화를 듣고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 (다) 간단한 글이나 대화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라) 간단한 글이나 대화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초기 단계에는 소리를 듣고 발음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리 식별 능력은 맥락과 동떨어진 소리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단어나 표현 속에서 특정 소리를 식별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기본 어휘나 간단한 표현을 듣고 이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는 일정한 상황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거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질문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의 소재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쉽고 짧은 글(설명문, 노랫말, 격언, 시구, 콩트의 일부 등)이나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심의 대화문으로 한다. 평가 시 그림, 사진, 도표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문항의 형태로는 객관식 평가에서는 선다형, 진위형, 연결형 등을 사용하고, 주관식 평가에서는 단답형, 받아쓰기, 듣고 필기하기 등을 활용한다.

(2) 말하기

- (가) 학습한 내용을 역할놀이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나)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말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다)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간단히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라) 학습한 대화나 글의 내용을 듣고 간단히 요약해 보게 한다.

말하기 평가는 초보 수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한 대화문을 역할을 나누어 발음과 억양을 살려 그대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 예컨대 나이, 가족 관계, 사는 곳, 친구 관계, 취미, 장래 희망 등에 대해 말하는 능력이나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해 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말하기 평가로는 학습한 대화나 글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대화나 글의 소재는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자가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대화문의 소재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목록을 참조한다. 말하기 평가 형태로는 문장 반복하기, 정보차 메우기, 역할극, 구술 면접, 구두 발표 등이 있다.

(3) 읽기

- (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나 대화문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평가한다.
- (나) 간단한 글이나 대화문을 읽고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 (다) 간단한 글이나 대화문을 읽고 주제, 대의 등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라) 간단한 글이나 대화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습 초기 단계에는 간단한 글이나 대화문을 큰소리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발음 규칙에 따라 적절히 발음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쉽고 짧게 작성된 초대장, 문자 메시지, 메모, 전자 우편, 편지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간단한 글이나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된 대화

문을 읽고, 중요한 정보를 찾거나 주제나 대강의 뜻을 파악하도록 한다. 읽기 평가의 유형으로는 진위형, 선다형, 연결형, 배열형 등의 객관식 평가 문항과 단답형, 완성형, 빈칸 메우기 등의 주관식 유형을 활용한다.

(4) 쓰기

- (가) 간단한 글이나 대화문을 정확하게 듣고 받아쓰는 능력을 평가한다.
- (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쓰는 능력을 평가한다.
- (다)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쓰는 능력을 평가한다.
- (라) 카드, 일기, 편지, 전자 우편 등의 형식을 통해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글을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습 초기 단계에는 철자를 정서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쓰고 단어, 문장을 정확하게 베껴 쓰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간단한 글이나 대화문을 듣고 받아쓰는 능력을 평가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자신과 관련된 간단한 내용의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때 글의 형식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간단한 내용의 초청장, 카드, 일기, 편지, 전자 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쓰기 평가의 형태로는 간접 평가 방식의 선다형, 배열형, 서식 완성하기, 낱말 형태 변형하여 글 완성하기, 빈칸 메우기, 베껴 쓰기, 문장 변형하기, 주어진 글을 내용, 문법, 어휘, 맞춤법, 구두점을 중심으로 편집하기 등이 있고, 직접 평가 방식으로는 자유 작문, 통제 작문, 요약하기 등이 있다.

(5) 문화

- (가)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된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나) 교과서에서 다룬 문화적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발표하거나 제출하게 한다.
- (다) 교사와의 면담, 발표, 학생 상호간의 대화 등을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태도 등을 평가한다.

문화 이해 능력의 평가는 앞서 제시한 언어 4기능 평가의 다양한 문항 형태를 사용하여 초기 단계에는 의사소통 기능 및 기본 표현과 관련된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적 함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예컨대 국가별로 독특한 인사 방식, 존댓말 또는 공손한 표현, 음식과 관계되는 표현이나 예절, 편지 형식, 간단한 서식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수행 평가의 형태로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된 자료(주요 도시명, 위치, 대표적 유적지, 특산물 등)를 찾아 발표하게 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거나 토론하도록 한다.

VIII. 생활 외국어 과목 신·구 교육과정 비교

| 항목 | 제 7차 교육과정 (1997)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
| 체제 |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 좌동 |
| 성격 | 1. 제2외국어의 실용적 가치 : 제2외국어의 구성과 실용적 가치 2.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 : 미래의 국제화, 정보화 사회 대비 3. 과목연계성 : 외국어 학습의 바탕 마련 4. 외국어 교육 목표 : 세계속의 한국인으로서 손색없는 행동 양식 배양 | 1.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 :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의 언어와 문화 교육 필요 2. 제2외국어의 실용적 가치 : 제2외국어의 구성과 실용적 가치 3. 문화 교육의 중요성 : 다양한 문화 체험의 중요성 4. 과목연계성 : 외국어 학습의 바탕 마련 5. 외국어 교육 목표 : 세계속의 한국인으로서 손색없는 행동 양식 배양 |
| 목표 | 1. 총괄목표: 의사소통 능력 배양, 문화 이해 2. 하위목표 6개: 1) 듣기 능력, 2) 말하기 능력, 3) 읽기, 4) 쓰기, 5) 문화 이해, 6) 태도 | 1. 총괄목표 : 의사소통 능력 배양, 문화 이해 2. 중위목표 3개 : 1) 언어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2) 문화(일상생활, 사회, 언어, 비교 문화), 3) 태도 3. 하위목표 25개 |
| 내용 체계 및 내용 진술 | 1. 의사소통 활동 과 언어 재료로 구분 2. 의사소통 활동 : 언어 4 기능에 대한 활동 중심의 교육 내용을 과목별로 제시 3. 언어 재료 : 발음, 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능, 문화 내용 제시 | 1.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으로 구분 2. 언어적 내용 : 언어 기능과 언어 재료로 구분 3. 언어 기능 : 언어 4 기능의 영역별 내용 제시 4. 언어 재료 : 발음 및 철자(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본 표현 내용 제시 5. 문화적 내용 : 일상생활 문화, 사회 문화와 관련된 내용 제시 |
| 교수·학습 방법 | 1. 8개 항목(학생 중심, 의사소통 활동 중심, 듣기 및 말하기, 읽기 및 쓰기, 적극적인 수업 참여 유도, 문화 관련 내용,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교과용 도서의 재구성) | 1. 대항목 3개(일반 지침, 언어 기능, 문화) 2. 일반 지침 : 9개의 지침 제시 3. 언어 기능 : 언어 4 기능에 따른 13가지 방법 제시 4. 문화 : 4가지 방법 제시 |
| 평가 | 1. 4개 항목(언어 4 기능, 심리적 부담 경감, 종합적 평가, 평가 결과 반영 및 활용) | 1. 대항목 2개(평가 지침, 평가 방법) 2. 평가 지침 : 5개의 지침 제시 3. 평가 방법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의 5개 중항목에 따르는 15가지 방법 제시 |

참고 문헌

- 교육부(1995). 『고등학교 외국어과 교육과정 해설(II)』.
- 교육부(2004). 제7차 교육과정 백서.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
- 교육부(1997a). 외국어과 교육과정 (I).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4]
- 교육부(1997b). 외국어과 교육과정 (II).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4]
- 교육부(1997c). 중학교 재량활동의 선택과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6]
- 교육부(199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교육부고시 1997-15호[별책1]
- 교육부(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외국어-』.
- 교육부(2000).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외국어(영어), 재량 활동,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총론-』. 교육부고시 1997-15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강창동·김영춘·이근님(2006). 『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권오현(2003). 『문화와 외국어교육』, 『독어교육 제28집』. 한국독어독문학회교육학회.
- 김영숙·김은주·남지영·문영인·신정선·최연희(2004). 『영어과 교육론 1 : 원리와 적용』. 한국문화사.
- 김영춘·김영춘·이근님(2003). 『제2외국어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영춘·김영춘·이근님(2005).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5-13.
- 김영춘·손성태·신형욱·이근님(2006).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선택과목(서양어권)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영춘·손민정·오명근·이용백(2006). 『고등학교 외국어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 중국과, 일본어과, 러시아 어과, 아랍 어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형욱(1999).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비교』. 『독어교육 제17집』. 한국독어독문학회교육학회
- 손성태·신형욱·이근님·이문복(2006). 『고등학교 외국어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 어과, 스페인 어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손민정·오명근·이용백(2006).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선택과목(동양어권)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형욱(2003). 제7차 교육과정 독일어과 ‘기본 어휘표’ 제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외국어교육논집*. 제17호. 117-136.
- 신형욱(2005).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어휘 및 문법 제시방안”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77-93.
- 심봉섭(2003). 제7차 제2외국어 교육과정 개정방식 개선 방안. *교육과정연구*. 제21권 제3호.
- 심봉섭 (2005)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 구체화 방안』.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세미나, 2005. 6. 20.
- 이근님(1997).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이근님(2004). 『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 구성 방안 연구』. 『외국어교육 Vol. 11, No. 4』.
- 박매란 · 박주경 · 이병민 · 이소영 · 이홍수 · 최연희(2005). 『외국어 학습 · 교수의 원리』. Pearson Education Korea.
- 조난심 · 김재춘 · 박순경 · 소경희 · 조덕주 · 홍후조(1999).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영근(2002). 「21세기의 제2외국어 교육 정책」. 『교육 한국 Vol. 15』.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외국어(영어), 재량 활동,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2008년 4월 1일 발행

저작권자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발행 : 한 솔 사
인쇄 : 한 솔 사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98-3
